國語學叢書 47

노걸대와 박통사의 언어

석주연 저

태학사

머리말

이 책은 200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했던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老乞大』와 『朴通事』의 諺解에 대한 國語學的 硏究"의 제목을 바꾸고 그 목차 및 내용을 부분적으로 손질한 것이다. 책 제목을 '노걸대와 박통사의 언어'라 한 것은 이 책이 국어학적 내용을 주로 하고 있지만 국어학적 내용과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중국어 원문의 변화 양상과 원문 번역의 특징에 대해서도 논의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초고에 대한 집필은 1996년 겨울부터 1999년 봄까지 저자가 머물렀던 영국 런던대학교의 도서관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다. 특히 『老乞大』를 다룬 박사학위논문의 집필 작업 중 런던에 머물렀던 덕분에 『淸語老乞大』와 같은 희귀본을 남다른 느낌으로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

『老乞大』와 『朴通事』는 옛 사람들의 중국어 회화 학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책이었다. 이러한 실용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16세기이래 18세기까지 여러 번 우리말로 번역, 간행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老乞大』와 『朴通事』의 우리말 번역본은 이들 문헌을 배제하고는 16세기 이후의 우리말 역사에 대해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어사적 중요성을 가진다. 국어사 연구의 대상 문헌이 성격이 들쭉날쭉하여 문헌에 반영된 국어사적 사실을 관찰하고 이를 올바르게 해석해 내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문헌과 같은 동질적인 국어사 자료가 세기별로 간행되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저자와 같은 국어학 연구자의 탐구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국어사 연구는 국어사 연구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의를 지니지만 현대국어를 이해하는 데에도 든든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국어는 어제의 국어와 결코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어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기능이 있다면 그 원리와 기능의 본질적 부분은 오늘의 국어의 것과 어제의 국어의 것이 다르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老乞大』와 『朴通事』를 대상으로 작업하면서 저자는 이러한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저자는 『老乞大』와 『朴通事』를 주로 국어학적 시각으로 다루었지만 이 문헌들을 중국어사적 관점과 더불어 외국어 교육사의 관점에서, 생활사적 관점에서 연구할 가치 역시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방면으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제 미흡하기 짝이 없는 책을 세상에 내보내려 하니 부끄러움과 두려움만이 앞선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말하기 전이 책이 이루어지기까지 저자에게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저자의 지도교수이신 李賢熙 선생님을 비롯하여 논문 심사에 참여하시어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따뜻한 충고와 가르침을 아끼지 않으셨던 安秉禧 선생님, 高永根 선생님, 金倉燮 선생님, 鄭在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저자의 지도교수이신 李賢熙 선생님께 입은 은혜는 잊을 수 없는 것으로 선생님께서는 폭넓고 깊이 있는 공부란 어떠한 것인지 몸소 보여 주시며 미숙하기만 한 저자를 지금까지 학문의 길로 이끌어 오셨다.

이밖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서 강의와 논문으로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어주신 여러 은사님들의 은혜에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분들께 학은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저자의 큰 행운이었다. 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저자를 국어학에 눈뜨게 해주셨던 여

러 선생님들의 은혜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 형식으로 저자에게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셨던 선배, 동학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저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 연구자 여러분들의 업적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저자가 크고 작은 좌절을 만나 낙담할 때마다 사랑과 격려로 북돋워 주었던 남편 李尙郁이 없었다면 이 책의 완성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고마움을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늘 바쁘기만 한 며느리를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시부모님께도 감사드린다. 부족한 논문을 국어학총서로 선정해 주신 국어학회의 여러 선생님들과, 책을 출판하는 데 도움을 주신 池賢求 사장님을 비롯하여 이은희 씨 등 太學社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은 최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감내하고 계신 부모님께 바쳐져야 할 것이다. 저자에게 최초의 우리말을 선사해 주신 그 분들께 이 책이 고통과 슬픔을 덜 수 있는 작은 위안이라도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2003년 12월

석주연

차 례

머리말 3

1 서 론

1.1. 연구목적 9
1.2. 연구사의 검토 12
1.3. 연구방법 및 논의의 구성 16

2 자료적 성격

2.1. 『老乞大』의 언해본 21
2.1.1. 『老乞大』와 그 書名 21
2.1.2. 『老乞大』 諺解本의 異本 26
2.1.3. 『老乞大』의 중국어 원문 및 언해 양상의 비교 60
2.2. 『朴通事』의 언해본 98
2.2.1. 『朴通事』와 그 書名 98
2.2.2. 『朴通事』의 異本들 100
2.2.3. 『朴通事』의 중국어 원문 및 언해 양상의 비교 110

3 形態・統辭的 特徵의 比較

3.1. 형태적 특징의 비교 129
3.1.1. 종결형 어미 구조체 '-거다/-어다'의 비교 129
3.1.2. 연결형 어미구조체 '-거니', '-거든', '-면'의 비교 140
3.2. 통사적 특징의 비교 168
3.2.1. 인용문의 비교 168
3.2.2. 장형사동구문의 비교 191
3.2.3. 명령문의 비교 219
3.2.4. 의문문의 비교 231
3.2.5. 의사타진구문의 비교 252
3.2.6. 시간경과구문의 비교 269

4 어휘의 비교

4.1. 동사류 및 형용사류 279
4.2. 명사류 290
4.3. 부사류 309

5 결 론

5.1. 자료적 성격 314
5.2. 형태・통사적 특징의 비교 319
5.3. 어휘의 비교 327

참고문헌 331

1
서 론

1.1. 연구목적

역사적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 작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당면하게 되는 막막함은 우리의 직관이 닿지 않는 자료를 연구한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언어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는 과거의 언어가 현재의 언어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한편 현재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언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특징을 고루 갖추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과거의 언어가 현재의 언어와 상당히 다른 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기능 및 구조와 완전하게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과거의 언어 역시 언어 본래의 기능을 그 나름의 체계 속에서 충실하게 수행했던 인간 문화의 일부분이었을 것이기 때문이

다.

15세기 국어의 경어법 체계가 지금의 그것과 상당히 다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5세기 국어 경어법을 연구하는 연구방법이 현대국어 경어법을 연구하는 연구방법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를 수는 없는 것이다. 15세기 국어 경어법 범주의 본래적 성격과 현대국어 경어법 범주의 본래적 성격이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없었다면 15세기 국어 경어법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특히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본다면 국어가 15세기에서든 지금에 있어서든 모두 의사소통을 근본 기능으로 하는 매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어느 시대의 언어이건 의사소통의 매체로서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언어란 상상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의 언어를 연구함에 있어 현재의 언어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고안된 연구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의사소통의 매체가 됨으로써 언어가 언어로서 인간에게 수용되고 공유된다. 언어가 체계를 가지는 것 역시 언어가 의사소통의 기능을 가진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의 언어와 현재의 언어간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과거와 현재에 통용되는 언어가 모두 '의사소통의 매체가 되는 언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과거 언어의 모습이 반영된 역사적 문헌을 올바르게 해석해 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국어의 역사적 연구를 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난점 중의 하나는 연구대상이 되는 문헌들의 성격이 균질적이지 않아 자료에 반영된 언어 현상과 그 해석이 문헌의 종류에 따라 편차를 심하게 보인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관찰된 언어 현상이 과연 그 시대 언어 체계 전반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현상인가 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해석이 타당

한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 책에서 행하고자 하는 『老乞大』, 『朴通事』 언해본의 異本들을 비교하여 국어학적 특징들을 추출해 내고자 하는 작업은 앞에서 언급했던 기존 연구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은 16세기 이래 시대적 간격을 두고 동일한 텍스트에 대해 언해가 행해지거나 동일한 원문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과 그에 따른 언해가 행해져 비교적 자료 자체의 성격이 균질적이기 때문에 앞에서 지적한 문헌 연구 방법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老乞大』와 『朴通事』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행해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간행 연대가 16~18세기에 걸치는 모든 異本들을 놓고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작업은 별로 없었던 듯하다. 이러한 작업은 각각의 문헌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헌 자료에 대해 시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번역자들의 번역 태도 추이와 국어의 문법 형태, 어휘 형태 등의 역사적 변화를 일관되게 조망하게 할 뿐 아니라 언해본 『老乞大』, 『朴通事』 양자를 세기별로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헌을 중심으로 한 국어사 연구를 행함에 있어 동질적인 성격을 가지는 상이한 문헌 각각에 대한 연구가 상호보완의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老乞大』와 『朴通事』는 元末이나 明初에 그 최초의 편찬이 이루어졌다 한다. 그런데 이 책은 특히 조선조 사역원 역관들의 한어 학습서 및 역과 한학서로서 공고한 위치를 점해 왔다. 따라서 그 내용이 한어 학습서로서의 용도에 걸맞게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어 내용과 문체에 있어 매우 실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여러 차례 원문의 개수나 언해가 이루어진 것도 따지고 보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실용적인 성격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 내용이 대화체로 이루

어져 있는 탓에 한어 원문이 중국의 구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에 대응되는 언해문도 우리말의 구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암암리에 인식되어 온 것 같다. 한어 원문을 근거로 한 언해 양상에 대한 정밀한 관찰은 위의 인식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한 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들어 『老乞大』, 『朴通事』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가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국어사 연구에 있어 문헌에 대한 정밀하고 상세한 서지적 연구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 문헌에 반영된 언해문에 대한 국어학적 검토를 행하고 여기서 발견된 통시적 변화를 올바로 기술하고 해석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16~18세기에 걸친 언해본 『老乞大』, 『朴通事』에 반영된 언해문의 수직적 비교 작업과 그 결과는 국어사 기술에 있어 가지는 함축이 막대하리라 생각된다.

이 책에서는 시대별로 『老乞大』, 『朴通事』 각각의 문헌들이 보이는 국어학적 특징과 언해 양상의 특징을 수평적으로 혹은 수직적으로 비교·대조하여 언해본 『老乞大』, 『朴通事』의 異本들이 반영하고 있는 국어의 역사적 변화와 번역 양상의 추이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기술하여 근대국어라는 국어사의 한 단계를 체계적으로 조망해 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1.2. 연구사의 검토

『老乞大』와 『朴通事』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는 서지학적인 연구, 개별적인 문법 사항에 초점을 둔 연구, 문법사적 사항을 포함한 이본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 연구, 한어 원문에 대한 연구 등으로 나뉠 수 있다.

『老乞大』와 『朴通事』의 서지학적 연구로서 4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시기의 것으로 방종현(1946ㄱ, ㄴ), 김사엽(1959), 민영규(1964), 이기문(1964), 남광우(1972), 김완진(1976), 김문웅(1984), 홍윤표(1985), 기주연(1986), 박희룡(1988)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방종현(1946ㄱ, ㄴ)은 널리 쓰이고 있는 『老乞大諺解』의 영인저본이 미교정본임을 밝히고 이 미교정본과 교정본 간의 차이에 관해 논하였다. 남광우(1972)에서는 당시 새로이 발견된 『老乞大』의 언해본을 『飜譯老乞大』라 칭하였는데 이후 이 명칭이 학계에 통용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안병희(1996)은 그 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老乞大』의 이본 중 『老乞大新釋諺解』를 소개하였으며 한어를 번역한 『老乞大』 諺解本의 이본 전반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을 행하였다. 이로써 『飜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에 치중되었던 서지학적 연구가 17세기 이후 이본들에까지 확장되어 이루어진 셈이다. 1990년대에는 최세진이 『飜譯老乞大』의 한어를 번역하면서 참조하였다는 舊本의 한어본 『老乞大』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老乞大』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가 활기를 띠었다. 정광·남권희·양오진(1999)에서 舊本의 한어본 『老乞大』를 소개하였으며 정광(2000)에서는 『老朴集覽』과 『老乞大』·『朴通事』의 舊本을 상호관련 시켜 다루고 여기에 반영된 원대 한어의 특징에 대해 상세한 고찰을 행했다. 이밖에 강신항(2000)에서 역학서 일반을 다루면서 『老乞大』와 『朴通事』 이본들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은 개별적인 문법사적 사항을 다루는 데 있어, 특히 근대국어 시기의 문법사 일반을 기술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료가 되어 왔다. 따라서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을 대상 자료로 하여 근대국어 시기의 문법적 특징을 논한 업적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논의들은 주로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 중 일부에 해당하는 『飜譯老乞大』, 『老乞大諺解』, 『飜譯朴通事』, 『朴通事諺解』에 집중된 감이 있다. 여기서는 음운론적 연구 업적은 제외하고 주로 문법론적 연구 업적을 중심으로 하되 간혹 17세기 이후의 이본을 연구대상 자료로 포함시킨 업적들을 주로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전광현(1971), 장경희(1977), 이승욱(1981), 박태권(1980, 1981, 1983, 1984), 왕문용(1989) 등을 대표적 업적으로 들 수 있다. 장경희(1977)에서는 17세기 국어의 종결어미를 기술하되 『老乞大諺解』와 『朴通事諺解』를 주요 대상자료로 포함시킨 업적으로 주목된다. 이승욱(1981)에서도 조사와 어미의 출현 양상 등 18세기 국어의 특징을 살피되 그 주요 대상자료로 『老乞大』의 언해본을 포함시켜 논의를 행한 바 있다. 특히 『淸語老乞大』와 『蒙語老乞大』를 그 주요 대상자료에 포함시키고 있음이 주목된다. 박태권(1980)은 『飜譯老乞大』의 의문문에 대해 논의한 업적이며 김문웅(1984)는 『重刊老乞大諺解』에 있어 처격조사가 '에'로 단일화를 보임과 의문법 어미의 변화, 그리고 문법 형태의 소실 등을 지적하고 있다. 서상규(1991) 역시 『飜譯老乞大』를 중심으로 한 문법적 고찰로 주목되며 특히 서상규(1992) 등은 이본들 간 품사 대조 색인으로 후행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문법사적 사항을 포함하여 이본간의 비교에 초점을 둔 연구로 무엇보다도 김완진(1975), 김완진(1976), 이현희(1994ㅂ)이 대표적이다. 김완진(1975)는 『飜譯朴通事』와 『朴通事諺解』를 주 대상으로 그 형태·통사적 특징들에 대한 비교를 행했고 김완진(1976)은 의도형 '오/우'의 소멸, 의사타진구문 등의 구문 유형의 변화 양상,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한자 표기 강화 현상 등 제 문법사적 사실들뿐 아니라 번역태도 등 여러 방면에 걸쳐 『飜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를 비교한

업적이다. 이현희(1994ㅂ)은 드물게 『老乞大』 한어본의 17세기 이후 언해본들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문법사적 사실에 대한 역주를 꾀한 업적으로 어형 하나 하나에 대한 정밀한 주석 작업이 주목된다. 또 오금자(1978), 박희룡(1988), 기주연(1986) 등을 이본 비교에 관한 연구로 꼽을 수 있는데 이들 모두 『飜譯朴通事』와 『朴通事諺解』, 『飜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 등의 비교에 치중한 업적들이다. 이밖에 18세기 이본인 『朴通事新釋諺解』를 비교 대상에 포함시킨 논의로 김원석(1990)이 있다.

이밖에 언해본들의 해제 작업으로 김사엽(1959), 남광우(1972), 김문웅(1984), 홍윤표(1985) 등이 있으며 장경희(1993)은 『老乞大』, 『朴通事』 언해본의 특징을 이본별로 간략하게 서술하고 그 연구 업적을 총망라하였다. 또 『老乞大諺解』와 『朴通事諺解』의 서문을 전재하고 현대어로 해석한 정승혜(1998) 등도 참조된다. 이밖에 『老乞大諺解』와 『朴通事諺解』에 나타나는 어휘, 그 중에서도 차용어에 관해서 논의하되 한자음 변화의 관점에서 차용어의 연원이나 변화 문제를 다룬 리득춘(1992)가 주목되는 업적이다. 한편 한어 원문에 관한 연구로는 양오진(1998)이 있는데 『飜譯老乞大』와 『飜譯朴通事』 원문의 元代 한어적 특징을 소상하게 밝혀 놓고 있다.

지금까지 『老乞大』, 『朴通事』의 언해본들에 관한 연구 업적들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업적들이 『飜譯老乞大』, 『老乞大諺解』, 『飜譯朴通事』, 『朴通事諺解』 등 일부 이본들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17세기 이후의 이본들을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키더라도 일부의 문헌만을 포함시켜 논의를 행한 감이 있다.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진 서지학적 연구의 성과 등을 토대로 『老乞大』, 『朴通事』의 언해본 이본 전반에 걸친 언해 양상 및 형태 · 통사적 특징들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들 전반에 관한 연구는 국어사적 연구에 기

여하는 것은 물론 각 문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1.3. 연구방법 및 논의의 구성

다음의 표에서 제시된 자료들이 본고의 대상 자료이다.

【주자료】

문헌명	약호
飜譯老乞大(1510년경)	飜老
老乞大諺解(1670년)	老諺
平壤版 老乞大諺解(1745년)	平老諺
老乞大新釋諺解(1763년)	老新
重刊老乞大諺解(1795년)	重老

문헌명	약호
飜譯朴通事(1510년경)	飜朴
朴通事諺解(1677년)	朴諺
朴通事新釋諺解(1765년)	朴新

【보조자료】

문헌명	약호
淸語老乞大(1765년)	淸老
蒙語老乞大(1790년)	蒙老

이들 자료 중 【보조자료】로 분류된 『淸語老乞大』와 『蒙語老乞大』는 한어 번역 자료가 아니기에 이들을 비교 대상에 넣는 일은 다소 무리가 따르는 면이 없지 않다. 우선 한어 원문에 근거한 번역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국어사적 사실 등이 폄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그들이 한어본 『老乞大』를 번역한 언해본들과 분명 동일한 내용에서 연원하였다는 점과, 그들과 근접한 시대에 간행된 자료들과 국어학적 특징에 있어 수평적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어본 『老乞大』의 언해본들과의 비교 대상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들을 한어본 『老乞大』의 언해본들과 다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또 언해 부분을 다른 한어본 『老乞大』의 언해본들의 언해와 비교해 봄으로써 『淸語老乞大』와 『蒙語老乞大』가 한어본 『老乞大』의 이본들 중 어떤 책을 淸語나 蒙語로 번역한 책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한 책인지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일련의 자료를 입력하여 구축된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문장별로 대응되는 부분들을 나열하고 수평적·수직적 비교를 행하는데 간행의 연도별로 자료들을 나열하고 비교를 행한다. 이 때 보조자료인 『淸語老乞大』와 『蒙語老乞大』도 연대별 순서를 고려하여 『老乞大新釋諺解』와 『重刊老乞大諺解』의 사이에 두게 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헌 명에 대해 약호를 사용하기로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장별로 논의될 사항들을 나열해 보기로 한다. 1장은 서론이며 2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다루고자 하는 자료의 성격에 대한 논의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문헌의 명칭에 대한 논의와 대상 문헌에 대한 서지적 고찰을 행하게 되는데 문헌별로 나타나는 언

해 양상의 특징과 국어사적 특징과 관련되어 기술될 수 있는 서지적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특히 언해 양상의 특징을 논하는 자리에서 자료들의 한어 원문의 개수 양상이 언해 양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경우와 동일한 원문에 대해 언해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 등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의 주 관심 대상이 번역문인 언해문이긴 하지만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 한어 원문의 변화가 번역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한 한어 원문의 변화가 언급되고 또 번역문과의 관계도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은 같은 한어 원문에 대한 언해자들의 번역 태도의 차이를 알려 준다는 점에서, 또 수직적인 국어사적 변화를 용이하게 추적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老乞大』 언해본 원문의 변화와 관련된 언해 양상의 변화를 살펴본다고 할 때 우리는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을 다음과 같이 세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 (1) 『飜譯老乞大』·『老乞大諺解』·『平壤版 老乞大諺解』(A)의 원문이 『老乞大新釋諺解』(B)에서 바뀌었다가 다시 『飜譯老乞大』·『老乞大諺解』·『平壤版 老乞大諺解』(A)식으로 『重刊老乞大諺解』(C)에서 회귀한 경우, (2) 『飜譯老乞大』·『老乞大諺解』·『平壤版 老乞大諺解』(A)의 원문과 『老乞大新釋諺解』(B)의 원문이 같지만 『重刊老乞大諺解』(C)의 원문이 다른 경우, (3) 『飜譯老乞大』·『老乞大諺解』·『平壤版 老乞大諺解』(A)의 원문이 『老乞大新釋諺解』(B)의 원문에서 바뀌고 이것이 『重刊老乞大諺解』(C)의 원문에서도 유지된 경우 등이 있는 것이다. 또 (4) 완전히 (A), (B), (C) 삼자의 원문이 다른 경우 (5) (A), (B), (C) 삼자의 원문이 동일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원문이 개수된 문헌이 『老乞大新釋諺解』와 『重刊老乞大諺解』에 한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들을 살펴보는 데 있

어 이 두 문헌을 중심 축으로 하여 언해 양상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본들을 비교할 때 번역자들의 번역 태도 차이나 원문 개수 양상의 차이로 인해 초래되는 언해 양상의 차이 이외의 차이들은 국어사적 변화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다. 3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국어사적 변화에 대한 고찰을 행하게 된다. 3.1.에서는 주로 형태적 특징을 비교하고 그 변화 양상을 고찰하게 된다. 3.1.1.에서는 종결형 어미구조체 '-거다/-어다'가 원문 문장의 문말에 나타나 완료적 기능을 하는 '了'와 대응되면서 후대 문헌들로 갈수록 다른 형식으로 대체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그 국어사적 의미를 탐색해 보며 3.1.2.에서는 '-거-'의 기능을 중심으로 조건을 나타내는 일련의 연결어미들이 문헌별로 교체되어 나타나는 배경을 알아보고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형식들의 분포 양상이 통시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3.2.에서는 주로 통사적 특징을 비교하고 그 변화 양상을 고찰하게 된다. 3.2.1에서는 인용문을 문헌별로 비교하여 그 통시적 변화 양상을 추적해 보고 국어 인용문의 제 특징이 대상 문헌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을 살펴본다. 3.2.2.의 장형사동문의 비교에서는 후대 이본들로 갈수록 뚜렷해지는 장형사동문 피사동주 통합 격표지의 단일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 배경 등을 알아본다. 3.2.3.에서는 새로이 등장하는 '-오더여' 등의 명령형 어미의 기능을 살펴보고 그 문헌별 실현 양상을 비교해 본다. 3.2.4.에서는 의문문의 통시적 변화 양상을 확인해 보는데 특히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에서만 확인되는 형식의 의문문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볼 것이다. 3.2.5.에서는 『飜譯老乞大』와 『飜譯朴通事』의 'VP-오더 엇더ᄒᆞ뇨'의 의사타진구문이 대체적으로 『老乞大諺解』와 『朴通事諺解』 이후 'VP-오미 엇더ᄒᆞ뇨'

로 바뀌게 되는 변화 양상과 그 배경을 살펴보고 다른 이본들에서의 실현 양상도 함께 살펴본다. 3.2.6.에서는 '-거/어-'가 개재된 시간경과구문을 이본별로 비교해 본다.

4장에서는 어휘에 관한 문헌별 비교를 행하고 그 문법사적 의미를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과제를 정리한다.

2
자료적 성격

2.1. 『老乞大』의 언해본

2.1.1. 『老乞大』와 그 書名

『老乞大』라는 書名은 전래의 한어 학습서로서 상당히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이 최초로 편찬된 것은 元末이나 明初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책은 고려시대 이래 『朴通事』와 함께 대표적인 한어 학습서로 쓰여졌는데 16세기 초 이래 시대적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원문의 改修와 改修된 원문에 대한 언해가 이루어졌다. 조선조 司譯院 역관들의 한어 학습 및 역과 한학서로서 이 책의 위치가 변함 없이 공고했음을 알 수 있다. 사대와 교린 정책이 외교 정책에 있어 國是였던 조선조에 있어서 사대 정책을 위한 한어 학습은 언제나 중시되었다. 실질적인 한어 학습에 있어 이 책은 『朴通事』와 함께 언제나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고려 王京을 출발한 말 상인이 북경에 가 말을 판 다음 고려에 돌아가 팔 물건들을 사 가지고 다시 고려 王京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여행과 거래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한어 학습서로서의 용도에 걸맞게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어 내용과 문체에 있어서 매우 실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원문의 개수나 언해가 이루어진 것도 따지고 보면 이 책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용적 성격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새로이 원문의 개수나 언해를 행할 때 내용과 언어가 시대에 맞지 않는 舊本들의 결점을 보완하여 당대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책을 편찬하려 했다는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老乞大』의 書名이 상당히 오랜 연원을 가졌다고 한 바 있는데 書名이 뜻하는 바에 대한 논의는 이 책의 성격을 좀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할 것 같다. Song(1978)은 '老乞大'가 'Mr. Chinese'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즉 '老'를 존칭적 요소로 파악한 것이다. 그런데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乞大'를 중국인으로만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乞大'를 배타적으로 중국인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위의 해석이 보여 주고 있듯이 '老'는 다름 아닌 후행하는 인물명사를 높이는 존칭적 요소가 된다. 따라서 '老乞大'는 중국인을 높이는 호칭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선 '乞大'가 확실히 인물명사인지 알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의를 위해 민영규(1964)의 일부를 정리하여 옮겨오기로 한다.

> Kita(i)는 蒙古語로 中國을 뜻한다. Kita(i)는 '乞大'에서 온 것으로 보아 '老乞大'는 '老漢兒'가 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민영규(1964)는 '乞大'를 '中國'이라는 지명으로 해석할 여지를 열어 두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老乞大'가

'老漢兒'의 뜻을 가진다고 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朴通事』와 『老乞大』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같은 시기 공통된 패러다임의 지배를 받았다고 할 만하다. 따라서 그 공통된 패러다임의 고리라 할 수 있는 『老朴集覽』과 『朴通事』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펴 나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老官人 爲頭ᄒᆞ야<朴諺 上 46a>' 중 '老官人'에 딸린 주석과 이와 동일한 「朴通事集覽」의 주석이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는 듯이 보인다. '漢人呼尊長必加老字於姓字之上尊之之辭'가 그것이다. 이 주석에 따르면 漢人들은 윗사람에게 필히 '老'를 그 姓위에 붙여 불러 존경의 뜻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은 얼핏 '老乞大'의 '老'가 존칭적 요소이고 결국 '老乞大'는 중국인을 높이는 말이라는 해석을 지지해 주는 듯하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위의 '朴通事集覽'의 내용은 '老'에 후행하는 명사가 인물명사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존경을 받을 만한 연장자로서의 의미 자질을 가지는 한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즉 '老乞大'에 위의 논의가 적용되려면 '乞大'가 인물명사라는 점, 그리고 이미 '乞大' 자체의 지시대상이 존경의 자질을 가지는 명사이어야 한다는 점 등이 우선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乞大'를 '인물'이 아닌 지명 '中國'으로 보는 견해나 혹은 '老'를 존칭적 요소로 보지 않는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기문(1967)의 견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 일부를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老'는 中世蒙古語의 lab가 아닐까 한다. 八思巴 資料에서 볼 수 있는 lab에 대응되는 몽고문어 lab는 강조적 표현으로 일상회화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뜻은 '眞' 혹은 '확실한'의 뜻이다. lab에서 入聲韻尾

가 소실되어 후에 lab가 lau(老)로 표기되었다. '乞大'는 『華夷譯語』의 乞塔(Kita(i)) '漢人'과의 類似 등으로 보아 '中國' 또는 '中國人'을 가리킨 中世蒙古語 단어의 일형으로 볼 수 있다.

위의 견해는 '老乞大'를 '진정한 중국, 진정한 중국인'의 양자로 파악할 가능성을 열어 놓기는 하였으나 어느 경우로 파악하든 '老'를 존칭적 요소로 해석하지 않고 '眞正한'이라는 강조의 의미를 부가하는 요소로 파악하였다.[1]

위의 견해와 같이 '乞大'를 인물보다 장소를 지시하는 명사로 파악하고 또 이와 함께 '老'를 존칭적 요소로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老乞大'를 달리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도 常用되는 바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우리에게 실마리를 줄 수 있을 듯하다.

'他是北京人, 我們都叫他'老北京''

위의 문장은 '그는 北京人이다. 우리 모두는 그를 '老北京'이라고 부른다.'로 해석된다. 이때 '老北京'이란 '북경인, 특히 북경에서 오래 살아 경험이 풍부한 북경인'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장소 명사에 '老'를 선행시키면 '그 장소에 사는 사람, 그 장소에 오래 살아 그 장소의 물정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老'의 용법은 지금도 중국인들에게는 매우 낯익은 것이라 한다. 지명을 나타내는 지명명사에 '老'를 선행시키면 중국인들은 모두 위와 같은 방식의 해석을 행하는데 다

1) 우리는 '老'의 또 다른 쓰임을 『朴通事』의 언해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老'가 'ㄱ장'이라고 언해가 된 용례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원문 '老大的金色鯉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번역을 볼 수 있다.

ᄒᆞᆫ ᄀᆞ장(老) 큰 금 빗치 鯉漁ᄅᆞᆯ 낫가 내니 <朴諺 下 51a>
ᄒᆞᆫ ᄀᆞ장(老) 큰 금 빗히 鯉漁를 낙가 내니 <朴新 3:50a>

른 어떤 경우보다도 '老北京'의 경우는 매우 널리 통용되는 표현이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老乞大'에 적용시킨다면 결국 '乞大'는 중국을 지칭하는 것이며 여기에 '老'를 선행시키게 되면 '토박이 중국인, 중국에 오래 살아 중국의 문물과 풍습에 대해 경험이 많은 중국인'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여기에 전제된 '老'의 해석은 결과적으로 음운사적 사실 등에 기초한 이기문(1967)의 '老'의 해석, 즉, '진정한'의 의미에 근접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해석은 『老乞大』 본문의 내용과 관련시켜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老乞大』의 본문 중에는 중국 실정에 밝은 한 명의 중국인을 동반한 고려인들이, 중국에 상주해서 물건을 파는 다른 고려인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있다. 그 장면에서 중국 상주 고려인에게 중국인을 동반한 고려인들은 그들이 동반한 중국인이 중국인이라서 중국어도 잘 통하고 중국 물정을 잘 알아 그들의 상거래와 여행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다. 우리는 이 때 중국에 사는 중국인이기에 중국말을 잘 하고 중국 실정에 밝아 고려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 중국인의 모습이 우리가 해석한 '老乞大'라는 書名에 투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2)]

한편 '乞大'에 대한 한자음을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乞'에 대한 한자음이 『飜老』에 '킹, 키'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大도 '따, 다'의 한자음을 가지고 있어 '乞大'가 중국어로도 몽고어에서 중국을 지칭하는 말이었다는 'Kita(i)'에 거의 근접한 발음으로 읽혔음을 확인할

2) 또 『老乞大』의 언해본에 나타난 경어법의 난맥상, 특히 후대본들일수록 경어 현상이 언해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양상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乞大'가 『老乞大』에 등장하는 중국사람(들)이고 또 동시에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인물명사라면 『老乞大』를 언해한 언해본에도 그들을 대우하는 경어현상이 언어적으로 매우 규칙적으로 표출되어야 자연스러울텐데 그렇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인 것이다.

수 있다.

『老乞大』는 외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교과서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문물, 상거래 풍속 등의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어 학습서의 성격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전달하는 '중국학' 교과서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한 저간의 사정이 書名을 '老乞大'라 달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2.1.2. 『老乞大』 諺解本의 異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老乞大』의 언해본으로는 시대별로 여러 이본들이 있다. 淸語와 蒙語로 이루어진 『老乞大』의 언해본도 있어 『老乞大』라는 문헌의 색다름을 잘 보여 준다. 오랜 기간 동안 『老乞大』를 빼놓고는 중국어 학습 심지어는 淸語나 蒙語의 학습조차 생각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한어문을 언해한 『老乞大』의 언해본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보기로 한다. 가장 초기의 것으로는 1510년대 崔世珍에 의한 『飜譯老乞大』가 있다. 崔世珍에 의한 『飜譯朴通事』와 함께 司譯院의 譯科 한학서로 이용된 이 책은 이후 여러 異本들의 典範이 된다. 1670년 동일한 원문에 대한 언해가 다시 행해지고 일부 우측 한자음을 수정한 『老乞大諺解』가 간행되고 1745년에는 평양에서 다시 전대본 한자음 注音 중 左側의 한자음 등을 수정한 『平壤版 老乞大諺解』라 일컬어지는 책이 간행된다. 그리고 1763년에 원문의 개수, 右側 한자음의 개정과 함께 새로이 언해가 이루어진 『老乞大新釋諺解』가 간행된다. 이어 1795년에는 원문의 개수와 언해가 또 다시 새로이 이루어진 『重刊老乞大諺解』가 간행된다.

그런데 『老乞大』의 한어본과 관련하여 최근 특기할 만한 일이 있었다. 이른바 한어본 『老乞大』의 舊本이 발견된 것이다. 최세진이 『老乞大』와 『朴通事』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참고하였다고 하는 舊本의 한어본 『老乞大』로 추정된다. 최세진이 번역한 『老乞大』의 언해본은 원대어의 흔적이 많은 舊本을 당대의 중국어 현실에 맞게 수정한 이른바 新本 한어본 『老乞大』[3]를 저본으로 하여 번역이 이루어진 책이다. 『老朴集覽』에서 舊本으로 칭해진 이 책은 원대 한어의 모습을 많이 띠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후대에 간행된 한어본과 그 한어의 성격이 매우 다름이 지적되었다(정광·남권희·양오진 1999). 新本 한어본 『老乞大』에 대해서는 양오진(1998)에서 책에 반영된 한어의 성격에 대한 고찰이 자세하게 행해진 바 있고 新本에서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舊本의 원대 한어의 특징에 대해서는 정광(2000)에서 자세히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에 논의가 이루어진 新本과 舊本 외에 17세기 이후 이본들에 이들 원대 한어의 특징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 궁금해진다. 원문에 쓰인 '根低(손ᄃᆡ), 上(손ᄃᆡ), 上頭(젼ᄎᆞ로)' 등이 몽고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흔적이라고 지적된 예들인데 이들이 후대본들에서는 그 모습을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임이 주목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飜老」 我漢兒人上學文書 내 漢兒人의손ᄃᆡ 글 비호니 <上 2ab>
「老諺」 我漢兒人上學文書 내 漢ㅅ 사ᄅᆞᆷ의손ᄃᆡ 글 비호니 <上 2a>

---

3) 『成宗實錄』 14년(1483) 9월조에 『老乞大』와 『朴通事』를 교정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 때 교정된 책이 오늘날 전해지는 최세진이 언해한 『飜譯老乞大』의 저본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정광(1995)에 인용된 楊聯陞(1957)은 이 때 수정된 『老乞大』와 『朴通事』와 최세진의 번역본들에도 아직 원대 중국어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원문에 쓰인 '根低(손ᄃᆡ), 上(손ᄃᆡ), 上頭(젼ᄎᆞ로)' 등이 몽고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흔적이라는 것이다.

「平老諺」 我漢兒人上學文書 내 漢ㅅ 사ᄅᆞᄆᆡ손ᄃᆡ 글 ᄇᆡ호니 <上 2a>
「老新」 我在中國人根前學書來着 내 中國ㅅ 사ᄅᆞᄆᆡ손ᄃᆡ 글을 ᄇᆡ화시매 <上 2b>
「重老」 我在中國人根前學書來 내 中國ㅅ 사ᄅᆞᄆᆡ게 글을 ᄇᆡ화시매 <上 2a>

위의 예에서 '손ᄃᆡ'에 해당하는 원문 글자는 '上'인데 『老新』과 『重老』의 개수된 한어 원문에서는 '根前'으로 바뀌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上'과 달리 '上頭'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의 '上頭'가 다 후대본들에서 쓰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다음의 예를 보자.

「重老」 上頭把蓆子蓋了 우희 담으로 덥고 <下 44b>

위와 같이 『重老』에서 실사 '우ㅎ'과 처격조사 '-의'의 통합체 '우희'와 대응될 때에는 후대본의 원문에서도 '上頭'를 유지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老乞大』의 한어본 뿐 아니라 『老乞大』의 언해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도 지금까지 꽤 자세히 행해져 왔다. 이 책에서는 『老乞大』의 한어본이 아닌 『老乞大』의 언해본들의 자료적 성격에 관해 논의하되 일반적인 형태서지적 사항 등에 중점을 두기보다 조선 왕조 내내 중시되었던 한어학습의 전통과, 후술될 국어학적 특징이나 언해 양상의 특징과 관련되어 논의될 수 있는 서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하겠다. 이는 『老乞大』 언해본의 원본 대부분을 실사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고 또 기존의 서지학적 연구 성과 모두를 그대로 반복하는 서술을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작업으로 기존의 서지적 연구가 규정했던 문헌의 성격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선행하는 연구들이 많은 성과

를 보인 『飜老』와 『老諺』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 이후 이본들의 서지적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기로 한다.

2.1.2.1. 『飜譯老乞大』

『飜譯老乞大』[4]는 『老乞大』의 언해본 중 가장 오래된 책이다. 그 체재와 형식이 역학서 언해본 전반에 대해 典範的 성격을 띤다. 上下 2卷2冊의 木版本이다. 上卷 71葉, 下卷 73葉으로 되어 있으며 서문과 발문이 없어 간행경위나 연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판식은 四周單邊, 半郭은 23.7×17.6cm, 有界 9行에 1行 19字 이고 주음과 번역은 雙行이다. 판심은 黑口에 三葉花紋魚尾와 黑語尾가 섞여 있다. 어미 사이에 판심제 '老乞大'와 권, 장차가 있다. 일정한 구절을 단위로 구분된 원문의 각 한자에 正音과 俗音의 한자음을 한글로 달고 그 아래 해당되는 원문에 대해 한글로 번역문을 부기하되 ○로써 원문과 번역문의 구분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체재는 『飜老』의 한어 학습서로서의 용도를 고려하여 학습의 편이성을 도모한 특이한 것으로 이후 간행된 한어 학습서들에 있어서도 이어진다.

乙亥字本의 복각본으로 추정되었는데 중앙에서 간행된 것치고는 오자가 매우 많다. 국어사 자료로 이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함이 지적되었다(안병희, 1996).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하고, 임진란 이전 『攷事撮要』의 한 책판목록에 있는 평양에 '老乞大'가 있다는 기록 등을 고려하여 안병희(1996)에서는 평양에서의 복각본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안병희(1996)에서 언급된 『攷事撮要』는 萬曆 4년(1576)에

---

4) '飜譯老乞大'와 '飜譯朴通事'라는 書名은 권두서명이나 권말서명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책들의 범례가 『四聲通解』에 실려있고 그 범례가 '飜譯老乞大朴通事凡例'라 되어 있으므로 범례서명을 좇은 결과 얻어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안병희(1982) 참조.

간행된 乙亥字本의 책(晩松本)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책에는 평양에 '老乞大'뿐 아니라 '朴通事'도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飜老』에는 단순한 오자뿐 아니라 잘못 언해된 부분이 종종 눈에 띈다. 후대의 이본들과 비교 대상이 된다. 후대 이본들에는 『飜老』의 잘못이 바로 잡혀져 있다.

(1) 「飜老」 내 다ᄆᆞᆫ 이 아니 여러 ᄆᆞᆯ 모라 가며 ᄯᅩ 아ᄆᆞ란 쳔도 업스니 <上 27a>

「老諺」 내 다만 이 여러 ᄆᆞᆯ을 모라 가며 ᄯᅩ 아므란 쳔도 업스니 <上 24b>

「平老諺」 내 다만 이 여러 ᄆᆞᆯ을 모라 가며 ᄯᅩ 아모란 쳔도 업스니 <上 24b>

「老新」 우리 그저 이 여러 ᄆᆞᆯ을 몰고 ᄯᅩ 아무란 銀錢 가져온 거시 업스니 <上 33b>

「淸老」 우리 다ᄆᆞᆫ ᄆᆞᆯ을 몰아 가ᄂᆞᆫᄃᆡ ᄯᅩ 아조 죠흔 貨物 업스니 <2:14a>

「蒙老」 내 다만 여러 ᄆᆞᆯ을 모라 갈 ᄯᆞ롬이오 ᄯᅩ 다ᄅᆞᆫ 財物 업ᄉᆞ니 <2:11a>

「重老」 우리 그저 이 여러 ᄆᆞᆯ을 몰고 ᄯᅩ 아모란 銀錢 가져온 거시 업스니 <上 24ab>

위에서 '이 아니 여러 ᄆᆞᆯ 모라가며<飜老 上 27a>'는 잘못 언해된 구절이다. '我只是赶着這幾箇馬'와 같이 원문에는 부정소가 없다. 후행문 '又沒甚麽錢本'의 부정소 '沒'을 그 선행문에까지 걸리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것이 『老乞大諺解』에서부터는 바로 잡혀 있다.

(1)과는 달리 『飜老』에서 어색하게 번역된 곳이 『老諺』까지 바로 잡히지 않다가 『老新』에서부터 바로잡힌 곳도 있다.

(2) 「飜老」 <u>ᄒᆞᆫ 곧 ᄃᆞ리</u> 믈어디여 잇더니 이제 고텨 잇ᄂᆞᆫ가 몯ᄒᆞ얏ᄂᆞᆫ가
<上 26a>
「老諺」 ᄒᆞᆫ 곳 ᄃᆞ리 믈허뎌 잇더니 이제 고텻ᄂᆞᆫ가 못ᄒᆞ엿ᄂᆞᆫ가
<上 23b>
「平老諺」 ᄒᆞᆫ 곳 ᄃᆞ리 믄허뎌 잇더니 이제 고텻ᄂᆞᆫ가 못ᄒᆞ엿ᄂᆞᆫ가
<上 23b>
「老新」 <u>ᄒᆞᆫ ᄃᆞ리</u> 문허지미 잇더니 이제 일즉 고쳐ᄂᆞᆫ가 못ᄒᆞ엿ᄂᆞᆫ가
<上 32b>
「清老」 ᄒᆞᆫ 문허진 ᄃᆞ리 잇더니 이제 고쳣ᄂᆞ냐 못ᄒᆞ엿ᄂᆞ냐 <2:12b>
「蒙老」 ᄒᆞᆫ ᄃᆞ리 문허졋ᄃᆞ니 이ᄌᆡ 고쳣ᄂᆞ냐 고치디 못ᄒᆞ얏ᄂᆞ냐
<2:9a>
「重老」 ᄒᆞᆫ ᄃᆞ리 문허지미 잇더니 이제 고쳣ᄂᆞᆫ가 못ᄒᆞ엿ᄂᆞᆫ가
<上 23ab>

(2)의 『飜老』에서는 '一座橋'에 대한 번역이 'ᄒᆞᆫ 곧 ᄃᆞ리'와 같이 되어 있다. 즉 '一座'의 '座'에 대한 번역을 '곧'이라 한 것이다. 그러나 高大民族文化硏究所에서 간행된 『中韓辭典』(1989)는 '一座'가 산, 건축물, 교량, 대포 따위의 비교적 크고 든든한 물체나 고정된 물체를 세는 데에 쓰임을 명기하고 있다. 단위어인 '一座'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특히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번역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飜老』의 위와 같은 어색한 번역은 『平老諺』까지도 계속되다가 『老新』에서 자연스럽게 수정된다. 이 수정이 『重老』에까지 이어짐이 주목된다. 다음의 예도 주목된다.

(3) 「飜老」 ᄯᅩ 굴근 무면 일ᄇᆡᆨ 필와 금으로 ᄧᆞᆫ니와 및 믠 비단 일ᄇᆡᆨ 필와 화문비단 일ᄇᆡᆨ 필와 ᄯᅩ 아ᄒᆡ돌히 효ᄀᆞᆫ 방올 일ᄇᆡᆨ 낫과 ᄆᆞᆯ솟동 일ᄇᆡᆨ 낫과 쇠예 입ᄉᆞᆫ 툐환 일ᄇᆡᆨ 나출 사고 ᄯᅩ ᄎᆡᆨ ᄒᆞᆫ ᄇᆞᆯ 사ᄃᆡ 四書란 다晦庵 주 내시니로 ᄒᆞ져 ᄯᅩ ᄒᆞᆫ ᄇᆞᆯ 모시 샹셔 쥬역 례긔 오ᄌᆞ셔 한문 류문 동파시 시혹 대셩압운 군신고ᄉᆞ ᄌᆞ티

통감 한원신셔 표뎨쇼혹 뎡관졍요 삼국지평화 사져
<下 69b-70b>

「老諺」 ᄯᅩ 굴근 목면 일ᄇᆡᆨ 필과 금으로 ᄧᆞᆫ니와 ᄆᆡᆫ 비단 일ᄇᆡᆨ 필과 화문 비단 일ᄇᆡᆨ 필과 ᄯᅩ 아ᄒᆡ돌희 효근 방올 일ᄇᆡᆨ 낫과 ᄆᆞᆯ손동 일ᄇᆡᆨ 낫과 쇠예 입ᄉᆞᄒᆞᆫ 툐환 일ᄇᆡᆨ 낫츨 사고 ᄯᅩ ᄎᆡᆨ ᄒᆞᆫ ᄇᆞᆯ을 사되 四書란 다 晦庵 註낸이ᄅᆞᆯ ᄒᆞ쟈 ᄯᅩ ᄒᆞᆫ ᄇᆞᆯ 毛詩 尙書 周易 禮記 五子書과 韓文 柳文 東坡詩 詩學 大成押韻 君臣故事과 資治通鑑 翰院新書 標題小學 貞觀政要 三國誌評話ᄅᆞᆯ 사쟈
<下 62b-63b>

「平老諺」 ᄯᅩ 굴근 목면 一百 匹과 금으로 ᄧᆞᆫ니와 ᄆᆡᆫ 비단 一百 匹과 화문 비단 一百 匹과 ᄯᅩ 아ᄒᆡ들의 효근 방올 一百 낫과 ᄆᆞᆯ손동 一百 낫과 쇠예 입ᄉᆞᄒᆞᆫ 툐환 一百 낫츨 사고 ᄯᅩ ᄎᆡᆨ ᄒᆞᆫ ᄇᆞᆯ을 사되 四書란다 晦庵 註 낸이ᄅᆞᆯ ᄒᆞ쟈 ᄯᅩ ᄒᆞᆫ ᄇᆞᆯ 毛詩 尙書 周易 禮記 五子書와 韓文 柳文 東坡詩 詩學 大成押韻 君臣故事와 資治通鑑 翰院新書 標題小學 貞觀政要 三國誌評話ᄅᆞᆯ 사쟈 <下 62b-63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ᄯᅩ 굵은 무명 一百 疋 金으로 ᄧᅳᆫ 無紋 비단 一百 필 어린 아이 방올 一百 이 貨物을 다 오로 삿다 <8:19b>

「蒙老」 ᄯᅩ 굵은 무명 一百疋 金으로 ᄧᅳᆫ 紋 업ᄉᆞᆫ 비단 一百疋 ᄯᅩ 아ᄒᆡ들의 존 방올 一百이 物貨ᄅᆞᆯ 다 사다 <8:19a>

「重老」 ᄯᅩ 대포 一百 疋 ᄆᆡᆫ 비단 一百 疋과 花문 비단 一百 疋을 사쟈 ᄯᅩ 아ᄒᆡ들의 효근 방올 一百 낫 ᄆᆞᆯ솟동 一百 낫 쇠에 입ᄉᆞᄒᆞᆫ 툐환 一百 낫치 잇ᄂᆞ냐 도로혀 여러 부 ᄎᆡᆨ을 사쟈 四書ᄂᆞᆫ 이 晦庵 集註와 毛詩 尙書와 周易 禮記와 韓文 柳文과 東坡 詩와 詩學全書 韻書와 資治通鑑과 翰苑新書와 標題小學과 貞觀政要와 三國誌라 <下 64b-65b>

『飜老』에서는 직역의 영향으로 쓰인 '밋'이 『老諺』에서는 빠져 있다. 그 이후 언해본들에도 '밋'이 생략된 채 자연스럽게 언해되었다. 이밖에도 위의 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보인다. 후대본들로 갈

수록 한자가 노출된 한자어를 쓰는 경향이 짙어짐은 주지의 사실인 바 위의 예도 그러한 측면을 잘 보인다. 四書를 비롯한 책이름의 나열에서도 그러한 측면을 잘 엿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飜老』의 간행연도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최세진에 의해 중종 12년(1517)에 간행된 『四聲通解』의 序에 있는 『老乞大』와 『朴通事』에 대한 언급으로 보아 그보다 앞선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안병희(1996)에서는 이것이 간행의 하한을 보여주는 것이며 간행의 상한은 밝혀진 바가 없지만 최세진 신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고려해 볼 때 1510년 무렵에 간행된 것이 타당하리라 보았다.

『老乞大』의 한어본은 고려시대 이래 있어온 것으로 보인다. 세종 때를 비롯하여 여러 번 印刊되기도 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5] 언해서의 간행 이전에도 역과 한학서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역학이 조선 왕조 내내 장려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대와 교린 정책을 국시로 삼았던 조선 왕조에 있어서 한어 학습 중시 전통은 한어 학습서의 편찬뿐 아니라 일찍부터 중국에 사람을 보내어 한어 학습서를 질정시켰던 전통과 역관들에 대한 의식적 우대 정책 등으로도 나타났었다. 중종 때에도 역학은 여전히 장려되었다. 역학이 장려되었던 분위기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飜老』의 간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해 이전에도 『老乞大』와 『朴通事』의 漢語本이 쓰이고 있었는데 굳이 諺解本이 간행된 데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었을까? 직접적인 단서를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실록의 기록으로 그 즈음의 분위기를 추정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5) 『世宗實錄』 世宗 16年(1434) 6월의 기사, 『世祖實錄』 世祖 4年(1458) 1월의 기사, 『成宗實錄』 成宗 7年(1476) 11월의 기사 등 참조.

영의정(領議政)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기는 것은 다른 외국의 유례가 아니어서, 모든 주청(奏請)이나 통자(通咨)에 다 이문(吏文)을 쓰고, 또 중국 사신(使臣) 중에 문관(文官)이 오면 말하는 사이에 문자를 쓸 때 음운(音韻)을 잘 알지 못하여 응수할 수 없으므로 어쩔 줄 모르고 눈만 휘둥그래져서 매양 사신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자제(子弟)를 보내어 입학시켜서 이문과 한어(漢語)를 잘 배워와서 서로 가르치게 하면 한음(漢音)과 이문을 잘 아는 자가 반드시 많이 있게 될 것이니, 상의 뜻이 매우 마땅합니다.

그러나 자제를 보내어 입학시키는 일은 전조(前朝) 이래로 오래 시행하지 않다가 세종조에서 역대의 옛 규례에 의거하여 주청한 적이 있으나 중국에서 끝내 허가하지 않았는데, 대개 외인(外人)이 경사(京師)에 오래 머물러 중국의 일을 엿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중국에 사고가 많아서 조정의 정사가 점점 어지러워져서, 국자감(國子監)에서 학생을 육양(育養)하는 일 같은 것을 혼히 소홀히 하여 예전 같지 않을 터인데, 어찌 외국인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겠습니까? 끝내 허가받지 못하리라는 것은 바로 성료(聖料)와 같습니다.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미 알았으면 그런 대로 주청해 본다는 것은 한갓 일을 많게 만들뿐입니다.

신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u>지금 문신(文臣) 중에 이문 및 한음을 잘 아는 자는 다만 최세진(崔世珍) 한 사람뿐이므로, 이 사람이 아니면 무릇 주청·통자하는 문서 및 중국에 응답하는 문이(文移)에 있어서 홀로 맡아서 손을 댈 자가 없으니, 이는 매우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세진이 지금 승문원(承文院)에 출사(出仕)하여 가르치는 관직을 겸해서 습독(習讀) 등의 일에 종사하나, 습독하는 자의 수가 매우 많아서 끝내 확실히 재주를 성취하는 자를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u>

신은 바라건대, 문신 중에서 나이 젊고 침착하여 성질과 도량이 서로 합당한 자를 5~6원(員)이 넘지 않게 가려서 가르치되, 두세 해로 한정해서 가르쳐서, 성취하면 스승과 학생에게 함께 상 주어 장려하고 그렇지 못하면 함께 꾸짖어 벌주어, 권장하고 징계하는 방도로 삼으소서. 이렇게 하면 어찌 한두 사람의 쓸 만한 자가 없겠습니까?"

하고, 정광필(鄭光弼)·송일(宋軼)·노공필(盧公弼)·김전(金詮)·남곤(南袞) 등의 의논도 대략 같았는데, 유순(柳洵)의 의논을 따랐다.(中宗 10年 11月 丙申)

> 臣且念今文臣曉鮮吏文及漢音者 獨崔世珍一人而已 非此人則 凡爲奏咨文書及應答中朝文移 無獨當入手者 此甚可慮 世珍今仕承文院以訓誨兼官習讀等爲事 然其數甚多終恐難見的然有成才者也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 초간본이 이루어질 즈음 최세진은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고 오직 그만이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가르침 아래 습득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구절이 눈에 띈다. 출중한 한어 실력을 갖추었던 최세진과, 한어 학습을 중시한 당시의 사람들은, 습독하는 자가 많은 한어교육의 상황에서 규준이 될 만한 언해서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飜老』와 『飜朴』과 같은 언해본의 편찬은 전반적으로 한어 학습을 중시하는 전통의 맥락과, 언해서를 편찬할 만한 독보적인 실력을 갖춘 최세진이라는 인물의 존재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대에 당대의 언어 현실에 맞게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진 『飜譯老乞大』의 한어 원문과, 수정되기 이전의 한어 원문의 모습을 보이는 이른바 舊本의 한어본 『老乞大』의 한어 원문과의 관계에 대해 잠시 언급하기로 한다. 정광(2000)에서는 이 舊本의 한어의 모습이 『飜譯老乞大』의 한어의 모습과 차이를 많이 보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元代 한어의 모습을 많이 간직한 舊本인 한어본 『老乞大』의 한어 원문에 비해 『飜譯老乞大』의 한어는 舊本의 원대 한어의 특징이 많이 수정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 중의 하나로 구본에 나타나는 인칭대명사 '俺'을 들 수 있다. '俺'은 舊本에 보이는 대표적인 元代 한어의 특징이며 이것이 『飜老』의 한어 원문에는 '我們' 등으로 바뀌어 있다고 한다. 『飜譯老乞大』와 『飜譯朴通事』의 원문에는 共히 이 '俺'이 나타나지 않는다.

『飜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의는 아니지만 이 『飜老』와 『飜朴』의 한어문에조차 나타나지 않는 '俺'이 18세기 초반의 『伍倫全備諺

解』의 원문에 등장한다. '哥哥喚俺兩兄弟 형이 우리 두 아올 브르시니(2b)'의 '俺'과 같은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元代 한어의 특징이 『伍倫全備諺解』에 나타났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伍倫全備諺解』가 譯科 漢學書로서 수명이 오래지 못했던 배경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飜老』와 『飜朴』에서조차 수용되지 않은 元代 한어의 특징이 후대본인 『伍倫全備諺解』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역과 한학서로서의 『伍倫全備諺解』의 위상을 흔들리게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2.1.2.2. 『老乞大諺解』

이 책은 『飜老』와 동일한 한어 원문에 대해 새로이 번역이 이루어진 책이다. 번역이 새로워진 것 외에 체재가 약간 달라져 있다. 새로운 科를 시작하는 곳에는 二葉花紋魚尾를 두어 학습의 편이를 도모하였다. 따라서 모두 107개의 課로 이루어졌다. 上下 2卷 2冊으로 이루어진 戊申字本이다. 板式은 四周雙邊에 匡郭은 24.8×17.5cm이다. 有界 10行에 1行 19字이며 注音과 번역은 雙行이다. 版心은 二葉花紋魚尾와 三葉花紋魚尾가 섞여 있다.

이 책의 이본 중에는 卷下의 오자가 교정되지 않은 것과 조판까지 새로이 하여 교정된 것이 있다. 영인저본으로 미교정본이 선정되어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자료 이용 시 주의를 요한다. 방종현(1946)과 안병희(1996)에서 교정본과 미교정본의 차이에 대하여 자세한 논의가 베풀어져 있다.

『飜老』와 달리 한자음 주음과 본문에는 방점이 없다. 한자음 주음이 『飜老』의 것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으나 우측음 '스, 즈, 츠'를 '스, 즈, 츠'로 바꾼 것이 유일하게 달라진 주음으로 알려져 왔다(안

병희, 1996). 그러나 'ᄾ, ᅐ, ᅕ' 이외에도 몇몇 예에서 『飜老』의 것과 달라진 우측 주음을 찾을 수 있음이 주목된다. '兒'에 대한 주음으로 『飜老』는 'ᄾᆞ'를 보이는데 이것이 『老諺』에는 '술<老諺 上 3a>' 혹은 '슬<老諺 上 12b>'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二에 대해 'ᄾᆞ'를 보이는 『飜老』와 달리 『老諺』에서는 '슬<老諺 上 17a>'을 보이고 '六'에 대해 '루'를 우측의 주음으로 하는 『飜老』와 달리 『老諺』에서는 '릐<老諺 上 21a>' 등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老諺』의 우측 주음이 소수의 예일 망정 『飜老』와 달라진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老諺』의 언해자들이 『飜老』를 참조한 상태에서도 이러한 주음을 했다는 점이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우측음이 『平老諺』까지도 그대로 이어짐은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老新』에서 우측음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기까지 『老諺』에서 수정된 우측 주음은 북방의 현실음 학습에 있어서 주요한 규준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老諺』의 간행연대는 대체로 『通文館志』 권8 서적조의 '內賜老乞大諺解' 등의 기록을 근거로 1670년(현종 11)으로 추정되어 왔다.[6] 그 밑에 '二本 康熙庚戌 陽坡鄭相國啓令藝閣鑄字印行'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飜老』와 차이를 보이는 『老諺』의 언해 양상의 특징, 어휘 문법적 특징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자세한 내용이 2.1.3과 3, 4장의 논의 대상이다. 뒤에서 언급되지 않을 몇 가지 특징을 거론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老諺』에는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

6) 그런데 이 간년은 內賜가 된 연도보다 5년 앞선 것이다. 위의 기록에서의 1670년이 책을 찍도록 명령한 시기인지 책이 완성된 시기인지 알 수 없다. 내사된 시기를 중요시한다면 간년을 1675년으로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안병희(1996)에서 지적된 대로 『朴通事諺解』에 대해 기술한 『通文館志』의 年記 기술과, 또 1670년과 1675년이 차이를 보임이 5년 미만임 등을 감안하여 1670년으로 간년을 잡아둔다.

형이 등장함을 볼 수 있다.

(1)「飜老」 셕 <下 30a>
「老諺」,「平老諺」 혁 <下 27ab>, <下 27ab>
「重老」 혁 <下 28b>

'셝'이 h구개음화를 의식한 과도교정 표기 '혁'을 『老諺』에서 보이는데 『老諺』의 이러한 표기가 『平老諺』, 『重老』에까지 이어져 있음이 주목된다. 이 당시 구개음화 현상의 진척 상황과 관련하여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老諺』은 『飜老』를 참조한 상태에서 언해가 행해졌다. 많은 부분에서 『飜老』를 묵수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老諺』의 번역자들은 『飜老』의 언해 양상을 그대로 묵수하지만은 않았다. 잘못된 곳 혹은 정정해야 할 곳이라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는 과감한 수정을 행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1.3.에서 논의되겠지만 몇 가지 예를 중심으로 이러한 양상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2)
ㄱ.「飜老」 각산ᄒᆞ야다 <下 71a>
「老諺」,「平老諺」 각각 ᄒᆞ터디쟈 <下 65a>, <下 65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각각 ᄒᆞᆺ터지쟈 <8:20b>
「蒙老」 〔해당 문장 빠짐〕
「重老」 각각 ᄒᆞᆺ터지쟈 <下 67a>

ㄴ.「飜老」 <u>우리 ᄆᆞᆫ져 널어 일뎡ᄒᆞ져</u> 順城門 官店에 드러가 브리져 <上 66b>
「老諺」 우리 ᄆᆞᆫ져 널러 <u>뎡ᄒᆞ야시니</u> 그저 順城門 官店에 드러가 브리

오쟈 <上 60a>

「平老諺」 우리 몬져 닐너 명ᄒᆞ야시니 그저 順城門 官店에 드러가 브리오쟈 <上 60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우리 몬져 의논ᄒᆞ여 졍ᄒᆞᆫ 거시 順城門 官店에 부리오라 가쟈 <4:23b>

「蒙老」 우리 볼셔 ᄒᆞ야시모로 順城門 官店에 드러가 부리오 <4:15b>

「重老」 우리 몬져 닐러 定ᄒᆞ여시니 그저 順城門 官店에 부리오라 가쟈 <上 60b>

ㄷ. 「飜老」 이 아니 여러 양도 ᄒᆞᆫ 디위 마가 ᄃᆞᆫ닐 거시니 <下 23b>

「老諺」, 「平老諺」이 여러 양도 ᄒᆞᆫ 디위 마가 ᄃᆞᆫ닐 거시니 <下 21ab>, <下 21a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해당 문장 빠짐〕

「蒙老」 〔해당 문장 빠짐〕

「重老」 이 여러 羊도 마지 못ᄒᆞ여 ᄒᆞᆫ 지위 ᄃᆞᆫ닐 써시니 <下 22ab>

(2ㄱ)에서 동일한 원문 '各者散了'에 대해 『飜老』는 평서형 종결어미로 맺는 평서문으로 언해를 하고 있는 반면 『老諺』 이후에는 청유형으로 언해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重老』의 원문은 '各者散了罷'이지만 『老諺』 등과 동일하게 청유형으로 언해하고 있다.

(2ㄴ)의 원문 '咱們先說定着'에 대해 『飜老』에서는 청유형으로 언해하여 발화시 당시 아직 사태가 '일명ᄒᆞ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다른 본들에서는 이미 '명ᄒᆞᆫ'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본들에서도 『老諺』의 번역 양상을 대체로 따르고 있다. 『老諺』의 언해자가 문맥상 위와 같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 이를 언해에 반영했고 이것이 후대본들의 언해자들에게도 그대로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2ㄷ)의 『飜老』에서는 원문 '這幾箇羊也'에 대해 부정어 '아니'를 넣어 번역하고 있다. 원문을 고려할 때 잘못 번역된 것이라 하겠다. 『老諺』을 포함한 다른 본들에는 '아니'가 빠져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老諺』의 수정은 후대 이본들에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이 주목된다. 특히 『平老諺』의 경우 『老諺』의 수정은 거의 예외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외의 언해 양상의 차이나 어휘, 문법적 특징에 관한 논의는 뒤에서 매우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老諺』과 '老乞大集覽', '朴通事集覽' 등과의 관계에 대해 잠시 언급하기로 한다. 『朴諺』에는 '老乞大集覽'이 권말에 부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老諺』에는 '朴通事集覽'이 부재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 김완진(1976)에서는 『老諺』의 간행 당시에는 『老朴集覽』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朴諺』을 간행할 당시에는 『老朴集覽』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朴諺』에는 본문의 내용 중에 '朴通事集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老諺』에는 이 책의 간행시 『老朴集覽』이 발견되지 않은 탓에 '老乞大集覽'이 부재되거나 혹은 본문 중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老諺』과 관계된 '老乞大集覽'을 보완하기 위해 『朴諺』의 권말에 '老乞大集覽'을 부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老諺』이 『朴諺』만큼은 『老朴集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은 책이었음을 보인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老諺』은 『飜老』를 참조하여 번역이 이루어진 책이다. 또 『老朴集覽』과 『飜老』는 최세진이라는 동일한 필자에 의해 이루어진 책이다. 따라서 『老朴集覽』과 『飜老』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老諺』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飜老』가 『老朴集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老朴集覽』과 『老諺』 역시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고 할 수 있다. 그 관계 형성의 과정이야 어떠했든 『老諺』과 『朴諺』 모두 『老朴集覽』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책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1.2.3. 『平壤版 老乞大諺解』

이 책은 『老乞大諺解』를 1745년(英祖 21)에 平壤監營에서 重刊한 책이다. 책 뒤의 '平壤監營重刊'이라는 刊記가 이를 잘 보인다. 간행은 평양에서 되었으나 사역원에서 간행이 계획되고 교정까지 이루어진 책이다. 책 뒤에 교정과 원고작성에 관여했던 전·현직 역관 8명의 명단이 나타난다. 이 명단 외에도 간행이 주로 사역원이 관여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서문의 다음 구절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 이에 사역원의 중국 발음에 능숙한 자가 서로 더불어 한자음을 분별하고 문장의 뜻을 교정하였다. 불과 수개월이 안되어 일이 끝남을 고하였다. 막혔던 것이 거의 통하게 되었고 의심스러운 곳이 풀리었으며 칠음과 사성의 청탁, 경위가 대략 분명해졌다.
> 於是院之慣漢音者 相與辨明字音考校文義 不數月而工告訖 庶幾窒者通 疑者釋 七音四聲之濁經緯粗得發明

한편 『平老諺』의 간행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거의 사역원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에서 『老乞大諺解』의 중간본이 간행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연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문의 다음 구절이 그 연유를 잘 보인다.

> 예전에 활자로 펴 낸 것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점점 오래되어 약간의 인본이 거의 다 없어졌다. 또 고금의 성음이 차이가 나서 역을 배우는 자가 그것을 병통으로 생각하였다. 이제 우리의 도제조 허주 김상국이 본업

(한어의 학습)을 부과하고 제술에 힘써 장려하고 권면하여 지극하지 않음이 없었다. (사역원의) 제조 화산 홍시랑이 역시 학업의 성취에 힘쓰고 힘써 언해의 교정과 중간을 급한 일로 여겼다. 상국과 시랑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임금께 아뢰니 임금께서도 또 관서(평안도)는 역설(역관)이 통행하는 곳이라 관서에서 인간할 것을 명하였다.

舊有活字印布 而歲月寖久 若干印本 纔盡散佚 又或有古今聲音之差殊 學譯者病之 今我都提擧虛舟金相國 課以本業 勵以製述 誘掖奬勸靡不用極 提擧華山洪侍郎 亦惓惓於講明成就 而今諺解之校整重刊爲急務 相國旣侍郎後先陳達 自上又以關西是譯舌所通之地 命印於關西

위의 서문의 내용은 임금이 직접 『老乞大諺解』의 중간본을 평양에서 간행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그 印刊을 직접 명했음을 보인다. 실록 기사에서는 위의 구절에서 언급된 영조의 명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서문의 위의 구절은 『平壤版 老乞大諺解』의 간행이 임금의 명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인다. 또한 간행 당시 『老乞大諺解』의 印本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과 책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더욱이 '古今의 聲音'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은 『平老諺』의 간행 경위를 잘 드러내 준다. '古今의 聲音'이 달라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平老諺』에서 한자음 좌측음에 대한 수정으로 그 극복이 시도되었다.

여기서 좌측음이란 어떤 것인가? 『飜老』와 『老諺』의 左側音은 『四聲通解』 즉 『洪武正韻譯訓』의 俗音이었다(강신항 2000:92 등). 또 우측음은 16세기 북방 현실음이었다. 그런데 『平老諺』에서는 좌측음만이 수정된다. 실질적인 通話의 편이를 도모하기 위한 언해서의 성격에 충실하려 했다면 무엇보다 우측음이 수정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平老諺』에서 우측음은 전대본의 그것, 즉 『老諺』의 것이 그대로 묵수된다. 즉 서문에서 언급한 '古今의 聲音이 달라 겪는 어려움'은 다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극복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平老諺』이 간행된 지 불과 20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 『老乞大新釋諺解』라는 또 다른 언해서의 간행이 있게 된다. 『老乞大新釋諺解』는 우측음이 일신되었을 뿐 아니라 원문과 번역이 모두 새로워진 책이기도 하다. 즉 『老乞大新釋諺解』의 서문이 언급한 '通話爲主'라는 구절에 딱 들어맞는 책이 간행된다. 그 일면을 『平老諺』에서는 일신되지 못한 우측음의 수정으로부터 알 수 있다.

이제 『平老諺』의 형태서지적 사항을 알아보자. 版式은 四周雙邊이다. 半郭이 24.1×16.7cm이다. 有界 10行에 1行 19字이고 注音과 번역은 雙行이다. 版心은 二葉花紋魚尾인데 『老乞大諺解』처럼 科가 시작되는 곳에도 二葉花紋魚尾가 있다.

『老乞大諺解』와 차이나는 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무엇보다도 注音이다. 左側音이 대대적으로 수정되어 있다. 이 주음이 나중에 『重刊老乞大諺解』까지도 이어진다. 번역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다만 『老乞大』의 후대본들로 갈수록 나타나는 고유어 어휘의 한자어 어휘로의 대체나 『老諺』 간행에서 『平老諺』 간행에 이르는 시기에 진행된 음운 변화가 일부 문헌에 반영되어 있다. 이 밖에 몇 가지 『平老諺』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1)
ㄱ. 「飜老」 우리 섈리 녀져 뎨 가 뎜 어들 ᄡᆞᆯ와 뎌 둘토 오리라 <上 66b>
「老諺」 우리 섈리 녀쟈 뎨 가 뎜 어드매 미ᄎᆞ면 뎌 둘토 오리라 <上 60a>
「平老諺」 우리 섈리 녀쟈 뎨 가 뎜 어드매 미ᄎᆞ면 뎌 둘도 오리라 <上 60a>

ㄴ. 「飜老」, 「老諺」, 「平老諺」 그러면 너희 둘히 몬져 가라 우리 둘흔 뒤헤 날회여 <66b>, <上 60a>, <上 60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이러ᄒᆞ면 너희 둘히 몬져 가라 우리 둘히 쳔쳔이 즘싱을 모라가 <4:23b>

「蒙老」 그러면 너희 둘히 몬져 가라 우리 둘히 뒤희 날호여 가마 <4:15b>

「重老」 그러면 너희 둘히 몬져 가라 우리 둘히 뒤희 날회여 즘싱 모라 갈 써시니 <上 60b-61a>

(1)은 '『平老諺』'에서 '둘도'와 같이 'ㅎ'종성 체언이 소멸되었음을 언해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했음을 (1ㄴ)의 '둘흔'을 통해 알 수 있다.

『老諺』과 차이를 보이는 『平老諺』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ㄴ 첨가' 현상이 거의 예외 없이 압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ᄒᆞ놀이면셔, ᄒᆞᆫ나, ᄒᆞᆺ언치, ᄡᆞᆷ언치, ᄀᆞᆺ언치, 온ᄂᆡ' 등 'ㄴ'첨가가 일어난 형식을 보이는데 이에 해당하는 『飜老』와 『老諺』의 형식은 'ㄴ'이 첨가되지 않은 형식들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2) 「平老諺」 ᄒᆞ여 놀이면셔 <下 48a>
cf. 「飜老」, 「老諺」 ᄒᆞ놀이며셔 <下 54a」, <下 48a>
「平老諺」 ᄒᆞᆫ나히 <下 48a>
cf. 「飜老」, 「老諺」 ᄒᆞ나히 <下 54a>, <下 48a>
「平老諺」 ᄒᆞᆺ언치 <下 27ab>
cf. 「飜老」, 「老諺」 ᄒᆞᆺ어치 <下 30a>, <下 27ab>
「平老諺」 ᄡᆞᆷ언치 <下 27ab>
cf. 「飜老」, 「老諺」 ᄡᆞᆷ어치 <下 30a>, <下 27ab>
「平老諺」 ᄀᆞᆺ언치 <下 27ab>
cf. 「飜老」, 「老諺」 ᄀᆞᆺ어치 <下30a>, <下 27ab>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平老諺』에는 유독 'ㄴ'이 첨가된 어형이 많이 보이는데 이미 『老諺』 시기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

작했음을 (3)은 잘 보이고 있다.

(3) 「飜老」 이 활 브리우라 오ᄂᆡ 쟉고 고재 뎌ᄅᆞ다 활도 사다 <下 31b-32a>
「老諺」 이 활 브리오라 온ᄂᆡ 젹고 고재 뎌ᄅᆞ다 활도 사다 <下 28b>
「平老諺」 이 활 브리오라 온ᄂᆡ 젹고 고재 뎌ᄅᆞ다 활도 사다 <下 28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清老」 이 활을 아직 부리워 두라 다른 온갓 곳은 다 의지ᄒᆞ여 무던ᄒᆞ다 다만 고재 젹이 져름애 그저 내 ᄠᅳᆺ에 흡족지 못ᄒᆞ다 <6:19ab>
「蒙老」 활 부리오라 고졔 져ᄅᆞ다 <6:14a>
「重老」 이 활 브리오라 오ᄂᆡ 젹고 고재 져르다 도고리도 엷다 두어라 ᄒᆞ여 ᄯᅩ 사쟈 <下 30ab>

(3)에서는 ㄴ이 첨가된 형식이 이미 『老諺』 시기부터 나타남을 잘 보인다. 이 경우엔 특이하게도 『重老』에서 다시 'ㄴ'이 없는 형식으로 수정되고 있다.

이밖에 『平老諺』에는 그 당시 중앙어에서 구개음화가 깊숙한 뿌리내렸음을 보여주는 용례들이 등장한다. '가지<平老諺 上 2a>, 어지니라<平老諺 上 6b>'와 같이 구개음화된 어형도 많이 등장하지만 '네 집의 잘 더를 어더디라<平老諺 上 42ab>'와 같이 과도교정된 어형도 등장함을 볼 수 있다.

대체로 번역에 있어서는 『老乞大諺解』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가끔씩 『老乞大諺解』의 원문 파악 방식과는 다른 태도를 『平老諺』의 언해자들이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2.1.3.에서 다루어지게 되므로 여기서는 몇 가지 용례만 들어두기로 한다. 다

음의 예를 보자.

(4)

ㄱ. 「飜老」, 「老諺」 나그내네 ᄂᆞᆾ 시서다 <上 61a>, <上 55a>
「平老諺」 나그내들 ᄂᆞᆾ 시서라 <上 55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나그너 네 ᄂᆞᆾ 씻거든 므슴 먹을 거ᄉᆞᆯ 내게 달ᄋᆞ라 <4:13b>
「蒙老」 손아 네 ᄂᆞᆾ 시섯ᄂᆞᆫ다 <4:8a>
「重老」 나그너들 ᄂᆞᆾ 씨스라 <上 56a>

ㄴ. 「飜老」 네 오난다 <上 58a>
「老諺」 네 오난다 <上 52ab>
「平老諺」 네 오나다 <上 52a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네 왓ᄂᆞ냐 <4:9b>
「蒙老」 네 오나다 <4:4b>
「重老」 네 오나다 <上 53a>

(4ㄱ)의 원문은 '客人們洗面了'이다. 이것이 『飜老』와 『老諺』에서는 '시서다'와 같이 확인법이 개재된 평서형 문장으로 언해되었으나 『平老諺』에서는 '시스라'와 같이 명령형의 문장으로 언해되었음을 볼 수 있다. 『平老諺』의 언해자들은 문맥상 명령형이 오는 것이 합당하리라 판단했고 이러한 판단 결과 『老諺』의 언해 양상을 그대로 묵수하지 않고 새로운 해석을 가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주목을 끄는 것은 『平老諺』의 이러한 언해 양상이 『重老』에서도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重老』에서 과거 회귀의 규거로 삼은 것은 『老諺』이 아닌 『平老諺』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ㄴ)의 원문은 '你來了'이다. 이에 대해 『飜老』와 『老諺』의 언해

자들은 의문형으로 언해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원문에 의문사적 요소가 없는 것을 고려할 때 평서형으로 언해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平老諺』에서 바로 그러한 수정을 행하고 있다. 역시 『重老』에서도 『平老諺』의 언해 양상을 수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平老諺』은 한어학습 중시의 전통 속에서 왕의 독려와 한어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한 그 당시 사역원 관계자들의 상당히 세심한 노력에 의해 간행된 책으로 보인다. 『平老諺』의 간행 의의로 우측 한자음의 수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뿐 아니라 『老乞大諺解』에서 미처 수정되지 못한 『飜老』의 잘못과 『老諺』 번역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그 당시의 언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자 했던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1.2.4. 『老乞大新釋諺解』

『老乞大新釋諺解』는 1763년 校書館에서 한어본 『老乞大新釋』과 함께 간행한 책이다. 안병희(1996)에서는 이 책이 18세기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간행된 일련의 역학서 新釋 중에 첫 번째로 간행된 책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 책은 1760년 역관 邊憲이 북경에 갔을 때 그 당시의 언어 현실에 맞게 『老乞大』를 수정하고 이에 언해를 행한 책으로 洪啓禧에 의한 그 序文이 남아있어 간행의 경위를 알 수 있다.

경진년(1760)에 명을 받들고 북경에 감에 미처 마침내 이 일을 천신에게 명하였다. 이 때에 역관 변헌이 사행 중에 있었는데 중국어를 잘한다고 이름이 났으므로 내가 변헌에게 오로지 맡길 것을 청하였다. 연관에 도착하여 조목조목 예문을 고치고 그 같고 다름을 구별하여 때에 맞고 시속을 편리하게 하기에 힘썼다. 그러나 고본(老乞大) 또한 없앨 수 없는지라 모두

함께 기록하게 하였으니 대개 存羊의 뜻인 것이다.

책이 이루어지매 이를 이름지어 『老乞大新釋』이라 하였으니 임금의 명을 받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朴通事新釋』을 金昌祚에게 맡길 뜻을 조정에 고하여 허락을 받았다. 이로부터 여러 책이 신석을 아울러 갖추어 통화하는데 막힘이 없게 되었다. 이제 이 신석은 통화에 편리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그래서 이따금 예전에는 '정음을 썼는데 이제 도리어 속음을 따름이 있는 것은 또한 어쩔 수 없다.

及庚辰銜命赴燕 遂以命賤臣焉 時譯士邊憲在行 以善華語名 賤臣請專屬於憲 及至燕館 逐條改證 別其同異 務令適乎時便於俗 而古本亦不可刪沒 故併錄之 蓋存羊之意也 書成名之曰老乞大新釋 承上命也 旣又以朴通事新釋 分屬金昌祚之意 筵稟蒙允 自此諸書幷有新釋 可以無礙於通話也 今此新釋 以便於通話爲主 故往往有舊用正音 而今反從俗者 亦不得已也

위와 같은 서문의 내용은 몇 가지 점에서 특이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행길에 나선 邊憲이 『老乞大新釋諺解』의 편찬에 매우 깊숙이 관여해 특히 중국 현지의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는 『老乞大新釋諺解』가 다른 어떤 『老乞大』의 이본들보다 당대의 언어 현실에 충실한 책이었음을 보인다. 또 存羊之義로서 古本의 우측 한자음과 원문을 함께 싣는다고 하였는데 이 때 古本이란 『平壤版 老乞大諺解』를 말한다. 뒤에서 논의할 『朴通事新釋諺解』가 『朴通事諺解』의 원문과 우측음을 싣지 않은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 책은 최근까지 전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안병희(1996)에 의해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소장 중인 卷11冊이 소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책의 版式은 四周雙邊에 半郭의 크기가 23.3×17cm이며 有界 10行에 1行 20字이고 注音과 번역은 雙行이다. 版心은 下向三葉花紋魚尾이고 卷首題는 老乞大新釋諺解이다. 원래는 3권이었다. 이렇게 분량이 는 것은 한 과가 끝나면 1자 낮추어서 洪

啓禧序에서 말한 古本 곧 『平壤版 老乞大諺解』에서 해당 원문과 우측음을 옮겨 실어서 책의 분량이 늘어난 때문이다. 한 과가 끝나면 古本의 내용을 싣느라 새 과는 새 행으로 시작하는 체재상의 변화를 보인다. 또 한 구의 번역이 끝나면 ㄴ과 같은 표시를 두기도 하였다.

『平老諺』에 비한다면 한어 원문, 주음, 번역이 모두 아주 새로워진 책이다. 앞에서 『平老諺』의 문헌 성격에 대해 언급할 때 밝혔듯이 『平老諺』의 간행으로부터 불과 20여 년도 채 안 되는 시점에 간행된 책인 『老乞大新釋諺解』는 『平老諺』에서는 수정되지 못한 우측음을 일신함으로써 실용성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우측음이 북방의 현실음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점을 잘 알 수 있다.

우측음뿐 아니라 한어 원문도 『平老諺』에 비해 새로워져 있다. 서문에 드러난 통화위주의 언해서 간행이라는 간행의 의도는 한어 원문의 개수와 그 번역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런데 『老新』에서 개수된 원문은 후대의 『重老』에 이어지기도 하고 다시 『重老』에서 『平老諺』식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2.1.3.에서 논의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일부 예만 들어두기로 한다.

(1) 「飜老」 이 ᄆᆞᆯ돌 다 머겨다 <上 37a>
「老諺」 이 ᄆᆞᆯ들 다 믈 머겨다 <上 33b>
「平老諺」 이 ᄆᆞᆯ들 다 믈 먹여다 <上 33b>
「老新」 이 ᄆᆞᆯ 다 믈 먹어다 <上 46b>
「清老」 다 믈 먹여 ᄆᆞᆾ다 <3:2b>
「蒙老」 이 ᄆᆞᆯ 다 물 먹여다 <2:24b>
「重老」 이 ᄆᆞᆯ 다 믈 먹어다 <上 33b>

(1)과 관련하여 『飜老』, 『老諺』 등에서는 '這馬都飮了'에 대해 사동문으로 언해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 『老新』에서는 '這馬都喝水了'

로 원문이 개수되었고 이에 따라 '말'을 주어로 하는 주동문으로 언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重老』에도 이러한 개수된 원문과 번역 양상이 그대로 이어져 나타나고 있다. 『淸老』와 『蒙老』의 번역이 『老新』과 『重老』보다는 『老諺』류에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다음으로 (2)를 보자.

(2) 「飜老」 뎨 가 곧 일어도 ᄯᅩ 됴ᄒᆞ니 우리 ᄆᆞ쇼 쉬워 ᄂᆡ실 일 녀져 <上 10b>
「老諺」 뎌긔 가 곳 일러도 됴ᄒᆞ니 우리 ᄆᆞ쇼 쉬워 ᄂᆡ일 일 녜쟈 <上 9b>
「平老諺」 뎌긔 가 곳 일러도 됴ᄒᆞ니 우리 ᄆᆞ쇼 쉬워 ᄂᆡ일 일 녜쟈 <上 9b>
「老新」 져긔 가 ᄣᅢ 비록 져기 일러도 죠ᄒᆞ니 즘ᄉᆡᆼ을 쉬워 ᄂᆡ일 일 녜미 맛당ᄒᆞ다 <上 13a>
「淸老」 일즉 니ᄅᆞ면 우리 ᄆᆞ쇼ᄅᆞᆯ 귀엿다가 ᄂᆡ일 일즉이 가쟈 <1:14a>
「蒙老」 져긔 가 일러도 ᄆᆞ쇼 쉬워 ᄂᆡ일 아ᄎᆞᆷ에 가쟈 <1:14a>
「重老」 져긔 가 비록 져기 일러도 죠ᄒᆞ니 즘ᄉᆡᆼ을 쉬워 ᄂᆡ일 일 녜쟈 <上 9b>

(2)의 원문은 『飜老』, 『老諺』, 『平老諺』의 '明日早行'이 『老新』에서 '明日早行的便宜'와 같이 개수되고 다시 『重老』에서는 『老新』 이전으로 회귀하여 '明日早行'이 됨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언해도 동궤의 회귀 양상을 보여 『飜老』, 『老諺』, 『平老諺』의 '-쟈'로 끝나는 청유문이 『老新』에서는 '맛당ᄒᆞ-'로 끝나는 평가구문으로 다시 『重老』에서는 '-쟈'로 끝나는 청유문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책의 구절 구절이 새로움을 보일 뿐 아니라 전반적인 科의 수도 달라졌다. 107科였던 科가 111科로 늘어난 것이 『老新』의 큰 특징이다. 科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안병희(1996)에서 『老諺』의 81科, 84科,

98科, 99科가 일부 내용이 보충되어 두 과로 나뉘었기 때문임이 언급된 바 있다.

『老新』은 『飜老』에서 『平老諺』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일관되게 지속되어온 『老乞大』 언해본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여 당대의 시대적 요청에 충실한 통화위주의 실용적인 한어학습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 간행되었다. 그 원문과 번역이 후대의 『重老』에 그대로 이어지거나 개수되는 면모를 보임이 주목된다. 『重老』와의 관계를 탐색하는 일도 『老新』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2.1.2.5. 『重刊老乞大諺解』[7]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正祖代의 『重老』는 『老乞大』의 여러 異本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원문의 개수가 이루어진 한문본 『重刊老乞大』를 언해한 책이다.

이 글에서 주로 다루게 될 언해본 『重老』는 1795년(正祖 19 乙卯)에 간행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문본인 『重刊老乞大』와 동시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책 모두 序文과 跋文이 없지만 한문본 『重刊老乞大』의 권말에 있는 '乙卯仲秋 本院重刊'이라는 刊記와, 언해본 『重刊老乞大諺解』의 앞 표지 上包角의 자리에 보이는 '乙卯重刊'[8]이라는 墨書가 일치함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이는 '乙卯'가 언제인지가 문제될 터인데 안병희(1996)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한문본의 刊記 앞에 적힌 校檢官 李洙 등 7명,[9] 校整官 洪宅

7) 이 부분은 졸고(2000:278~289)의 내용을 가감하고 수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8) 이러한 墨書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重刊老乞大諺解』의 한 책에서만 발견된다. 도서번호 <규 5566>을 가진 책이 그것이다.
9) 校檢官으로 李洙, 張濂, 金倫瑞, 玄啓桓, 李鎭復, 李邦曄, 鄭思玄의 명단을 확인할

福 등 10명[10], 書寫官 崔瑊 등 10명[11], 監印官 張壽 등 편찬에 관계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의 활동 연대를 고려한다면 1795년 司譯院에서 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2]. 이 밖에 正祖代 전후에 전국에 산재했던 책판들을 기록한 『鏤板考』(1796) 卷四 譯語類의 '老乞大一卷 諺解二卷 不著撰人名氏, 雜敍華語 用之象鞮較藝之時 其諺解則崔世珍撰 當宁乙卯 司譯院奉敎重訂. 司譯院藏印紙四牒九張'과 같은 기록도 이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이 책은 木版本으로 2卷 2冊으로 이루어져 있다. 半葉匡郭은 22.3×16.2cm이다. 四周單邊에 版心은 上二葉花紋魚尾이고 每面은 10行 20字를 이루고 있다. 일정한 구절을 단위로 구분된 원문의 각 한자에 正音과 俗音의 한자음을 한글로 달고 그 아래 해당되는 원문에 대해 한글로 번역문을 부기하되 ○로써 원문과 번역문의 구분을 도모하였다. 版心에서 張次 아래 가로줄을 둔 것만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版式은 전대의 『老新』과 꼭 같다. 내용에 있어 『老諺』의 科의 수 107이 111로 늘어난 것과 科가 바뀔 때 行을 바꾸어 새로운 行으로 시작하는 방식까지 『老新』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구성과 체재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 『老新』에는 每 科가 끝날 때에 함께 실려 있는 『平老諺』의 원문과 右側의 한자음(俗音)이 『重老』에는 빠져 있다.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存羊之意'의 뜻으로 『老新』에 실린 『平老諺』의 원문과 右側의 한자음에 대한 참조가 더 이상 불필요하였을 것이라 추측된다. 특히

수 있다.

10) 校整官으로 洪宅福, 李永達, 玄烑, 張舜相, 玄以遠, 李時觀, 張翼相, 洪處純, 邊鎬, 李時健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11) 書寫官으로 崔瑊, 李時鼎, 玄淇, 李光祜, 吳命毅, 鄭仁儉, 李觀濠, 李宜敬, 邊性求, 方重叔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12) 안병희(1996)에서는 이 밖에 언해본의 字體가 한문본의 그것과 비슷한 점, 1796년 간행의 『鏤板考』 卷四의 '老乞大二卷 諺解二卷 司譯院藏'등의 기록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右側의 한자음에 있어서는 『老新』의 새로운 수정이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重老』에서의 한자음은 左側이든 右側이든 모두 『老新』의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자음에 관한 한 『重老』는 그 새로운 간행의 의의를 찾을 수 없는 셈이다.[13)]

그러나 원문과 그 번역문에 있어서는 사정이 달랐던 듯하다. 『重老』에는 『老新』의 원문과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인 곳도 있지만 다시 『平老諺』의 원문과 번역으로 돌아간 부분, 전대본들의 원문과 번역 어느 것도 따르지 않은 채 『重老』 독자적으로 새로이 수정을 가한 부분 등 다양한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平老諺』의 원문과 번역으로 돌아간 부분에 대해 안병희(1996)에서는 『老新』의 수정을 수용한 것도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老新』의 서문의 '逐條改證別其同異 務令適乎時便於俗'의 구절 등이 보여주듯이 通話 위주의 『老新』의 새로운 수정이 지나침이 많아 『重老』는 지나친 時俗에 따른 『老新』의 수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에서 편찬 간행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것은 『重老』의 내용 중 『老新』의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平老諺』의 원문과 번역으로 다시 회귀한 부분[14)]에 대해서 매우 타당한 설명을 제공한다.

---

13)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重刊老乞大』는 한문본, 언해본 모두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만 해도 언해본 9종을 비롯한 총 20여 종의 『重刊老乞大』가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奎 4866>, <一簑 古 495.1824-Y63jc-v.2>의 번호를 가지는 책이 朱墨으로 聲調를 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성조는 김완진(1978)에서 국어의 성조치를 기준으로 한 중국어 성조의 표기라 확인된 바 있다. 다만 김완진(1978)에서는 一簑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奎 4866>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14) 이러한 부분은 책 전체에 걸쳐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卷 上의 첫 대사부터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 원문에 있어 『老乞大新釋諺解』의 '阿哥你打那裏來'가 『重刊老乞大諺解』에는 '大哥你從那裏來'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重刊老乞大諺解』의 원문은 『平壤版 老乞大諺解』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平壤版 老乞大諺解』로의 회귀적 수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런데 이에 덧붙여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 『重老』에는 『平老諺』로 회귀하거나 『老新』을 그대로 수용한 부분뿐 아니라 『重老』에서 독자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는 사실이다. 『重老』만이 보이는 독자적인 수정 부분은 『重老』의 간행에 대한 중요한 의의가 될 수 있을 듯하다. 『老新』이 간행된 지 불과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重老』를 간행한 것은 지나치게 時俗을 따른 『老新』에 대한 불만에 입각한 옛것(『平老諺』)으로의 회귀라는 의의뿐 아니라 옛것으로 회귀하기에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老新』의 것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도 불만인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수정과 번역이라는 의의도 가지는 것이다. 『重老』를 포함한 이본들을 비교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들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異本들별로 원문과 언해를 제시하기로 한다.

(1) 「飜老」 너희 ᄒᆞ마 姑舅 兩姨예셔 난 형뎨로딕 엇디 길 조차셔 더러운 말소믈 회피티 아니ᄒᆞᄂᆞᆫ다 你們旣是姑舅兩姨弟兄 怎麽沿路穢語不迴避 <上 16b>

「老諺」 너희 이믜 姑舅 兩姨에 난 弟兄일쟉시면 엇디 길흘 조차셔 더러온 말을 회피티 아니ᄒᆞᄂᆞ뇨 你們旣是姑舅兩姨弟兄 怎麽沿路穢語不迴避 <上 15a>

「平老諺」 너희 이믜 姑舅 兩姨에 난 弟兄일쟉시면 엇지 길흘 조차셔 더러온 말을 회피티 아니ᄒᆞᄂᆞ뇨 你們旣是姑舅兩姨弟兄 怎麽沿路穢語不迴避 <上 15a>

「老新」 너희 이믜 姑舅 兩姨에 난 弟兄이면 엇지 길히 戱言이 만하 전혀 避諱치 아니ᄒᆞᄂᆞ뇨 你們旣是姑舅兩姨弟兄 怎麽沿路上多有戱言 全不避諱呢 <上 15a>

「清老」 〔해당문장 없음〕

「蒙老」 〔해당문장 없음〕

「重老」 너희 이믜 姑舅 兩姨에 난 弟兄이면 엇지 길히 戱言이 만ᄒᆞ뇨 你們旣是姑舅兩姨弟兄 怎麽沿路上多有戱言 <上 15a>

(2)「飜老」 우리 ᄒᆞᆫ 가짓 ᄉᆞ톄 모ᄅᆞ는 사ᄅᆞᆷ돌히 친동싱 형뎨도 말ᄉᆞᆷ ᄌᆞᅀᅳᆷ 아니ᄒᆞᄂᆞ니 姑舅 兩姨 ᄉᆞᅀᅵ예 ᄯᅩ 어듸 무르료 我一們不會體例的人 親弟兄也不隔話 姑舅兩姨更那裏問 <上 16b-17a>

「老諺」 우리 ᄒᆞᆫ 뉴는 體例 모로는 사ᄅᆞᆷ이니 親同生 兄弟도 말을 ᄌᆞᅀᅳᆷ 아니ᄒᆞ거든 姑舅 兩姨야 ᄯᅩ 어듸 무로리오 我一們不會體例的人 親弟兄也不隔話 姑舅兩姨更那裏問 <上 15a>

「平老諺」 우리 ᄒᆞᆫ 뉴는 體例 모로는 사ᄅᆞᆷ이니 親同生 兄弟도 말을 ᄌᆞᅀᅳᆷ 아니ᄒᆞ거든 姑舅 兩姨야 ᄯᅩ 어듸 무르리오 我一們不會體例的人 親弟兄也不隔話 姑舅兩姨更那裏問 <上 15a>

「老新」 이 우리 ᄭᅥ리지 아닌는 사ᄅᆞᆷ은 親弟兄이 말을 ᄒᆞ여도 오히려 혜아리지 아니ᄒᆞ거든 ᄒᆞ믈며 이 姑舅 兩姨에 난 弟兄이야 ᄯᅩ 엇지 반ᄃᆞ시 혀기리오 這是我們不忌的人家 親弟兄說話 尙不計較 況是姑舅兩姨的弟兄 又何必理論啊 <上 20b>

「淸老」 〔해당문장 없음〕

「蒙老」 〔해당문장 없음〕

「重老」 우리는 體例 모로는 사ᄅᆞᆷ이오 ᄯᅩ 길ᄒᆡ 힘힘ᄒᆞᆫ 말이매 自然이 능히 回避치 못ᄒᆞ여라 我們不會體例的人 又是路上閑話 自然不能迴避了 <上 15a>

(1)과 (2)는 물음과 그에 대한 응답이다. (1)에서 『重老』의 원문은 『老新』의 원문 내용 중 '全不避諱呢' 부분을 삭제하고 있다. (2)의 『平老諺』, 『老新』, 『重老』의 원문도 제 각각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해 양상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重老』가 『老新』의 원문과 번역에 대한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平老諺』으로의 회귀도 보이지 않고 있다. 『重老』 나름의 수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의 언해문에 있어서는 『老新』의 경우 수사의문문을 고수하고 있음에 비해 『重老』에서는 감탄문으로 번역하여 문장의 종류까지 달리하여 번역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3) 「飜老」 우리 오ᄂᆞᆳ바믜 어듸 가 자고 가료 咱們今夜那裏宿去 <上 9b>
「老諺」 우리 오ᄂᆞᆯ밤의 어듸 자고 가료 咱們今夜那裏宿去 <上 9a>
「平老諺」 우리 오ᄂᆞᆯ밤의 어듸 자고 가료 咱們今夜那裏宿去 <上 9a>
「老新」 우리 오ᄂᆞᆯ밤의 어ᄃᆡ 가 머믈료 咱們今夜那裏居住呢 <上 12a-b>
「淸老」 우리 오ᄂᆞᆯ밤의 어ᄃᆡ 자라 가리오 <1:13a>
「蒙老」 우리 오ᄂᆞᆯ밤 어ᄃᆡ 자라 가료 <1:13a>
「重老」 우리 오ᄂᆞᆯ밤에 어ᄃᆡ 가 머믈료 咱們今夜那裏居住 <上 9a>

(3)에서도 『平老諺』의 원문이 『老新』에서 수정되고 있으나 그것을 『重老』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문말의 '呢'를 삭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5] 결과적으로 여기서 『重老』의 원문은 『平老諺』의 원문과 『老新』 원문의 중간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문헌들간의 내적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重老』가 『老新』에서 보이는 수정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마땅치 않을 때에는 『平老諺』으로의 회귀를 행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그 나름의 새로운 수정을 가하여 독자적으로 新·舊의 조화를 행하려 했다는 점이다.[16] 여기서 확인된 사실은 『重老』가 독자적인 간행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라

15) 『老乞大新釋諺解』의 원문에서는 의문문이나 드물게는 평서문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 문말에 '呢'를 통합시키고 있다는 점이 전대본과 차이를 보이는 점 중 하나이다. 그러나 『重刊老乞大諺解』에서는 본문의 예를 포함하여 많은 경우 이 어말의 '呢'를 삭제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6) 『老乞大新釋諺解』와 『重刊老乞大諺解』에서는 원문의 구절 끊음이 달리 되어 번역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찾을 수 있다. 『老乞大新釋諺解』에는 '大哥○可知道○京裏馬價如何<上 11a>'와 같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重刊老乞大諺解』에는 '大哥可知道○京裏馬價如何<上 8a>'와 같이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大哥' 부분이 『老乞大新釋諺解』에서는 호격으로 처리되어 '큰형아 알 써시니 셔울 ᄆᆞᆯ 갑시 엇더ᄒᆞᆫ고'와 같이 언해되어 있는 반면 『重刊老乞大諺解』에는 '大哥'부분이 전체 문장의 주어로 처리되어 '큰 형이 알 써시니 셔울 ᄆᆞᆯ 갑시 엇더ᄒᆞᆫ고'와 같이 언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하겠다.

한어 학습서 『重老』의 간행은 한편으로는 조선조 대대로 강조되었던 한어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사대와 교린 정책을 國是로 삼았던 조선 왕조에 있어서 한어 학습 중시의 전통은 한어 학습서의 편찬으로뿐 아니라 일찍부터 중국에 사람을 보내어 한어 학습서를 질정시켰던 전통과 역관들에 대한 의식적 우대 정책 등으로도 나타났었다. 正祖代에 간행된 『重老』의 간행 역시 이러한 배경과 연관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 正祖代 이전에도 景宗代의 『伍倫全備諺解』의 편찬과 英祖代의 『平壤版 老乞大諺解』, 『老乞大新釋諺解』의 편찬을 통해 우리는 한어 학습이 지속적으로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어가 이렇게 중시되었던 것은 중국 땅에 청나라가 이미 발흥했음에도 여전히 한어가 공식적인 외교 언어로서 不動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실록의 곳곳에서 청나라와의 실제 외교 상황에 있어서 한어가 주로 사용되었음을 보이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正祖代의 실록 기록에서도 여전히 한어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돌아온 사은 정사 홍낙성(洪樂性) 등을 소견하고 연경(燕京)의 사정을 묻자 홍낙성이 아뢰기를 "彼國이나 我國에서 실정을 아는 것은 오로지 언어 수작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신들은 한어에 미숙하였고 이른바 역관들의 언어는 장사치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때에 주고 받는 이야기 수준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관(朝官)과 사인(士人)이 서로 접촉할 경우에는 피차간에 대화를 통할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신이 이미 저 같고 역관이 또한 이 같으니 참으로 잘못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전[17]에는 문관에게 한어를 익히도록 한 것이 거듭 엄격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는

17) 英祖代를 이른다.

데 요즈음에 자못 폐기되거나 해이해졌습니다. 전배(前輩)인 명석(名碩)들은 상역배(象譯輩)에게 한어로 수작한 경우가 많았는데, 역시 옛날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일에 대비하는 깊은 생각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하니 司譯院에 명하여 상확(商確)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正祖 8年 3月 4日 己丑)

己丑 召見回還謝恩正使洪樂性等問燕中事情樂性啓彼我國通情寔在於言語酬酢而使臣初未諳漢語所謂譯官言語不過商賈賣買間說話而已若與朝官士人相接則彼此多不能通話使臣旣如彼譯官又如此誠非細慮三十前文官肄習漢語非不申嚴而近頗廢弛前輩名碩多對象譯輩以漢語酬酌亦可見古人備不虞之深慮也命譯院商確稟處

위와 같은 기록들은 正祖代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불만족스러운 한어 실력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하고 있음을 보인다. 『重老』의 간행은 이러한 불만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노력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老新』의 간행에서 불과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또 다른 『老乞大』 이본의 간행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위와 같은 분위기가 『重老』의 간행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앞에서 문헌간의 내적 비교를 통해 『重老』가 新·舊의 장점을 취하여 전대본의 결점을 극복한 그 당대에 있어서는 일종의 완결본적 성격을 띤다고 말한 바 있다. 正祖의 시대는 그 전 시대 英祖代의 업적을 계승하고 그에 융성함을 더하여 그야말로 조선 후기에 있어 문예부흥의 절정을 이루었다고들 말한다. 어문 정책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던 듯하다. 英祖代에 편찬된 『老新』에 대하여 正祖代에 『重老』를 편찬한 것은 正祖가 英祖代에 편찬된 韻書 『三韻聲彙』(英祖 27, 1751)나 『華東正音通釋韻考』(英祖 23, 1747) 등에 대해 가졌던 불만을 『奎章全韻』(正祖 20, 1796)과 그에 따른 字典 『全韻玉篇』(正祖 20, 1796) 등의 편찬을 통해 극복한 예와 비교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重老』에 『老新』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은 채 『重老』 독자적으로 수정을 가한 부분이나 『平老諺』로 회귀한 부분들이 많음을 상기해 볼 수 있다. 『老新』에 대한 불만을 극복하고 개선하여 新·舊의 조화를 꾀한 책이 『重老』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英祖代의 『老新』과 正祖代의 『重老』와의 간행 연대 시간차가 불과 30여 년 내외라는 점도 매우 의아스럽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 점도 英祖代 韻書 편찬과 正祖代 韻書 편찬의 시간차가 단 40여 년 내외라는 점과 관련시켜 생각한다면 그다지 부자연스럽지만은 않은 일인 것이다. 정조는 새로운 운서 편찬을 통한 韻學 정비와 한어 학습서의 重刊을 통한 譯學의 정비를 통해 어문정책에 있어 英祖代의 업적을 계승하고 보완·발전시켜 새로이 부흥의 한 축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이 중 역학의 정비라는 부흥의 한 一角을 이루는 데에 있어 『重老』의 간행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18]

18) 김완진(1992)에서 『重刊老乞大諺解』의 출현을 正祖代의 문화사업, 특히 韻學과 譯學의 정비 작업의 一角으로 보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그 당시의 운서 편찬과 역학서 편찬을 어문 정책 진흥이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조망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김완진(1992)에서는 이 때 편찬된 운서와 역학서의 상호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즉 『奎章全韻』의 출현 연대가 『重刊老乞大諺解』의 간행 다음해인 1796년(正祖 20) 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正音이 중시된 『奎章全韻』의 정신이 『重刊老乞大諺解』에 반영되어 '麽'와 같은 한자에 대한 左側音을 『重刊老乞大諺解』에서 '마'가 아닌 '뭐'라 적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745년(英祖 21) 간행의 『平壤版 老乞大諺解』에서 이미 左側音으로 '뭐'와 같은 注音이 나타남을 감안할 때에 『重刊老乞大諺解』의 左側音 注音을 꼭 『奎章全韻』(1796)의 정신이 반영되어 이루어진 결과라고만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미 『平壤版 老乞大諺解』에서 수정된 左側音(正音)은 『老乞大新釋諺解』에도 그대로 이어지며 이 左側音이, 『老乞大新釋諺解』에서 새로이 수정된 右側음과 함께 그대로 『重刊老乞大諺解』에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2.1.3. 『老乞大』의 중국어 원문 및 언해 양상의 비교

전대본을 참조하지 않은 중간본들, 또 현존하지 않는 이본들 때문에 그 비교 과정이 완전하기 어려운 『朴通事』의 이본들과는 달리 『老乞大』의 이본들은 그 종류가 풍부할 뿐 아니라 전해지지 않는 이본이 『老新』 下卷에 국한되기에 상대적으로 異本들 간의 비교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한어본을 번역한 『老乞大』의 언해본들 이외에 『淸老』와 『蒙老』가 있는데 이들을 비교 대상에 넣는 일은 다소 무리가 따르는 면이 없지 않다. 우선 이들이 한어 원문에 근거한 번역본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국어사적 사실 등이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은 동시대 어느 문헌들보다도 귀중한 비교 자료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이들이 한어본 『老乞大』의 번역본들과 동일한 출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을 한어본 『老乞大』의 언해본들과 비교할 때 약간 거리를 두고 보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어본 언해본들과의 비교가 이들 문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우선적인 비교대상은 『飜老』의 원문, 『老新』(上)의 원문, 『重老』의 원문이 될 것이다. 『老新』은 남아 있는 것이 상권뿐이기 때문에 그 현존본만을 비교대상으로 한다. 『老新』의 경우 상권만이 현존하기 때문에 하권에 관해서는 『飜老』와 『重老』의 한어 원문의 언해 반영 양상 등만이 논의될 것이다. 『淸老』와 『蒙老』는 그 원문이 한어가 아니기에 언해만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행의 배경과 경위에 따라 상이한 책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문의 개수 양상에 따른 언해의 변화 양상에 대해 주된 관심을 둘 때 우선 이본들간의 변화 양상은 두 가지 정도로 구분되어 논의될

수 있다. 원문의 변화가 그대로 언해 양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와 원문이 변화하지 않았는데 언해 양상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주 관심 대상이 번역문인 언해문이긴 하지만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 원문의 변화가 번역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한 그 원문의 변화는 충분히 언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번역문과의 관계도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같은 원문에 대한 언해자들의 번역 태도의 차이를 알려 주거나 수직적인 국어사적 변화를 추적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추적된 국어사적 변화에 대한 논의는 3장과 4장에서 논의될 범위의 것이다.

우리는 원문의 변화되는 경우와 그에 따라 언해 양상이 변화하는 경우를 좀더 자세히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능한 경우는

(ㄱ) 『飜老』·『老諺』·『平老諺』(A)의 원문이 『老新』(B)에서 바뀌었다가 다시 『飜老』·『老諺』·『平老諺』(A)의 원문으로 『重老』(C)에서 회귀한 경우
(ㄴ) 『飜老』·『老諺』·『平老諺』(A)의 원문과 『老新』(B)의 원문은 동일하지만 『重老』(C)의 원문이 다른 경우
(ㄷ) 『飜老』·『老諺』·『平老諺』(A)의 원문이 『老新』(B)의 원문에서 바뀌고 이것이 『重老』(C)의 원문에서도 유지된 경우
(ㄹ) 삼자(A, B, C)의 원문이 모두 상이한 경우
(ㅁ) 삼자(A, B, C)의 원문이 동일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한 논의에 있어 『重老』를 논의의 중심으로 삼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重老』의 원문을 살펴보면 대응하는 『老新』의 원문이 『飜老』·『老諺』·『平老諺』의 원문으로 회귀한 부분이 많다. 이는 『老新』의 새로운 개수 부분이 너무 時俗만을 좇아 지나친 감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이 있다. (ㄴ)은

『重老』가 전대본들의 전례를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새로이 개수를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ㄷ)은 『老新』의 개수를 『重老』가 그대로 수용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ㄹ)과 (ㅁ)은 다른 유형들보다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편이다. 이제 원문이 나타나는 양상의 유형별로 언해문이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ㄱ)과 같은 경우에 그에 영향 받은 언해도 원문의 양상과 동궤의 회귀를 보인다. 다음의 예를 보자.

(1) 「飜老」 뎨 가 곧 일어도 ᄯᅩ 됴ᄒᆞ니 우리 ᄆᆞ쇼 쉬워 ᄂᆡ일 일 녀져 <上 10b>
「老諺」 뎌긔 가 곳 일러도 됴호니 우리 ᄆᆞ쇼 쉬워 ᄂᆡ일 일 녜쟈 <上 9b>
「平老諺」 뎌긔 가 곳 일러도 됴호니 우리 ᄆᆞ쇼 쉬워 ᄂᆡ일 일 녜쟈 <上 9b>
「老新」 져긔 가 ᄣᅢ 비록 져기 일러도 죠호니 즘ᄉᆡᆼ을 쉬워 ᄂᆡ일 일 녜미 맛당ᄒᆞ다 <上 13a>
「淸老」 일즉 니ᄅᆞ면 우리 ᄆᆞ쇼ᄅᆞᆯ 귀엿다가 ᄂᆡ일 일즉이 가쟈 <1:14a>
「蒙老」 져긔 가 일러도 ᄆᆞ쇼 쉬워 ᄂᆡ일 아ᄎᆞᆷ에 가쟈 <1:14a>
「重老」 져긔 가 비록 져기 일러도 죠호니 즘ᄉᆡᆼ을 쉬워 ᄂᆡ일 일 녜쟈 <上 9b>

(1)에서는 『飜老』, 『老諺』, 『平老諺』의 원문 '明日早行'이 『老新』에서 '明日早行的便宜'와 같이 개수되고 다시 『重老』에서는 『老新』 이전으로 회귀하여 '明日早行'이 됨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언해도 동궤의 회귀 양상을 보여 『飜老』, 『老諺』, 『平老諺』의 '-쟈'로 끝나는 청유문이 『老新』에서는 '맛당ᄒᆞ-'로 끝나는 평가구문으로 다시 『重老』에서는 '-쟈'로 끝나는 청유문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ㄴ)의 유형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는 듯 하지만 실제 찾아보면 잘 찾아지지 않는다. (ㄴ)의 유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老新』을 중심으로 말한다면 『老新』에서 전대본의 원문과 번역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에는 그것이 『重老』에서도 어김없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老新』에서 전대본의 원문과 번역이 변화를 보이는 경우에는 『重老』에서 그것이 유지되거나 혹은 『老新』 이전의 전대본으로 회귀하거나 『重老』 나름의 수정이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老新』에서 전대본의 내용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것이 다시 『重老』에서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유지되었던 것이다. 이는 우선 전대본의 언어라 할지라도 상당히 과격한 변화를 지향한 『老新』의 감각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내용이었다면 수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단 『老新』에서 수용 가능했던 전대본의 언어였다면 지나친 『老新』의 시속에 따른 번역 양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한 축의 간행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重老』로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였을 것이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 때문에 『老新』에서 유지하기로 결정이 된 전대본들의 내용은 어김없이 『重老』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며 이로 인해 (ㄴ)의 유형을 찾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ㄷ)의 유형은 상당히 많다. 이는 『重老』의 간행이 『老新』의 간행에서 불과 30여 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로부터도 짐작 가능한 일이다. 『老新』의 전대본 원문에 대한 새로운 개수를 『重老』가 수용한 예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2)

ㄱ. 「飜老」 우리 앏프로 나ᅀᅡ가 십 리만 싸해 ᄒᆞᆫ 뎜이 이쇼ᄃᆡ <上 9b-10a>

「老諺」 우리 앏흐로 향ᄒᆞ여 녜여 十里ᄂᆞᆫ ᄒᆞᆫ ᄯᅡ히 ᄒᆞᆫ 店이 이쇼ᄃᆡ <上 9a>
「平老諺」 우리 앏흐로 향ᄒᆞ여 녜여 十里ᄂᆞᆫ ᄒᆞᆫ ᄯᅡ히 ᄒᆞᆫ 店이 이쇼ᄃᆡ <上 9a>
「老新」 우리 앏흘 향ᄒᆞ여 녜여 十里 남즉ᄒᆞᆫ 길히 ᄒᆞᆫ 店이 이시되 <上 9ab>
「清老」 우리 앏흐로 녜여 십리 숫히 ᄒᆞᆫ 瓦店 이시니 <1:13b>
「蒙老」 우리 앏프로 행ᄒᆞ야 천리 ᄯᅡ히 ᄒᆞᆫ 瓦子점이 이시니 <1:13b.
「重老」 우리 앏흘 향ᄒᆞ여 녜여 十里 남즉ᄒᆞᆫ 길히 ᄒᆞᆫ 店이 이시니 <上 9ab>

ㄴ. 「飜老」 네 이 여러 ᄆᆞ쇼돌히 밤마다 먹는 딥과 콩이 대되 언머만 쳔이 드ᄂᆞᆫ고 <上 11b>
「老諺」 네 이 여러 ᄆᆞ쇼돌히 밤마다 먹ᄂᆞᆫ 딥과 콩이 <u>대되 돈이 언메나 ᄒᆞ고</u> <上 10b>
「平老諺」 네 이 여러 ᄆᆞ쇼돌히 밤마다 먹ᄂᆞᆫ 딥과 콩이 <u>대되 돈이 언매나 ᄒᆞ고</u> <上 10b>
「老新」 네 이 여러 즘싱이 每夜에 언머 집과 콩을 먹이며 <u>대되 언멋 돈을 쓰ᄂᆞ뇨</u> <上 14b>
「清老」 밤마다 먹ᄂᆞᆫ 집과 콩이 대되 언머 돈 虛費ᄒᆞᄂᆞᆫ다 <1:15b>
「蒙老」 네 이 ᄆᆞ쇠 밤마다 먹ᄂᆞᆫ 집과 콩이 대되 언마 ㅅ 돈고 <1:15b>
「重老」 네 이 여러 즘싱이 每夜에 언멋 집과 콩을 먹으며 <u>대되 언멋 돈을 ᄒᆞᄂᆞ뇨</u> <上 10b>

ㄷ. 「飜老」 ᄆᆞᆯ돌ᄒᆞᆯ 머기라 <上 35a>
「老諺」 ᄆᆞᆯ들을 먹이라 <上 31b>
「平老諺」 ᄆᆞᆯ들로 먹이라 <上 31b>
「老新」 <u>ᄆᆞᆯ 먹기 넉넉ᄒᆞ랴</u> <上 43b>
「清老」 ᄆᆞᆯ 먹이라 <2:25a>
「蒙老」 ᄆᆞᆯ을 먹이라 <2:21b>

「重老」 ᄆᆞᆯ 먹기 넉넉ᄒᆞ랴 <上 31b>

ㄹ. 「飜老」 이 ᄆᆞᆯᄃᆞᆯ 다 머겨다 <上 37a>
「老諺」 이 ᄆᆞᆯ들 다 믈 머겨다 <上 33b>
「平老諺」 이 ᄆᆞᆯ들 다 믈 먹여다 <上 33b>
「老新」 이 ᄆᆞᆯ 다 믈 먹어다 <上 46b>
「淸老」 다 믈 먹여 ᄆᆞᄎᆞᆺ다 <3:2b>
「蒙老」 이 ᄆᆞᆯ 다 믈 먹여다 <2:24b>
「重老」 이 ᄆᆞᆯ 다 믈 먹어다 <上 33b>

(2ㄱ)의 원문 '十里來田地裏'가 『老新』에서 '十多里路'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重老』에서도 '十多里路'로 유지되고 있다. 언해 역시 『飜老』, 『老諺』, 『平老諺』 등의 '십리ᄂᆞᆫ ᄒᆞᆫ ᄯᅡ해', '십리만 ᄯᅡ해'가 『老新』에서 '십리 남즉ᄒᆞᆫ ᄯᅡ히'로 바뀌었으며 이것이 『重老』에서도 '십리 남즉ᄒᆞᆫ ᄯᅡ히'로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ㄴ)에서 원문 '通該多少錢'이 『老新』에서 '共用多少錢'이 되고 이것이 『重老』에서도 '共用多少錢'으로 이어진다. 언해에 있어서도 『平老諺』의 '대되 돈이 언메나 ᄒᆞ고'가 『老新』에서 '대되 언멋 돈을 쓰ᄂᆞ뇨'와 같이 바뀌고 이것이 『重老』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ㄷ)에서는 『飜老』, 『老諺』, 『平老諺』 등의 원문의 '着馬喫'이 『老新』에서 '可勾馬吃麽', 『重老』에서 '可勾馬喫麽'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老新』에서부터는 문장의 종류 자체가 달라져 있다. 『飜老』, 『老諺』, 『平老諺』 등의 평서문이 『老新』과 『重老』에서는 의문문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어김없이 언해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위의 예는 『老新』과 『重老』의 문장의 종류가 같다는 점을 고려할 때 『老新』의 원문과 번역이 『重老』에도 유지된 예로 볼 수 있지만 원문에 쓰인 글자에 있어 약간 차이를 보이며 이

에 번역도 약간 달라짐을 볼 수 있다. 『重老』가 『老新』의 수정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老諺』 등의 원문에 쓰인 글자 '喫'을 원문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重老』는 『老新』의 수정을 받아들인 가운데에 『老新』의 수정이 지나치다 싶을 때에 위와 같이 『老諺』 등의 원문에 포함된 글자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기도 했음을 볼 수 있다.

(2ㄹ)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飜老』, 『老諺』 등에서는 '這馬都飲了'에 대해 사동문으로 언해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 『老新』에서는 '這馬都喝水了'로 원문 자체가 개수되었고 이 개수된 원문에 대해 '말'을 주어로 하는 주동문으로 언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重老』에도 『老新』에서 개수된 원문과 번역 양상이 그대로 이어져 나타나고 있다. 『淸老』와 『蒙老』의 번역이 『老新』과 『重老』보다는 『老諺』이나 『平老諺』에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한편 (ㄹ) 유형의 것으로 다음과 같은 예가 참조된다.

(3)
ㄱ. 「飜老」 엳가온 우므레 노호로 믈 기러 내ᄂᆞ니라 <上 31b>
「老諺」 엿트나엿튼 우믈이니 그저 줄드레로 믈을 깃ᄂᆞ니라 <上 28b>
「平老諺」 엿트나엿튼 우믈이니 그저 줄드레로 믈을 깃ᄂᆞ니라 <上 28b>
「老新」 져 우믈이 甚히 엿허 그저 줄드레로 믈을 깃고 <上 39b>
「淸老」 우믈이 ᄀᆞ장 엿흐니 줄드레로 믈을 깃고 <2:20b>
「蒙老」 엿튼 우물이니 줄 드릐로 물을 깃ᄂᆞ니 <2:17a>
「重老」 져 우믈이 ᄀᆞ장 깁지 아니ᄒᆞ여 그저 줄드레로 믈을 깃고 <上 28b>

ㄴ. 「飜老」 우리 ᄒᆞᆫ 가짓 ᄉᆞ톄 모ᄅᆞ는 사ᄅᆞᆷ돌히 친동싱 형데도 말솜 즈음 아니ᄒᆞᄂᆞ니 姑舅 兩姨 ᄉᆞᅀᅵ예 ᄯᅩ 어듸 무르료 <上 16b-17a>
「老諺」 우리 ᄒᆞᆫ 뉴는 體例 모로는 사ᄅᆞᆷ이니 親同生 兄弟도 말을 즈음

아니ᄒᆞ거든 姑舅 兩姨야 ᄯᅩ 어ᄃᆡ 무로리오 <上 15a>

「平老諺」 우리 ᄒᆞᆫ 뉘ᄂᆞᆫ 體例 모로ᄂᆞᆫ 사ᄅᆞᆷ이니 親同生 兄弟도 말을 즈음 아니ᄒᆞ거든 姑舅 兩姨야 ᄯᅩ 어ᄃᆡ 무르리오 <上 15a>

「老新」 이 우리 ᄡᅥ리지 아닌ᄂᆞᆫ 사ᄅᆞᆷ은 親弟兄이 말을 ᄒᆞ여도 오히려 혜아리지 아니ᄒᆞ거든 ᄒᆞ믈며 이 姑舅 兩姨에 난 弟兄이야 ᄯᅩ 엇지 반ᄃᆞ시 혀기리오 <上 20b>

「淸老」 우리 길 ᄃᆞᆫ닐 제 예하며 사양ᄒᆞ며 ᄃᆞᆫ니면 조올린 고로 짐즛 회롱ᄒᆞ엿노라 <上 1:23>

「蒙老」 〔해당문장 없음〕

「重老」 우리ᄂᆞᆫ 體例 모로ᄂᆞᆫ 사ᄅᆞᆷ이오 ᄯᅩ 길히 힘힘ᄒᆞᆫ 말이매 自然이 능히 回避치 못ᄒᆞ여라 <上 15a>

(3ㄱ)에서는 일단 『老諺』, 『老新』, 『重老』의 원문 자체가 제 각각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老諺』의 원문은 '淺淺的井兒 只着繩子拔水'인 반면 『老新』의 원문은 '井甚淺 只用繩桶打水'으로 새로워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老新』의 원문은 『重老』에서 또 한번 크게 바뀌는데 '那井不大深 只用繩桶打水'와 같이 바뀜을 볼 수 있다. 제각각 상이한 원문의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重老』의 경우 원문과 번역이 전대본의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언급대상이 되고 있는 우물의 깊이에 대한 표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음이 주목된다. 즉 우물 깊이를 아주 얕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전대본들과 달리 『重老』에서는 우물 깊이가 아주 깊지는 않다는 식의 부분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언해에서도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단 『老諺』의 번역은 '엿트나엿튼 우믈이니 그저 줄드레로 믈을 깃ᄂᆞ니라'와 같이 종결어미에 의해 끝맺음 된 문장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 『老新』에서는 '져 우믈이 甚히 엿허 그저 줄드레로 믈을 깃고'와 같이 연결어미가 통합된 문장으로 언해가 되고 있고 『重老』에서는 '져 우믈이 ᄀ

장 깁지 아니ᄒᆞ여 그저 줄드레로 믈을 깃고'와 같이 연결어미가 통합된 문장으로 언해가 되고 있긴 하지만 표현 자체가 부분 부정적 표현으로 완전히 새로워져 있음을 볼 수 있다. 『重老』의 독자적인 원문의 수정과 언해 양상이 주목된다.

(3ㄴ)에서도 『老新』과 『重老』의 원문이 각각 새로워진 결과 그 언해 양상도 전대본들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老新』과 『重老』의 경우에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重老』에서는 언해에서 수사의문문이 아닌 감탄형으로 문을 종결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또 (ㅁ)의 유형도 발견된다. 앞에서 (ㄴ)유형과 관련하여 설명했듯이 이 유형은 시속의 변화를 과도할 정도로 많이 반영한 『老新』이 그 문헌 자체의 기본적 성격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전대본들의 원문과 번역을 그대로 수용한 유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것이 그대로 『重老』에 이어진다.

(4) 「飜老」 내 北京 향ᄒᆞ야 가노라 <上 la>
「老諺」 내 北京으로 향ᄒᆞ야 가노라 <上 la>
「平老諺」 내 北京으로 향ᄒᆞ여 가노라 <上 la>
「老新」 내 北京으로 향ᄒᆞ여 가노라 <上 la>
「淸老」 내 皇城으로 향하여 가노라 <1:1a>
「蒙老」 내 北京으로 향하여 가노라 <1:1a>
「重老」 내 北京으로 향ᄒᆞ여 가노라 <上 la>

원문이 '我往北京去'로 동일하고 언해의 내용도 완전히 모든 본들에 있어 일치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예는 매우 드물게만 보인다.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老新』의 원문과 번역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매우 급격하게 달라져 있기 때문이다. '新釋'이 문헌명에 포함되어 있듯이 『老新』은 원문의 개수와 언해의 양상에 있어

전대본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老乞大』의 새로운 원문과 그 번역이라 할 만 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원문의 변화된 양상이 언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해서 유형별로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았는데 원문의 변화 양상이 반드시 언해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를 잘 보인다.

(5)

ㄱ. 「飜老」 是漢兒人有 이 漢人이라 <上 6b>
「老諺」, 「平老諺」 是漢兒人有 이 漢ㅅ 사ᄅᆞᆷ이라 <上 6a>, <上 6a>
「老新」 是漢人口阿 이 漢ㅅ 사ᄅᆞᆷ이라 <上 8a>
「淸老」 漢 사ᄅᆞᆷ이라 <1:8a>
「蒙老」 漢 사ᄅᆞᆷ이라 <1:8b>
「重老」 是漢人 이 漢ㅅ 사ᄅᆞᆷ이라 <上 6a>

ㄴ. 「飜老」, 「老諺」, 「平老諺」 그 나ᄆᆞᆫ 몰 글월도 다 써다 <下 16a-17b>,
<下 14b-16a>, <下 14b-16a>
「老新」, 「淸老」, 「蒙老」 〔해당문장 빠짐〕
「重老」 글월도 다 ᄡᅧ ᄆᆞᆺ차다 <下 15b-17a>

ㄴ'. 「飜老」, 「老諺」, 「平老諺」 이 비단 사다 <下 28a>, <下 25b>,
<下 25b>
「老新」, 「淸老」, 「蒙老」 〔해당 문장 빠짐〕
「重老」 이 비단 사다 <下 26b>

ㄴ". 「飜老」 「老諺」, 「平老諺」 이 황호ᄅᆞᆯ 다 사다 <下 70b>, <下 63b>,
<下 63b>
「老新」, 「淸老」, 「蒙老」 〔해당 문장 빠짐〕
「重老」 이 져기 貨物과 書籍도 다 사거다 <下 65b>

(5ㄱ)의 원문에서는 어말 조사로 『老諺』 등에는 '有', 『老新』에서는 '口阿'가 오고 있지만 『重老』에는 이러한 어말 조사가 아예 빠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언해 양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볼 수 있다.

(5ㄴ)의 『飜老』의 원문 '都寫了也'가 『重老』에서 '都寫了了'로 개수되었음을 볼 수 있다. 『飜朴』과 『朴新』 등에서도 보이는 원문의 개수 양상과 동궤의 면면을 보인다. 이와 꼭 같은 유형의 예를 더 찾을 수 있다. (5ㄴ'), (5ㄴ")의 예가 그것이다.

(5ㄴ')에서도 『飜老』의 '這段子買了也'가 『重老』에서는 '這段子買了' 와 같이 개수되어 있다. 어말의 '了也'가 '了'로 개수되었지만 언해 양상에는 별 변화가 없다.

(5ㄴ")에서도 『飜老』의 '這些貨物 都買了也'에서 어말의 '了也'가 『重老』에서 '了'로 개수되었으나 역시 언해 양상에는 별 변화가 없음을 볼 수 있다.

(5ㄴ, ㄴ', ㄴ") 유형의 원문 개수 양상은 『老乞大』와 『朴通事』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朴通事』에 나타나는 이러한 유형의 개수 양상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상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번역자들의 번역 태도 차이에 의해 동일한 원문에 대해 언해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6)

ㄱ. 「飜老」 형님 일즉 아느니 셔울 믈갑시 엇더ᄒᆞ고 <上 8b>

「老諺」, 「平老諺」 형은 일즉 아ᄂᆞ니 셔울 믈갑시 엇더ᄒᆞ고 <上 8a>, <上 8a>

「老新」 큰형아 알 쎠시니 셔울 믈갑시 엇더ᄒᆞ고 <上 11a>

「淸老」 형아 너ᄂᆞᆫ 본ᄃᆡ ᄃᆞ니ᄂᆞᆫ 사ᄅᆞᆷ이라 황셩 믈 갑시 엇더ᄒᆞ뇨 <1:11a>

「蒙老」 형아 너는 볼셔 아느니 셔울 뭘 갑시 엇더ᄒᆞᄃᆞ뇨 <1:11b>
「重老」 큰형이 알 써시니 셔울 물갑시 엇더ᄒᆞ고 <上 8a>

ㄴ. 「飜老」 드레 우회 ᄒᆞᆫ 무싀 벽을 ᄆᆡ라 <上 32a>
「老諺」, 「平老諺」 드레 우희 ᄒᆞᆫ 덩이 벽을 ᄆᆡ라 <上 28b-29a>,
<上 28b-29a>
「老新」 드레 우회다가 ᄒᆞᆫ 덩이 벽을 ᄆᆡ미 맛치 죠타 <上 39b-40a>
「淸老」 드레 우희 ᄒᆞᆫ 덩이 돌을 ᄆᆡ라 <2:20b>
「蒙老」 드릐 우희 ᄒᆞᆫ 벽을 노흐라 <2:18a>
「重老」 드레에 ᄒᆞᆫ 덩이 벽을 ᄆᆡ면 맛치 죠ᄒᆞ니라 <上 28b-29a>

(6ㄱ)에서는 원문의 구절 끊음을 달리 하여 동일한 원문이 달리 파악되었음을 볼 수 있다. 『飜老』에서는 '哥哥○曾知得' 『老新』에서는 '大哥○可知道', 『重老』에서는 '○大哥可知道○'와 같이 구절이 끊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히 『老新』의 경우에 '大哥' 부분이 호격으로 처리되어 '큰형아'와 같이 언해됨으로써 다른 본들과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위의 예문에서는 원문의 개수에 의한 언해 양상의 변화도 부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일즉 아느니'에 대당하는 『飜老』 등의 원문은 '曾知得'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문은 『老新』과 『重老』에 와서 '可知得'으로 바뀌는데 이러한 원문의 변화는 그대로 언해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아느니'가 '알 써시니'와 같이 바뀌는 것이다. 『老新』과 『重老』의 원문에는 『飜老』 원문의 '曾'이 빠져 있으며 언해도 이에 따라 '알 써시니'와 같이 바뀌어 있다. 백화문에서 '曾'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표시하는 어사이다. 따라서 이 어사가 『飜老』 등 『老新』 이전의 간본들에는 '일즉'이라는 부사로 언해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일즉 아느니'와 같이 '일즉'이 현재시제 선어말어미가 통합된 '아느니'와 공기함으로써 상당히 번역이 어색하게

느껴짐을 볼 수 있다. 이에 『老新』 이후부터는 원문에서 '曾'이 빠지고 '可'가 대신 통합됨으로써 언해도 '알 써시니'와 같은 추측문으로 개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老新』 이후 『重老』에서도 이러한 수정이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

(6ㄴ)에서도 『老新』과 『重老』의 구절 끊음이 달리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老新』은 '要把柳罐上○絟着一塊磚頭纔好呢'와 같이 되어 있는 반면 『重老』에는 '○要把柳罐上絟着一塊磚頭纔好呢○'와 같이 되어 있는데 『重老』에서와 같이 구절을 길게 끊은 것은 『老諺』, 『平老諺』 식으로의 회귀를 보인 것이다.

동일한 원문에 대해 언해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좀더 살펴보자.

(7)

ㄱ. 「飜老」 내 그저 닐오ᄃᆡ <u>우리 예 ᄒᆞᆫ가지로 믈 긷ᄂᆞ다</u> ᄒᆞ야 니ᄅᆞ노라 <上 37a>

「老諺」, 「平老諺」 내 그저 닐오ᄃᆡ <u>우리 여긔 ᄒᆞᆫ가지로 믈 깃ᄂᆞᆫ가</u> ᄒᆞ더니라 <上 33ab>, <上 33ab>

「老新」 우리 ᄆᆞᄋᆞᆷ에 그저 니ᄅᆞ되 <u>이 우리 여긔 ᄒᆞᆫ가지로 믈 깃ᄂᆞᆫ가</u> ᄒᆞ더니라 <上 46a>

「淸老」 엇지ᄒᆞ여 그리ᄒᆞᄂᆞᆫ고 녜로브터 옴으로 곳 이러ᄒᆞ니라 <3:2a>

「蒙老」 이런 연고로 우리 믈 깃기ᄅᆞᆯ 아지 못ᄒᆞ얏ᄃᆞ니라 <2:24b>

「重老」 우리 그저 니ᄅᆞ되 우리 여긔와 ᄒᆞᆫ가지로 믈 깃ᄂᆞᆫ가 ᄒᆞ더니라 <上 33ab>

ㄴ. 「飜老」 ᄒᆞ다가 ᄀᆞ장 디거든 <u>안직 머추워 두어든 네 아모ᄃᆡ나 듣보라</u> 가 <u>고려</u> <上 70ab>

「老諺」 ᄒᆞ다가 ᄀᆞ장 쳔ᄒᆞ면 <u>아직 잠깐 머믈워 두리라 네 어ᄃᆡ 듯보라 갈따</u> <上 63b>

「平老諺」 저컨대 ᄀᆞ장 쳔ᄒᆞ면 <u>아직 잠깐 머믈워 두리라 네 어ᄃᆡ 듯보라</u>

갈ᄡᅡ <上 63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가셔 갑시 죠흐면 풀고 죠치 아니ᄒᆞ면 아직 두어날 기ᄃᆞ리쟈 네 어ᄃᆡ 보라 갈다 <5:3b>

「蒙老」 가 갑시 놉프면 풀고 만일 ᄀᆞ장 ᄂᆞ즈면 ᄯᅩ 아직 져기 두쟈 네 어ᄃᆡ 무로라 갈ᄡᅡ <4:20a>

「重老」 만일 갑시 ᄀᆞ장 賤ᄒᆞ거든 ᄯᅩ 져기 날을 머므러 다시 ᄑᆞ쟈 네 어ᄃᆡ 둣보라 가려 ᄒᆞᄂᆞᆫ다 <上 64b>

ㄷ. 「飜老」 각산ᄒᆞ야다 <下 71a>

「老諺」, 「平老諺」 각각 ᄒᆞ터디쟈 <下 65a>, <下 65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각각 흣터지쟈 <8:20b>

「蒙老」 〔해당 문장 빠짐〕

「重老」 각각 흣터지쟈 <下 67a>

ㄹ. 「飜老」 우리 ᄆᆞᆫ져 닐어 일뎡ᄒᆞ져 順城門 官店에 드러가 브리져 <上 66b>

「老諺」 우리 ᄆᆞᆫ져 닐러 뎡ᄒᆞ야시니 그저 順城門 官店에 드러가 브리오쟈 <上 60a>

「平老諺」 우리 ᄆᆞᆫ져 닐너 뎡ᄒᆞ야시니 그저 順城門 官店에 드러가 브리오쟈 <上 60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우리 ᄆᆞᆫ져 의논ᄒᆞ여 졍ᄒᆞᆫ 거시 順城門 官店에 부리오라 가쟈 ᄒᆞ여심으로 <4:23b>

「蒙老」 우리 볼셔 定ᄒᆞ야시모로 順城門 官店에 드러가 부리오 <4:15a>

「重老」 우리 ᄆᆞᆫ져 닐러 定ᄒᆞ여시니 그저 順城門 官店에 부리오라 가쟈 <上 60b>

ㅁ. 「飜老」 내 앗가 ᄉᆡᆼ각호니 이 아니 여러 ᄒᆡ도 ᄒᆞᆫ 디위 마가 ᄃᆞ닐 거시니 <下 23b>

「老諺」 내 앗가 ᄉᆡᆼ각ᄒᆞ니 이 여러 양도 ᄒᆞᆫ 디위 마가 ᄃᆞ닐 거시니 <下 21ab>

「平老諺」 내 앗가 ᄉᆡᆼ각ᄒᆞ니 이 여러 양도 ᄒᆞᆫ 디위 마가 ᄃᆞ닐 거시니 <下 21a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내 ᄉᆡᆼ각ᄒᆞ니 내게 남은 銀이 이시니 부졀업시 ᄀᆞᆷ초와 므엇ᄒᆞ리오 <6:11a>

「蒙老」 내 生覺ᄒᆞ니 내게 남은 銀 이시니 그저 남겨 무슴ᄒᆞ리오 <6:6a>

「重老」 내 또 ᄉᆡᆼ각ᄒᆞ니 이 여러 羊도 마지 못ᄒᆞ여 ᄒᆞᆫ 지위 ᄃᆞ닐 쎠시니 <下 22ab>

ㅂ. 「飜老」 쇽졀업시 간대로 갑슬 바도려 ᄒᆞ노괴여 <下 10ab>

「老諺」, 「平老諺」 쇽졀업시 이리 간대로 갑슬 ᄢᅬ오ᄂᆞᆫ다 <下 9b>, <下 9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간대로 밧으려 ᄒᆞᆷ이 가ᄒᆞ랴 <5:15b>

「蒙老」 간대로 이리 갑슬 놉히ᄂᆞᆫ다 <5:13b>

「重老」 네 그저 고지식ᄒᆞᆫ 갑슬 니ᄅᆞ라 <下 10b>

ㅂ'. 「飜老」 이러면 네 ᄆᆞᄅᆞ고져 ᄒᆞ노괴여 <下 19a>

「老諺」, 「平老諺」 이러면 네 ᄆᆞᄅᆞ고져 ᄒᆞᄂᆞᆫ다 <下 17b>, <下 17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이러ᄒᆞ면 네 므르고져 ᄒᆞᄂᆞ냐 <6:4b>

「蒙老」 이러면 네 무루려 ᄒᆞᄂᆞᆫ다 <6:1b>

「重老」 이리 니ᄅᆞ면 네 이 므르려 ᄒᆞᄂᆞᆫ다 <下 18ab>

ㅅ. 「飜老」 네 ᄒᆞ마 갑슬 알어니 네 언머를 줄다 <下 27b>

「老諺」, 「平老諺」 네 임의 갑슬 알거니 네 언머를 줄짜 <下 25a>, <下 25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네 진짓 갑슬 아노라 ᄒᆞ니 네 쁫에 언머 주어야 마즈리오 <6:15a>

「蒙老」 妄妄되이 닐ᄋᆞ지 말라 내 갑슬 아노라 ᄒᆞ니 언마롤 줄짜 <6:10a>

「重老」 네 이믜 갑슬 알면 네ᄃᆡ로 언머롤 주라 <下 26a>

ㅇ. 「飜老」 잇닷 마리ᅀᅡ 니ᄅᆞ려 업스면 므슴 홍졍ᄒᆞ리오 <下 30b」

「老諺」 그리어니 인ᄂᆞ니라 업스면 므슴 홍졍 ᄒᆞ리오 <下 27b>

「平老諺」 그리어니 인ᄂᆞ니라 업스면 므슴 홍졍 ᄒᆞ리오 <下 27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별로 활 ᄑᆞᄂᆞᆫ 푸ᄌᆞ ᄒᆞ면 죠흔 활 업스면 므어슬 홍졍ᄒᆞ리오 <6:17b>

「蒙老」 오냐 활 잇다 업ᄉᆞ면 무어슬 홍졍ᄒᆞ리 <6:12b>

「重老」 나그ᄂᆡ 우리 店에 만일 죠흔 활이 업스면 므슴 홍졍을 ᄒᆞ리오 <下 29a>

ㅈ. 「飜老」 ᄯᅩ 아니 면당ᄒᆞ야셔 잇ᄂᆞᆫ 수를 볼 거시디위 문의 나면 ᄆᆞ르기를 알라 몯홀 거시라 <下 64b>

「老諺」, 「平老諺」 ᄯᅩ ᄂᆞᆾ출 당ᄒᆞ야셔 잇ᄂᆞᆫ 수을 보디 아니ᄒᆞ엿ᄂᆞ냐 문에 나면 ᄆᆞ르기를 알라 못ᄒᆞᆯ 써시라 <下 58b>, <下 58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형아 네 홍졍ᄒᆞᄂᆞᆫ 도리롤 모른다 ᄂᆞᆾ 앏히 ᄉᆡᆷ혀 보고 밧으면 문 나며 ᄆᆞ르지 못ᄒᆞᆫ다 ᄒᆞ엿ᄂᆞ니라 <8:14a>

「蒙老」 마조 안자 잇ᄂᆞᆫ 수롤 보왓ᄂᆞᆫ지라 문에 난 후ᄂᆞᆫ 可히 무로지 못ᄒᆞ리라 <8:13b>

「重老」 네 面當ᄒᆞ여 죠쿠즘을 보지 아니ᄒᆞ엿ᄂᆞ냐 문에 나면 ᄯᅩ ᄆᆞ르기를 ᄀᆞ옴아지 아니ᄒᆞ리라 <下 60b>

ㅊ. 「飜老」 조심호미ᅀᅡ 됴ᄒᆞ니라 <上 27b>

「老諺」, 「平老諺」 조심호미 도로혀 됴ᄒᆞ니라 <上 24b>, <上 24b>

「老新」 ᄎᆞ라리 조심홈이 ᄀᆞᆺ 올ᄒᆞ니라 <上 33b-34a」

「淸老」 조심ᄒᆞ는 거시 더옥 죠흐니라 <2:14b>
「蒙老」 조심ᄒᆞ미 도로혀 됴ᄒᆞ니라 <2:11a>
「重老」 그저 ᄉᆞᄅᆞ여 조심홈이 마치 올흐니라 <上 24b>

ㅋ. 「飜老」 셩명은 샹티 아니ᄒᆞᄃᆞ더라 <上 30ab>
「老諺」, 「平老諺」 일즙 性命은 샹티 아니ᄒᆞᄃᆞ더라 <上 27ab>
「老新」 일즉 性命은 샹치 아니ᄒᆞ엿더라 <上 38a>
「淸老」 목숨은 오히려 傷치 아니ᄒᆞ엿더라 <2:19a>
「蒙老」 ᄯᅩ ᄒᆞᆫ 목숨은 상치 아니ᄒᆞ얏더라 <2:15b>
「重老」 일즉 性命은 샹치 아니ᄒᆞ엿더라 <上 27ab>

ㅌ. 「飜老」 내 다ᄆᆞᆫ 이 아니 여러 ᄆᆞᆯ 모라 가며 ᄯᅩ 아므란 쳔도 업스니 <上 27a>
「老諺」 내 다만 이 여러 ᄆᆞᆯ을 모라 가며 ᄯᅩ 아므란 쳔도 업스니 <上 24b>
「平老諺」 내 다만 이 여러 ᄆᆞᆯ을 모라 가며 ᄯᅩ 아모란 쳔도 업스니 <上 24b>
「老新」 우리 그저 이 여러 ᄆᆞᆯ을 ᄆᆞᆯ고 ᄯᅩ 아무란 銀錢 가져온 거시 업스니 <上 33b>
「淸老」 우리 다ᄆᆞᆫ ᄆᆞᆯ을 몰아 가ᄂᆞᆫᄃᆡ ᄯᅩ 아조 죠흔 貨物 업스니 <2:14a>
「蒙老」 내 다만 여러 ᄆᆞᆯ을 모라 갈 ᄯᆞᄅᆞᆷ이오 ᄯᅩ 다ᄅᆞᆫ 財物 업ᄉᆞ니 <2:11a>
「重老」 우리 그저 이 여러 ᄆᆞᆯ을 ᄆᆞᆯ고 ᄯᅩ 아모란 銀錢 가져온 거시 업스니 <上 24ab>

(7ㄱ)에서는 같은 원문에 대해 『飜老』와 『老諺』 이후의 번역이 달라져 있음을 볼 수 있다. 『飜老』에서는 피인용문으로 평서문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老諺』 이후부터는 피인용문으로 의문문이 나타나고 있다. 『老諺』의 언해자가 『飜老』를 참조했음을 고려할 때 『老諺』 언

해자의 의도적인 수정으로 보인다. 『老諺』의 수정은 『重老』에까지 이어진다.

(7ㄴ)은 아주 흥미로운 양상을 보인다. 동일한 원문 '-且停些時 你那裏打聽去'에 대한 해석에 있어 『飜老』와 『老諺』 이후의 언해의 양상이 완전히 갈리고 있다. 『飜老』에서는 위의 첫구절의 마지막 글자 '時'를 가정절을 이끄는 요소로 파악하여 '두어든'과 같이 언해를 하고 있고 이러한 문맥에 맞게 후행절의 '那裏'를 부정칭으로 해석하여 '아모듸나'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老諺』 이후의 번역은 완전히 양상을 달리 하여 '且停些時'의 '時'를 가정절을 이끄는 요소로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형으로 끝맺는 문장 '머믈워 두리라'와 같이 번역하고 있다. 따라서 후행하는 문장의 '你那裏打聽去'의 '那裏'도 의문사 '어듸'로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重老』의 원문이 다소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거의 『老諺』, 『平老諺』의 언해 양상과 동궤의 번역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淸老』, 『蒙老』의 번역도 거기서 멀지 않다.

(7ㄷ)은 동일한 원문 '各者散了'에 대해 『飜老』는 평서형 종결어미로 맺는 평서문으로 언해를 하고 있는 반면 『老諺』 이후에는 청유형으로 언해를 하고 있다. 『重老』의 원문은 '各者散了罷'이지만 『老諺』 이후의 간본들과 동일하게 청유형으로 언해하고 있다.

(7ㄹ)의 '咱們先說定着'에 대해 『飜老』에서는 아직 '일뎡ᄒᆞ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여 청유형으로 언해하고 있지만 다른 본들에서는 이미 '뎡ᄒᆞᆫ' 것으로 파악하고 연결형으로 언해하고 있다. 나머지 본들에서는 『老諺』의 번역 양상을 대체로 다 따르고 있다.

(7ㅁ)의 『飜老』에서는 '這幾箇羊也'에 대해 부정어 '아니'를 넣어 번역하고 있다. 잘못 번역된 것이라 하겠다. 『老諺』을 포함한 다른 본들에는 '아니'가 빠져 있다. 『老諺』의 수정이 후대본들에 그대로

수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7ㅂ)과 (7ㅂ')는 완전히 그 패턴이 같다. 각 예에서 『飜老』와 『老諺』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문장으로 언해되어 있다. 『飜老』에서는 감탄문으로 언해된 문장이 『老諺』에서는 의문문으로 언해되고 있는 것이다. 『重老』에는 아예 원문이 바뀌어 언해되고 있다. (7ㅂ)과 같은 경우 '沒來由這般胡討價錢'에 대해 『飜老』는 감탄문으로 『老諺』 등은 의문문으로 언해하여 완전히 문장의 종류를 달리하여 언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원문의 내용이 바뀐 『重老』를 제외하고 『淸老』, 『蒙老』까지 의문문으로 언해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7ㅂ')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데 '這們的你要番悔'와 같이 『飜老』 등의 원래 원문에는 의문사적 요소가 없다. 이에 『重老』에서는 '你是要反悔了麽'와 같이 어말에 의문사적 요소 '麽'을 첨가하고 의문문으로 번역하고 있다.

(7ㅅ)의 『飜老』 등에서는 '你與多少'에 대해 '多少'를 의문사로 번역하여 전체 문장을 의문문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重老』에서는 원문이 약간 바뀌기는 했으나 '隨你給多少'의 '多少'를 부정칭으로 해석하여 결국 문장 전체를 명령문으로 번역하고 있다.

(7ㅇ)의 '可知有'에 대해 『飜老』에서는 수사의문문적 표현으로 언해하고 있는 반면 『老諺』 등에서는 '그리어니 인ᄂᆞ니라'와 같이 그와는 달리 번역하고 있다. 『蒙老』의 대응되는 표현 '오냐 활 잇다' 등이 주목을 끈다.

(7ㅈ)에서 원문 '却不○當面看了見數'에 대한 『飜老』의 번역은 이후 『老諺』 등의 번역에 비해 어색하기 짝이 없다. 『老諺』의 수정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重老』에서는 원문이 '你不當面看了好'와 같이 수정되었고 이에 번역도 약간 달라졌음을 볼 수 있다.

(7ㅊ)의 번역에서는 『飜老』에서는 원문 번역에 있어서 누락된 글자가 『老諺』 이후엔 다시 되살려져 번역에 반영된 예도 있다. '조심호미사 됴ᄒᆞ니라<飜老上 27ㄴ>'에는 원문에 있는 '還'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老諺』 이후엔 '도로혀, ᄉᆞᄅᆞ혀(重老)' 등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7ㅋ)에서 『飜老』의 '셩명은 샹티 아니ᄒᆞ돗더라'에 대당하는 원문에는 '不曾'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에 대당하는 『老諺』 등의 언해에선 '曾'이 번역되어 '일즙~일즉'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不曾-'은 원래 '어떤 사태가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어구이다. 따라서 『飜老』에서는 '曾'을 '일즙'과 같은 부사로 반영하지 않고 그냥 과거 부정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오히려 후대본의 번역에서는 '不曾'의 '曾'을 부사로 드러내어 번역하고 있는 차이를 보인다. 『重老』에까지 이러한 번역이 이어진다.

(7ㅌ)의 『飜老』에는 잘못 언해된 구절이 있다. '이 아니 여러 몰 모라가며'<飜老 上 27ㄱ>는 잘못 언해된 구절이다. '我只是赶着這幾箇馬'와 같이 원문에는 부정소가 없음을 알 수 있다. 'ᄯᅩ 아ᄆᆞ란 천도 업스니'의 '업스니'에 대당하는 후행문 원문에 포함된 부정소 '沒'을 그 선행문에까지 걸리는 것으로 잘못 해석한 결과이다. 그런데 이는 『老諺』에서부터 바로 잡혀 『重老』에까지 이어진다.

한편 종래 『平老諺』은 그 언해의 양상에 있어 『老諺』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자료를 관찰하다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平老諺』은 『老諺』의 번역을 수정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해석을 가한 상당히 공을 들여 번역한 책이라는 점을 다음의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다.

(8)

ㄱ. 「飜老」, 「老諺」 나그내네 ᄂᆞᆽ 시서다 <上 61a>, <上 55a>

「平老諺」 나그내들 ᄂᆞᆾ 시서라 <上 55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나그너 네 ᄂᆞᆾ 씻거든 므슴 먹을 거슬 내게 달외라 <4:13b>
「蒙老」 손아 네 ᄂᆞᆾ 시섯ᄂᆞᆫ다 <4:8a>
「重老」 나그너들 ᄂᆞᆾ 씨스라 <上 56a>

ㄴ. 「飜老」, 「老諺」 네 오난다 <上 58a>
「平老諺」 네 오나다 <上 52a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네 왓ᄂᆞ냐 <4:9b>
「蒙老」 네 오나다 <4:4b>
「重老」 네 오나다 <上 53a>

ㄷ. 「飜老」 ᄆᆞ더니 너겨 가져가면 다ᄅᆞᆫ 몰조차 다 뎐셤ᄒᆞ야 ᄒᆡ야디리로다 <下 19a>
「老諺」 ᄆᆞ더니 너겨 가져가면 다ᄅᆞᆫ 몰조차 다 뎐염ᄒᆞ여 해야디리로다 <下 17ab>
「平老諺」 ᄃᆞ토지 아니코 가져가면 다ᄅᆞᆫ 몰조차 다 뎐염ᄒᆞ여 해야디리로다 <下 17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사셔 가져 가면 다ᄅᆞᆫ 몰 다 아오로 신코 질 거시니 엇지ᄒᆞ리오 <6:4b>
「蒙老」 사 가져 가면 다ᄅᆞᆫ 몰 병 어드리라 <6:1b>
「重老」 만일 몰을 잇그러 가면 그 나ᄆᆞᆫ 몰도 다 젼염ᄒᆞ여 ᄒᆡ여지리라 <下 18a>

ㄹ. 「飜老」 우리 다티 홍졍ᄀᆞᄉᆞ몰 의논호ᄃᆡ 엇더ᄒᆞ니오 <下 20b-21a>
「老諺」 우리 별로 살 貨物을 의논호ᄃᆡ 엇더ᄒᆞ뇨 <下 19a>
「平老諺」 우리 별로 살 貨物을 의논홈이 엇더ᄒᆞ뇨 <下 19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네 뵈 풀 사이예 내 양을 사셔 호주 짜히 풀라 가셔 다시 다 貨

物을 사셔 가져오마 <6:7b>
「蒙老」 네 뵈 풀 亽이예 내 양 사 涿州예 풀라 가셔 또 다른 物貨 사오쟈 <6:8b>
「重老」 우리 또 쏘로 貨物 사믈 商量호미 엇더ᄒᆞ뇨 <下 19b-20a>

(8ㄱ)의 원문은 '客人們洗面了'이다. 이것이 『飜老』와 『老諺』에서는 '시서다'와 같이 확인법이 개재된 평서형 문장으로 언해되었으나 『平老諺』에서는 '시스라'와 같이 명령형의 문장으로 언해되었음을 볼 수 있다. 『平老諺』의 언해자들은 문맥상 명령형이 오는 것이 합당하리라 판단했고 이러한 판단 결과 『老諺』의 언해 양상을 그대로 묵수하지 않고 새로운 해석을 가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주목을 끄는 것은 『平老諺』의 이러한 언해 양상이 『重老』에서도 유지된다는 것이다. 『重老』에서 『老新』의 지나친 시속 추종을 경계하여 과거 회귀의 규거로 삼은 것은 『老諺』이 아닌 『平老諺』이었음을 알 수 있다.

(8ㄴ)의 원문은 '你來了'이다. 이에 대해 『飜老』와 『老諺』의 언해자들은 의문형으로 언해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원문에 의문사적 요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서형으로 언해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平老諺』에서 바로 그러한 수정을 행하고 있다. 역시 『重老』에서도 『平老諺』의 언해 양상을 수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8ㄷ)에서도 『平老諺』이 『飜老』, 『老諺』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번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원문 '不爭將去時'의 '不爭'을 직역한 결과이다. 굳이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이 문헌의 다른 부분에서는 'ᄆᆞ더니'가 예외 없이 '罷'에 대한 언해로만 주로 나타남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平老諺』의 언해자들은 이러한 전반적이고 일관적인 언해 경향을 고려할 때 '不爭'을 'ᄆᆞ더니 너겨' 정도로 언해한 것은 지나친 의역이라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平老諺』의 언해자들이 단순히 전대본을 묵수하지만은 않았음을 보인다. 나름대로 상

당히 고심해서 언해를 행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老諺』에서는 의사타진문형으로 'VP-오미 엇더ᄒᆞ뇨'가 나타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었다. 그런데 (8ㄹ)은 『飜老』의 'VP-오ᄃᆡ 엇더ᄒᆞ뇨'가 『老諺』에도 그대로 유지됨을 볼 수 있다. 이를 『平老諺』의 언해자들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VP-오미 엇더ᄒᆞ뇨'의 언어 변화를 반영한 쪽으로 수정하였음을 볼 수 있다. 『平老諺』의 언해자들은 『老諺』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국어사적 변화를 『平老諺』에 반영한 것이다.

『老乞大』의 異本들은 주지하다시피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종종 다소 이질적인 텍스트 구성 양상을 볼 수 있기도 하다. 독자에게 줄거리의 진행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특히 그 때까지 대화에 계속 참여하던 인물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등장하여 대사를 제시하게 될 때에 마치 희곡의 지문과 같은 요소가 텍스트에 첨가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다음의 경우가 그러한 양상을 잘 보인다.

(9)

ㄱ. 「飜老」 ᄀᆞᅀᅢ 셔셔 놀며 보ᄂᆞᆫ 사ᄅᆞ미 닐오ᄃᆡ 이 즈르믜 니ᄅᆞ논 갑시 정히 고ᄃᆞᆫ 마리로다 <下 13b>

「老諺」 ᄀᆞ애 셔셔 힘힘히 보ᄂᆞᆫ 사ᄅᆞᆷ이 닐오ᄃᆡ 이 즐음 닐으ᄂᆞᆫ 갑시 정히고ᄃᆞᆫ 말이로다 <下 12ab>

「平老諺」 ᄀᆞ애 셔셔 힘힘히 보ᄂᆞᆫ 사ᄅᆞᆷ이 닐오ᄃᆡ 이 즐음 닐으ᄂᆞᆫ 갑시 정히고ᄃᆞᆫ 말이로다 <下 12a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우리게 아조 간셥치 아니ᄒᆞ나 이 사ᄅᆞᆷ의 니ᄅᆞᄂᆞᆫ 갑슬 드ᄅᆞ니 ᄀᆞ장 곳으니 맛당히 바담즉 ᄒᆞ다 <5:20b>

「蒙老」 겻틔 셔셔 보ᄂᆞᆫ 사ᄅᆞᆷ이 닐ᄋᆞᄃᆡ 이즈름의 닐ᄋᆞᆫ 갑시 진실로 바론 말이라 <5:17a>

「重老」 겻ᄐᆡ 셔셔 힘힘이 보ᄂᆞᆫ 사ᄅᆞᆷ이 니ᄅᆞᄃᆡ 이 즈름의 니ᄅᆞᄂᆞᆫ 갑시

ㄱ장 공번되다 <下 13a>

ㄴ. 「飜老」 거리예 가 셔실 ᄉᆞ이예 ᄒᆞᆫ 나그내 ᄒᆞᆫ 물 양 모라 디나가더니 큰 형님네 이 양을 ᄑᆞᆯ다 <下 21b>

「老諺」 거리예 가 셔실 ᄉᆞ이예 ᄒᆞᆫ 나그내 ᄒᆞᆫ 무리 양을 모라 디나오거ᄂᆞᆯ 큰형아 네 이 羊을 ᄑᆞᆯ다 <下 19b>

「平老諺」 거리예 가 셔실 ᄉᆞ이예 ᄒᆞᆫ 나그내 ᄒᆞᆫ 무리 양을 모라 디나오거ᄂᆞᆯ 큰형아 네 이 羊을 ᄑᆞᆯ다 <下 19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져제로 져 ᄒᆞᆫ 무리 양을 모라 오거ᄂᆞᆯ 형아 네 이 양을 ᄑᆞᆯ고져 ᄒᆞᄂᆞ냐 <6:7b>

「蒙老」 거리예 가 셔며 즉시 ᄒᆞᆫ 나그네 ᄒᆞᆫ 무리 양을 몰고 올 제 형아 네 이 양을 ᄑᆞᆯ려 ᄒᆞᄂᆞᆫ다 <6:4a>

「重老」 거리예 가 셔실 ᄉᆞ이예 ᄒᆞᆫ 나그네 ᄒᆞᆫ 무리 羊을 모라 지나오거ᄂᆞᆯ 큰형아 네 이 羊을 ᄑᆞᆯ짜 <下 20ab>

ㄷ. 「飜老」 활 ᄑᆞᆯ 지븨 가 무로ᄃᆡ ᄑᆞᆯ 됴ᄒᆞᆫ 활 잇ᄂᆞ녀 <下 30b>

「老諺」 활 ᄑᆞᆯ 집의 가 무로ᄃᆡ ᄑᆞᆯ 됴ᄒᆞᆫ 활 잇ᄂᆞ냐 <下 27b>

「平老諺」 활 ᄑᆞᆯ 집의 가 무로ᄃᆡ ᄑᆞᆯ 됴ᄒᆞᆫ 활 잇ᄂᆞ냐 <下 27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ᄑᆞᆯ 죠ᄒᆞᆫ 활 잇ᄂᆞ냐 <6:17b>

「蒙老」 활 ᄑᆞᄂᆞᆫ 푸ᄌᆞ에 가 무로되 됴ᄒᆞᆫ 활 잇ᄂᆞ냐 <6:12b>

「重老」 ᄯᅩ 져 활 ᄑᆞᄂᆞᆫ 店에 가 무르되 ᄑᆞᆯ 죠ᄒᆞᆫ 활이 잇ᄂᆞ냐 <下 29a>

(9)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지문 부분이 『蒙老』에서는 그대로 대응되어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淸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속단해서는 안되겠지만 이것이 『淸老』와 『蒙老』의 간행 과정이 동질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飜老』에서 『重老』로 시기가 내려 갈수록 축자적으로 우리말에 의

해 번역하는 경향은 줄어들고 한자어의 빈도가 높아지며 한자 노출 경향도 강해진다.

(10)

ㄱ. 「飜老」 실 ᄀᆞᄂᆞᆫ 구의나깃 은이라 <下 14a>
「老諺」, 「平老諺」 細絲官銀이라 <下 12b-13a>, <下 12b-13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官家의 銀이라 <5:21a>
「蒙老」 구읫 細絲銀이라 <5:17b>
「重老」 細絲紋銀이라 <下 13b-14a>

ㄴ. 「飜老」 니건 ᄒᆡ <上 9b>
「老諺」, 「平老諺」 前年 <上 8b>, <上 8b>
「老新」 그 ᄒᆡ예 <上 11b-12a>
「淸老」 전년 <1:13a>
「蒙老」 져년 <1:13a>
「重老」 그 ᄒᆡ <上 9a>

ㄴ'. 「飜老」 니건 ᄒᆡᆺ <上 9a>
「老諺」, 「平老諺」, 「老新」 往年 <上 8ab>, <上 8ab>, <上 11b>
「淸老」, 「蒙老」 전년 <1:12a>, <1:12a>
「重老」, 往年 <上 8b>

ㄷ. 「飜老」 대개ᄒᆞᆫ디 사ᄅᆞᄆᆡ ᄌᆞ식이 져믄 적브터 됴히 ᄀᆞᄅᆞ쳐 사ᄅᆞᆷ 도의면 관원 앏픠 ᄃᆞᆫ니다가 저옷 복과 분곳 이시면 관원도 도의리라 ᄒᆞ다가 저를 ᄀᆞᄅᆞ쳐도 립신 몯ᄒᆞ고 사ᄅᆞᆷ 도의디 몯ᄒᆞ면 그도 제 명이어니ᄯᆞ나 우리ᄂᆞᆫ 부모 도의여 잇ᄂᆞᆫ ᄆᆞᅀᆞᆷ 다ᄒᆞ야 ᄂᆞᄆᆡ게 ᄠᅥ디디 말 거시라 네 이 아히ᄃᆞᆯ히 ᄒᆞ다가 사ᄅᆞᆷ곳 도의면 세 가ᄅᆞᆺ 길헤 가온ᄃᆡ ᄃᆞᆫ닐 거시라다ᄅᆞᆫ 사ᄅᆞᄆᆡ 거슬 ᄉᆞ랑티 말며 ᄂᆞᄆᆡ 것근 바ᄂᆞᆯ도 가지디 말며 <u>ᄂᆞᄆᆡ 올ᄒᆞ니 외니</u> 니ᄅᆞ디 말라

이다이 용심ᄒᆞ야 ᄃᆞᆫ니면 아모제라 업시 사ᄅᆞᆷ 도의리라 샹녯 말ᄉᆞ매 닐오ᄃᆡ 고디시그니ᄂᆞᆫ 댱샹 잇고 섭섭ᄒᆞ니ᄂᆞᆫ 댱샹 패ᄒᆞᆫ다 ᄒᆞᄂᆞ니라 도ᄌᆞᆨᄒᆞ기와 거즈말 니ᄅᆞ기 말며 간곡ᄒᆞ고 아니 완ᄎᆞᆯᄒᆞ고 게으르기ᄃᆞᆯ 말라 관원 ᄋᆞᆲ픠 힘 내 ᄢᅧ ᄃᆞᆫ니디 아니ᄒᆞ면 ᄒᆞᄅᆞ도 사ᄅᆞᆷ 도의디 몯ᄒᆞ리라 <下 42a-43b>

「老諺」 대개 사ᄅᆞᆷ의 ᄌᆞ식이 져거셔브터 잘 ᄀᆞᄅᆞ쳐 사ᄅᆞᆷ 되면 관원 ᄋᆞᆲ픠 ᄃᆞᆫ니다가 제 복분이 이시면 관원도 되ᄂᆞ니라 ᄒᆞ다가 저를 ᄀᆞᄅᆞ쳐도 立身 못ᄒᆞ고 사ᄅᆞᆷ 되디 못ᄒᆞ면 ᄯᅩ 제 명이어니ᄯᆞ녀 우리ᄂᆞᆫ 부모 되여 잇ᄂᆞᆫ ᄆᆞᄋᆞᆷ을 다ᄒᆞ여 ᄂᆞᆷ의게 ᄠᅥ디디 말 써시라 네 이 아희들히 ᄒᆞ다가 사ᄅᆞᆷ곳 되면 세 오리 길헤 가온대로 ᄃᆞᆫ닐 거시라 다ᄅᆞᆫ 사ᄅᆞᆷ의 거슬 ᄉᆞ랑티 말며 ᄂᆞᆷ의 것근 바ᄂᆞᆯ도 가지디 말며 ᄂᆞᆷ의 是非 닐으디 말라 ᄒᆞ다가 이대로 용심ᄒᆞ여 ᄃᆞᆫ니면 아모제라 업시 사ᄅᆞᆷ 되리라 샹언에 니로되 고디식ᄒᆞ니ᄂᆞᆫ 샹샹에 잇고 섭섭ᄒᆞ니ᄂᆞᆫ 샹샹에 패ᄒᆞᆫ다 ᄒᆞᄂᆞ니라 도적ᄒᆞ기와 거즛말니ᄅᆞ기 말며 姦猾ᄒᆞ기와 懶惰티 말라 관원의 ᄋᆞᆲ픠 氣力을 내디 못ᄒᆞ여 ᄃᆞᆫ니면 ᄒᆞᄅᆞ도 사ᄅᆞᆷ 되디 못ᄒᆞ리라
<下 38a-39b>

「平老諺」 대개 사ᄅᆞᆷ의 ᄌᆞ식이 적어셔브터 잘 ᄀᆞᄅᆞ쳐 사ᄅᆞᆷ 되면 관원 ᄋᆞᆲ희ᄃᆞᆫ니다가 제 복분이 이시면 관원도 되ᄂᆞ니라 만일에 저를 ᄀᆞᄅᆞ쳐도 立身 못ᄒᆞ고 사ᄅᆞᆷ 되디 못ᄒᆞ면 ᄯᅩ 제 명이어니ᄯᆞ녀 우리ᄂᆞᆫ 부모 되여 잇ᄂᆞᆫ ᄆᆞᄋᆞᆷ을 다ᄒᆞ여 ᄂᆞᆷ의게 ᄠᅥ디디 말 써시라 네 이 아희들히 만일에 사ᄅᆞᆷ곳 되면 세 오리 길헤 가온대로 ᄃᆞᆫ닐 거시라 다ᄅᆞᆫ 사ᄅᆞᆷ의 거슬 ᄉᆞ랑티 말며 ᄂᆞᆷ의 것근 바ᄂᆞᆯ도 가지디 말며 ᄂᆞᆷ의 是非 닐으디 말라 만일에 이대로 용심ᄒᆞ여 ᄃᆞᆫ니면 아모제라 업시 사ᄅᆞᆷ 되리라 샹언에 니로되 고디식ᄒᆞ니ᄂᆞᆫ 샹샹에 잇고 섭섭ᄒᆞ니ᄂᆞᆫ 샹샹에 패ᄒᆞᆫ다 ᄒᆞᄂᆞ니라 도적ᄒᆞ기와 거즛말니ᄅᆞ기 말며 姦猾ᄒᆞ기와 懶惰티 말라 관원의 ᄋᆞᆲ희 氣力을 내디 못ᄒᆞ여 ᄃᆞᆫ니면 ᄒᆞᄅᆞ도 사ᄅᆞᆷ 되디 못ᄒᆞ리라
<下 38a-39a>

(10ㄱ)은 『飜老』의 '실 ᄀᆞᄂᆞᆫ 구의나깃 은'의 구절이 다른 본들의 '細絲官銀'과 달리 축자적으로 우리말에 의해 번역되었음을 잘 보인다. (10ㄴ)에서도 『飜老』의 '니건ᄒᆡ'와 다른 본들의 '前年', '往年'들이 잘 대비된다.

(10ㄷ)에서도 『飜老』의 '립신, ᄂᆞ민 올ᄒᆞ니 외니, 간곡하고 아니완츨ᄒᆞ고 게으르기' 등과 다른 본들의 '立身, 是非, 姦猾ᄒᆞ기와 懶惰티' 등이 잘 대비된다.

한편 서로 인접하는 의미 범주를 형성하는 표현들이 이본들간에 서로 넘나들어 쓰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근본적으로 한어 원문의 성격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연속선상에 있는 의미 범주를 표지하는 형식들간의 단순한 교체 현상을 반영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11)에서는 희망 표현과 청유 표현이 서로 넘나드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11)

ㄱ. 「飜老」 우리 잘 ᄃᆡ 서러 보아지라 <上 25a>
「老諺」, 「平老諺」 우리 잘 ᄃᆡ롤 서럿쟈 <上 22b>, <上 22b>
「老新」 내 잘 收拾ᄒᆞ고 자쟈 「上 31a>
「淸老」 우리 잘곳을 다ᄉᆞ리쟈 「2:11a>
「蒙老」 잘ㅅ곳을 다ᄉᆞ리쟈 「2:8a>
「重老」 내 잘 收拾ᄒᆞ고 자쟈 「上 22b>

ㄴ. 「飜老」 내 기리를 ᄇᆡ화지라 <上 35ab>
「老諺」, 「平老諺」 내 시험ᄒᆞ여 믈깃기 ᄇᆡ화지라 <上 32a>, <上 32a>
「老新」 나도 믈깃기 ᄇᆡ화 보쟈 <上 44a>
「淸老」 내 시험ᄒᆞ여 믈깃기을 ᄇᆡ호쟈 <2:26a>
蒙老」 내 믈깃기롤 ᄇᆡ호쟈 <2:22b>

「重老」 나도 깃기롤 ᄇᆡ화 기러 보쟈 <上 31b-32a>

ㄷ. 「飜老」, 「老諺」, 「平老諺」 내 ᄂᆞᆾ 시서지라 <上 61a>, <上 55a>, <上 55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내 ᄂᆞᆾ 씻쟈 <4:13b>

「蒙老」 내 ᄂᆞᆾ 싯쟈 <4:8a>

「重老」 내 ᄂᆞᆾ ᄡᅵ스러 ᄒᆞ노라 <上 56a>

ㄹ. 「飜老」 내 손조 섯거 머거지라 <上 61b-62a>

「老諺」, 「平老諺」 내 손조 섯거 먹어지라 <上 55b-56a>, <上 55b-56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우리 친히 타서 먹쟈 <4:14b>

「蒙老」 내 손조 타 먹쟈 <4:9a>

「重老」 우리 손조 석거 먹쟈 <上 56ab>

ㅁ. 「飜老」 내 보와지라 <下 56b>

「老諺」, 「平老諺」 내 보쟈 <下 51a>, <下 51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蒙老」, 「重老」 내 보쟈 <8:2b>, <8:2b>, <下 53a>

한편 (12)와 같이 희망표현이 의지표현과 넘나드는 관계를 보이기도 한다.

(12) 「飜老」 말솜 무러지라 <上 26a>

「老諺」 말 무로리라 <上 23b>

「平老諺」 말 므르리라 <上 23b>

「老新」 내 당시롱 네게 져기 말 뭇쟈 <上 32b>

「淸老」 내 너ᄃᆞ려 므롤 말이 잇다 <2:12b>

「蒙老」 내 제게 무를 말이 잇다 <2:9a>

「重老」 내 ᄯᅩ 네게 져기 말 뭇쟈 <上 23ab>

이밖에 (13)과 같이 약속 표현과 청유 표현의 연속성도 확인할 수 있다.

(13) 「飜老」 그리호마 <上 35a>
「老諺」 그리ᄒᆞ쟈 <上 31b>
「平老諺」 그리ᄒᆞ쟈 <上 31b>
「老新」 그러면 내 믈 길라 가니 네 ᄆᆞᆯ 잇그러 오라 <上 43b>
「淸老」 내 믈 길라 가니 너희 ᄆᆞᆯ 가져 오라 <2:25a>
「蒙老」 그리ᄒᆞ쟈 <2:21b>
「重老」 그러면 내 믈 길라 가니 네 ᄆᆞᆯ 잇그러 오라 <上 31b>

청유 표현과 '므던ᄒᆞ-'에 의한 평가구문이 넘나들기도 한다.

(14) 「飜老」 홍졍 ᄆᆞ차도 므던ᄒᆞ다 <下 12a>
「老諺」 홍졍호미 므던ᄒᆞ다 <下 10b-11a>
「平老諺」 홍졍홈이 므던ᄒᆞ다 <下 10b-11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해당 문장 빠짐〕
「蒙老」 〔해당 문장 빠짐〕
「重老」 이 홍졍을 이로쟈 <下 11b-12a>

(15)와 같이 명령문과 '므던ᄒᆞ-'에 의한 평가구문이 넘나들기도 한다.

(15)
ㄱ. 「飜老」 모라 가져가도 므던ᄒᆞ다 <下 22b-23a>
「老諺」 모라 가미 므던ᄒᆞ다 <下 20b>

「平老諺」 모라 갑이 므던ᄒᆞ다 <下 20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네 모라 가져가라 <6:9a>
「蒙老」 모라 가라 <6:5a>
「重老」 모라 가라 <下 21ab>

ㄴ. 「飜老」 홍졍 ᄆᆞ초미 므던ᄒᆞ다 <下 60b>
「老諺」, 「平老諺」 홍졍 ᄆᆞᆺ촘이 무던ᄒᆞ다 <下 54b>, <下 54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내 말을 밋오라 <8:8a>
「蒙老」 홍졍ᄒᆞ면 얻더ᄒᆞ니 <8:8a>
「重老」 홍졍ᄒᆞ라 <下 56b>

명령문과 '므던ᄒᆞ-'구문의 의미상의 상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원문의 문말에는 '罷'가 통합됨이 보통이었다.

『淸語老乞大』와 『蒙語老乞大』의 언해 양상과 한어본 『老乞大』들의 언해 양상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임은 당연하다. 번역의 저본이 달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어떤 양상으로 얼마만큼의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그 동안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들을 통해 『淸語老乞大』와 『蒙語老乞大』의 번역 양상의 특징을 알 수 있다.

(16)
ㄱ. 「飜老」 네 모든 션비 듕에 언메나 漢兒人이며 언메나 高麗ㅅ 사ᄅᆞᆷ고 <上 7a>
「老諺」 네 뎌 모든 션븨 듕에 언머는 漢ㅅ 사ᄅᆞᆷ이며 언머는 高麗ㅅ 사ᄅᆞᆷ고 <上 6a>
「平老諺」 네 뎌 모든 션비 듕에 언머는 漢ㅅ 사ᄅᆞᆷ이며 언머는 高麗ㅅ 사ᄅᆞᆷ고 <上 6a>

「老新」 네 져 모든 學生 중에 언머는 中國ㅅ 사ᄅᆞᆷ이 이시며 언머는 朝鮮ㅅ 사ᄅᆞᆷ고 <上 8ab>
「淸老」 너희 여러 션비 중에 漢 사ᄅᆞᆷ은 언머며 조선 사ᄅᆞᆷ은 언머뇨 <1:8b-9a>
「蒙老」 네 져 여러 션비 즁에 漢 사ᄅᆞᆷ은 언마며 조션 사ᄅᆞᆷ은 언마뇨 <1:9a>
「重老」 네 져 모든 學生 즁에 언머는 中國ㅅ 사ᄅᆞᆷ이 이시며 언머는 朝鮮ㅅ 사ᄅᆞᆷ고 <上 6ab>

ㄴ. 「飜老」 아니 오라 ᄯᅩ 뎜에 가 보니 <下 7b>
「老諺」 아니 오라 ᄯᅩ 뎜에 가 보니 <下 6b>
「平老諺」 아니 오라 ᄯᅩ 뎜에 가 보니 <下 6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오래지 아니ᄒᆞ여 店에 가셔 보니 <5:12b>
「蒙老」 오래지 아녀 店에 가본즉 <5:10b>
「重老」 아니 오라 ᄯᅩ 店에 가 보니 <下 7b-8a>

(16ㄱ)의 한어를 번역한 『老乞大』의 언해본들에서는 '언메나 漢兒人이며 언메나 高麗ㅅ 사ᄅᆞᆷ고<飜老 上 7a>'의 초간본의 어순이 거의 반복되는데 이는 원문의 어순에 충실한 직역의 영향에 의한 어순이다. 『重老』의 경우 원문에 포함된 '有'를 해석에 반영하여 다른 본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淸老』와 『蒙老』의 경우는 이러한 한어의 직역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인지 '漢 사ᄅᆞᆷ은 언머며 朝鮮 사ᄅᆞᆷ은 언머뇨'와 같은 어순을 보인다.

(16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어를 번역한 언해본들에서는 직역의 영향으로 '아니 오라'와 같은 어순을 볼 수 있지만 『淸老』와 『蒙老』는 그러한 어순을 보이지 않음이 주목되는 것이다.

다음의 예도 주목을 끈다.

(17)「飜老」 漢兒와 高麗 반이라 <上 7a>
「老諺」 漢과 高麗ㅣ 바로 반이라 <上 6b>
「平老諺」 漢과 高麗ㅣ 바로 반이라 <上 6b>
「老新」 大概 一半은 이 中國ㅅ 사ᄅᆞᆷ이오 一半은 朝鮮ㅅ 사ᄅᆞᆷ이라 <上 8b>
「淸老」 漢과 朝鮮이 정히 折半이라 <1:9a>
「蒙老」 漢과 朝鮮이 맛치 半이라 <1:9a>
「重老」 大概 一半은 中國ㅅ 사ᄅᆞᆷ이오 一半은 이 朝鮮ㅅ 사ᄅᆞᆷ이라 <上 6b>

언해의 양상이 주목된다. 일단 '漢兒高麗中半'이었던 원문이 '大概一半是中國人一半是朝鮮人'와 같이 『新釋』과 『重老』에서 동일하게 바뀐다. 그런데 『飜老』와 『老諺』은 같은 원문에 대해서 언해가 달리 되어 『老諺』에서는 원문 '中半'의 '中'이 반영되어 '바로'라고 언해되어 있음을 보인다. 한편 『淸老』와 『蒙老』는 거의 비슷한 언해 양식을 보이는데 이들의 언해 양상이 『老新』과 『重老』보다는 『老諺』이나 『平老諺』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시기적으로 가까운 『老新』보다 『平老諺』에 그 언해 양상이 근접한다는 것이 주목을 끈다.

언해 양상뿐 아니라 어휘 출현 양상에 있어서도 『淸老』와 『蒙老』는 상대적으로 『老新』이나 『重老』보다는 『平老諺』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8)「飜老」,「老諺」 젼년 <上 15ab>, <上 13b-14a>
「平老諺」 前年 <上 13b-14a>
「老新」 샹년 <上 18b-19a>
「淸老」 前年 <1:21b>
「蒙老」 젼년 <1:21a>
「重老」 샹년 <上 13b-14a>

『平老諺』까지는 '前年'으로 나타남에 비해 『老新』과 『重老』에서는 '샹년'으로 바뀌어 있다. 그런데 『淸老』와 『蒙老』에는 『平老諺』 등의 예를 따라 '前年' 등으로 언해가 되어 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되겠지만 일련의 사실들로부터 『淸老』와 『蒙老』가 적어도 『老新』 이전의 개수되지 않은 한어 원문을 淸語와 蒙語로 번역한 책을 언해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淸老』와 『蒙老』에서는 『老新』, 『重老』는 물론 그 이전의 『平老諺』과도 상이한 언해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꽤 찾을 수 있다.

(19)

ㄱ. 「飜老」 이믜 이러면 네 드레와 줄 서러 내여 오교려 <上 31b>
「老諺」 이믜 이러면 네 드레와 줄을 收拾ᄒᆞ야 내여 오고려 <上 28b>
「平老諺」 이믜 이러면 네 드레와 줄을 收拾ᄒᆞ야 내여 오고려 <上 28b>
「老新」 이믜 이러면 네 드레와 줄을 收拾ᄒᆞ여 내여 오라 <上 39b>
「淸老」 이러ᄒᆞ면 드레와 물을 다 ᄎᆞ자 가져오라 <2:20b>
「蒙老」 이러면 네 드릐와 줄을 거두워 가져오라 <2:17b>
「重老」 이믜 이러면 네 드레와 줄을 收拾ᄒᆞ여 내여 오라 <上 28b>

ㄴ. 「飜老」 뎌 집 뒤히 곧 우므리라 <上 31b>
「老諺」 뎌 집 뒤히 곳 우믈이라 <上 28b>
「平老諺」 뎌 집 뒤히 곳 우믈이라 <上 28b>
「老新」 져 집 뒤히 곳 이 우믈이라 <上 39b>
「淸老」 져 집 뒤ᄒᆡ 우물 잇ᄂᆞ니라 <2:20a>
「蒙老」 져 집 뒤ᄒᆡ 잇ᄂᆞ니라 <2:17a>
「重老」 져 집 뒤히 곳 이 우믈이라 <上 28b>

ㄷ. 「飜老」 그 드레 믈 ᄌᆞᆷ디 아니ᄒᆞᄂᆞ니 네 두의티기옷 모ᄅᆞ거든 드레 우ᄒᆡ ᄒᆞᆫ 무ᄉᆡ 벽을 ᄆᆡ라 <上 32a>
「老諺」 그 드레 믈에 ᄌᆞᆷ기디 아니ᄒᆞᄂᆞ니 네 뒷티기 아디 못ᄒᆞ거든 드

레 우희 ᄒᆞᆫ 뎡이 벽을 ᄆᆡ라 <上 28b-29a>

「平老諺」 그 드레 믈에 ᄌᆞᆷ기디 아니ᄒᆞᄂᆞ니 네 뒤티기 아디 못ᄒᆞ거든 드레 우희 ᄒᆞᆫ 뎡이 벽을 ᄆᆡ라 <上 28b-29a>

「老新」 져 드레 믈에 ᄌᆞᆷ기지 아니ᄒᆞ니 네 뒤치기 아지 못ᄒᆞ거든 드레 우희다가 ᄒᆞᆫ 뎡이 벽을 ᄆᆡ미 맛치 죠타 <上 39b-40a>

「清老」 그 드레 믈에 잠기지 아니ᄒᆞ면 엇지ᄒᆞ리오 네 드레ᄅᆞᆯ 잠그기 아지 못ᄒᆞ면 드레 우희 ᄒᆞᆫ 뎡이 돌을 ᄆᆡ라 <2:20b>

「蒙老」 져 드릐 물에 ᄌᆞᆷ기지 아니ᄒᆞ면 엇지ᄒᆞ리오 네 드릐 뒷치기ᄅᆞᆯ 아지 못ᄒᆞ거든 드릐 우희 ᄒᆞᆫ 벽을 노흐라 <2:18a」

「重老」 져 드레 믈에 ᄌᆞᆷ기지 아니ᄒᆞ니 네 뒤치기 아지 못ᄒᆞ거든 드레에 ᄒᆞᆫ 뎡이 벽을 ᄆᆡ면 맛치 죠흐니라 <上 28b-29a>

ㄹ. 「飜老」 발 잇거든 ᄒᆞ나 다고라 <上 42ab>

「老諺」, 「平老諺」 사발 잇거든 ᄒᆞ나 다고 <上 38a>, <上 38a>

「老新」 사발 잇거든 ᄒᆞ나 주고려 <上 53b>

「清老」 사발 잇거든 ᄒᆞᆫ나 주ᄋᆞᆸ쇼셔 <3:9b>

「蒙老」 사발 잇거든 ᄒᆞ나 가져 오라 <3:6b>

「重老」 사발 잇거든 ᄒᆞ나 주고려 <上 38b-39a>

ㅁ. 「飜老」 ᄒᆡᆼ혀 유여히 갈 시져리면 곧 네 집 ᄎᆞ자 가마 내라 독벼리 너를 ᄇᆞ리려 <上 45a>

「老諺」 ᄒᆡᆼ혀 유여히 갈 시졀이면 곳 네 집을 ᄎᆞ자 가마 내라 독별이 너를 ᄇᆞ리랴 <上 40b>

「平老諺」 ᄒᆡᆼ혀 유여히 갈 시졀이면 곳 네 집을 ᄎᆞ자 가마 내라 독별이 너를 ᄇᆞ리랴 <上 40b>

「老新」 만일 能히 갈 時節이면 一定 네 집을 ᄎᆞ자 갈 꺼시니 내라 즐겨 너ᄅᆞᆯ 니즈랴 <上 56b>

「清老」 내 가지 아니ᄒᆞ면 말려니와 ᄒᆡᆼ혀 가게 되면 네 집을 ᄎᆞ자 가셔 보지 아닐 道理 이시랴 <3:13b>

「蒙老」 만일 가면 네 집을 ᄎᆞ자 가마 내 ᄯᅩᄒᆞᆫ 너ᄅᆞᆯ ᄇᆞ릴 道理 이시리오 <3:10a>

「重老」 만일 能히 갈 째면 一定 네 집을 ᄎᆞ자 갈 쩌시니 내라 즐겨 너를 니즈랴 <上 41a>

(20ㄱ)의 한어본의 번역본들에서는 『飜老』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모두 '收拾ᄒᆞ-'라는 한자를 노출시킨 한자어 어근 동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淸老』와 『蒙老』에서는 대당하는 부분을 모두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다.

(20ㄴ)에서는 『淸老』와 『蒙老』에서만 '잇-'에 의한 존재문으로 번역하고 있다. 나머지 본들에서는 계사문으로의 번역을 보인다.

(20ㄷ)에서는 『飜老』 등의 '믈에 좀디 아니ᄒᆞᄂᆞ니'와 같이 '-니'에 의한 연결어미가 통합되어 번역되었으나 『淸老』와 『蒙老』에서는 '좀기디 아니ᄒᆞ면'과 같이 가정을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통합되어 번역되었다.

(20ㄹ)에서는 『淸老』의 경우 경어법상 '주ᄋᆞᆸ쇼셔'와 같이 '-ᄋᆞᆸ쇼셔'와 같은 어미구조체가 쓰인 것이 특이하다. 경어법적으로 체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老乞大』 異本들의 일반적 경향을 고려할 때에도 의외의 예이다.

(20ㅁ)에서는 『淸老』와 『蒙老』만이 '道理'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수사의문문을 구성하고 있다.

다음의 예에서도 『淸老』와 『蒙老』의 번역이 다른 본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임을 발견할 수 있다.

(21)

ㄱ. 「飜老」 우리 다 례수 ᄎᆞ리디 말오 ᄒᆞᆫ 잔 수울 먹져 <上 64b>

「老諺」, 「平老諺」 우리 다 禮를 출히디 말고 ᄒᆞᆫ 잔 술을 먹쟈 <上 58a>, <上 58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오냐오냐 형이 이리 ᄯᅳᆺ을 虛費ᄒᆞᆷ으로 우리 다시 ᄉᆞ양 말고 지

촉ᄒᆞ여 먹고 쉽사리 가쟈 <4:19a>
「蒙老」 우리 다 禮ᄒᆞ기ᄅᆞᆯ 말고 ᄒᆞᆫ 잔 식 먹쟈 <4:12b>
「重老」 우리 ᄯᅩ 禮ᄅᆞᆯ 출호지 말고 ᄒᆞᆫ 잔 먹쟈 <上 59a>

ㄴ. 「飜老」 지븨 드려 노하 두고 눈비예 젓게 말라 <下 36ab>
「老諺」 집의 드려 노하 두고 兩雪에 젓게 말라 <下 32b-33a>
「平老諺」 집의 드려 노하 두고 兩雪에 젓게 말라 <下 32b-33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잘 집의 드려 두라 兩雪에 저즐세라 <7:2a>
「蒙老」 잘 집의 드려 두라 비눈에 적실셰라 <7:2a>
「重老」 집의 너허 두고 兩雪에 젓게 말라 <下 34b-35a>

(21ㄴ)에서는 '저즐세라', '적실셰라'와 같이 『淸老』와 『蒙老』의 경우 의구를 나타내는 어미 '-ㄹ세라' 등에 의한 번역이 주목된다. 다른 본들에서는 볼 수 없는 번역 양상이다. 그렇다면 『淸老』와 『蒙老』는 항상 비슷한 언해 양상을 보이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22)를 통해 알 수 있다.

(22) 「飜老」 머그면 장뷔 동ᄒᆞ야 ᄒᆞᆫ두 번 동ᄒᆞ면 곧 밥 먹고져 ᄒᆞ야 ᄉᆞ랑ᄒᆞ리라 <下 40a-41a>
「老諺」 먹으면 곳 臟腑ㅣ 動ᄒᆞ여 ᄒᆞᆫ두 번 動ᄒᆞ면 곳 밥먹기를 ᄉᆡᆼ각ᄒᆞ리니 몬져 믈근 죽 먹어 보ᄒᆞ고 그린 후에 차반 먹으라 <下 36a-37a>
「平老諺」 먹으면 곳 臟腑ㅣ 動ᄒᆞ여 ᄒᆞᆫ두 번 動ᄒᆞ면 곳 밥먹기를 ᄉᆡᆼ각ᄒᆞ리니 몬져 믈근 죽 먹어 보ᄒᆞ고 그린 후에 차반 먹으라 <下 36a-37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먹으면 즉시 속이 動ᄒᆞᆯ 써시니 여러 번 動ᄒᆞ여 속이 뷔여 아무 것 먹고져 ᄒᆞ여 ᄉᆡᆼ각ᄒᆞ거든 몬져 약을 먹고 채 낫거든 다시 례ᄉᆞ밥을 먹으라 <7:8b>

「蒙老」 먹으면 즉시 속이 動ᄒᆞᄂᆞ니 여러번 동ᄒᆞ면 믄득 밥먹기ᄅᆞᆯ 생각ᄒᆞ리라 몬져 약을 먹어 나은 후에 음식을 임의로 먹으라 <7:8a>

「重老」 먹으면 곳 ᄇᆡ ᄡᆞᆯ어 뒤볼 ᄶᅥ시니 몬져 믈근 쥭을 먹어 補ᄒᆞ고 그린 후에 ᄯᅩ 밥을 먹으라 <下 39ab>

일단 『飜老』의 '밥 먹고져 ᄒᆞ야 ᄉᆞ랑ᄒᆞ리라'는 『老諺』 이후에는 '밥먹기를 ᄉᆡᆼ각ᄒᆞ리니'와 같이 번역되고 있으나 이것이 『淸老』에서는 오히려 『飜老』의 유형과 유사한 '아무것 먹고져 ᄒᆞ여 ᄉᆡᆼ각ᄒᆞ거든'으로 나타남이 주목된다. 『飜老』에서만 그것도 아주 드물게만 나타나던 문장 유형이 『淸老』에서 다시 출현한다는 것도 의외이지만 『蒙老』에서는 『淸老』와는 또 달리 '밥먹기ᄅᆞᆯ ᄉᆡᆼ각ᄒᆞ리라'와 같이 나타나 『飜老』 외의 한어본 번역본들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남이 주목되는 것이다.

기존의 한어 번역본에는 있으나 『淸老』, 『蒙老』에서는 장면이 아예 누락되어 있는 부분도 많다.

(23) 「飜老」 네 기ᄅᆞ매 굴에 고돌개 가숨가리 돌애 기ᄅᆞ맛가지 두으리 둥피 오랑셕 바굴에 믿마기 다ᄒᆞᆫ 셕 쥬리울 ᄌᆞ가미 마함 ᄯᅡᆷ어치 갓어치 ᄒᆞᆯ어치 다 사다 <下 30a>

「老諺」 네 이 기ᄅᆞ마 구레 고돌개 가숨거리 돌애 기ᄅᆞ마가지 둥울 둥피 오랑혁 비구레 밋마기 다ᄒᆞᆫ 혁 쥬리올 ᄌᆞ가미 마함 ᄯᅡᆷ어치 갓어치 ᄒᆞᆺ어치 다 사다 <下 27ab>

「平老諺」 네 이 기ᄅᆞ마 구레 고돌개 가숨거리 돌애 기ᄅᆞ마가지 둥울 둥피 오랑혁 비구레 밋마기 다ᄒᆞᆫ 혁 쥬리올 ᄌᆞ가미 마함 ᄯᅡᆷ언치 갓언치 ᄒᆞᆺ언치다 사다 <下 27a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해당 문장 빠짐〕

「蒙老」 〔해당 문장 빠짐〕

「重老」 이 기ᄅᆞ마 구레 고돌개 가슴거리 돌애 등ᄌᆞ 기ᄅᆞ마가지 등울 등ᄑᆡ 오랑 혀쇠 바구레 혁 밋마기 다ᄒᆞᆫ 곡비 쥬리올 ᄌᆞ가미 마함 쏨언치 채찍 간지개 다 사다 <下 28b>

(23)의 『淸老』와 『蒙老』의 장면은 기존의 『老乞大』의 언해본과 대응되는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老乞大』 언해본 초간본의 원문과 번역은 새로운 간행이 있을 때마다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고 개수되었다. 이는 전대본의 오류를 수정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시속 및 언어의 변화를 반영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외관상으로는 개정된 좌측 한자음 외에는 『老諺』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듯이 보였던 『平老諺』을 관찰한 결과 이 책이 『老諺』에 나타난 오류들을 수정하고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번역 부분을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교정한 매우 공을 들인 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초간본의 간행 이후 초간본의 틀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간본으로는 『老新』을 꼽을 수 있다. 비록 『老新』은 상권만이 전해지고 있으나 거기에 보이는 원문과 그 번역 양상은 그 이전 간본들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면면을 보인다. 『老新』의 과격한 변화는 『重老』의 언해자들에 의해서 때로는 거부되어 전대본인 『平老諺』식으로의 회귀를 보이기도 하고 적절한 것은 수용되기도 했으며 『重老』의 언해자들 나름의 수정과 번역으로 변천을 보이기도 했다. 『重老』는 그 당대에 있어서는 新·舊의 조화를 최대한 꾀한 책이었던 것이다.

『淸老』와 『蒙老』는 『平老諺』과 가장 근접한 언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老新』 이전의 개수되지 않은 한어 원문을 淸語와 蒙語로 번역한 책을 언해했을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적지 않은 예에서 『淸老』와 『蒙老』 나름의 독자적인 언해 양상을 보인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2. 『朴通事』의 언해본

2.2.1. 『朴通事』와 그 書名

'朴通事'라는 書名도 '老乞大'와 같이 아주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다. 『朴通事』가 고려 때부터 『老乞大』와 함께 한어 학습서로 이용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최초의 편찬은 원말이나 명초로 추정되고 있는데 『老乞大』와 달리 책이 전해지지 않아 그 모습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책 역시 조선조에 이르러 여러 번 원문의 개수와 번역이 새로이 이루어져 당대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책을 간행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엿볼 수 있으며 『老乞大』와 함께 역과 한학서로 쓰이는 등 그 위치가 조선 후기까지도 공고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老乞大』와 달리 등장인물과 이야기가 지속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각 科마다 서로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여 매우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해 나간다. 『朴通事』의 내용은 『老乞大』의 내용과는 달리 텍스트 안에 나오는 어휘에 대한 자세한 주석 없이는 몇 페이지도 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중국의 풍물, 관습, 관제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 내용은 외교상의 구체적 절차, 잡기, 보석 치장, 응접 관례, 결혼 풍속, 계약의 절차와 문서 작성 관례, 산후 조리, 활쏘기, 차용 관례 등에 이르는 매우 방대한 범위의 것이다. 등장인물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이 등장

하는 것처럼 보인다.

『老乞大』의 언해본에 비해 이본의 종류가 적어 지금 전해지는 것으로는 세 종류의 『朴通事』의 언해본이 있을 뿐이다. 그나마 초간인 『飜朴』의 경우 上卷만이 전해지고 있다. 『朴通事』의 초간본으로는 1510년경 최세진에 의한 『飜朴』이 있다. 이를 참조하지 않은 채 1677년에, 그 즈음에 발견된 『老朴集覽』 등을 근거로 하여 전대본인 『飜朴』과 동일한 한어 원문을 번역하고 또 일부 우측 한자음을 개정한 『朴諺』이 간행되었고 1765년 『朴諺』의 한자음 중 좌측음과 우측음을 개정하고 원문의 개수와 함께 새로이 번역을 행한 『朴新』이 간행되었다

한편 『朴通事』에 있어서는 淸語와 蒙語의 학습서가 간행되지 않았다. 이는 상거래 내용이 많은 『老乞大』에 비해 『朴通事』에는 중국의 관제 등 시속의 변화에 민감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朴通事』의 경우에도 한문본의 경우 구본과 신본의 『朴通事』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해지는 것이 없다. 『老朴集覽』의 내용 중에는 『朴通事』의 구본을 언급한 구절이 있으나 『老乞大』와 달리 지금까지 구본이 발견되지 않았다.

'朴通事'라는 서명은 '老乞大'와는 달리 그 뜻을 금방 헤아릴 수 있다. '通事'란 '통역관'이라는 뜻으로 지금도 『中漢辭典』에 '옛 통역관의 명칭'이라 되어 있고 같은 뜻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낯익게 쓰이던 명칭이었다. '朴'은 한국의 고유한 성씨이니 '朴通事'란 '朴氏 性을 가진 通事'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의 명칭이 지시하는 인물은 책의 내용 속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일상적인 외교관례를 다룬 대화가 있기는 하지만 朴氏 性을 가진 通事가 직접 드러나지는 않는 것이다.

2.2.2. 『朴通事』의 異本들

2.2.2.1 『飜譯朴通事』

이 책은 1510년대 최세진에 의해 『老乞大』의 언해본과 함께 간행된 책으로 생각된다. 언해본으로 지금 전해지는 것은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卷 上이 유일하다. 乙亥字本으로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지질과 상태가 아주 좋은 편이다. 초간본으로 생각된다. 『老乞大』의 언해본들과 여타의 『朴通事』의 언해본들에 비한다면 그 상세한 형태서지적 사항 등이 언급된 경우가 별로 없는 듯하다. 이에 여기 그 형태서지적 사항을 간략히 덧붙인다.

국회도서관 귀중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책은 표지서명과 권수제가 '朴通事'라 되어 있다. 표지가 『史漢一統』이라는 책 권10의 56면과 57면으로 褙接되었다. 표지 다음 葉에 후대 사람들이 적은 것으로 생각되는 한시의 일부 구절이 篆書體로 적혀 있으나 알아보기 힘들다. 책크기는 34.4×22.4cm이고 匡郭은 24.9×18.6cm이다. 四周單邊에 有界 9行에 12字로 이루어져 있다. 版心은 上下三葉花紋魚尾인데 아주 드물게 黑魚尾가 섞여 있다. 첫 면에 붉은 색의 도장이 네 개가 찍혀 있다. 이 도장들은 영인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첫 면 오른 쪽 상단에 치우쳐 있는 '宣賜之記'라 새겨져 있는 도장은 이 책이 임란 이전의 책임을 방증하는 것 같다. 하단 오른쪽에는 알아보기 힘든 두 개의 글자가 새겨진 향로 모양의 도장이 있고 그 아래 차례대로 각각 '星山李氏', '修福成之'라 새겨진, 모양이 같은 도장이 두 개 더 자리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첫 몇 葉을 제외하고는 매우 뚜렷한 인쇄 상태를 보인다.

이 책 역시 成宗代에 원대 한어적인 요소를 교정한 책을 중심으로

번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 『老乞大』와 달리 『朴通事』에 대해서는 교정하기 전 『朴通事』의 한어본이 현존하지 않는다. 그런데 成宗代의 교정은 『老乞大』에서나 『朴通事』에서나 완전하지 않았던 듯하다. 『飜老』의 한어와 같이 『飜朴』의 한어에도 원대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 '마ᅀᆞᆳ 관원손ᄃᆡ<飜朴 上 3b>'에 대응되는 원문 '署官根底'에서 보이는 '根底'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대적 요소는 원문이 개수된 『朴新』에서는 제거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예가 이를 잘 보인다.

(1) 「飜朴」 署官根底 관원ᄃᆞᆯ히 글워를 수울 ᄀᆞᅀᆞᆷ만 <u>마ᅀᆞᆳ 관원손ᄃᆡ</u> 맛뎌 <上 3b>
「朴諺」 署官根底 官人들이 文書ᄅᆞᆯ 술 ᄀᆞ옴아ᄂᆞᆫ 署官의게 吩咐ᄒᆞ여 <上 3b>
「朴新」 管酒的人 가져가 <u>술 ᄀᆞ ᄋᆞ아ᄂᆞᆫ 사ᄅᆞᆷ의게</u> 吩咐ᄒᆞ여 <1:3b>

이 책에도 『飜老』의 경우와 같이 잘못 언해된 구절이 몇몇 눈에 띈다. 이러한 잘못은 후대본인 『朴諺』 등에서 올바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예가 이를 잘 보인다.

(2) 「飜朴」 죠셔 기독ᄒᆞᆫ 후에 고렷 ᄯᅡ호로 가노이다 <上 8b>
「朴諺」 詔書 開讀한 후의 고려 ᄯᅡ히 갈다 <上 9a>
「朴新」 朝鮮國에도 詔書ㅣ 이셤즉 ᄒᆞ니 ᄯᅩ 일즉 너ᄅᆞᆯ 시겨 가게 ᄒᆞ엿ᄂᆞ냐 <1:8b>

(2)의 원문에는 '開詔後頭高麗地面裏去麽'와 같이 '麽'가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의문문으로 번역되어야 할 것 같다. 문미에 '麽'가 통합된 후행하는 대사 '聖旨領了麽'가 '聖旨 받ᄌᆞ오신가'와 같이 의문문으로 번역되었음이 참조된다. 그런데 『飜朴』에는 평서문으로 언해되

어 있음이 눈에 띈다. 잘못 언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간행시 『飜朴』을 참조하지 않은 『朴諺』과 『朴新』에는 제대로 의문문으로 언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정은 『老諺』의 경우와 달리 『朴諺』 언해자들의 의도적인 수정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2.2.2.2. 『朴通事諺解』

『老諺』에서는 새로운 科를 시작할 곳에는 二葉花紋魚尾를 두어 학습의 편이를 도모하였으나 『朴諺』에는 그에 대당하는 장치가 없다. 대신 새로운 科를 시작할 때마다 행을 바꾸는 체재를 취하고 있다. 이는 『飜朴』이 원래 새로운 科를 시작할 때 행을 바꾸는 체재였음을 고려할 때 이해할 만한 일인 듯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간단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朴諺』의 간행시 『飜朴』을 참조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飜朴』과 『朴諺』의 체재가 일치하는 것은 『朴諺』의 언해시 저본이 되었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 한어본 『朴通事』(成宗代에 수정된 간본)의 체재가 새로운 과를 시작할 때 행을 바꾸는 체재였고 그 체재를 『朴諺』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朴通事諺解』의 체재가 『飜朴』과 일치하는 것이 『朴諺』을 간행할 때 『飜朴』을 참조했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朴諺』은 上中下 3卷의 木版本이며 上卷 67葉 中卷 61葉 下卷 62葉으로 이루어져 있다. 四周雙邊에 有界 11行이고 每行이 21字로 半郭은 26.2×18.6cm이다. 版心은 上下花紋魚尾이다.

이 책의 특징은 다른 『朴通事』의 언해본과는 달리 서문이 있고 卷末에 '老乞大集覽' 上下와 '單字解'가 첨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老諺』에는 부재되지 않은 '老乞大集覽'과 '單字解'가 부재되어 있는

것은 김완진(1976:15)에서도 지적되었듯이 『老諺』의 간행시에는 발견되지 않아 참조하지 못한 『老朴集覽』이 『朴諺』의 간행시에는 발견되어 참조되었고 이에 『老諺』을 간행할 때 미비했던 '老乞大集覽'의 내용 등을 『朴諺』에 수록하여 보완하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飜老』의 한자음 우측음 'ᄉᆞ, ᄌᆞ, ᄎᆞ'가 『老諺』에서 '스, 즈, 츠'로 나타나듯이 『朴諺』에서도 『飜朴』의 우측 한자음 'ᄉᆞ, ᄌᆞ, ᄎᆞ'가 '스, 즈, 츠'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老諺』의 수정이 의도적이었음과는 대조적으로 『朴諺』의 수정은 『朴諺』의 언해자가 『飜朴』을 보지 않은 상태로 注音을 했기 때문에 의도적인 수정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 평가함이 옳을 듯하다. 이외에도 또 『飜朴』의 '兒'에 대한 우측 한자음 'ᅀᅳ<飜朴 上 4a>'가 『朴諺』에서는 '올<朴諺 上 4a>'과 같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글자에 대해 『飜老』는 『飜朴』과 같이 'ᅀᅳ'를 보이지만 『老諺』에서는 'ᅀᅮᆯ<老諺 上 3a>, ᅀᅳᆯ<老諺 上 12a>'을 보임과 사뭇 대조된다. 이밖에 二에 대한 우측 한자음이 『飜朴』에서는 'ᅀᅳ<飜朴 上 2a>'과 같이 나타나지만 『朴諺』에서는 '을<朴諺 上 4a>'로 나타나는데 이 역시 같은 글자에 대해 『飜老』의 'ᅀᅳ'가 『老諺』에서 'ᅀᅳᆯ<老諺 上 17a>'로 나타남과 대조를 이룬다. 이로써 『朴諺』의 우측 한자음이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老諺』의 그것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초간본의 참조 여부의 차이가 이와 같은 차이에 일조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물론 『老諺』과 『朴諺』의 우측음의 수정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주목되어야 한다. '六'에 대해 『飜老』와 『飜朴』이 '루'를 보임에 반해 『老諺』과 『朴諺』은 동일하게 '뤽<老諺 上 21a>; 六뤽<朴諺 上 4a>'를 나타냄을 볼 수 있다.

『朴諺』의 간행경위에 대해서는 서문에도 그 뜻이 잘 나타나 있다.

임진왜란으로 서적이 모두 재가 되었는데 최세진이 번역한 책도 산실되어 그 譯을 배우는 자가 많아 이를 가슴 아파 했다. (중략)

이 때 우의정 권대운이 사역원의 제조를 지내며 역학의 밝지 못함과 중국어의 익숙지 못함을 강개하여 역관 변섬과 박세화 등 12인으로 하여금 '집람'을 고증하여 비교하고 증정하게 하여 『박통사언해』를 지었다. 고된 일을 부지런히 하여 뜻을 이루었으니 1년이 지나 비로소 완성되었는데 '집람'과 '단자해'를 그 뒤에 붙였다.

龍蛇之變 書籍盡灰 而崔氏之釋 泛而失 其傳 學譯者多病之. (중략) 時則右議政臣權大運 實提調是院 以譯學之未明華語之未熟 爲慨然 使舌官邊暹朴世華等十二人 就集覽考較證訂 作朴通事諺解 辛勤致志 過一年始成 而以集覽及單字解.

역학을 진작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란으로 소실된 『飜朴』의 不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해서를 간행하게 한 것이다. 『飜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간행한 『朴諺』으로 인해 '『飜朴』:『朴諺』'의 관계는 여러모로 '『飜老』:『老諺』'의 관계와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무엇보다도 원문에 대한 파악에 있어 『朴諺』은 『飜朴』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는 '『飜老』:『老諺』'이 보이는 것의 양과 폭보다 훨씬 큰 것이다.

원문의 구절 끊음을 달리 하여 생긴 차이만도 셀 수 없이 많다. (1)과 같은 예가 그에 해당한다.

(1)

ㄱ. 「飜朴」 如今檯卓兒○上湯着 이제 상 들라○ 탕 받ᄌᆞ오라 <上 6a>
　 「朴諺」 如今檯卓兒上湯着 이제 상을 들면 湯을 들일 거시니 <上 6b>
　 「朴新」 飯後每人須要再吃三盞上馬盃 밥후에 每人이 다시 三盞上馬盃를 먹고 보야흐로 홋터짐을 허ᄒᆞ쟈 <1:7a>

ㄴ. 「飜朴」 不敢○哥小人昨日貴宅裏 엇던 마리어시뇨 ○ 형님하 小人이 어

제 웃더귀 <上 58b>
「朴諺」 不敢哥○小人昨日貴宅裏 불감ᄒᆞ여라 형아 ○ 소인이 어제 貴宅에 <上 52a>

이외에 아예 『飜朴』과 『朴諺』이 원문의 문장의 종류를 달리 파악하여 언해한 문장들도 많이 나타나며 이러한 경우도 『飜老』와 『老諺』의 경우보다 그 빈도수가 높아 『朴諺』의 간행시 『飜朴』을 참조하지 않은 저간의 사정이 언해 양상의 차이에도 그대로 반영됨을 볼 수 있다.

2.2.2.3. 『朴通事新釋諺解』

이 책은 『朴通事』의 원문을 개수한 『朴通事新釋』을 언해한 책이다. 서문과 간기는 없으나 『通文館志』 권8 什物 續條(8a)에 '新釋朴通事板諺解板 訓長金昌祚等修整 乾隆乙酉箕營刊板'이라는 기록이 있어 이 책이 1765년 『朴通事新釋』과 함께 평양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행에 金昌祚가 관여하였음은 위의 기록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老乞大新釋』의 序文에도 잘 나타난다.

> 책이 이루어지매 이를 이름지어 '老乞大新釋'이라 하였으니 임금의 명을 받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朴通事新釋'을 김창조에게 맡길 뜻을 조정에 고하여 허락을 받았다. 이로부터 여러 책이 新釋을 아울러 갖추어 通話하는 데 막힘이 없게 되었다. 이제 이 신석은 通話에 편리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
> 書成名之曰老乞大新釋 承上命也 旣又以朴通事新釋 分屬金昌祚之意 筵稟蒙允 自此諸書幷有新釋 可以無礙於通話也 今此新釋 以便於通話爲主

『老新』도 그렇지만 『朴新』도 그 전대본들의 『朴通事』에 비해 원

문이나 번역에 있어 그 면모를 일신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서문은 『朴新』도 通話 위주의 내용으로 변개되었음을 보인다. 時俗의 변천에 따른 내용의 일신과 언어의 변천은 이 책이 『老朴集覽』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였다. 『朴新』의 바로 전대본인 『朴諺』가 『老朴集覽』의 발견으로 그 언해가 가능하였다고 할 만큼 『老朴集覽』의 그늘이 많이 드리워진 책이었음과 대조된다.

이 책은 半郭이 22.×15.7cm이며 四周雙邊에 有界로 10行인데 每行이 20字이다. 版心은 上下內向花紋魚尾이다. 권1이 59葉, 권2가 60葉, 권3이 59葉으로 이루어져 있다.

『朴新』은 원문 내용과 번역이 새로워졌을 뿐 아니라 한자음의 注音도 『朴諺』과 비교할 때 많이 달라진 책이다. 『朴新』의 한자음 중 좌측음은 『朴諺』의 그것과는 다르다. 『朴新』의 좌측음은 다름아닌 『平老諺』의 좌측음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朴新』의 좌측음이 『平老諺』의 좌측음과 일치한다는 것은 『老新』의 좌측음과도 일치함을 의미한다. '二'에 대해, '슿'으로 좌측음이 나타나는 『朴諺』과는 달리 'ᅀᅵᆼ'으로 좌측음으로 달려 『平老諺』이나 『老新』의 그것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측음은 어떠할까? 우측음 역시 『老新』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人'에 대해, 'ᅀᅵᆫ'으로 우측음이 나타나는 『朴諺』과는 달리 '인'이 우측음으로 달려 『老新』의 양상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朴新』의 한자음은 『老新』의 그것과 같은 패러다임 안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老新』의 서문에서도 나타났듯이 『朴新』의 간행이 『老新』의 간행과 더불어 『老新』 간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행해진 사실과, 『老新』과 같이 通話위주로 원문이 개수되고 번역이 이루어진 책임을 상기해 볼 수 있겠다.

『朴新』에 대해 고찰하기 전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항이 또 있다. 그것은 『老新』에는 『平老諺』의 한자음 주음과 중국어 원문 등이 실

려 있는데 반해 『朴新』에는 『朴諺』의 한자음 주음과 중국어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는 점이다. 通話 위주로 간행되었다고 한 『老新』에서조차 전대본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여 전대본의 한자음과 원문을 실은 뜻, 즉 '存羊之義'의 뜻이 『朴新』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선 『朴通事』에 있어서는 『老諺』의 좌측음을 수정한 『平老諺』에 대당할 만한 간본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平老諺』의 경우 『老新』과의 간행 간격이 20여 년도 채 안 되었기에 『老新』이 『平老諺』의 원문과 우측음을 싣는 것이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지만 『朴新』의 경우에는 『平老諺』에 대당하는 전대본이 없었기에 이러한 '存羊之義'의 뜻을 살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굳이 '存羊之義'의 뜻을 살리려 애썼다면 『朴諺』의 그것을 실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朴諺』은 '存羊之義'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도 낡은, 시속에 맞지 않는 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朴新』 중 서울대 일사문고에 소장된 책의 권2 마지막장에는 '乙卯仲秋本院重刊'이라는 손으로 쓴 墨書가 있다(홍윤표 1993: 145). 필자의 實査 결과도 이와 동일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의 刊記, 즉, '乙卯仲秋本院重刊'이 다름 아닌 한어본 『重刊老乞大』에서도 발견된다. 다만 한어본 『重刊老乞大』의 刊記는 인쇄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朴新』의 墨書에 등장하는 乙卯는 1735년, 1759년, 1795년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朴新』의 墨書와 한어본 『重刊老乞大』의 刊記가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朴新』의 墨書 '乙卯仲秋本院重刊'에서의 乙卯는 한어본 『重刊老乞大』와 언해본 『重刊老乞大諺解』가 간행된 乙卯(1795年)를 이르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정광(2000:165)에서는 한어본 『朴通事新釋』의 권말에 부재

된 諸譯銜名에 金昌祚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이 諸譯銜名에 邊憲과 李湛[19]이 檢察官으로 되어 있는 것 등을 근거로 『重刊老乞大』와 『重刊老乞大諺解』를 간행할 때 『朴通事新釋』과 『朴通事新釋諺解』를 重刊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현존하는 일사문고본은 金昌祚가 중심적으로 관여한 원간의 언해본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乙卯仲秋本院重刊'의 乙卯年(1795년)이 金昌祚가 활동하던 시기가 아님을 고려할 때에도 타당한 면이 있다. 그렇다면 金昌祚가 관여한 원간 『朴新』의 내용과 乙卯年에 이를 중간한 일사문고본 『朴新』의 내용이 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함부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겠지만 두 책은 동일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乙卯年에 그 원문과 내용을 개수한 『老乞大』의 중간본에 대해서는 『重刊老乞大諺解』라 명명했는데 이와 함께 중간한 『朴通事新釋諺解』에 대해서는 '重刊朴通事諺解'라 하지 않은 이유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乙卯年에 간행된 『朴通事新釋諺解』가 金昌祚가 관여한 원간의 책을 어떤 식으로든 개수한 것이라면 '重刊朴通事諺解'쯤으로 명명이 이루어져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乙卯年에 간행된 책이 金昌祚가 관여하여 평양에서 간행한 그 책과 동일한 내용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가설과, 현존하는 일사문고본의 책이 乙卯年에 다시 간행된 책임을 중시할 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 『老新』에 대해서는 乙卯年에 『重老』가 간행되었으나 『朴新』에 대해서는 乙卯年에 '重刊朴通事諺解'가 간행되지 않고 전대본인 『朴

19) 李湛은 '李洙'로 『重刊老乞大』의 간행에 있어 校檢官으로도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 李湛이 『朴通事新釋』의 간행에도 관여했던 것이다. 이로써 현존하는 일사문고본 『朴通事新釋』과 『朴通事新釋諺解』가, 『重刊老乞大』의 간행과 동시에 다시 간행된 책이라는 사실이 더욱 신빙성을 얻는 것 같다.

新』이 그대로 다시 간행되기만 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앞에서 『重老』가, 『老新』의 지나친 通話위주의 내용을 다시 원래로 되돌리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重老』 나름의 독자적인 수정을 가하기도 한 책임을 살펴보았다. 『朴新』에 대해서도 같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왜 '重刊朴通事諺解'는 간행되지 않았을까?

『朴通事』에는 『老乞大』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의 관제라든지 중국 고유의 풍속을 포함하는 내용이 많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언어와 풍속의 변화가 책을 새로이 개수할 때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중국의 관제와 풍속이 내용의 주를 이루는 『朴通事』의 경우에는 책의 개수 때 이러한 時俗의 변화에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 『朴通事』에 있어서는 通話 위주의 새로운 新釋이 『老乞大』의 그것만큼 부담스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老新』의 경우 중국에 가서 일일이 물어서 내용을 정했던 데 비해 『朴新』은 국내에서 원고가 이루어진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老新』의 지나친 通話위주의 원문 개수와 번역을 완화시키는 것이 그 간행 목적 중 하나였던 『重老』는 『老新』이 간행된 지 불과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간행된 데 비해 『朴新』에 대해서는 『重老』에 대응하는 '重刊朴通事諺解'가 간행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저간의 사정이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重刊朴通事諺解'의 간행은 『重老』의 간행만큼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던 것 같다. 오히려 『重老』가 간행되었던 시기에 『朴新』이 다시 한번 간행되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점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 같다. 乙卯年을 기준으로 通話 위주의 『老新』은 받아들이기 힘든 점들이 많았으나 『朴新』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

이다.

한편 『老新』과 『朴新』의 한자음 주음이 동일한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通話 위주의 『老新』이 가졌던 약점은 한자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老新』은 원문의 내용과 번역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朴新』은 한자음 주음뿐 아니라 원문의 내용과 번역에 있어서도 전대본인 『朴諺』에 비해 매우 새로워진 책이다. 원문의 내용이 보충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가서는 생략이 되거나 표현이 달리 되기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乙卯年에는 새로운 역학서들이 간행되었다. 『重老』가 그러했듯이 乙卯年에 간행된 『朴新』은 정조대의 역학 진흥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2.2.3. 『朴通事』의 중국어 원문 및 언해 양상의 비교

『朴通事』의 언해본들은 『老乞大』의 언해본들에 비해 전해지는 간본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초간본의 경우도 『飜朴』 上卷만이 전하고 있다. 또 여타의 중간본으로도 『朴諺』과 『朴新』만이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平老諺』나 『重老』에 비견될 수 있는 간본이 없다는 점도 주목되는 바이다.

『朴通事』의 언해본 간행 경위 등에 관해 논의할 때 『飜朴』을 『朴諺』의 언해자가 참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항상 주목을 끌어왔다. 이러한 간행 경위의 난맥상은 『朴諺』과 『老諺』에 나타나는 언해 양상을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또 『朴諺』의

경우 『老諺』과는 달리 주석이 본문 안에 통합된 텍스트 구성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朴諺』의 텍스트 구성의 양상 역시 『朴諺』에 나타난 언해의 양상과 『老諺』에 나타난 언해의 양상을 다소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朴諺』의 序文에는 갑작스러운 『老朴集覽』의 발견이 『朴諺』을 간행하게 된 계기였음을 밝힌 부분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텍스트 안에 통합된 『朴諺』의 텍스트 구성 양상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朴通事』의 내용은 『老乞大』의 내용과는 달리 텍스트 안에 나오는 어휘에 대한 자세한 주석 없이는 몇 페이지도 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중국의 풍물, 관습, 관제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 내용은 외교상의 구체적 절차, 잡기, 보석치장, 응접 관례, 결혼풍속, 계약의 절차와 문서 작성 관례, 산후 조리, 활쏘기, 차용 관례 등에 이르는 매우 방대한 범위의 것이다. 여행, 거래, 숙박 과정이 주요 내용을 이루는 『老乞大』와는 내용상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老乞大』의 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고 무거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곳에 대한 주석이 본문 안에 통합되어 있는 것이 학습의 편이라는 면을 고려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유리하다. 科마다 나오는 어려운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석이 필요하고 이 주석을 찾아보기 위해 별도로 『老朴集覽』을 참고하는 것보다는 『老朴集覽』의 내용 중 관련된 부분을 『朴諺』의 본문 속에 통합시켜 즉시 즉시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朴通事集覽'의 내용이 『朴諺』의 본문 중 주석으로 통합되어 있는 바람에 『朴諺』의 책 말미에는 '老乞大集覽'은 부재되어 있는 반면 '朴通事集覽'은 부재되어 있지 않다. 이로써 『老諺』과 『朴諺』이 상이한 텍스트 구성을 가지게 된다.[20]

20) 한편 『老乞大』, 『朴通事』의 언해본 중 『老諺』과 『朴諺』 이후의 언해본들에는 그

언해본 『朴通事』의 異本들을 비교할 때 앞에서 『老乞大』의 언해본들을 비교해서 얻은 결과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老乞大』의 언해본들에 비해 『朴通事』의 언해본들 간에는 유사성과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朴諺』의 언해자들이 『飜朴』을 참조하지 않은 까닭에 두 책의 언해 내용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또 『朴新』의 원문 개수의 폭과 내용도 『老新』의 그것에 비해 매우 크다. 그래서 원문의 개수시 언해가 영향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등을 굳이 구분해야 할 의의가 줄어든다.

『朴諺』은 『飜朴』을 참조하지 않았으니 동일한 원문에 대한 언해 양상에 있어 『飜朴』과 차이를 크게 보일 것임이 당연하다. 또 『朴新』의 경우 개수의 폭이 넓으니 대부분의 경우에 원문과 언해의 모습이 달라짐이 당연하다. 『朴諺』의 언해시에는 『飜朴』을 참조하지 못했지만 『朴新』의 언해시에는 『朴諺』을 참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문과 언해의 비교시 원문이 동일한 경우라면 '『朴諺』=『朴新』'보다는 '『朴諺』≠『朴新』'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 같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중심으로 이들 책의 원문과 번역 양상의 유형을 확인해 보자. 우선 『飜朴』과 『朴諺』만을 비교해 보아도 동일한 원문에 대해 구절 끊음을 달리 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다음의 (1ㄱ)에서 그러한 양상을 볼 수 있다. (1ㄱ)에서는 언해 양상까지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1ㄴ)에서는 원문의 구절 끊음을 달리 하여 언해 양상까지 달라짐을 볼 수 있다.

내용 중 나오는 '高麗'라는 國名이 '朝鮮'으로 수정된 곳이 대부분인데 『朴通事』 언해본의 일부에는 그러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다. 내용상 어쩔 수 없이 수정하지 않은 부분들이다. 高麗國의 명칭이 스토리 전개상 중요한 부분이 대표적인 곳이다. 태조 왕건의 고려 건국 경위 등이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 『朴諺』과 『朴新』 하권의 마지막 장면의 내용이 대표적인 예이다.

(1)

ㄱ. 「飜朴」 酒○京城槽房雖然多 수리○셔욼 술집둘해 비록 하나 <上 2b>
「朴諺」 酒京城槽房雖然多 술은 경성에 술집이 비록 만ᄒᆞ나 <上 2a>
「朴新」 京城街市上槽房雖多 京城 져제에 술집이 비록 만호나 <1:2a>

ㄴ. 「飜朴」 如今檯卓兒○上湯着 이제 상 들라○ 탕 받ᄌᆞ오라 <上 6a>
「朴諺」 如今檯卓兒上湯着 이제 上을 들면 湯을 들일 거시니 <上 6b>
「朴新」 飯後每人須要再吃三盞上馬盃 밥후에 每人이 다시 三盞上馬盃ᄅᆞᆯ 먹고 보야호로 홋터짐을 허ᄒᆞ쟈 <1:7a>

ㄷ. 「飜朴」 不敢○哥小人昨日貴宅裏 엇던 마리어시뇨○형님하 小人이 어제 웃더긔 <上 58b>
「朴諺」 不敢哥○小人昨日貴宅裏 불감ᄒᆞ여라 형아○ 소인이 어제 貴宅에 <上 52a>

(1ㄴ)에서 『朴諺』은 원문의 구절을 끊지 않은 채 언해하고 있다. 따라서 언해문도 연결형 어미로 이어진 구문으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언해자에 의해 원문의 성격이 완전히 달리 파악되었다는 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飜朴』에서는 두 개의 명령문으로 파악된 문장이 『朴諺』에서는 하나의 평서문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老乞大』의 언해본에서보다 『朴通事』의 언해본에서 상대적으로 더하리라 기대될 수 있다. 왜냐하면 『朴諺』의 언해자는 『飜朴』을 보지 않은 채 언해했기에 번역시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老諺』의 언해자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21] 『朴新』의 경우에는 전대본들과 비교시 원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경우가 매우 많음을 볼 수 있다. 『朴新』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루어보기로 한다. (1ㄷ)에서는 哥를 앞의 대사에 연결된 것

21) 『朴新』에서는 이 부분 자체가 완전히 빠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으로 보았느냐 뒤의 대사의 서두인 호격 표현으로 보았느냐에 따라 번역의 양상이 달리됨을 볼 수 있다.

『飜朴』과 『朴諺』의 언해문이 완전히 문장의 종류를 달리 하는 예로 다음과 같은 유형도 볼 수 있다.

(2)

ㄱ. 「飜朴」 죠셔 기독ᄒᆞᆫ 후에 고렷 ᄯᅡ호로 가노이다 <上 8b>
「朴諺」 詔書 開讀한 후의 고려 ᄯᅡ히 갈다 <上 9a>
「朴新」 朝鮮國에도 詔書ㅣ 이셤즉 ᄒᆞ니 ᄯᅩ 일즉 너ᄅᆞᆯ 시겨 가게 ᄒᆞ엿ᄂᆞ냐 <1:8b>

ㄱ'. 「飜朴」 이 여ᄉᆞᆺ낫 굴그니예 ᄆᆡ ᄒᆞ나히 닷돈은을 바ᄃᆞ련마른 고디시근 갑슨 네 돈에 ᄒᆞ나식 가져가라 <上 32ab>
「朴諺」 이 여ᄉᆞᆺ 크니예 ᄆᆡ ᄒᆞ나히 닷 돈 은을 ᄢᅬ오려니와 고디식ᄒᆞᆫ 갑슨 너 돈에 ᄒᆞ나식 ᄒᆞ여 가져갈다 <上 29b-30a>
「朴新」 이 ᄒᆞᆫ 등 ᄀᆞᆺ치 소홈이 큰 거슨 每張에 그저 닷 돈 은을 바드려 ᄒᆞ니 이 고지식ᄒᆞᆫ 갑시라 <1:32b>

ㄴ. 「飜朴」 수울 어드라 가더니 다 도라 오나다 <上 3a>
「朴諺」 술 가질라 갓더니 다 오나다 <上 3a>
「朴新」 너회 술 어드라 갓든 이 다 도라 왓ᄂᆞ냐 <1:3a>

ㄴ'. 「飜朴」 이 ᄒᆞᆫ 둥엣 소홈 고ᄅᆞ고 굴그니예 엇디 풀다 <上 32a>
「朴諺」 이 ᄒᆞᆫ가지 소홈 고로고 크니ᄅᆞᆯ 이 여ᄉᆞᆺ 크니예 ᄆᆡ ᄒᆞ나히 닷 돈 은을 ᄢᅬ오려니와 고디식ᄒᆞᆫ 갑슨 너돈에 ᄒᆞ나식 ᄒᆞ여 가져갈다 <上 29b-30a>
「朴新」 이 ᄒᆞᆫ 등 ᄀᆞᆺ치 소홈이 큰 거슨 每張에 그저 닷 돈 은을 바드려 ᄒᆞ니 이 고지식ᄒᆞᆫ 갑시라 <1:32b>

(2ㄱ)의 원문에는 '開詔後頭高麗地面裏去麽'와 같이 '麽'가 통합되

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의문문으로 번역되어야 할 것 같다. 문미에 '麽'가 통합된 후행하는 대사 '聖旨領了麽'가 '聖旨 받즈오신가'와 같이 의문문으로 번역되었음이 참조된다. 그런데 『飜朴』에는 평서문으로 언해되어 있음이 눈에 띈다. 잘못 언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간행시 『飜朴』을 참조하지 않은 『朴諺』과 『朴新』에는 제대로 의문문으로 언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이 『朴諺』 언해자들의 의도적인 수정의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ㄱ')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飜朴』에서는 명령문으로 언해되어 있는 것이 『朴諺』에서는 의문문으로 언해가 되어 있다. 원문을 살펴보면 '四錢一箇家將去麽'와 같이 역시 의문 요소인 '麽'가 통합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평서문으로 언해한 『飜朴』의 언해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朴諺』에는 의문문으로 제대로 번역되어 있다. 그런데 『朴新』의 번역이 나머지 두 異本의 번역과 상이한 이유는 원문이 완전히 새로이 개수되었기 때문이지 번역상 잘잘못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2ㄴ)에서 『飜朴』과 『朴諺』의 원문은 '討酒的都迴來了'이다. 『飜朴』과 『朴諺』 언해문의 문장 종류가 평서문으로 같음에 비해 『朴新』에서는 의문문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朴新』에서는 문말에 '麽'를 포함하는 새로이 개수된 원문을 언해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이다.

(2ㄴ')도 (2ㄴ)과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朴新』의 원문이 개수되어 전대본과 문장의 종류가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飜朴』과 『朴諺』의 원문이 평서문인 '這一等花兒的大的怎麽賣'인 반면 『朴新』의 원문은 '你們討酒的都迴來了麽'로 어말에 의문조사 '麽'가 통합되었음을 볼 수 있다.

(3)에서는 한자의 노출 여부 등에 따른 문체적 차이가 『飜朴』, 『朴諺』, 『朴新』에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3)

ㄱ. 「飜朴」 사ᄅᆞᄆᆡ 일셰만 사라잇고 프른 ᄒᆞᆫ ᄀᆞᅀᆞᆯᄯᅵᆼ 사라 잇ᄂᆞ니 우리 여러 ᄆᆞᅀᆞᆷ 됴히 너기ᄂᆞᆫ 형뎨 ᄀᆞᄐᆞ니돌히 뎌 일훔난 화원의 가 ᄒᆞᆫ 샹화ᄒᆞᄂᆞᆫ 이바디를 ᄒᆞ야 우리 시르믈 슬우며 답답ᄒᆞᆫ ᄆᆞᅀᆞ믈 헤와도뎌 엇더ᄒᆞ뇨 <上 1a-b>[22]

「朴諺」 人生一世ㅣ오 初生一秋ㅣ라 우리 여러 됴흔 兄弟들히 뎌 有名ᄒᆞᆫ 花園에 가 ᄒᆞᆫ 賞花ᄒᆞᄂᆞᆫ 이바디롤 ᄒᆞ여 우리 소수해민홈이 엇더ᄒᆞ뇨 <上 1a>

「朴新」 人生一世ㅣ오 初生一秋ㅣ라 우리 ᄉᆡᆼ각ᄒᆞ니 여러 됴흔 諸兄들을 언약ᄒᆞ여 뎌 有名ᄒᆞᆫ 花園에 가 여러 賞花 筵席을 ᄎᆞ려 대되 ᄯᅩ 消愁解悶홀 만 ᄀᆞᆺ지 못ᄒᆞ니 엇더ᄒᆞ뇨 <上 1:1a-b>

ㄴ. 「飜朴」 죠히 먹 붇 벼루 가져오라 <上 60b>

「朴諺」 紙筆墨硯을 가져오라 <上 54a>

「朴新」 紙墨筆硯을 가져오라 <1:58a>

ㄷ. 「飜朴」 모든 형뎨돌히 우리 셜흔 사ᄅᆞ미 각각 돈 일빅곰 내면 대도히 돈이 쳔나치로소니 유예 ᄡᅳ리로다 張三이 ᄒᆞ야 양 사라 가게 호ᄃᆡ 스므 낫 됴ᄒᆞᆫ 솔진 양을 사게 ᄒᆞ라 암ᄒᆞ란 사디 말오 다 악대로 ᄒᆞ라 ᄯᅩ 됴ᄒᆞᆫ 솔진 쇼 ᄒᆞ나시며 도틔 고기 쉰 근만 사며 <上 2a>

「朴通」 모든 弟兄들히 혜아리쟈 우리 三十 人이 各 人이 一百 낫 銅錢을 내면 대되 三千 낫 銅錢이니 유여히 ᄡᅳ리라 張三으로 ᄒᆞ여 羊을 사라 가 二十 낫 ᄀᆞ장 솔진 羊을 사되 암을 사디 말고 다 수를 사고 ᄯᅩ 一隻 ᄀᆞ장 솔진 쇼를 사고 五十 斤 猪肉을 사고 <上 2a>

「朴新」 혜아리니 우리 됴흔 弟兄들이 셜흔 나믄 이 이실 ᄯᅳᆺ ᄒᆞ니 每人이 돈 ᄒᆞᆫ다오 五百을 내면 대되 돈 四十 五六 다오를 모돌 ᄡᅥ시

22) 홍윤표(1993:146-147)에서도 바로 이 예를 들어 한문어구를 그대로 우리말로 풀어 번역한 『飜朴』과 그렇지 않은 『朴諺』, 『朴新』의 언해 스타일의 차이를 언급한 바 있다.

니 잇긋 넉넉이 ᄡᅳ리라 張三으로 ᄒᆞ여 가 <1:2a>

ㄹ. 「飜朴」 므슴 이리 잇ᄂᆞᆫ고 <上 7b>
「朴諺」 므슴 일이 잇ᄂᆞ뇨 <上 8a>
「朴新」 네 가미 므슴 일이 잇ᄂᆞᆫ뇨 <1:8a>

위의 예들에서 『飜朴』, 『朴諺』, 『朴新』의 언해 스타일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飜朴』은 한문어구를 그대로 우리말로 풀이하는 형식으로 언해를 하고 있는 반면 『朴諺』이나 『朴新』은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다. 『朴諺』, 『朴新』에서는 한문어구를 그대로 노출시켜 언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양상은 표면적으로 『老乞大』의 언해본들에서보다 더 심해 보인다. 『老乞大』의 내용 자체에 어려운 한문어구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어 이본들간의 차이가 심하게 느껴지지 않은 탓도 있는 것 같다. (3ㄹ)의 『朴新』의 언해문 '네 가미 므슴 일이 잇ᄂᆞᆫ뇨<朴新 1:8a>'은 '你去有甚麽勾當'의 번역으로 직역투를 강하게 느끼게 한다.

그런데 한자어 사용의 여부에 관한 한 다음의 예는 대체적인 경향에 대해 예외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4) 「飜朴」 ᄂᆞᄆᆡ 것 소겨 가지노라 ᄒᆞ야 지븨 잇디 아니ᄒᆞᄂᆞ니 네 그놈 츄심ᄒᆞ야 므슴ᄒᆞᆯ다 <上 34a>
「朴諺」 사ᄅᆞᆷ의 것 소기노라 집의 잇디 아니ᄒᆞ니 네 뎌ᄅᆞᆯ ᄎᆞ자 므슴ᄒᆞ려 ᄒᆞᄂᆞᆫ다 <上 31a>
「朴新」 〔해당문장 빠짐〕

『飜朴』에서는 '츄심'이라는 한자어가 사용된 반면 『朴諺』에서는 한자어가 사용되지 않고 우리말로 풀어 해석되었다. 그런데 『飜朴』에 사용된 한자어는 한자를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다음의 예도 참조된다.

(5)

ㄱ. 「飜朴」 수리 셔욼 술집둘해 비록 하나 져젯 수를 ᄒᆞ야 온둘 엇디 머글고 <上 2b>

「朴諺」 술은 京城에 술집이 비록 만ᄒᆞ나 져젯 술을 가져오면 엇디 머그리오 <上 3b>

「朴新」 京城 져제에 술집이 비록 만흐나 가져 온 술이 다 평상ᄒᆞ니 <1:2a>

ㄴ. 「飜朴」 우리 光祿寺에 가 무러 남경의셔 온 蜜林檎燒酒一桶과 豆酒一桶을 어더 ᄯᅩ 대귀릐 수울 ᄀᆞᄉᆞ만 관원둘희 빙근 됴ᄒᆞᆫ 수울 여라믄 병만 어더 오디 엇더ᄒᆞ뇨 <上 2b>

「朴諺」 우리 뎌 光祿寺에 무러 남방으로셔 온 蜜林檎燒酒一桶 ᄒᆞᆫ 통과 長春酒 ᄒᆞᆫ 통과 苦酒 ᄒᆞᆫ 통과 豆酒 ᄒᆞᆫ통을 어더 오고 ᄯᅩ 내부에 술 ᄀᆞ음 아는 관인들의 비즌 됴흔 술을 여라믄 병을 어더 오미 엇더ᄒᆞ뇨 <上 2b>

「朴新」 뎌 光祿寺에 가 무러 여러 瓶미林檎과 頭春과 木瓜露와 ᄡᅳᆫ 蔞豆酒를 어들 만 ᄀᆞᆺ지 못ᄒᆞ니 이 여러 가지는 다 南方셔 온 유명ᄒᆞᆫ 됴흔 술이라 만일 넉넉이 먹지 못ᄒᆞᆯ량이면 ᄯᅩ 內府 술 ᄀᆞ음 아는 官員들의게 빌러 비즌 본경 됴흔 술을 여러 병 어더 다가 보태여 먹음이 엇더ᄒᆞ뇨 <1:2b>

ㄷ. 「飜朴」 우리 셜흔 사ᄅᆞ미 각각 돈 일빅곰 내면 대도히 돈 쳔나치로소니 유예 ᄡᅳ리로다 <上 1b-2a>

「朴諺」 우리 삼십인이 각인이 일백낫 동전을 내면 대되 삼천낫 동전이니 유여히 ᄡᅳ리라 <上 2a>

「朴新」 리 됴흔 형제들이 셜흔 나믄 이실 뜻ᄒᆞ니 每人이 돈 ᄒᆞᆫ 다오 五百을 내면 대되 돈 四十五六 다오를 모들 꺼시니 잇긋 넉넉이 ᄡᅳ리라 <上 1:1b>

위의 대사를 비교할 때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단 원문의 내용 자체가 『朴新』에서 많이 개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朴新』의 경우 그 전대본들과 비교해 볼 때 원문의 내용 자체가 달리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朴新』의 내용이 훨씬 앞뒤 문맥을 고려한 구체적인 내용 혹은 행위문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음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이다. (5ㄷ)의 『飜朴』과 『朴諺』의 언해에서는 '대도히 돈 쳔나치로소니' 등 존재문으로 표현되었던 것이 『朴新』에서는 '대되 돈 사십오륙 다오를 모들 써시니'와 같이 행위문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내용 자체가 현격히 바뀌어 있음도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朴新』은 대체적으로 한어 원문의 내용 자체가 『飜朴』과 『朴諺』에 비해 현격하게 달리 개수되어 언해 양상도 두 전대본들과 차이를 많이 보인다. 간행시 『飜朴』을 참조하지 않은 『朴諺』의 경우에는 『飜朴』과 동일한 원문을 번역한 탓에 전반적인 내용이 『飜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朴新』의 원문의 개수와 이에 따른 언해 양상의 차이는 원문의 내용 자체가 매우 새로워진 결과임이 주목된다.

다음의 예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언해 양상은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6)

ㄱ. 「飜朴」 勘合 잇ᄂᆞ녀 몯ᄒᆞ녀 <上 3a>
「朴諺」 勘合이 잇ᄂᆞᆫ가 못ᄒᆞ엿ᄂᆞᆫ가 <上 4a>
「朴新」 牌票를 쓰고 印 텨 <1:3a>

ㄴ. 「飜朴」 첫 미수에 양 ᄆᆞ르 고ᄋᆞ니와 蒸捲 ᄡᅥᆨ과 湯名製法未詳一說見集覽 <上 5a>
「朴諺」 第一道ᄂᆞᆫ ᄆᆞ르 고ᄋᆞᆫ 양과 蒸捲ᄡᅥᆨ이오 <上 6b>

ㄷ. 「飜朴」 未詳一說 주기런 주기고 드리런 드리고 몰런 모라 에워다가 내 이패옷 몯 이긔면 사오납거닛든 이 몰옷 두면 됴타 <上 23b>
「朴諺」 주기리 주기고 드리리 드리고 몰리 모라 에워 가 패 티자 <上 22b>
「朴新」 〔해당문장 빠짐〕

(6ㄱ)은 관청 안의 술창고에서 술을 얻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밟는 장면 중에 나오는 대사이다. 『朴新』에서는 위의 예문에 해당하는 勘合 운운하는 내용이 빠져 있고 대신 牌票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당시 중국의 실정에 勘合 등의 내용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사 중 竹葉淸酒, 뇌아주 등을 운운하는 부분도 『朴新』에서는 빠져 있다.[23]

(6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법을 갖추어 음식을 올리는 장면이 『飜朴』에는 대사 없이 '湯名製法未詳一說見集覽'과 같이 처리되어 있다. 이것이 『朴諺』에서는 대사로 처리되어 있으며 주석도 달려 있어 설명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비해 『朴新』에는 이 내용이 아예 빠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원문과 번역의 형식 자체가 상이한 배경으로 『朴諺』의 언해자가 『飜朴』을 보지 않았던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朴諺』의 언해자가 『飜朴』을 참조하였다면 『朴諺』의 번역도 구체적인 대사가 없는 『飜朴』의 경우와 같이 '湯名製法未詳一說見集覽'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예는 『老朴集覽』의 편찬 연대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암시를 주는 것 같다. 위의 예로부터 『飜朴』의 편찬시 이미 『老朴集覽』이 편찬되었거나 혹은 적어도 동시에 편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飜朴』에서 '湯名製法未詳一說見集覽'와 같이 '集覽'을 참조하라고 한 것은 적어도 『老朴集覽』이 『飜朴』의 번역 이전이나 적어도 거의 동시에 간행되었음을 보인다 하겠다.

---

23) 『朴諺』의 대당하는 부분에는 『質問』을 인용한 별도의 주석이 덧붙어 있다.

(6ㄷ)의 『飜朴』에 '未詳一說'과 같은 구절이 나타나는 연유를 알 수 없다. 대응되는 『朴諺』에는 이러한 구절이 없음은 물론 별도의 주석도 달려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번역의 양상이 『飜朴』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朴新』은 『飜朴』과 『朴諺』에 비하면 원문의 내용 자체가 많이 개수되어 나머지 두 이본들과 비교해 볼 때 원문 내용과 번역 양상에 있어 차이를 많이 보인다. 그러나 『飜朴』과 『朴諺』은 동일한 원문을 번역한 탓인지 그 차이가 『朴新』과의 차이만큼은 크지 않다. 그러나 『朴諺』의 언해자가 『飜朴』의 언해를 참조하지 않은 저간의 사정으로 『飜老』와 『老諺』이 보이는 차이보다는 『飜朴』과 『朴諺』이 보이는 차이의 폭이 크다. 이는 동일한 원문에 대해 보이는 『飜朴』 언해자의 태도와 『朴諺』 언해자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朴諺』 언해자들이 『飜朴』을 참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양 본이 보이는 차이를 더 크게 하는데 일조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는 (2)에서 살펴보았듯이 결과적으로는 『朴諺』의 언해자가 『飜朴』의 잘못된 언해 양상을 수정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단순히 원문에 대한 태도 차에 기인하여 차이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7)

ㄱ. 「飜朴」 죠히 ᄒᆞᆫ 댱 가져다가 모든 번돌히 일후믈 다 써 쳥ᄒᆞ라 가라 <上 24b>

「朴諺」 ᄒᆞᆫ 댱 조히ᄅᆞᆯ 가져다가 모든 벗들의 名字ᄅᆞᆯ 다 써 쳥ᄒᆞ라 가쟈 <上 23b>

「朴新」 모든 벗의 일홈을 다 뻐 내여 가 뎌들을 언약ᄒᆞ여 못게 ᄒᆞ쟈 <1:28a>

ㄴ. 「飜朴」 내 두 솽 새훠를 다가 다ᄃᆞᆫ녀 히야ᄇᆞ리과라 <上 34b-35a>

「朴諺」 내 두 쌍 새훠를 다가 다둔녀 해야브리게 ᄒᆞ고 <上 31b-32a>
「朴新」 내 새 훠조차 다둔녀 해아브려다 <1:34b-35a>

ㄴ'. 「飜朴」 그러 아니려 ᄀᆞ장 어려우니라 <上 57b>
「朴諺」 그리어이 어려오니 <上 51b>
「朴新」 〔해당문장 빠짐〕

ㄷ. 「飜朴」 거즈말 잘ᄒᆞᄂᆞᆫ 마리사 니ᄅᆞ려 <上 35b>
「朴諺」 그리어나 거즛말 니ᄅᆞ기를 잘ᄒᆞᄂᆞ니 <上 32a>
「朴新」 〔해당문장 빠짐〕

ㄹ. 「飜朴」 그 즁이 닐오듸 노의여 아니호리이다 내 오늘브터 대간과 딜바리 쟝망ᄒᆞ야 기픈 산으로 향ᄒᆞ야 ᄆᆞᄉᆞᆷ 고텨 닷그라 가리이다 <上 37a>
「朴諺」 뎌 즁이 닐오듸 뇌여란 싱심이나 소승이 오늘브터 굴갓과 어유아리를 準備ᄒᆞ야 深山을 향ᄒᆞ야 懺悔ᄒᆞ라 가노라 <上 34a>
「朴新」 뎌 듕이 니ᄅᆞ되 소승이 뇌여란 싱심이나 오늘브터 삿갓과 에유아를 準備ᄒᆞ여 深山에 가 머무러 修身懺悔ᄒᆞ라 가려 ᄒᆞ노라 <1:36b>

ㄹ'. 「飜朴」 엇던 마리어시뇨 ○一說 싱심이나 그러ᄒᆞ리잇가 <上 58b>
「朴諺」 不敢ᄒᆞ여라 형아 <上 52a>

ㄹ" 「飜朴」 엇던 말소미어시뇨 <上 38a>
「朴諺」 不敢ᄒᆞ여라 相公아 <上 34b>
「朴新」 老長兄아 네 괘념호믈 닙으니 소제 실로 감히 당치 못ᄒᆞ여라 <1:37a>

ㅁ. 「飜朴」 해 다 바로 닐오듸 마치 히야다 <上 42b>
「朴諺」 애 다 아ᄂᆞᆫ고나 <上 38a>
「朴新」 애 네 다 아ᄂᆞᆫ고나 <1:41a>

ㅁ'「飜朴」 네 바ᄅᆞ 알리로소녀 <上 14b>
「朴諺」 네 알리로소냐 <上 14a>

ㅁ"「飜朴」 내 바ᄅᆞ 알리로다 <上 14b>
「朴諺」 내 알리로다 <上 14a>
「朴新」 〔해당문장 빠짐〕

ㅁ'''「飜朴」 즉재 바ᄅᆞ 아라 올히 닐어다 <上 15a>
「朴諺」 곳 아ᄂᆞᆫ고나 <上 14b>
「朴新」 이ᄀᆞᆺᄐᆞᆫ 비단은 내조상용을 더론 밧긔ᄂᆞᆫ 시졀거ᄉᆞ로ᄂᆞᆫ 웃듬 됴흔 거시라 ᄒᆞ리라 <1:17a>

ㅁ''''「飜朴」 네 니ᄅᆞ라 내 바ᄅᆞ 닐오마 <上 39b>
「朴諺」 네 닐ᄋᆞ라 내 알마 <上 36a>
「朴新」 네 니ᄅᆞ라 내 알마 <1:38b>

(7ㄱ)을 살펴보면 『飜朴』과 『朴諺』의 언해 양상이 차이를 보인다. 같은 원문에 대해 『飜朴』은 명령형으로 언해하고 있는 반면 『朴諺』은 청유형으로 언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7ㄴ)에서는 『飜老』와 『朴新』은 종결어미가 통합된 형식으로 언해가 되어 있는 반면 『朴諺』은 연결형으로 언해가 되어 있다. 『朴諺』의 경우가 구절 단위를 좀더 길게 잡아 언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7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飜朴』에서는 종결어미로 문장을 맺고 있고 『朴諺』에서는 연결어미로 후행문 장과 계속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7ㄷ)에서는 역시 같은 원문 '可知快說謊'에 대해 『飜朴』에서는 수사의문문적 표현으로, 『朴諺』에서는 평서문으로 언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飜朴』의 번역에 비해 『朴諺』의 번역이 직역에 가깝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7ㄹ)은 매우 흥미로운 양상을 보인다. 응답의 첫 문장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인용문의 일부 '再也不敢'이 『飜朴』의 경우 '노의여 아니호리이다'로 언해되었으나 다른 본들은 '뇌여란(←노의여+ᄋᆞ란) 싱심이나'와 같이 언해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하다니요?' 정도의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朴諺』에서부터 보이는 '싱심'은 『譯語類解』 상권 31면에서도 보이는데 이기문(1972:219)에서는 이를 근대어 문헌에서부터 보이는 새로운 어휘로 보고 '焉敢生心'에서 온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

(7ㄹ)과 관련지어 볼 때 (7ㄹ')도 흥미로운 양상을 보인다. 특히 (7ㄹ')의 『飜朴』에는 '一說 싱심이나 그러ᄒᆞ리잇가'와 같이 주석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張次가 앞서는 (7ㄹ")의 『飜朴』에서는 이러한 주석이 보이지 않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7ㄹ')는 '싱심이나'라는 단어가 이미 『飜朴』 시기에도 쓰였음을 보인다. (7ㄹ)과 달리 (7ㄹ'), (7ㄹ")의 번역 양상은 이 구절에 있어 『飜朴』보다 『朴諺』의 경우가 직역투에 가깝다는 점을 잘 보이고 있다.

(7ㅁ-7ㅁ"")의 원문 중 '猜'의 번역이 『飜朴』과 『朴諺』에서 상이하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猜'는 원래 '추측해서 알아맞히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이에 대해 『飜朴』에서는 항상 번역에 있어 '바ᄅᆞ'라는 부사를 삽입하여 번역하고 있는 데 반해 『朴諺』에서는 '바ᄅᆞ'라는 부사를 삽입하고 있지 않다. 번역 태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가령 (7ㅁ"")의 경우 원문 '你說我猜' 중 '猜'가 『飜朴』에서는 '바ᄅᆞ'라는 부사로 번역되었음을 볼 수 있다.

『老乞大』의 언해본에서도 흔하게 확인되는 번역 양상의 차이를 『朴通事』의 언해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8)

ㄱ. 「飜朴」 모든 형뎨돌히 의론ᄒᆞ져라 <上 1b-上2a>

「朴諺」 모든 諸兄들히 혜아리쟈 <上 2a>
「朴新」 혜아리니 우리 됴흔 兄弟들이 셜흔 나믄 이실 뜻ᄒᆞ니 <上 1:1b>

ㄴ. 「飜朴」 가져 오라 내 보리라 <上 3b>
「朴諺」 가져 오라 내 보쟈 <上 4b>
「朴新」 네 표를 가져 오라 내 보쟈 <1:3b>

ㄷ. 「朴諺」 안ᄌᆞ라 형아 茶博士들히 客官人ᄃᆞ려 무로ᄃᆡ 므슴 차 머글짜 <下 27b>
「朴新」 茶博士들히 차를 부어 오라 <3:32a>

ㄷ'. 「朴諺」 겨틔셔 시름 보ᄂᆞᆫ 사ᄅᆞᆷ이 닐오ᄃᆡ 애 뎌 킈 저근 金舍ㅣ 것구러디거다 <中 51b>
「朴新」 애 나죵내 너 이 킈 져근 놈이 것구러지거다 <2:56a>

(8ㄱ)의 번역문에서는 『飜老』의 '의론ᄒᆞ져라'와 『老諺』의 '혜아리쟈'가 대응되는데 원망형과 청유형이 대응됨을 볼 수 있다. 3.1.에서 논의한 『老乞大』의 언해본들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8ㄴ)에서도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과 청유형과의 대응이 보이는데 이러한 대응도 역시 『老乞大』의 언해본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다.

『老乞大』의 언해본들에서도 독자에게 줄거리의 진행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특히 그 때까지 대화에 계속 참여하던 인물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등장하여 대사를 제시하게 될 때에 마치 희곡의 지문과 같은 요소가 텍스트에 첨가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朴通事』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음을 (8ㄷ)은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朴新』에는 빠져 있음이 주목된다.

주지하다시피 『朴新』의 개수된 원문과 번역은 새로운 면모를 많이

보인다. 특히 원문의 개수가 두드러지는데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어말의 '了也'가 '了了' 혹은 '了'로 개수되는 유형이다. 언해에는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개수 유형은 『老乞大』의 언해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2.1.3.참조).

(9)

ㄱ. 「朴諺」 겨틔셔 시름 보는 사룸이 닐오뒤 애 뎌 킈 저근 金舍ㅣ 것구러디거다 <中 51b>

「朴新」 애 나죵내 너 이 킈 져근 놈이 것구러지거다 <2:56a>

ㄴ. 「朴諺」 내 써다 <下 10b>

「朴新」 내 뻐다 <3:14b>

ㄷ. 「朴諺」 이 방을 써다 <下 55b>

「朴新」 이 방 뻐다 <3:53b>

ㄹ. 「飜朴」 빗교뫼 몯과라 <上 44b>

「朴諺」 빗겨다 <上 40a>

「朴新」 짝가 몯차다 <1:43a>

(9ㄱ)에서는 『朴諺』의 원문 '咳那矬金舍倒了也'가 '咳那矬金舍倒了'로 개수되었음을 볼 수 있다. (9ㄴ, ㄷ, ㄹ)의 『朴諺』의 원문에 포함된 어말의 '了也'도 어김없이 『朴新』에서는 '了'로 개수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언해 양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朴通事』의 언해본들은 그 상호간의 유사성과 연계성이 『老乞大』 언해본의 그것보다 덜 한 편이다. 초간본을 참조하지 못한 『朴諺』과 새로운 원문과 그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朴新』의 문헌적 성격이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朴諺』은 동시대의 『老

諺』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老朴集覽』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老朴集覽』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老諺』이 간행된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老朴集覽』의 발견으로 『朴諺』은 그 간행이 가능하였을 만큼 『老朴集覽』과의 관계가 밀접하였다. 그 결과 「朴通事集覽」의 내용이 본문 중에 통합되는 텍스트 구성을 보인다.

동일한 원문에 대한 번역을 보이는 『飜朴』과 『朴諺』은 후자가 전자를 참조하지 않은 탓으로 언해 양상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 『飜朴』의 잘못된 번역이 『朴諺』에 바로잡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는 『朴諺』 언해자의 의도적 수정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飜老』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老諺』의 수정이 의도적 수정이었다는 점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자어의 빈도의 한자노출이 심해짐도 『老乞大』 언해본들의 경우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3

形態 · 統辭的 特徵의 比較

3.1. 형태적 특징의 비교

3.1.1. 종결형 어미 구조체 '-거다/-어다'의 비교[1)]

3.1.1.1. 유지와 대체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에서는 '-거-'가 통합된 종결형 어미구조체, 즉 고영근(1981)에서 '부정확인법'이 실현되었다고 일컬었던 형식들이 비교적 빈번하게 출현한다. 특히 초간본의 경우에는 동작류적 성격, 즉 어간의 타동성 여부에 따른 '-거/어-'의 교체도 비교적 충실히 지켜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초간본 이외의 경우에도 16세기 이후 다른 환경에서의 '-거/어-'의 혼란에 비교한다면 '-거/어-'

1) 3.1.은 졸고(1996)을 가져 와 가감하고 정리하였음을 밝혀 둔다.

가 실현되는 한 표면적으로는 규칙에 따른 형태를 보인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1)

ㄱ. 「飜老」, 「老諺」, 「平老諺」 <u>자바다</u> <上 46a>, <上 41b>, <上 41b>
「老新」 〔해당 문장 없음〕
「淸老」, 「蒙老」, 「重老」 <u>잡아다</u> <3:15a>

ㄴ. 「飜老」 짐시리 다 <u>ᄒᆞ야다</u> <上 46a>
「老諺」 짐싯기 다 <u>ᄒᆞ야다</u> <上 41b>
「平老諺」 짐싯기 다 <u>ᄒᆞ여다</u> <上 41b>
「老新」 짐 다 ᄆᆡ야 <u>시러다</u> <上 58a>
「淸老」 형아 네 사발 졉시 가져 집의 가라 <3:15a>
「蒙老」 짐 싯기 다 <u>뭇차다</u> <3:11b>
「重老」 짐 다 ᄆᆡ여 <u>시러다</u> <上 42ab>

(1)은 타동사어간에 '-어-'가 통합된 예들인데 이러한 경향이 후대본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환경에서의 '-어-'가, 특히 연결어미 등의 그것이 '-거-'쪽으로 통일을 겪고 '-거-'와 상당히 혼란을 겪은 시기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일관성은 상당히 주목되는 것이다. 뒤에서도 다시 논의되겠지만 이 환경에서 상태성 용언에 통합되는 '-거-'도, 『老諺』이후 다른 표현으로 바뀌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즉, '-거/어-'가 실현되는 한해서는 용언류에 따른 통합양상에 있어서 상당히 규칙적인 모습을 보인다.

'-거다/-어다'는 위와 같이 『重老』나 『朴新』의 시기에도 변함 없이 나타난다. 이들이 단순히 의고적인 표기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음의 예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

ㄱ. 「飜朴」 내 두 솽 새훠를 다가 다ᄃᆞᆫ녀 <u>ᄒᆡ야ᄇᆞ리과라</u> <上 34b-35a>

「朴諺」 내 두 쌍 새훠ᄅᆞᆯ 다가 다ᄃᆞᆫ녀 해야ᄇᆞ리게 ᄒᆞ고 <上 31b-32a>

「朴新」 내 새 훠조차 다ᄃᆞᆫ녀 <u>해아ᄇᆞ려다</u> <1:34b-35a>

ㄴ. 「飜朴」 이 글월 <u>쓰과라</u> <上 60b>

「朴諺」 이 글월 <u>써다</u> <上 54a>

ㄷ. 「飜老」 ᄆᆞ리 딥 머근 ᄃᆞᆺᄒᆞ다 믈 머기라 가져 <上 33b>

「老諺」 ᄆᆞᆯ이 딥 머근 ᄃᆞᆺᄒᆞ니 믈 머기라 가쟈 <上 30a>

「平老諺」 ᄆᆞᆯ이 딥 먹은 ᄃᆞᆺᄒᆞ니 믈 먹이라 가쟈 <上 30a>

「老新」 우리 이 ᄆᆞᆯ이 여믈 먹어다 믈 먹이라 가쟈 <上 41b>

「淸老」 〔해당 문장 빠짐〕

「蒙老」 ᄆᆞᆯ이 여물을 먹은 ᄃᆞᆺᄒᆞ니 물먹이라 가쟈 <2:19b>

「重老」 이 ᄆᆞᆯ이 여믈 <u>먹어다</u> 믈 먹이라 가쟈 <上 30a>

(2ㄱ)과 (2ㄷ)에서는 『朴新』과 『重老』에서 '-거다/-어다'가 쓰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2ㄷ)에서는 『平老諺』까지는 쓰이지 않던 '-거다/-어다'가 『老新』부터 쓰여 『重老』에 이름을 보인다. 또 (2ㄴ)에서는 『飜朴』을 참조하지 않은 『朴諺』이 '-어다'를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예로부터 『老乞大』와 『朴通事』 언해본 이본들에 거듭되어 나타나는 '-거다/-어다'가 단순한 의고적 표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특히 『重老』와 『朴新』의 단계에서도 이들의 생산성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 형식이 『淸老』와 『蒙老』의 일부 예를 중심으로 '-엇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음을 (3)이 잘 보여 준다.

(3) 「飜老」 ᄒᆞ마 너희 ᄎᆞᄌᆞ라 가려 ᄒᆞ다니 네 ᄯᅩ 오나다 <上 68b>

「老諺」, 「平老諺」 ᄒᆞ마 너희 ᄎᆞᄌᆞ라 가려 ᄒᆞ더니 네 ᄯᅩ 오나다

<上 62a>, <上 62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앗가 나가 너희ᄅᆞᆯ 마즈라 가고져 ᄒᆞ더니 너희ᄅᆞᆯ 마촘 여긔셔 만낫다 <5:1a>
「蒙老」 뎡이 너ᄅᆞᆯ ᄎᆞ즈라 가려 ᄒᆞᆯ 제 네 ᄯᅩ 왓다 <4:17b>
「重老」 ᄒᆞ마 너ᄅᆞᆯ ᄎᆞ즈라 가려 ᄒᆞ더니 네 ᄯᅩ 오나다 <上 62b>

(3)에서는 '오나다'에 대응되는 『淸老』, 『蒙老』의 형식이 '-앗-'을 개재한 '만낫다, 왓다'인 점과는 달리 (4)에서는 부정법의 '오라'와 대응되는 『淸老』, 『蒙老』의 형식이 '앗ᄂᆞ'가 개재된 '왓노라'이거나 '오롸'임이 주목을 끈다.

3.1.1.2. 한어 원문과의 대비 및 시제적 의의

다음의 예를 보자.

(4) 「飜老」 우리 ᄀᆞᆺ 예 오라 <上 68b>
「老諺」, 「平老諺」 우리 ᄀᆞᆺ 여긔 오롸 <上 62a>, <上 62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우리 ᄀᆞᆺ 왓노라 <5:1a>
「蒙老」 우리 ᄀᆞᆺ 밋쳐 오롸 <4:17b>
「重老」 우리 ᄀᆞᆺ 여긔 왓노라 <上 62b>

(3)의 '오나다, 왓다'는 (4)의 '오라, 왓노라'와는 분명히 시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식적인 차이 외에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 주는 것은 (3)과 (4)의 한어 원문이다. (3)의 한어 원문이 '你去來了'임에 반해 (4)의 한어 원문은 '我纔到這裏'이다. (3)의 한어 원문의 어말에는 '了'가 통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다. 비단 위의 예들뿐 아니라 (1)을 포함하여 이외의 다른 많은 예들, 즉, '오나다'류의 '-거다/-어다'가 출현하는 문장의 백화문 원문에서 '了' 통합 현상은 일관되게 나타난다.

백화문에서 문장 말미의 '了'는 일종의 첨사로서 이것이 통합됨으로써 문장 전체가 '완료'적 성격을 띠게 된다.[2] '완료'의 본질적 성격은 사태나 상태를 기준시점에 관련시키는 것이다. 즉 시간선상의 두 지점간의 관련성을 언급하되 기준시점이 항상 그 한 지점이 된다. 영어의 현재완료와 과거시제의 기능의 차이를 상기해 본다면 기준시점 이전의 사태가 기준시점(이 경우 발화시 기준의 현재)와 관여성(current relevance)이 있을 때에는 현재완료형이 쓰이지만 기준시점 이전의 사태라 할지라도 기준시점(현재)와의 관여성이 없을 때에는 과거형이 쓰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완료형을 쓰느냐의 여부는 화자의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화자가 어떤

2) 백화문에서 '了'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형태소로서 알려져 있는데 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첫 번 째 것은 우리의 주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항상 문장의 말단에 통합하여 'perfect(完了)'의 의미를 문장 전체에 가하는 첨사로서의 '了'이다. 다른 하나는 'perfective(完了相)'의 기능을 동사에 가하는 일종의 동사에 대한 접사(affix)로서의 '了'인바 항상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하는 특성을 지닌다(Li & Thompson 1981). 이 두 가지 종류의 '了'는 그 자체의 통시적 발달과정이 주목거리이지만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아직 그 상호관계나 역사적 발달의 과정이 자세히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는 것 같다. 다만 Chao(1968) 등이 후자는 전자에서 역사적으로 발달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 등을 하고 있지만 두 가지 '了'의 상호 통시적 발달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언어유형론적으로 'perfect'의 'perfective'로의 발달을 보이는 언어는 많아도 반대방향으로의 발달을 보이는 언어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의 추정은 좀더 신빙성을 얻게 된다. 우리의 주 논의 대상인 '-거다/-어다'에 대응되는 '了'는 문장 말단에 나타난다. 참고로 원문과 함께 다음의 몇몇 예를 더 들어 둔다.

나그내네 낫 시서다(客人們洗面了) <飜老 上 61a>
앗가 뽀몰 기우로 ᄒᆞ야다(纔射的歪了) <飜老 下 37a>
볼셔 장편수의 문 앏히 다ᄃᆞᆺ거다(已到張編修門首了) <朴新 3:55b>

사태를 기준시점과의 관여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완료형을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완료형을 쓰지 않는 것이다.

(3)의 '오나다'는 '왓다'로, (4)의 '오라'는 '왓노라'[3]로 대체되어 상이한 대체형을 가진다는 점도 애초에 '오롸'와 '오나다'가 가지는 시제적 의의가 달랐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 같다.[4] 한편 (3)과 같은 유형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4)와 같은 유형은 항상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보임도 주목할 수 있는 점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예들로부터 (3)의 '오나다, 왓다' 등이 완료적으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오나다'의 대체형이 '왓노라'와 같이 '-앗ᄂᆞ-'가 개재된 형식이 아닌 '왓다'라는 점은 현대국어에서 '-었-'이

---

3) 『朴通事諺解』에서도 '-엇ᄂᆞ-'의 유지는 도처에서 나타난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엇다'형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老乞大諺解』에 비해 『朴通事諺解』엔 '-엇ᄂᆞ-'의 '-ᄂᆞ-'가 탈락한 '-엇다'와 같은 형식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긴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우리는 『朴通事諺解』의 언해자들이 『飜譯朴通事』를 참조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朴通事諺解』의 '엇다'는 언제나 비1인칭 주어, 특히 3인칭 주어의 문장에 나타나며 1인칭 주어의 문장에는 언제나 부정법형이나 '엇ᄂᆞ'가 유지되었던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전대본을 참조하지 않은 『朴通事諺解』에서도 전체적인 분포상으로는 '-엇ᄂᆞ-'가 유지된 형식이 우세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엇ᄂᆞ-'의 유지는 18세기에서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다음의 예를 참고로 제시해 둔다.

태의 여긔 왓ᄂᆡ이다 <朴通 中 14b>
비 그첫ᄂᆞ냐 <朴通 中 51a>
비 개엿다 <朴通 中 51a>
네 官人이 어ᄃᆡ 벼슬을 제ᄒᆞ엿ᄂᆞ뇨 <朴通 下 13b>
光祿詞 경을 제ᄒᆞ엿ᄂᆞ니라 <朴通 下 13b>
내 날회여 인가 쳠하롤 조차 길흘 굴히여 오롸 <朴通 中 51b>
내 날회여 인가 쳠하롤 조차 길흘 굴히여 왓노라 <朴新 2:56b>

4) 특히 (3)과 (4)는 동일한 장면의 대화 상황에 등장한다. 따라서 계속 이어지는 대화 중에서 (3)과 (4)가 동일한 동사의 상이한 활용형을 보인다는 점도 그들의 시제적 의의가 달랐다는 점을 잘 드러내 주는 것 같다. 이에 관해서는 졸고(1998:173~176)이 참조된다.

포함된 문장들 중 다분히 완료적 해석을 허용하는 예들의 기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런데 이 '-엇-' 자체의 기원을 15세기의 '-어 잇-' 이외에 다른 곳에서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15세기의 '-어 잇-'이 기본적으로 기준시점에서의 '지속' 등을 전제로 한 시제 범주였다는 것을 상기해 볼 수 있다.[5]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어 잇-'의 문법화의 진전은 의미적인 면에서 볼 때는 지속의 의미를 전체 구성에 가하는 '잇-'보다 '-어' 앞의 사태에 더 무게중심을 두게 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무게중심의 이동이 완벽해지는 단계에서 '-엇-'의 '(과거시제로의) 문법화'는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법화의 진전 과정 중에는 문법화의 초기 단계보다는 무게 중심이 상대적으로 선행사태에 가 있지만 여전히 기준시점과의 관여성이 포착되는 단계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 보여주는 기능이 다름 아닌 '-거다/-어다'의 '-거/어-'의 기능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거다/-어다'를 대체하는 『淸老』 등의 '-엇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즉 문법화 과정 중에 있었던 '-엇-'의 기준시점 관여성의 기능과 '-거/어-'가 가지는 기준시점 관여성의 기능이 연계되는 것, 이것이 '-거/어-'와 '엇'의 연관성 및 그 대체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준시점 관여성을 무엇보다도 여실히 드러내 주는 경우는 〔+상태성〕 동사에 '-거/어-'가 통합된 예들이다.[6]

(5)「飜老」　새벼리 <u>놉거다</u> 하늘도 ᄒᆞ마 볼가 가ᄂᆞ다 <上 58ab>
「老諺」　새별이 노파시니 하늘도 ᄒᆞ마 볼그리로다 <上 52b>

---

5) 이에 관해서는 최동주(1995) 참조.

6) 이 환경에서 '기준시점 관여성'의 특징이 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용언의 성격이 〔+상태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속을 기본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平老諺」 새별이 놉하시니 하늘도 ᄒᆞ마 붉으리로다 <上 52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샛별이 놉하시니 하늘이 거의 붉게 ᄒᆞ여시니 <4:10a>
「蒙老」 새별이 놉하시니 하늘이 ᄒᆞ마 붉으리라 <4:5a>
「重老」 새별이 놉하시니 하늘이 ᄒᆞ마 붉으리라 <上 53b>

(6) 「飜老」 히 졍히 나지니 져기 덥다 <上 62b-63a>
「老諺」, 「平老諺」 히 졍히 나지니 져기 덥다 <上 56ab>, <上 56a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히 정히 낫임애 ᄀᆞ장 덥다 <4:16a>
「蒙老」 히 정히 낫 되여시니 져기 덥다 <4:10a>
「重老」 히 낫이 계엿다 져기 더옴이 잇고 「上 57ab」

(5)의 『老諺』 이하 이본의 예들은 〔+상태성〕 용언에 '-어시-'가 통합되어 연결어미 '-(으)니'에 통합된 예들이다. 이 환경에서 '-어시-'의 문법화는 18세기 말이나 19세기 초에 이르러야 문헌상 확인된다.[7] 즉 '-아시-'의 지속, 혹은 완료적 기능은 꽤 늦은 시기까지 지속되는바 위의 '노ᄑᆞ시니'에 의해 기준시점(이 경우 발화시 기준의 현재)에서의 지속이 나타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문장은 '높아져 있다'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문장인 것이다. 이 때 '노ᄑᆞ시니'는 단순히 상태지속의 의미만을 가진 것은 아닌 듯이 보인다. 『飜老』의 예가 '놉거다'로 되어있다는 점은 '노ᄑᆞ시니'[8]가 단순히 발화시 기준의 상태지속만을

7) 최동주(1995) 등 참조.
8) '-어시-'가 상태성 용언에 통합되었을 때의 해석이 단순한 상태지속이 아니라는 생각은 '-어시-'의 기능을 완료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는 생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시-'의 기능을 그와 같은 것으로 보았을 때 '노파시니', 'ᄀᆞ득ᄒᆞ아시니'와 같은 예의 해석은 '높은데', '가득한데' 식의 해석이 아니라 '높아져 있는데', '가득하여져 있는데' 정도의 해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될 때 '노파시니'와 '노파니'의 의미의 차이가 포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어시-'의 기능과 의미에 관해서는 따로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타내는 요소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비단 위의 예들 뿐 아니라 상태성 용언에 통합된 다른 예들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5)의 원문 '明星高了' 말미에 역시 '了'가 통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백화문의 문장 말미의 '了'가 완료적 기능을 했던 사실을 (5)에서도 어김없이 상기해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6)의 원문엔 이와 같은 '了'가 통합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은 (5)의 '놉거다'와, '-거-'가 통합되지 않은 (6)의 '덥다'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보여 준다.

3.1.1.3. 감동법 범주와의 상관성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7) 「飜老」 이러면 진실로 앏픠 사ᄅᆞ미 믈 긷거늘 보다니 일즉 ᄇᆡ호디 아니ᄒᆞ니 오ᄂᆞᆯ우터 알와라 <上 35b-36a>

「老諺」 이러면 진실로 在前에 일즙 사ᄅᆞᆷ의 믈깃기ᄅᆞᆯ 보와시되 일즙 ᄇᆡ호디 아니ᄒᆞ엿더니 오ᄂᆞᆯ븟터 알괘라 <上 32ab>

「平老諺」 이러면 진실로 在前에 일즙 사ᄅᆞᆷ의 믈깃기ᄅᆞᆯ 보와시되 일즙 ᄇᆡ호디 아니ᄒᆞ엿더니 오ᄂᆞᆯ븟터 알괘라 <上 32ab>

「老新」 과연 진실로야 져 적의 건너 사ᄅᆞᆷ의 믈깃기ᄅᆞᆯ 보아시되 일즉 시험치 못ᄒᆞ엿더니 오ᄂᆞᆯ ᄯᅩ 알괘라 <上 44ab>

「清老」 내 이전의 사ᄅᆞᆷ의 믈깃기ᄅᆞᆯ 보와시나 ᄇᆡ호지 못ᄒᆞ엿더니 오ᄂᆞᆯ 시험ᄒᆞ니야 시러곰 ᄡᅵ첫노라 <2:26b>

「蒙老」 이러면 내 전에 사ᄅᆞᆷ의 물깃기ᄅᆞᆯ 보아시나 일즉 ᄇᆡ호지 못ᄒᆞ얏ᄃᆞ니 오ᄂᆞᆯ부터 ᄀᆞᆺ ᄇᆡ호롸 <2:23a>

「重老」 과연 진실로야 져 적의 건너 사ᄅᆞᆷ의 믈깃기ᄅᆞᆯ 보아시되 일즉 시험치 못ᄒᆞ엿더니 오ᄂᆞᆯ ᄯᅩ 알괘라 <上 32a>

『老乞大』, 『朴通事』의 언해본들에는 특별히 일기의 변화를 언급하는 문장에 '-거다' 등이 통합되는 예가 많다. 또 (7)처럼 새로운 상황의 도래를 언급하는 문맥에서도 '-거다/-어다' 등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즉 어떤 새로운 상태로의 돌입, 혹은 어떤 새로운 동적 사태의 발생 결과 나타난 상태의 변화가 기준시점에 관여적일 때 '-거다/-어다'가 사용됨을 볼 수 있다. (7)의 '알괘라'는 발화시 직전 사태에 의해 화자가 몰랐던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새로운 상황의 전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의 기준시점 관여성이란 것은 기본적 성격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차이를 보이면서 나타난다. 일기의 변화, 전제되었던 상황의 변화, 어떤 상황의 일단락 등 여러 가지 양상으로 전개됨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9]

그런데 어느 경우이든 새로운 상황에 대한 기준시점 관여성의 실현 양상은 대부분의 경우 앞에서도 잠시 지적했듯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분포 상으로 볼 때 한 사람이 이어가는 발화의 가장 첫머리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몇몇의 경우는 발화의 가장 말미에 위치하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대략적인 경향을 지적한 것인바 절대적인 분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상황에 대한 기준시점 관여성이라는 특징은 '-거다/-어다'가 왜 감동법 범주와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기도 한다. 어떤 기준 시점에서 화자의 의식, 즉, 어떤 특정한 장면에 처해 있는 화자의 의식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그 장면과 관여적인 사태에 의해 초래된 변화된 상태(상황)이다. 감동법 범주로 표지되는 대상이 화자의 의식에 현저하게 두드러진 사태가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화자의 의식의 지평에 두드러진 사태 혹은 그로 인해 초래된 변화된 상황을 언어화한다는 점에서 '-거

9) '-거다/-어다'의 화용론적 기능에 관해서는 따로 자세히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다/-어다'와 감동법이 실현시키는 대상은 공통점을 가지는 것이다. '-거/어-'가 '확인', '강조' 등의 의미를 지닌다는 설명들, 그리고 확인법과 감동법의 범주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7)은 이러한 경우를 잘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0]

우리는 지금까지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들을 중심으로 '-거다/-어다'가 문장을 완료적 성격을 띠게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들었는데 특히 '-거다/-어다'가 18세기 『老乞大』, 『朴通事』의 異本들을 중심으로 '-엇다'의 대체형을 가짐으로써 부정법의 일반적인 대체형인 '-엇ㄴ-'와 대조됨을 보였다. 완료적 성격을 가지는 '-거다/-어다'의 대체형이 '-엇다' 임은 현대국어에서 다분히 완료적 해석을 허용하는 '었다'가 통합된 문장의 연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 준다.

'-거다/-어다'에서의 '-거/어-'의 기능은 다른 환경에서의 '-거/어-'의 기능을 밝히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백화문에서 '了'의 기능이 기준시점 관여라는 완료의 기능을 나타낸다는 점, 그것이 '-거다/-어다'가 나타나는 문장의 원문에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어-' 포함 연결어미와 관련하여 연결어미 포함 문장과 연결어미 후행 문장의 관계에 있어서 '기준시점'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기준시점 관여성'이라는 특징을 좀더 폭넓게 해석한다면 연결어미에 포함된 '-거/어-'와 관련해서도 우리의 논의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꽤 높

10) 영어에서 완료가 느낌표를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핫뉴스의 경우 많은 경우 완료형에 의해 표현되는 경우가 보편적임이 참조된다. 한편, '-거다/-어다'의 이러한 감동법적 쓰임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본래적인 것이기보다는 문맥 고정의 효과 등에 의한 파생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을 것으로 생각된다.

3.1.2. 연결형 어미구조체 '-거니', '-거든', '-면'의 비교

연결어미 '-니'에 '-거/어-'가 통합된 형식인 어미구조체 '-거니/-어니'는 16세기 이후 다른 환경에서의 '-거/어-'의 기능 약화 및 소멸에 발맞추어 점차 소멸의 길을 걸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세기 자료인 『老乞大諺解』와 『朴通事諺解』 등은 많은 문맥에서 초간본의 '-거니'가 '-니'나 '-면' 심지어는 '-거든' 등 다른 형식으로 대체됨을 보인다. 그런데 대체 자체의 유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대체의 조건이나 환경, 그리고 그 원인과 관련하여 '-거니'의 근본적 성격에 관해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을 듯하다. '-거니'가 단순히 16세기 이후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거/어-'의 전반적인 쇠퇴와 맞물려 소멸의 길을 걸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역시 또 다른 '-거-' 포함 어미구조체인 '-거든'의 끈질긴 존속 등과 관련하여서도 어쩐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

'-거니'의 쇠퇴와 그에 대한 다른 형식으로의 대체는, 대체된 다른 형식, 즉, '-면'이나 '-거든' 등의 성격을 밝히는 데에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 같다. 특히 17세기 이후의 자료들, 특히 『老乞大』와 『朴通事』의 중간본들에서 일관되게 목격되는 이들 상호간의 교체 양상은 이들 형식에 대한 문법사적 기술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지는 듯하다.

우리는 특히 『老諺』과 『朴諺』에서 '-거니'의 대체형으로 많은 경우 '-면', '-거든' 등의 '조건'의 연결어미가 나타남에 주목하는 한편 '-거니'의 어떠한 성격 때문에 그러한 대체가 일어났으며 그것이 '-거-'의

성격에 어떠한 암시를 주는지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거니'가 특정 문맥에서 일련의 조건의 연결어미로 대체되었다고 해도 '-거니'와 조건의 연결어미의 기능을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니'가 출현하는 어떠한 문맥에서 그러한 교체가 주로 일어났는지 또, 그러한 교체를 보이는 배경 요소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 중에 '-거니'와 '-거든' 등의 시제적 의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조건'이라는 범주의 성격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형식의 외관상의 무변화가 결코 그 형식의 성격상의 무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거든'과 '-면'의 통시적 분포 변화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리라 생각된다.

3.1.2.1. '-거니'의 쇠퇴와 '-거든'으로의 대체

'-거니'는 뒤에 오는 후행문의 종류에 따라 외관상 크게 두 종류로 나뉠 수 있다. 후행문이 수사의문문인 경우와 후행문이 비수사의문문인 경우가 그것이다. 그런데 후행문이 비수사의문문인 경우에는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등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1)
ㄱ.「楞嚴」 識이 ᄒᆞ마 드로ᄆᆞᆯ <u>니버니</u> 뉘 識 드로ᄆᆞᆯ 알리오 <3:41>
ㄴ.「飜老」 ᄒᆞ마 <u>업거니</u> 안직 뵈옷쟈락으로 덥 가져가라 <上 32b>
ㄴ'「飜老」 ᄒᆞ마 됴ᄒᆞᆫ 은이라 <u>ᄒᆞ거니</u> 우리 몬져 은 보고 글월 쓰져 <下 14a>
ㄴ"「飜老」 제 <u>나니거니</u> 집 보리 잇ᄂᆞ녀 <下 2a>

(1ㄱ)의 예는 후행문이 수사의문문인 예로 흔히 이때 '-거니' 뒤에

는 앞의 말을 뒤집는 말이 온다고 알려진 예이다(허웅 1975:524-527). 허웅(1975)는 이와 같은 예를 '-거니'가 나타나는 다수의 예로 들고 후행문으로 수사의문문이 오지 않는 (1ㄴ) 등을 예외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1ㄴ, ㄴ', ㄴ")은 이러한 형식이 적어도 『老諺』 무렵까지는 꽤 쓰였음을 보여주며 이때 '-거니'의 후행문으로는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등이 나타남을 보인다.[11]

한편, (1ㄴ")에서 '-거니'의 후행문이 의문문인 것을 고려하고 (1ㄱ)의 수사의문문에 선행하는 '-거니'를 이와 관련시켜 볼 때 '거니'를 후행문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눈 것은 '-거니'의 근본적 성격 차이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거니'가 출현하는 문맥에 이끌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행문의 종류에 따라 전체 문장의 의미가 달리 감지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거니' 포함 문장의 교체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두 종류의 '-거니'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좀더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얼핏 보면 후행문의 종류에 따라 통시적으로 그 교체형이 달리 나타나는 듯한 경향이 있음은 주목을 끈다.

(2)

ㄱ. 「飜老」 ᄒᆞ마 됴ᄒᆞᆫ 은이라 ᄒᆞ거니 우리 몬져 은 보고 글월 쓰져 <下 14ab>

「老諺」 임의 됴ᄒᆞᆫ 銀이라 ᄒᆞ면 우리 몬져 은을 보고 글월 쓰쟈 <下 13a>

「平老諺」 임의 됴ᄒᆞᆫ 銀이라 ᄒᆞ면 우리 몬져 은을 보고 글월 쓰쟈 <下 13a>

---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이미 16세기에 후행문에 비수사의문문이 오는 경우에 선행문이 '-거니'를 포함하는 예는 후행문이 수사의문문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네 은이 죠타 ᄒᆞ면 은을 몬져 본 후에 다시 글 쓰쟈 <5:21a>
「蒙老」 네 은이 됴타 ᄒᆞ면 은을 몬져 본 후에 글월 쓰쟈 <5:17b>
「重老」 이믜 죠흔 은이면 내 몬져 은을 보고 글월 쓰쟈 <下 14a>

ㄴ. 「飜老」 네 ᄒᆞ마 풀오져 ᄒᆞ거니 ᄯᅩ 굿 네 가져 져제 가디 말오 그저 이 뎜에 두라 <上 69b>
「老諺」 네 ᄒᆞ마 풀고져 ᄒᆞ거든 ᄯᅩ 모로미 네 가져 져제 가디 말고 그저 이 뎜에 두라 <上 62b>
「平老諺」 네 이믜 풀고져 ᄒᆞ거든 ᄯᅩ 모롬이 네 가져 져제 가디 말고 그저 이 뎜에 두라 <上 62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네 풀고져 ᄒᆞ거든 져제 가져 가지 말고 아직 이 점에 두라 <5:2b>
「蒙老」 네 임의 풀고져 ᄒᆞ면 져지 가져가지 말고 그저 이 점에 두라 <4:19a>
「重老」 네 이믜 풀려 ᄒᆞ면 ᄯᅩ 구ᄐᆡ여 네 市上에 가지 말고 그저 이 店에 두라 <上 63b>

ㄷ. 「飜老」 ᄒᆞ마 제 羊져재 니거니 ᄯᅩ 머디 아니커니 내 그저 예셔 기들오리라 <下 1b>
「老諺」 이믜 제 羊져재 모롱이에 가시면 ᄯᅩ 머디 아니ᄒᆞ니 내 그저 예셔 기돌오리라 <下 1b>
「平老諺」 이믜 제 羊져재 모롱이에 가시면 ᄯᅩ 머디 아니ᄒᆞ니 내 그저 예셔 기돌오리라 <下 1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그 나그닉 양 져제 가시면 여긔셔 머지 아니ᄒᆞ니 내 어긔셔 기다리쟈 <5:5a>
「蒙老」 그 나그닉 양 져지 갓다 ᄒᆞ니 에 셔 머지 아니니 내 그저 여긔 기ᄃᆞ리쟈 <5:2a>
「重老」 제 이믜 羊져제 모롱이롤 향ᄒᆞ여 가시면 길히 ᄯᅩ 머지 아니ᄒᆞ

니 내 그저 예 이셔 져를 기ᄃᆞ리쟈 <下 1b>

(2ㄱ)에서는 『飜老』의 '-거니'가 『老諺』 이후 '-면'으로 바뀌었음을 볼 수 있다. (2ㄴ)에서는 『飜老』의 '-거니'가 『老諺』 이후 줄곧 '-거든'으로 바뀌었다가 『蒙老』 이후 '-면'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2ㄷ)에서는 『飜老』의 '-거니'가 『老諺』 이후 '-면'으로 바뀌기도 하고 '-거-'가 빠진 '-니'로 나타나기도 함을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飜老』의 '-거니'가 『老諺』 이후 '-면', '-거든', '-니' 등으로 교체되어 나타난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2)는 주로 '-거니'의 후행문으로 비수사의문문이 오는 경우의 예들임이 주목된다.

이에 비해 '-거니'의 후행문으로 수사의문문이 오는 (3)은 (2)와는 상이한 교체 양상을 보인다. 다음의 예를 보자.

(3)

ㄱ. 「飜老」 ᄒᆞ마 이리 길히 어렵거니 우리 아ᄆᆞ란 밧븐 일 업거니 므스므려 일 녀리오 <上 30b-31a>

「老諺」 이믜 이리 길히 머흘면 우리 ᄯᅩ 아므란 밧븐 일이 업ᄉᆞ니 므슴 아라 일 녜리오 <上 27b-28a>

「平老諺」 임의 이리 길히 머흘면 우리 ᄯᅩ 아므란 밧븐 일이 업스니 므슴 아라 일 녜리오 <上 27b-28a>

「老新」 이믜 이럿트시 길헤 사오나온 사ᄅᆞᆷ이 이시면 우리 ᄯᅩ 아므란 밧븐 일이 업스니 엇지 반ᄃᆞ시 일 가리오 <上 38b>

「淸老」 어져 이러ᄒᆞ냐 임의 길히 사오납다 ᄒᆞ면 우리게 아조 밧분 긴ᄒᆞᆫ 일 업스니 <2:19b>

「蒙老」 길히 이리 사오납고 우리게 ᄯᅩ 밧분 일이 업ᄉᆞ니 므ᄉᆞᆷ 연고로 일 가리오 <2:16a>

「重老」 이믜 이리 길헤 사오나온 사ᄅᆞᆷ이 이시면 우리 ᄯᅩ 아모란 밧븐 일이 업스니 엇지 반ᄃᆞ시 일 가려 ᄒᆞ리오 <上 27b-28a>

ㄴ. 「飜老」 네 ᄒᆞ마 갑슬 알어니 네 언머를 줄다 <下 27b>
ㄴ'. 「老諺」 네 임의 갑슬 알거니 네 언머를 줄싸 <下 25a>

ㄷ. 「飜老」 네 ᄒᆞ마 갑슬 알어니 네 언머를 줄다 <下 27b>
「老諺」, 「平老諺」 네 임의 갑슬 알거니 네 언머를 줄싸 <下 25a>, <下 25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네 진짓 갑슬 아노라 ᄒᆞ니 네 뜻에 언머 주어야 마즈리오 <6:15a>
「蒙老」 내 갑슬 아노라 ᄒᆞ니 언마를 줄싸 <6:10a>
「重老」 네 이믜 갑슬 알면 네ᄃᆡ로 언머를 주라 <下 26a>

그에 비해 (3)은 수사의문문이 '-거니'의 후행문으로 오는 경우로 여기서는 『老諺』 이후의 변화로 '-거니'가 '-거'가 빠진 '-니'로 대체되거나〔(3ㄱ)〕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3ㄴ, ㄷ)〕을 볼 수 있다. 이러한 (3)의 자료는 한편으로 (4)의 자료를 보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ㄱ. 「老諺」 우리 ᄒᆞᆫ 뉴는 體例 모로는 사ᄅᆞᆷ이니 親同生 兄弟도 말을 즈음 아니ᄒᆞ거든 姑舅 兩姨야 쏘 어ᄃᆡ 무로리오 <上 15a>
ㄴ. 「家禮諺」 몸도 감히 제 두디 몯ᄒᆞᆯ 거시어든 ᄒᆞ믈며 감히 財면을 두랴 <2:4a>
ㄷ. 「親諺簡」 싀모의게 ᄃᆞ리 ᄉᆞ랑을 바티거든 우리를 ᄉᆡᆼ각ᄒᆞᆯ가 시브냐 <106>
ㄹ. 「警民」 늘거도 셜웨라 커든 지믈 조차 지실가 <41a>
ㅁ. 「警民」 내의 셜운 이를 다 아로려 ᄒᆞ시거든 우린ᄃᆞᆯ 술진 미나리를 혼자 엇디 머그리 <38b>
ㅂ.「伍倫全」 父母ㅣ 우리들흘 養홈에 손ᄭᅡ락이 ᄀᆡ개여도 半日을 알커든 刑具를 엇디 당ᄒᆞ리오 <1:52a>

(4)의 자료는 시기적으로 『老諺』 이후 빈번히 등장하는 '-거든…수사의문문'의 구조를 보여 주는데 '-거니…수사의문문'의 구조가 『老諺』 등에서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비해 '-거든…수사의문문'의 구조는 『老諺』 이후의 시기에도 활발히 쓰이고 있음이 흥미롭다.

흥미로운 것은 '-거니…수사의문문' 구조에서의 '-거니'는 (3)과 같이 일부 문맥에서 『老諺』 이후에도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는 반면 수사의문문이 아닌 구조에 나타나는 '-거니'는 (2)와 같이 거의 모든 경우에 다른 형식으로 대체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2)의 '-거니'는 17세기부터 대부분 '-거든', '-면'등의 다른 형식으로 대체된 반면 (3)의 '-거니' 중 일부는 '거'가 빠진 '-니'로 대체되긴 했지만 '-거니'의 형식을 유지한 예[(3ㄴ, ㄷ) 등]도 볼 수 있다. 이것은 두 가지 문맥에서 등장하는 '-거니'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거니…수사의문문'의 구조가 관용표현화된 결과 이 구조가 상당히 오래도록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위의 자료들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몇몇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행문이 비수사의문문이냐 수사의문문이냐에 상관없이 '-거니'의 쇠퇴가 『老諺』 이후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거니'의 영역을 단순히 '-거-'가 빠진 '-니'뿐 아니라 '-거든'과 '-면'이 대체해 가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거니'의 후행문이 수사의문문이었던 구조에서는 '-거니'가 일부 유지되기도 했지만 단순히 '-거-'가 탈락하기도 하였으며 또 '-거니' 대신 '-거든'이 이러한 수사의문문에서의 쓰임을 확대했음[(4)]을 확인할 수 있다. '-거니'의 후행문이 비수사의문문인 문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거니'가 '-거든'이나 '-면'으로 대체되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일부 수사의문문의

문맥에서 '-거니'가 유지됨을 제외하고는 수사의문문의 '-거니'나 비수사의문문에서의 '-거니'나 모두 '-니'나 '-면', '-거든' 등으로 교체되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체 양상 중 '-거니'가 '-면'과 '-거든'과 같은 일련의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의 교체를 보이는 것은 '-거니'의 성격과 관련하여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것은 '-거니'가 어떤 형식으로든 '조건'이라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어떤 문맥의 '-거니'든 조건의 연결어미 형식인 '-거든' 내지 '-면'으로의 통시적 대체를 보이는데 과연 '-거니'의 어떤 성격이 이러한 조건의 연결어미로의 통시적 대체를 낳았을까 하는 점이 우리의 관심사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밝히기에 앞서 '조건'이라는 범주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건'의 종류를 나누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의 한 방법은 '조건'의 종류를 '현실적 사태'의 조건과 '비현실적 사태'의 조건으로 나누는 것이다. 여기서 '현실적 사태'의 조건이라 하는 것은 화자의 의식 속에서, 일어난, 혹은 으레 일어나는 일로 간주되는 사태에 대한 조건을 의미하는데 주로 현실적 현재, 현실적 과거상황, 습관적인 상황 등을 대상으로 한다. '비현실적 사태'의 조건은 반대로 화자의 의식 속에서, 비현실적으로 간주되는 사태, 가령, 상상을 바탕으로 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나 일어났었을 수 있는 일, 혹은 예측이나 추측을 바탕으로 가능할 수 있는 사태 등을 나타내게 된다.[12] 다음과 같은 현대국

12) '조건'의 범주를 이와 같이 나누는 태도는 Thomson & Longacre(1985:171-234)에 따른 것이다. 특히 위의 논문은 이러한 구분의 선구적 업적으로 Schahter(1971)을 꼽고 있는데 '조건'을 위와 같이 나누는 태도는 '조건' 범주를 반드시 그렇게 세분해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정당성의 문제와 방법론상의 문제와는 별도로 '조건'이라는 문맥의 다양성 및 그들 상호 간의 관계를 조망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을 제공하여 특히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들의 경쟁하는 상호 분포와 기능 변화를

어의 '-면'에 의한 조건의 예는 현실적 사태의 조건과 비현실적 사태의 조건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5)

ㄱ. 주민등록증이 없으시면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십시오.
ㄱ'. 이 차는 1킬로만 가면 연기를 내면서 서 버린다.
ㄱ". 영수가 어제 떠났으면 오늘 오후에는 여기 도착하겠지.

ㄴ. 세상이 온통 남자로만 가득 차면 정말 삭막할 거야.
ㄴ'. 네가 거기 갔으면 대통령을 만나 볼 수 있었을 텐데.
ㄴ". 네가 이번 대학 시험에 합격하면 좋은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5)는 '-면'에 의한 조건을 나타내는 예문들인데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종류의 '조건'의 의미를 드러낸다. (5ㄱ, ㄱ', ㄱ")는 (5ㄴ, ㄴ', ㄴ")와 크게 구분되는데 그것은 모두 '현실적 사태'의 조건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5ㄱ, ㄱ', ㄱ")은 상상적 상황이나 일어날 수 없었거나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가정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 예측이나 추측적 상황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5ㄴ, ㄴ', ㄴ")와 대조된다. 즉 전자는 이미 현실로서 일어난 일이거나[(5ㄱ, ㄱ")] 상상 속의 일이 아닌 현실 상황에서 화자가 으레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혹은 습관적인 사태[(5ㄱ')]를 다루고 있는 반면 후자는 모두 상상이나 추측에 기반을 둔 비현실적 사태에 대한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5ㄴ)에서 세상이 남자로만 가득 찬다는 일이나 (5ㄴ')에서 어딘가에 갔던 사태나 (5ㄴ")의 대학시험에 합격하는 사태는 모두 화자의 개인적 상상에 기반한 것이다.

추적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본고에게는 매우 유용한 관점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5ㄱ)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않은 사태나 (5ㄱ')의 차가 얼마 안 가 습관적으로 서는 사태나 (5ㄱ")의 영수가 어제 떠난 사태는 모두 일어난 사태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발화당시 화자의 머리속에 일어난 혹은 일어나는 일로 간주되는 사태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동일한 현실성이나 동일한 비현실성에 기반한 조건이라도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5ㄴ, ㄴ', ㄴ")의 비현실적 사태의 조건의 특성은 (5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사태 자체가 어떤 조건 하에서도 객관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비현실성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게 된다. 이미 일어날 수 없었던 일에 대한 가정이어서 사태의 실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가능성이 전무한 (5ㄴ')도 (5ㄴ)과 성격적으로 비교적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단순한 상상에 기반한 가정을 나타내는 (5ㄴ")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예측과 추측에 기반을 둔 사건이긴 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화자가 발화 당시 상정된 사태를 으레 일어나는 것으로는 간주하지는 않는데 그러한 성격은 (5ㄱ, ㄱ', ㄱ")와 비교해 보면 좀더 분명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거니'가 쓰이는 문맥을 이러한 조건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그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거니'가 어떠한 경우에도 (5ㄴ, ㄴ', ㄴ")의 맥락에서는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거니'는 이미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쓰이거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 상태의 지속이 발화시에 유효하고 관여적일 때에만 쓰였음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거니'가 비교적 활발히 쓰였던 15~16세기의 자료에서도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는 점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6)

ㄱ. 「七大」 ᄃᆞ론 하ᄂᆞᆯ해 도다 잇거니 디나오ᄂᆞᆫ ᄡᅡ히 엇디 젓디 아니ᄒᆞ며 <4b>

ㄴ. 「飜老」 네 ᄒᆞ마 갑슬 알어니 네 언머를 줄다 <下 27b>

ㄷ. 「楞嚴」 識이 ᄒᆞ마 드로ᄆᆞᆯ 니버니 뉘 識 드로ᄆᆞᆯ 알리오 <3:41>

(6)의 어느 경우이나, 즉, 수사의문문의 문맥이나 비수사의문문의 문맥이나 모두 일관되게 이미 일어난 일이거나 그것의 결과가 발화시에 유효한 경우로 화자가 판단한 경우에 '-거니'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거니'에 의해 '조건'의 의미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언제나 '현실적 사태'에 관한 '조건'의 범주이어야 했던 것이며 그것도 주로 발화시 기준으로 이미 일어난 상황에 기반한 것이어야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거니'의 쓰임은 (3)의 후행문이 수사의문문으로 나타난다는 점, 즉 (3)과 같이 빈번하게 수사의문문에 '-거니'가 선행하는 구조가 출현하는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시사적이다.

수사의문문이란 화자가 표면적으로 표현하는 것과는 상반된 일련의 의도된 효과를 전제하고 의문의 형식을 빌어 자신이 애초에 의도한 바를 의문의 형식에 기대어 표현하는 특수의문문이라 할 수 있다. 의문문이 가지는 여러 가지 언표내적 효과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를 수사의문문은 가진다. 그런데 화자의 의식 내에 두드러진 발화시점 이전에 일어난 상황, 또는 그 이후의 상태의 지속이, 발화시점에 관여적이거나 유효할 경우 여기서 전제된 상황을 외면상 후행 수사의문문의 이유로 삼음으로써 후행 수사의문문의 언표내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때 수사의문문의 이유나 배경 제시의 역할을 '-거니'가 통합된 선행절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수사의문문의 외면적인 형식은 '-거니'가 통합된 선행절과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거니'를 포함하는 선행문을 이유로

하여 예상할 수 있는 순차적 결과를 청자에게 강력히 부과하는 역할을 '-거니' 통합 절은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결과에 대한 강조는 그 결과를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으면서 동시에 발화시점 바로 그 순간에도 유효한, 그래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사태가 이유로 제시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문맥에서의 '-거니' 포함 선행문은 수사의문문의 표현적 효과를 높이는 데에 가장 강력한 근거나 배경을 제시하는 힘을 갖추었었다고 볼 수 있다.[13] 가령 (3ㄱ)의 경우 '이미 바쁜 일이 없다'는 사태를 (3ㄱ)의 발화시에도 유효한 것으로, 관여적인 것으로 표현하여 후행 수사의문문의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후행 수사의문문의 언표내적 효과를 더 한층 높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후행문의 종류에 따른 '-거니'의 구별은 문맥에 의한 구분일 뿐 양 문맥에 출현하는 '-거니'의 근본적인 성격차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 일어난 일, 혹은 그 결과 상태의 지속과 그것의 발화시 당시의 관여성이 표지되는 현상은 '-거든'의 일부 문맥에서도 함께 일어남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7)

ㄱ. 「飜老」 ᄒᆞ마 업거니 안직 뵈옷쟈락으로 딥 가져가라 <上 32b-33a>

「老諺」, 「平老諺」 이믜 업거든 아직 뵈젹삼쟈락의 안아 가라 <上 29b>, <上 29b>

「老新」 이믜 광주리 업거든 아직 옷쟈락에 져기 여믈을 안아 가라 <上 41a>

「淸老」 업스면 아직 뵈젹삼에 여믈을 ᄡᅥ 가져가라 <2:22a>

---

13) 뒤에서도 언급되겠지만 같은 논리로 '-거든…수사의문문'의 구조도 비슷한 기능을 함을 볼 수 있다.

「蒙老」 업거든 뵈젹삼 쟈락에 여믈을 가져가라 <2:19a>
「重老」 이믜 광주리 업거든 아직 옷쟈락에 져기 여믈을 안아 가라 <上 29b>

ㄴ. 「飜老」 네 ᄒᆞ마 ᄆᆞᆯ 풀라 가거니 우리 벋지ᅀᅥ 가미 마치 됴토다 <上 8ab>
「老諺」, 「平老諺」 네 이믜 ᄆᆞᆯ 풀라 가거든 우리 벗지어 가미 마치 됴토다 <上 7b>, <上 7b>
「老新」 네 이믜 가 ᄆᆞᆯ을 풀려 ᄒᆞ면 우리 ᄒᆞᆫ가지로 가미 正히 죠타 <上 10ab>
「淸老」 우리 다 ᄒᆞᆫ 곳에 홍졍ᄒᆞ라 감으로 ᄒᆞᆷᄢᅴ 벗지어 가ᄂᆞᆫ 거시 더옥 올ᄒᆞ니라 <1:10b-11a>
「蒙老」 네 ᄆᆞᆯ 풀라 가노라 ᄒᆞ면 우리 벋ᄒᆞ야 가면 진실로 됴ᄒᆞ리로다 <1:11b>
「重老」 네 이믜 가 ᄆᆞᆯ을 풀려 ᄒᆞ면 우리 ᄒᆞᆫ가지로 가미 졍히 죠타 <上 7b-8a>

가령, (7ㄱ)와 같은 경우 그 이전의 대사가 '딥 다믈 광조리도 업다 므스거소로 딥 가져가료<飜老 上 32>', '딥 다믈 광주리도 업ᄉᆞ니 므스거ᄉᆞ로 딥 가져가료<老諺 上 29b>'임으로 미루어 보아 (7ㄱ)을 발화할 당시 이미 화자는 물론 청자도 광주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여기서 광주리가 없다는 사실을 (7ㄱ)의 발화시에 유효한, 관여적인 것으로 표현함에 있어 '-거니'와 '-거든'이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7)의 예가 보여주듯이 이러한 용법의 '-거니'는, '-거든' 등에 의해 『老諺』 이후 대체되어 일부 수사의문문의 문맥을 제외하고는 그 온전한 모습을 찾기 힘들다.

이미 일어난 사태의 발화시 당시의 유효성이나 관여성이 표현되는 문맥에서 '-거든'과 '-거니'의 성격은 아주 비슷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후행문이 수사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문장 등인 경우 두 연결어미의 성격이 가장 근접되는 것으로 보인다. 『老諺』 이후 '-거니'가 모습을 감춘 후 이러한 문맥을 중심으로 '-거니'가 '-거든'으로 대체되어 나타났던 사실도 이러한 사정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은 '-거니'와 '-거든'의 성격이 위와 같은 일부 문맥에서만 성격이 비슷해진다는 것이다. 대화상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거니'와 달리 '-거든'은 지문[14]에 빈번히 쓰였다는 점, 대화상에서조차 '-거니'가 담당할 수 없었던 다음과 같은 문맥[(8)]에서는 '-거든'이 '-거니'가 할 수 없었던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은 전체적으로 보아 '-거든'과 '-거니'의 기능 영역이 상이한 것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 준다. 이 점은 『老諺』 이후의 시기부터 빈번히 목격되는 '-거니'의 쇠퇴 양상과, 이와는 대조적인 '-거든'의 지속적 존속 양상과 관련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 같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8)

ㄱ. 「月釋」 잠ᄭᅡᆫ 도로 보내여든 祭ᄒᆞ고 도로 보내요리라 <7:15>
ㄴ. 「飜小」 님금이 무르시거든 안즉 내 닐온 대로 ᄒᆞ라 <9:44a>
ㄷ. 「簡札」 두드림곳 ᄆᆞᄎᆞ든 즉시 보내소 <45>
ㄹ. 「飜老」 너 양 사거든 우리 ᄒᆞᆫᄃᆡ 가져 <下 21a-b>
ㅁ. 「飜老」 네 쏘 닷돈만 더ᄒᆞ야든 네게 폴마 <下 23a>

14) '지문'보다는 좀더 정확하게는 'narrative(서사구조)'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narrative란 보통 화자가, 연속되는 사태를, 일어난 혹은 일어날 순서대로 진술하는 이야기 구조를 지칭하는데 화자와 청자의 대면과 상호 반응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화자가 사건을 진술하고 나열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narrative의 전형을 중세국어 불경언해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다. 'narrative'의 언어학적 구조에 대해서는 Fleischman (1990:125-167)이 참조된다.

15~16세기에 걸친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대화상의 '-거든'은 '-거니'와 달리 더 넓은 영역을 포괄했다는 점이다. '-거니'의 경우, '-거니'의 후행문에 명령문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때 '-거니'가 통합된 절 안의 사태나 상황은 언제나 발화시 이전의 사태 혹은 사태가 일어난 후의 상태가 발화시 당시 유효한 상황이었다. 그에 비해 '-거든'이 통합된 절의 사태로는 발화시 이전 사태뿐 아니라 발화시 이후의 사태라 할지라도 후행문의 사태를 기준시점으로 할 때에 현실적 조건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면 족했다. 이것은 '-거든'에 후행하는 문장의 성격에 의해서도 잘 드러나는데 언제나 이러한 구조에서의 '-거든'의 후행절은 명령문, 청유문,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화자의지문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화자에 의한 추측문이 '-거든'의 후행문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15세기에 '-면'의 후행문으로는 화자에 의한 추측문이 자유롭게 올 수 있었던 상황과 대조되는 양상을 보인다.[15] '-거든'의 후행문으로 제한된 성격의 문장이 오

---

15) 15세기에 '-면'의 후행문에 추측문이 오는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비해 '-거든'의 후행문으로 추측문이 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시험삼아 『法華經諺解』 6, 7을 대상으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연결어미의 후행문을 조사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은 결과에 거의 일치하는 조사결과를 얻었다. '-거든'의 후행문으로 화자의지문이나 당위문은 꽤 발견할 수 있었지만 추측문이 오는 경우는 오직 한둘 정도 발견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면'의 후행문으로 오는 추측문은 후행문의 대부분을 이룬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다수를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경향일 뿐 절대적인 원칙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잘 보여준다.

여러가짓 因緣喩로 衆生 ᄆᆞᅀᆞ몰 引導커든 드른 사ᄅᆞ미 다 깃거 여러가짓 爲頭ᄒᆞᆫ 供養ᄅᆞᆯ 버리리라 <법화 6:55>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대상으로한 정확한 통계적 조사가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답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여기에서 언급해 둘 것은 16세기 자료인 『飜譯老乞大』와 『飜譯朴通事』의 경우에서는 이미 '-거든'의 후행문에

는 경향은 근대 이후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띠어갔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현대국어에서와 같이 추측문이 통합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든'이 통합된 사태의 실질적 실현 시간이 실제 시간상으로는 발화시 이후의 경우일 때에도 화자는 '-거든'이 통합된 사태를 적어도 발화시 당시엔 후행문(명령문, 청유문, 화자의지문 등)에 의한 사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현실적 사태로 전제하는 성격을 공통적으로 띠게 된다. 가령 (8ㄴ)에서는 '님금이 무르심'이라는 사태가, 후행하는 명령문의 실현 시간을 기준시점으로 할 때는 그 이전에 실현된 사태이어서 명령문의 시점에서 볼 때에는 명령문이 현현하는 사태에 관여적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거든'의 후행문을 전제한 화자의 의식 아래에서는 그것이 모두 후행문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한 현실적 사태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든'의 후행문은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는 바 모두 화자가 청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거나(명령문, 청유문) 화자 자신의 의도를 나타낸다는 점(화자의지문)에서 '화자'와 관련이 깊다. 즉 위와 같은 경우 '-거든'의 후행문은 대체로 '화자지향적 양태'(speaker-oriented modality)[16]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후행문의 성격에 관한 한 '-거니'의 경우도 많은 경우 '-거든'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준다. 이것은 '-거니', '-거든' 등이 명령문이나 청유문 등을 빈번하게 후행시키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명령문, 청유문, 화자의지문은 화자 자신이 부

추측문이 오는 경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인데 이러한 점은 앞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시사적이다.

16) Bybee(1985)에서는 양태의 종류로서 화자지향적 양태(speaker-oriented modality), 의무론적 양태(deontic modality), 인식론적 양태(epistemetic modality) 등을 열거하고 상호간의 통시적 발달관계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각각의 정의에 따르면 추측문은 화자가 화자의 지식과 관련하여 주어진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표지한다는 점에서 인식론적 양태의 범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과하는 사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에 비해 추측문은 화자자신에 의해 부과되는 사태의 성격을 띠지 않아 어떤 조건 하에서도 현실성을 띨 수 없다. 이 때문에 '-거든' 등의 후행문으로 오기 힘든 것이다.

다시 말해 후행문이 명령문, 청유문, 화자의지문 등인 구조에서의 '-거든' 통합 절은 후행문인 명령문, 청유문, 화자의지문이 제시하는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화자에 의해 이미 일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사태, 현실적인 성격을 띠는 사태에 대한 조건의 의미를 띠기 때문에 발화시 이후의 시간의 틀 안에서도 '현실적 조건'의 성격을 띠게 된다. '발화시 이전에 일어나거나 유효한 사태+-거니/-거든…명령문, 청유문, 화자의지문' 등에서 보였던 선행문의 '현실적 조건'의 구조가 '-거니'와는 달리 '-거든'의 경우에는 발화시 이후로 그대로 틀을 옮겨 적용될 수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거든'의 적용 영역의 광범위성은 '-거니'가 포괄할 수 없었던 영역을 포괄함으로써 '-거니'와 달리 '-거든'이 오래도록 존속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니'는 어느 경우에든 '-거든'에 의해 대치될 수 있었지만 '-거든'은 '-거니'가 포괄할 수 없는 영역을 가짐으로써 '-거니'에 의해 대치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를 정점으로 달리하는 '-거든'과 '-거니'의 상반된 운명은 이와 같은 사정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다.

한편, 위와 같은 설명에 의하면 '-거든'은 17세기 『老諺』의 시기를 기점으로 일부 문맥에서 '-거니'를 대체함으로써 그 영역을 확장하기만 했었던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그러한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특히 '-면'의 강력한 세력확장 현상과 관련되기도 한다. 이에 관해서는 3.1.2.3.에서 다루기로 한다.

3.1.2.2. '-거니'의 쇠퇴와 '-면'으로의 대체

'-거니'는 『老諺』 이후 많은 문맥에서 소멸되는 한편 '-면'과 '-거든'으로 대체로 대체되긴 하지만 거기에는 일정한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후행문이 수사의문문인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거니'는 '-거든'보다는 '-면'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17] [(9)] '-거니'의 소멸과 대체형으로서 '-면'과 '-거든'이 다소 분포상의 차이를 보임은 『飜老』와 『老諺』을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老諺』의 번역자가 『飜老』를 참조하여 직관에 아주 맞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과거의 것을 묵수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번역자의 단순한 취향의 반영이라기보다는 현저한 통시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거니'를 '-면'이 대체하는 경향은 꽤 두드러진다. 이는 3.1.2.3.에서 후술될 '-거든'을 '-면'이 대체하는 경향과 동질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 빈도가 훨씬 높으며 『老諺』 이후 특히 18세기의 중간본들에서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10)]. 점점 강력해지기만 하

17) 필자가 『飜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下卷을 대상으로 '-거니'의 대체형을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대체형을 보이는 경우에 '-거니'의 대체형은 일관되게 '-면'으로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만큼 '-면'의 세력이 강성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거든'으로의 대체가 일부 경우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의 예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네 ᄒᆞ마 몰 풀라 가거니 우리 벋지ᅀᅥ 가미 마치 됴토다 <飜老 上 8ab>
네 ᄒᆞ마 몰 풀라 가거든 우리 벗지어 가미 마치 됴토다 <老諺 上 7b>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대체를 보이는 경우조차도 18세기의 『老乞大新釋諺解』와 『重刊老乞大諺解』에서는 '가거니'를 대체한 『老乞大諺解』의 '가거든'이 '가려 ᄒᆞ면'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점이다. '-면'의 세력이 근대 이후 점점 강력해지기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는 '-면'의 세력 확장 양상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9)

ㄱ. 「飜老」 네 ᄒᆞ마 ᄑᆞ로려 ᄒᆞ거니 우리 혜아리져 <下 7b-8a>
「老諺」, 「平老諺」 네 이믜 ᄑᆞᆯ려 ᄒᆞ면 우리 혜아리쟈 <下 6b-7b>, <下 6b-7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네 다 져의게 ᄑᆞᆯ면 올흘 듯ᄒᆞ다 <5:12b>
「蒙老」 네 다 져긔 ᄑᆞᆯ미 올흘 ᄯᆞᆺᄒᆞ다 <5:10b>
「重老」 네 다 ᄑᆞᆯ려 ᄒᆞ면 우리 죠히 商量ᄒᆞ쟈 <下 7b-8a>

ㄴ. 「飜老」 ᄒᆞ마 됴ᄒᆞᆫ 은이라 ᄒᆞ거니 우리 몬져 은 보고 글월 ᄡᅳ져 <下 14ab>
「老諺」, 「平老諺」 임의 됴ᄒᆞᆫ 銀이라 ᄒᆞ면 우리 몬져 은을 보고 글월 ᄡᅳ쟈 <下 13a>, <下 13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네 은이 죠타 ᄒᆞ면 은을 몬져 본 후에 다시 글 ᄡᅳ쟈 <5:21a>
「蒙老」 네 은이 됴타 ᄒᆞ면 은을 몬져 본 후에 글월 ᄡᅳ쟈 <5:17b>
「重老」 이믜 죠흔 은이면 내 몬져 은을 보고 글월 ᄡᅳ쟈 <下 14a>

ㄷ. 「飜老」 ᄒᆞ마 가려 ᄒᆞ거니 내게 나믄 은이 이시니 힘히미 두워 므슴ᄒᆞ료 <下 23b>
「老諺」, 「平老諺」 이믜 가려 ᄒᆞ면 내게 나믄 은이 이시니 힘힘이 노하 두워 므슴ᄒᆞ료 <下 21ab>, <下 21a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내게 남은 은이 이시니 부졀업시 곰초와 므엇ᄒᆞ리오 <6:11a>
「蒙老」 내게 남은 은 이시니 그저 남겨 무슴하리오 <6:6a>
「重老」 이믜 가려 ᄒᆞ면 내게 져기 나믄 은이 이시니 힘힘이 두어 므슴ᄒᆞ리오 <下 22ab>

ㄹ. 「飜老」 네 ᄒᆞ마 갑슬 알어니 므스므라 말 한 양 ᄒᆞᄂᆞ뇨 <下 28a>
「老諺」, 「平老諺」 네 임의 갑슬 알면 므슴ᄒᆞ라 말 한 양 ᄒᆞᄂᆞ뇨 <下 25b>, <下 25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네 긔 갑슬 아니 일즉 오며 즉시 은 도라 주드면 뭇지 아니ᄒᆞ여시라 엇지 별로 시험ᄒᆞ여 말ᄒᆞ는다 <6:16a>
「蒙老」 네 임의 갑슬 알며 엇지 妄妄되이 닐ᄋᆞᄂᆞ니 됴흔 은을 골회여 가져오라 네게 ᄑᆞ자 <6:10b>
「重老」 네 이믜 갑슬 아니 나도 말 ᄒᆞᆫ 양 아니ᄒᆞ리라 <下 26ab>

ㅁ. 「飜老」 이믜 이 ᄃᆞᆯ 초ᄒᆞᄅᆞᆺ날 王京의셔 떠나거니 이제 반 ᄃᆞ리로ᄃᆡ 엇디 앗가ᅀᅡ 예 오뇨 <上 1ab>
「老諺」, 「平老諺」 이믜 이 ᄃᆞᆯ 초ᄒᆞᄅᆞᆫ날 王京의셔 떠나시면 이제 반 ᄃᆞᆯ에 다ᄃᆞ라ᄡᅥᄃᆞᆫ 엇디 ᄀᆞᆺ 여긔 오뇨 <上 1ab>, <上 1ab>
「老新」 이믜 이 ᄃᆞᆯ 초ᄒᆞᄅᆞᆫ날 王京으로 조차 떠난이면 반 ᄃᆞᆯ에 다ᄃᆞᆺ게야 엇지 ᄀᆞᆺ 여긔 오뇨 <上 1ab>
「淸老」 네 이ᄃᆞᆯ 초싱에 ᄧᅥ나셔 이제 거의 반ᄃᆞᆯ이어ᄂᆞᆯ 엇지 ᄀᆞᆺ 여긔 온다 <1:1b>
「蒙老」 임의 이ᄃᆞᆯ 초ᄒᆞᄅᆞᆺ날 왕경셔 ᄧᅥ낫노라 ᄒᆞ면 이지 반ᄃᆞᆯ이 뵈엿는지라 엇지 ᄀᆞᆺ 여긔 밋ᄎᆞ온다 <1:1b>
「重老」 이믜 이 ᄃᆞᆯ 초ᄒᆞᄅᆞᆺ날 王京셔 떠나시면 반 ᄃᆞᆯ에 다ᄃᆞᆺ게야 엇디 ᄀᆞᆺ 여긔 오뇨 <上 1ab>

(9)의 예들은 모두 『飜老』의 '-거니'가 『老諺』 이후 '-면'으로 대체되었음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老諺』의 대체 양상이 『重老』에까지 계속 이어짐이 주목된다. 만약 『老諺』의 시기에 일어난 '-거니'의 '-면'으로의 대체가 우발적인 번역자의 취향에 따른 것이었다면 『老諺』에서 『重老』에 이르는 시기에 다시 '-거니'로 회귀되는 예가 단 하나라도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예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이는 '-거니'에 대한 '-면'으로의 대체가 통시적인 의의를 가진 현상이었음을 뒷받침한다.

3.1.2.3. '-거든'의 '-면'으로의 대체

(10)의 예를 보자.

(10)

ㄱ. 「飜老」 너 양 사거든 우리 ᄒᆞᆫᄃᆡ 가져 <下 21ab」>
「老諺」, 「平老諺」 네 羊을 사거든 우리 ᄒᆞᆫᄃᆡ 가쟈 <下 19ab>, <下 19a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蒙老」 네 양을 사라 가면 자도 ᄒᆞᆷᄭᅴ 가쟈 <6:7b>, <6:3b>
「重老」 네 가 羊을 사려 ᄒᆞ면 우리 ᄒᆞᆫ가지로 가쟈 <下 20a>

ㄴ. 「飜老」 네 ᄯᅩ 닷 돈만 더ᄒᆞ야든 네게 ᄑᆞ로마 <下 23a>
「老諺」, 「平老諺」 네 ᄯᅩ 닷 돈만 더ᄒᆞ야든 네게 ᄑᆞᆯ마 <下 20b>, <下 20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셕냥 아니면 결단코 되지 못ᄒᆞ리라 <6:9b>
「蒙老」 네 ᄯᅩ 닷 돈을 더ᄒᆞ면 네게 ᄑᆞᆯ리라 <6:5a>
「重老」 만일 ᄯᅩ 닷 돈을 더ᄒᆞ면 내 곳 ᄑᆞ라 너ᄅᆞᆯ 주마 <下 21b>

ㄷ. 「飜老」 릐실 병이 다 됴커든 의원ᄭᅴ 만히 은혜 갑고 샤례ᄒᆞ리이다 <下 41ab>
「老諺」 ᄂᆡ일 병이 다 됴커든 太醫께 만히 은혜 갑파 샤례ᄒᆞ리라 <下 37ab>
「平老諺」 ᄂᆡ일 병이 다 됴커든 太醫께 만히 은혜 갑하 샤례ᄒᆞ리라 <下 37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다시 ᄒᆞᆫ 두러 날 되여 병이 ᄒᆞ리거든 선생의게 은혜 갑하 사례ᄒᆞ라 가마 <7:9a>

「蒙老」 내일 병이 ᄒᆞ리거든 의원의게 크게 은혜 갑하 사례ᄒᆞ마 <7:8b>

「重老」 만일 病이 쾌히 나으면 重히重히 갑하 샤례호리라 <下 39b>

(10)의 예는 '-면'의 세력이 '-거니'는 담당할 수 없었던 '-거든'의 독자적 영역에까지 빈번하게 미쳤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경향이 18세기 자료인 『淸老』와 『蒙老』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남이 흥미롭다. 여기서도 '-면'의 세력 확대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면'이 '-거든'의 영역을 잠식한 것은 '-거든'이 쓰였던 다음과 같은 특정한 문맥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그것은 (5ㄱ')류의 '현실적 사태'의 조건의 문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1)

ㄱ. 「月釋」 羅睺羅ᄂᆞᆫ …ᄀᆞ리오다 ᄒᆞᆫ ᄠᅳ디니 숤바다ᄋᆞᆯ 드러 ᄒᆡᄃᆞᆯ ᄀᆞ리와ᄃᆞᆫ 日月食 ᄒᆞᄂᆞ니라 <2:2>

ㄴ. 「月釋」 그에 드리텨든 우르ᄂᆞ니라 <1:29>

ㄷ. 「法華」 모ᄆᆞᆫ 어우러든 能히 알오 여희여든 觸ᄋᆞᆯ 아디 몯ᄒᆞᄂᆞ니 <6:26>

ㄹ. 「飜朴」 뎌 노ᄆᆞᆫ 알ᄑᆡ 보와든 아ᄅᆞᆫ 양ᄒᆞ고 뒤도라 니거든 ᄇᆞ리ᄂᆞ니 <上 25a>

ㅁ. 「飜老」 ᄂᆞᆺ가이 ᄡᅩ면 근드겨 가ᄂᆞ니라 <下 37a>

ㅂ. 「飜朴」 길 마갓ᄂᆞᆫ ᄒᆞᆫ 퍼깃 사미 비 오나든 곳 퓌오 ᄇᆞᄅᆞᆷ 굴거든 여름 ᄆᆡᆺᄂᆞᆫ 거셔 <上 40a>

「朴諺」 길헤 당ᄒᆞᆫ ᄒᆞᆫ 퍽이 삼이 비 오면 곳 픠고 ᄇᆞ람 블면 여ᄅᆞᆷ 여ᄂᆞᆫ 거시여 <上 36a-b>

「朴新」 길에 당ᄒᆞᆫ ᄒᆞᆫ 퍽이 삼이 비 오면 곳픠고 ᄇᆞ람 블면 여름 어ᄃᆞᆫ 거시여 <1:39a>

ㅅ. 「飜老」 녀름 다ᄃᆞᆮ거든 ᄀᆞ장 ᄀᆞᄂᆞᆫ 모시뵈 젹삼애 우희ᄂᆞᆫ 제 실로 슈질 노ᄒᆞᆫ ᄒᆡᆫ 뭔 紗 더그레 야투로 사 ᄃᆡᆨ녕이오 ᄀᆞᅀᆞᆯ히 다ᄃᆞᆮ거든 로

오시오 <下 50a>

「老諺」, 「平老諺」 녀름 다ᄃᆞᆮ거든 ᄀᆞ장 ᄀᆞᄂᆞᆫ 모시뵈 젹삼에 우희ᄂᆞᆫ 슈 노흔 흰 뫼사 더 그레에 야토로 사 ᄃᆞᆨ녕이오 ᄀᆞ올히 다ᄃᆞᆮ거든 노오시오 <下 45a-46a>, <下 45a-46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重老」 녀름에 다ᄃᆞ르면 ᄀᆞ장 ᄀᆞᄂᆞᆫ 뵈 젹삼에 우희 닙은 거슨 셩긔고 셴 紗 두루막이와 압두록 紗 직녕이오 ᄀᆞ올에 다ᄃᆞ르면 이 깁 옷시오 <下 47a-48a>

위의 예에 나타난 모든 조건들은 현실적인 습관적 사태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18] 위와 같은 현실적 사태의 조건의 예〔(5ㄱ')참조〕에 '-거든'이 통합된 구조는 현대국어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구조이나 15, 16세기엔 빈번히 등장했던 구조로 생각된다.[19] 우리가 (5)에서 분류했던 '조건'의 성격을 상기해 본다면 (5ㄱ')에 근접한 성격의 것이다. 화자의 상식에 비추어 으레 일어나는 일로 간주되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적이고 당위적인 사태에 대한 조건인 '현실적 사태'를 내용으로 하는 조건의 한 문맥인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구조에 나타나는 '-거든'에 의한 조건이 『老諺』이나 『朴諺』 이후부터는 서서히 '-면'에 의한 조건으로 모습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이며〔(11ㅂ)〕 18세기 무렵의 중간본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해진다〔(11ㅅ)〕. 물론 『老諺』이나 『朴諺』 이전 시기에도 '-면'에 의해 이러한 조건이 나타나기도 했었지만〔(11ㅁ)〕 그 당시엔 동시에 '-거든'에 의해서도 이러한 조건이 나타날 수 있었던 데 비해 17세기 이후에는 주로 '-면'에 의해서만 가능해지기

18) 후행문에 원칙법이 통합된 예가 많다는 것도 참조된다.

19) '-거니'는 이미 일어난 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에서 '-거니'는 나타날 수 없었다.

시작했다는 것이 주목된다. 즉 '-거든'에 의한 (5ㄱ')와 같은 성격의 조건은 17세기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든'에 의한 이러한 조건의 형식이 불가능한 것은 현대국어에도 지속된다. 현대국어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 어디에서 연원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맥의 '-거든'이 특히 『老諺』과 『朴諺』 이후 즉 17세기를 시작으로 '-면'으로의 대체를 겪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진다. 우리는 앞에서 (5ㄱ, ㄱ', ㄱ")류를 '현실적 사태'의 조건이라는 범주로 분류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위의 세 가지 유형을 잘 살펴보면 화자가 부여하는 '현실성'이라는 것이 정도상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5ㄱ')와 달리 (5ㄱ, ㄱ")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두 사태 모두 화자가 당면해 있는 사태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즉, 화자가 일어난 사태의 발화시 관여성을 그 사태에 직접 당면해서 전달한다는 점에서 (5ㄱ, ㄱ")은 공통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5ㄱ')는 이러한 측면을 보이지 못하는데 그것은 (5ㄱ')의 사태가, 화자가 당면한 것이 아닌, 즉, 화자의 상식과 경험에 기반한 습관적 사태로서 상대적으로 (5ㄱ, ㄱ")에 비해 '현실성'이 낮은 데에 있는 것이다. '현실적 사태'의 조건 중에서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낮은 정도를 보이는 것은 위와 같이 상식에 기반한 사태로 17세기 이후 특히 18세기를 중심으로 이러한 경우의 조건에 쓰이는 '-거든'이 주로 '-면'에 의해 대체되는 것[(11ㅅ)]은 사태 자체의 성격과 관련되었던 현상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다소 장황하게 논의한 것을 '-거든'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거든'은 일어난 사건의 발화시 관여적인 사태 표시의 문맥[20]에서는 세력을 확장하여 소멸의 일로에 있던 '-거니'를

---

20) '-거니'와 '-거든'이 15~16세기에서도 비슷한 성격을 보였던 문맥을 말한다.

대체하였다. 또 명령문, 청유문 등이 후행하는 문맥에서는 발화시 이전의 사태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뿐 아니라 발화시 이후의 사태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그 세력을 유지했다. 그런데 '-거든'의 세력이 '-거니'의 세력을 잠식하는 강도는, '-면'의 세력이 '-거니'의 세력을 잠식한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잠식의 강도가 낮았다고 할 수 있다. 또 위의 (11)과 같은 문맥에서는 17세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거든'이 '-면'에 의해 그 영역을 잠식당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3.1.2.4. '-면'의 무표적 성격과 확장

우리는 이미 '-거니'와 '-거든'의 통시적 변화의 면면을 살피면서 '-면'의 성격과 그 강력한 세력확장의 면면에 대해 꽤 많은 논의를 해 왔다. '-면'은, '-거니'와 '-거든'에 의한 모든 조건의 영역을 점차로 잠식해 간 양상을 통시적으로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면'의 근본적 성격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15세기 '-면'이 쓰인 몇 가지 자료와, 그 당시 '-거니'와 '-거든'이 담당하지 못했던 조건의 문맥을 고려하여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12)

ㄱ. 「月釋」 목수미 열 세히면 다시 惡道애 ᄠᅥ러듀리니 <21:55>

ㄱ'. 「楞嚴」 ᄒᆞ다가 내 소니 업스면 내 주머귀 이디 몯ᄒᆞ리며 ᄒᆞ다가 네 누니 업스면 네 보미 이디 몯ᄒᆞ리니 <1:99>

ㄴ. 「月釋」 出家ᄒᆞ시면 正覺ᄋᆞᆯ 일우시리로다 <2:23>

ㄷ. 「釋譜」 네 부텨를 가 보ᅀᆞᄫᆞ면 됴ᄒᆞᆫ 이리 그지 업스리라 <6:20>

ㄹ. 「法華」 ᄒᆞ다가 能히 이ᄀᆞ티 보리 이시면 반ᄃᆞ기 알라 <5:197>

ㅁ. 「飜老」 ᄂᆞᆽ가이 ᄡᅳ면 근드겨 가ᄂᆞ니라 <下 37a>

(13)
ㄱ. 「飜老」 주를 보면 즐겨 자게 아니ᄒᆞ리니 <上 46b-47a>
ㄴ. 「飜老」 ᄆᆞᆯ 기ᄅᆞ마 진노라 ᄒᆞ면 하ᄂᆞᆯ히 ᄇᆞᆯ그리로다 <上 38a-b>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면'은 조건의 종류와 후행문의 종류에 있어 '-거니'와 '-거든'의 그것과는 미세하게나마 상이한 경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위의 예를 살펴보면 '-면'에 의한 조건은 '-거든', '-거니'의 경우와 달리 화자의 상상에 의한 상황의 조건, 극단적인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조건의 문맥[21]['비현실적 사태'의 조건(12ㄱ, ㄱ')]에도 자주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12ㄴ, ㄷ)과 같이 단순한 가정이나 상상에 기반한 추측문을 후행하는 문맥은 '-면'이 매우 자주 등장하는 문맥이었다. 이러한 문맥은 15세기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수가 발견되는 듯하다. 후행문이 추측문인 경우 이러한 문맥에서의 '-면'은 16세기 이후에도 변함없이 출현한다[(13)].

그러나 여기서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미 15세기에도 '-면'이 나타나는 문맥이 이러한 종류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12ㄹ)과 (12ㅁ)은 각각 후행문이 명령문인 경우와 현실적인 습관적 사태의 조건을 나타내는 문맥에 '-면'이 쓰였음을 잘 보여 준다. 즉 '-거니'와 '-거든'이 담당하던 문맥에 이미 '-면'이 나타날 수 있

21) 우리가 여기서 상기해 볼 부분은 과거의 상황에 대한 '비현실적 사태'에 대한 조건은 '-면'에 의해서가 아닌 '-더든'의 형식에 의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이 '-더든'은 '-드면/-더면'에 의해 대체되는데 '-면'의 세력 확장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예들이 참고된다.

내 일즙 아디 못ᄒᆞᆯ샤 일즉 아드면 探望ᄒᆞ라 감이 됴탓다 <朴諺 上 34b>
너회 만일 내대로 이리 用心ᄒᆞ여 收拾ᄒᆞ더면 좀이 엇지 덥어시리오 <朴新 3:7a>

'비현실적 사태'에 대한 조건과 관련하여 대립을 이루는 일련의 형태소들 간의 관계와 그 변천도 정밀히 탐구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었으나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경향이 점점 강해져 결국은 '-거니'를 대체함에 있어 '-면'은 '-거든'보다 훨씬 우세한 지위를 점하였던 것이다. 또 '-면'은 원래는 '-거든'도 관할할 수 있었던 '(습관적·일반적) 현실적 사태'를 내용으로 하는 조건의 문맥을 『老諺』과 『朴諺』의 시기인 17세기 이후부터 서서히 독점하게 되고 이러한 양상이 현대국어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들을 중심으로 개별 어미구조체 '-거니', '-거든', '-면' 등의 통시적인 기능 변화와 분포 변화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들을 살펴본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세 가지 연결어미 구조체의 세력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면'의 주도적인 세력 강화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 이를 초래한 주요 요소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거니'와 '-거든'의 관계 및 각각의 성격 등을 제시하며 몇 가지 관점에서 그 배경을 살펴본 바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는데 현저하게 작용했던 원인은 '-면'이라는 조건의 연결어미 자체의 일반적이고 무표적인 성격이 아니었던가 한다. 이러한 '-면'의 무표적 성격은 이미 15세기에 '-면'의 후행문으로 추측문, 명령문 등 다양한 문장이 통합될 수 있었다는 점, '-면'이 습관적 사태의 조건 및 비현실적 사태의 조건 등을 표현했다는 점들로부터 알 수 있다. '-거니'나 '-거든'에 비해서 이렇게 적용 가능 영역이 상대적으로 포괄적이었던 '-면'의 성격 자체가 '-면'의 강력한 세력 확대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것은 기능과 분포에 있어 가장 유표적인 면을 보이는 '-거니'와의 비교를 행해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거니'가 대부분 발화시 이전에 발생한 '현실적 사태'의 문맥,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 발화

시에 관여적인 '현실적 사태'의 문맥에 쓰이는 매우 협소한 국면에만 집중되었던 것은 '-면' 출현 문맥의 포괄적인 면[22]과 매우 대조되는 측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거니'와 '-거든'의 '-거-'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핵심을 다소 벗어나는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미 암묵적으로 '-거니'와 '-거든'의 시제적 성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부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점은 '-거니'의 '-거-'의 성격이 종결형 '-거다'에서의 '-거-'의 성격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다. 발화시 이전의 사태 혹은 그 사태가 이루어진 결과가 유효한 상태를 기준시점인 발화시에 관여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양 형식에서 보이는 '-거-'의 기능은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23] 그런데 우리는 '-거든'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의 생각을 적용해 보려고 하면 사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게 된다. '-거든'은 '-거니'와 같이 발화시에 관여적인, 발화시 이전에 이루어진 현실적 사태의 조건의 문맥에만 쓰인 것은 아니었다. '-거든'은 좀더 폭넓은 기능을 가진바 발화시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도 후행문의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관여성을 현실적 사태의 조건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도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본다면 '-거니', '-거다', '-거든'에 분포하는 '-거-'에 대해 일련의 공통적인 기능을 포착할 수 있으

22) 인식론적 양태를 드러내는 추측문의 주어로는 비단 화자 뿐 아니라 제3자 심지어는 비유정성 체언까지도 올 수 있다. 따라서 추측문은 다른 문맥, 가령, 명령문 등의 문맥과 비교해 본다면 그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이 더 잘 드러난다. 추측문의 성격이 주로 인식론적 양태(Bybee, 1985)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고 '-면'의 후행문으로 이러한 추측문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추측문에 선행하는 '-면'에 의한 조건절의 성격도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3) 다른 문맥들에서 '-거니'에 포함된 연결어미 '-니'가 때때로 종결어미적 가치를 가지는 문맥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도 관련시켜 생각해 봄직하다.

리라 생각된다. 우리는 그것의 공통적인 기능이 사태를 일정한 기준시점(그것이 발화시이건 발화시 이후이건간에)에 관여시키는 것이 아니었나 한다. 특히 연결어미에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거-'는, 항상 발화시나 혹은 후행문이 제시하는 시점의 틀에 의해 그 시제적 의의가 결정되는 경향[24]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결어미에 분포하는 '-거-'는 연결어미가 통합되는 일련의 사태를 후행문의 시제나 담화의 구조가 부여하는 기준 시점의 틀에 관여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검증되기 위해서는 '거'포함 연결어미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검증 절차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며 이를 위하여 자료에 대한 좀더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25]

3.2. 통사적 특징의 비교

3.2.1. 인용문의 비교

3.2.1.1. 인용동사 후치 현상의 확대

『老乞大』와 『朴通事』 언해본의 인용문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어

---

24) 연결형의 경우에는 종결형의 경우와 달리 시제 해석의 기준기점이 경우에 따라 발화시점이 되기도 하고 후행절이 되기도 하는 유동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이 참고된다(최성호, 1987:30; 최동주, 1995:246).

25) 이미 15세기에도 '-거-' 포함 연결어미들은 이미 문법화가 너무 진행되어 버린 존재였던 것 같다. '-더든'과 관련하여 분석해봄직한 '-거든'의 '-거-'에 대해서도, '*든'이 15세기 공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 때문에 '-거'만을 분석하거나 '-거'만의 독자적 기능을 끌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동일하게 '-거'를 포함한 어미라 할지라도 어미의 특성에 따라 '-거-'의 일정한 성격이 나타나는 강약의 정도가 다를 것임은 자명하다. 세부적 문맥에 따라 '-거-'계 연결어미의 문법화의 정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은 현상은 인용동사 '니ᄅᆞ-' 등이 피인용문에 전치되는가 후치되는가 하는 여부였다. 김완진(1975, 1976)에서는 『飜老』나 『飜朴』에 비해 『老諺』과 『朴諺』의 경우 피인용문에 '니ᄅᆞ디(니ᄅᆞ-)' 등의 인용동사나 그 인용동사의 대동사 'ᄒᆞ-'가 후치되는 경향이 높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老諺』과 『朴諺』 이후의 이본들, 즉 18세기에 간행된 이본들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의 예를 보자.

(1)

ㄱ. 「飜老」 상넷 말소매 닐오ᄃᆡ ᄆᆞ리 밤들 몯 머그면 술지디 아니ᄒᆞ고 사ᄅᆞ미 ᄡᅳᆫ 쳔곳 엇디 몯 어드면 가ᅀᆞ며디 몯ᄒᆞᄂᆞ니라 <上 32ab>

「老諺」, 「平老諺」 常言에 닐오되 ᄆᆞᆯ이 밤 여믈을 엇디 못ᄒᆞ면 술지디 못ᄒᆞ고 사ᄅᆞᆷ이 ᄡᅳᆫ 財物을 엇디 못ᄒᆞ면 가ᄋᆞᆷ여디 못ᄒᆞᆫ다 <u>ᄒᆞᄂᆞ니</u> <上 29ab>, <上 29ab>

「老新」 常言에 니ᄅᆞ되 ᄆᆞᆯ이 밤 여믈을 엇지 못ᄒᆞ면 술지지 못ᄒᆞ고 사ᄅᆞᆷ이 横財ᄅᆞᆯ 엇지 못ᄒᆞ면 가ᄋᆞᆷ여지 못ᄒᆞᆫ다 ᄒᆞ니 <上 40b-41a>

「淸老」 속담에 니ᄅᆞ되 ᄆᆞ이 밤여믈을 먹지 못ᄒᆞ면 술씨지 못ᄒᆞ고 사ᄅᆞᆷ이 횡재ᄅᆞᆯ 엇지 못ᄒᆞ면 가ᄋᆞᆫ여지 못ᄒᆞᆫ다 ᄒᆞ엿ᄂᆞ니 <2:22a>

「蒙老」 상담에 니ᄅᆞᆫ 거시 ᄆᆞᆯ이 밤여믈을 먹지 못ᄒᆞ면 능히 술지지 못ᄒᆞ고 사ᄅᆞᆷ이 횡재ᄅᆞᆯ 엇지 못ᄒᆞ면 능히 가ᄋᆞᆷ여지 못ᄒᆞᆫ다 ᄒᆞᄂᆞ니 <2:18b>

「重老」 常言에 니ᄅᆞ되 사ᄅᆞᆷ이 横財ᄅᆞᆯ 엇지 못ᄒᆞ면 가ᄋᆞᆷ여지 못ᄒᆞ고 ᄆᆞᆯ이 夜草ᄅᆞᆯ 엇지 못ᄒᆞ면 술지지 못ᄒᆞᆫ다 ᄒᆞ니 <上 29ab>

ㄴ. 「飜朴」 상넷 말소매 닐오ᄃᆡ 말ᄉᆞᄆᆞᆯ 아니 니ᄅᆞ면 아디 몯ᄒᆞ고 남글 듧디 아니면 ᄉᆞᄆᆞᆺ디 몯ᄒᆞᄂᆞ니라 <上 14a>

「朴諺」 常言에 닐오ᄃᆡ 말을 니ᄅᆞ디 아니면 아디 못ᄒᆞ고 남글 ᄯᅮᆯ디 아니면 ᄉᆞᄆᆞᆺ디 아닌ᄂᆞᆫ다 <u>ᄒᆞ니라</u> <上 14a>

「朴新」 常言에 니ᄅᆞ되 말을 니ᄅᆞ디 아니면 ᄇᆞᆰ디 못ᄒᆞ고 남글 ᄯᅮᆲ디 아니

면 ᄉᆞᄆᆞᆺ디 몯ᄒᆞᆫ다 ᄒᆞᄂᆞ니라 <1:16a>

(1ㄱ), (1ㄴ)에서 그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다. (1ㄱ)과 (1ㄴ)의 초간본들에 나타난 형식을 중심으로 말한다면 초간본들의 형식은 '닐오ᄃᆡ S ᄒᆞ-'에서 'ᄒᆞ-'가 생략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후행하는 'ᄒᆞ-'가 생략되는 경우는 피인용문이 직접화법적인 것일 때 가능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26] 또 'ᄒᆞ-'가 직접화법구문에서 잘 생략됨은 굳이 그것이 없더라도 인용구문임이 쉽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초간본들에서는 인용문에 후행하는 'ᄒᆞ-'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老諺』, 『朴諺』 등의 이후로는 'ᄒᆞ-'가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해짐을 볼 수 있다. 이는 『老諺』이나 『朴諺』 이후의 이본들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미 15세기에서도 피인용문과 'ᄒᆞ-'에 연결어미가 연결되어 다른 문장과 통합할 때에는 'ᄒᆞ-'가 생략되지 않고 연결어미와 통합되는 구조를 보였었다. (2)와 같은 예가 이를 잘 보인다.

(2) 「月釋」 大臣이 닐오ᄃᆡ 내 方便으로 더로리라 ᄒᆞ고 <3:15>
「月釋」 도ᄌᆞ기 … 날ᄃᆞ려 닐오ᄃᆡ 네 도로 머그라 아니옷 머그면 네 머리ᄅᆞᆯ 버효리라 ᄒᆞᆯᄊᆡ <10:25>
「釋譜」 사ᄅᆞ미 놈ᄃᆞ려 닐오ᄃᆡ 경이 이쇼ᄃᆡ 일후미 法化ㅣ니 ᄒᆞᆫᄃᆡ 가 듣져 ᄒᆞ야ᄃᆞᆫ <19:6>

따라서 연결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데다가 대부분의 문장이 대화체로 단문이 많은 『飜老』, 『飜朴』의 언해문의 특성상 후치되는 'ᄒᆞ-'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26) 이에 관해서는 이현희(1994) 참조.

(3)

ㄱ. 「飜老」 ᄀᆞᅀᅢ 셔셔 놀며 보는 사ᄅᆞ미 닐오되 이 ᄌᆞᄅᆞ믜 니ᄅᆞ논 갑시 정히 고든 마리로다 <下 13b>

「老諺」, 「平老諺」 ᄀᆞ애 셔셔 힘힘히 보는 사ᄅᆞᆷ이 닐오되 이 즐음 닐으는 갑시 정히 고든 말이로다 <下 12ab>, <下 12ab>

「清老」 우리게 아조 간섭치 아니ᄒᆞ나 이 사ᄅᆞᆷ의 니ᄅᆞ는 갑슬 드르니 ᄀᆞ장 곧으니 맛당히 바담즉 ᄒᆞ다 <5:20b>

「蒙老」 겻ᄐᆡ 셔셔 보는 사ᄅᆞᆷ이 닐ᄋᆞ되 이 ᄌᆞᄅᆞᆷ의 닐ᄋᆞᆫ 갑시 진실로 바ᄅᆞᆫ 말이라 <5:17a>

「重老」 겻ᄒᆡ 셔셔 힘힘이 보는 사ᄅᆞᆷ이 니ᄅᆞ되 이 ᄌᆞᄅᆞᆷ의 니ᄅᆞ는 갑시 ᄀᆞ장 공번되다 <下 13a>

ㄴ. 「飜老」 店主人이 닐오되 이 세 버디 둘흔 ᄆᆞᆯ 살 나그내오 ᄒᆞ나ᄒᆞᆫ ᄌᆞᄅᆞᆷ이러라 <下 7b-8a>

「老諺」, 「平老諺」 店主人이 닐오되 이 세 벗이 둘흔 ᄆᆞᆯ 살 나그내오 ᄒᆞ나ᄒᆞᆫ ᄌᆞᄅᆞᆷ이러라 <下 6b-7b>, <下 6b-7b>

「老新」 [해당문장 없음]

「清老」 店主人이 알외되 이 두 사ᄅᆞᆷ은 ᄆᆞᆯ 살 사ᄅᆞᆷ이오 ᄒᆞᆫ 사ᄅᆞᆷ은 ᄌᆞᄅᆞᆷ이라 <5:12b>

「蒙老」 店主人이 닐ᄋᆞ되 이 두 사ᄅᆞᆷ은 ᄆᆞᆯ 살 사ᄅᆞᆷ이오 ᄒᆞᆫ 사ᄅᆞᆷ은 ᄌᆞᄅᆞᆷ이라 <5:10b>

「重老」 店主人이 니ᄅᆞ되 이 세 벗이 둘은 ᄆᆞᆯ 살 나그너오 ᄒᆞ나ᄒᆞᆫ 이 ᄌᆞᄅᆞᆷ이라 <下 7b-8a>

ㄷ. 「飜老」 이틋날 의원이 와 무로ᄃᆡ 네 져그나 됴커녀 <下 41a>

「老諺」, 「平老諺」이틋날 太醫ㅣ 와 무로ᄃᆡ 네 져그나 됴커냐 <下 37>, <下 37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清老」 오ᄂᆞᆯ 와서 네 ᄆᆡᆨ을 잡아보니 평상ᄒᆞ여 고로매 속이 ᄀᆞ장 ᄆᆞᆰ앗다 네을 네 모로랴 어제예셔 엇더ᄒᆞ뇨 <7:8b>

「蒙老」 이튼날 의원이 와 무로되 네 젹이 나으냐 <7:8a>

「重老」 이튼날 太醫 와 무르되 네 져기 나으냐 <下 39b>

그런데 (3)과 같이 『老諺』과 『朴諺』 등의 이본들에서는 『飜老』, 『飜朴』의 'ᄒᆞ-'가 후치되지 않는 형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1)과 같이 후치되는 유형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단문이 많아 'ᄒᆞ-'가 꼭 후치될 필요가 없는데도 후치되는 양상이 『老諺』과 『朴諺』에서 많아지고 이러한 경향이 그후 이본들에도 그대로 이어짐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飜老』, 『飜朴』, 『老諺』, 『朴諺』에서는 모두 'ᄒᆞ-'가 후치되어 나타나는데 이후 이본들에서 'ᄒᆞ-'가 후치되어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없다는 점도 특이할 만하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인용문에서 'ᄒᆞ-' 생략이라는 초간본의 경향이 묵수되는 경향을 보이는 (3)과 같은 언해문의 성격이 다른 부분의 언해문의 성격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3)과 같이 묵수되는 예로 간주되는 예들은 모두 『老乞大』 언해본의 언해문 중 지문적 성격을 강하게 띤 부분들에서 발췌된 예이다.

『老乞大』의 언해본은 『朴通事』의 언해본에 비해 훨씬 더 화자·청자 상호간의 질문과 응답에 의한 텍스트의 비중이 높다. 그렇지만 이러한 『老乞大』의 언해본도 가끔씩 지문적인 텍스트 구성을 보이는데 과거의 인용문 구조가 묵수되는 경향을 보이는 예들은 대부분 그러한 지문적 영역에 속해 있다. 가령 (3)과 같은 예에서도 그러한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3)의 용례는 모두 순수한 대사 속에 등장하는 인용문이 아니라 '店主人이 닐오ᄃᆡ', '놀며 보는 사ᄅᆞ미 닐오ᄃᆡ'와 같이 지문적 성격을 가지는 구절에 인용문이 후행하는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ᄒᆞ-'가 인용문에 후행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老乞大』 언해본의 텍스트 구성에서 이러한 지문적 성격을 가진 부분들은 분포상의 빈도도 낮을 뿐 아니라 상당히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대화가 主가 되는 텍스트 구성에서 줄거리의

진행을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 '店主人이 닐오딕'와 같은 지문적 부분들을 삽입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店主人이 닐오딕'와 같이 대화의 화자를 명시해 주지 않는다면 독자는 드러난 대화를 店主人의 것이 아닌 그 전 대사의 화자의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지문적 요소의 삽입은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분들은 줄거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직접화법으로 현현되는 대사가 와야 할 부분들인 것이다. 이와 같이 (3)의 예는 (1)의 예와는 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 함으로 (3)에서 보이는 표면적인 과거 묵수의 경향도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구체적인 질문과 응답 부분, 옛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 등에서는 그러한 과거 묵수의 경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대비해 볼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논의했던 'ᄒᆞ-' 후치의 대체적인 경향에 위배되는 예가 없다는 점, 『老諺』 이후의 이본들에서도 'ᄒᆞ-' 후치의 경향이 이어진다는 점과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결국 위에서 지적된 점 역시 'ᄒᆞ-'가 인용문에 후치하는 경향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통시적인 일반적 경향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대체적인 통시적인 경향에 대해 과거의 묵수로 인정되던 (3)과 같은 예들에서 초간본의 언해 양상이 지속된 것은 이들 예들의 특수한 성격, 즉 지문적 요소가 개입된 예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인용문에 'ᄒᆞ-'가 후행하는 문장은 그렇지 않은 문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국어다운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용문에 대응하는 한어 원문에는 주어와 인용동사가 선행하고 피인용문이 후행함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어 원문에는 피인용문에 후행하는 'ᄒᆞ-'와 대응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다.

다음에 제시될 인용문은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4) 「飜老」 내 그저 닐오ᄃᆡ 우리 예 ᄒᆞᆫ가지로 믈 긷ᄂᆞ다 ᄒᆞ야 니ᄅᆞ노라 <上 37a>

「老諺」, 「平老諺」 내 그저 닐오ᄃᆡ 우리 여긔 ᄒᆞᆫ가지로 믈 깃ᄂᆞᆫ가 ᄒᆞ더니라 <上 33ab>, <上 33ab>

「老新」 우리 ᄆᆞᄋᆞᆷ에 그저 니ᄅᆞ되 이 우리 여긔 ᄒᆞᆫ가지로 믈 깃ᄂᆞᆫ가 ᄒᆞ더니라 <上 46a>

「淸老」 녜로브터 옴으로 곳 이러ᄒᆞ니라 <3:2a>

「蒙老」 이런 연고로 우리 물 깃기를 아지 못ᄒᆞ얏ᄃᆞ니라 <2:24b>

「重老」 우리 그저 니ᄅᆞ되 우리 여긔와 ᄒᆞᆫ가지로 믈 깃ᄂᆞᆫ가 ᄒᆞ더니라 <上 33ab>

(4)는 『飜老』의 경우 매우 특이한 유형의 인용문 구조를 보인다. '닐오ᄃᆡ'가 앞에 나와 있는데 뒤에 다시 '니ᄅᆞ노라'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老諺』 이후의 용례를 살펴보면 피인용문이 간접의문문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 (4)의 『飜老』는 '니ᄅᆞ-'의 반복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점을 보인다. 피인용문과 인용동사 사이에 'ᄒᆞ야'가 개재됨이 특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피인용문과 인용동사 사이에 'ᄒᆞ야'가 개재되는 용례는 『飜老』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5)

ㄱ. 「飜老」 장뷔 동ᄒᆞ야 ᄒᆞᆫ두 번 동ᄒᆞ면 곧 밥 먹고져 ᄒᆞ야 ᄉᆞ랑ᄒᆞ리라 <下 40a-41a>

「老諺」, 「平老諺」 곳 臟腑ㅣ 動ᄒᆞ여 ᄒᆞᆫ두 번 動ᄒᆞ면 곳 밥먹기를 싱각ᄒᆞ리니 <下 36a-37a>, <下 36a-37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즉시 속이 動ᄒᆞᆯ ᄶᅥ시니 여러 번 動ᄒᆞ여 속이 뷔여 아무 것 먹고

져 <u>ᄒᆞ여</u> ᄉᆡᆼ각ᄒᆞ거든 <7:8b>

「蒙老」 먹으면 즉시 속이 動ᄒᆞᄂᆞ니 여러 번 動ᄒᆞ면 믄득 밥먹기ᄅᆞᆯ 생각ᄒᆞ리라 <7:8a>

「重老」 곳 ᄇᆡ ᄉᆞᆯ어 뒤ᄇᆞᆯ 써시니 몬져 믈근 쥭을 먹어 補ᄒᆞ고 그린 후에 ᄯᅩ 밥을 먹으라 <下 39ab>

ㄴ. 「飜老」 우리 이러ᄐᆞ시 두ᅀᅥ 돌 동모지ᅀᅥ셔 ᄂᆞᆾ 븕기디 아니ᄒᆞ고 이제 여희여 가노니 후에 다시 서르 몯 보리라 <u>ᄒᆞ야</u> 니ᄅᆞ디 말라 <下 73a>

「老諺」, 「平老諺」우리 이러ᄐᆞ시 두어 돌 벗지어셔 ᄂᆞᆾ 븕키디 아니ᄒᆞ엿더니 이제 ᄉᆞ별ᄒᆞ거니와 후에 다시 서르 보디 못ᄒᆞ리라 니르디 말라 <下 65b-66a>, <下 65b-66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ᄇᆞ려 ᄉᆡᆼ각지 아니ᄒᆞ면 後日에 고쳐 오거든 ᄶᅧᆺᄶᅧᆺ이 내 집의 빗나게 오라 ᄯᅩ 만나기를 엇지 시러곰 알리오 <8:22b>

「蒙老」 이리 두 돌 벋디여 서ᄅᆞ ᄂᆞᆾ붉키지 아니ᄒᆞ엿더니 이제 이별ᄒᆞ고 가리니 후ㅅ 날 만일 만나면 됴흔 형제 아니랴 <8:21b>

「重老」 예 이셔 두어 돌 벗이 되여 일즉 ᄂᆞᆾ 븕힌 말이 잇지 아니ᄒᆞ엿더니 이제 하직ᄒᆞ니 후에 보지 못ᄒᆞ리라 니ᄅᆞ지 말라 <下 67b>

이렇게 전이어 'ᄒᆞ야'가 개재되는 인용문들은 이현희(1985)에서 내적화법으로 묶였던 간접인용구문, 의도 · 목적 구문 등이다. 흥미로운 것은 『老諺』 이후의 이본들에서는 'ᄒᆞ야'를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예 중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5ㄱ)이다. 사유동사와 그 사유내용을 나타내는 피인용문 사이에 'ᄒᆞ야'가 개재되고 있는 것이다. 15세기에 '의심ᄒᆞ-' 등의 사유동사들의 용례들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발견된다. (5ㄴ)에서도 볼 수 있듯이 『老諺』 이후의 이본들에서는 'ᄒᆞ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에서의 'ᄒᆞ야'가 잉여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인다. 그런데 다음의 용례는 (5)와는

다소 성격을 달리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6) 「飜老」 뎌 병ᄒᆞ니 녀교ᄃᆡ 버딘 ᄠᅳ디 업세라 ᄒᆞ야 슬허ᄒᆞ면 <下 46a-47b>
「老諺」, 「平老諺」 뎌 병든 사ᄅᆞᆷ이 ᄉᆡᇰ각ᄒᆞ되 벗인 ᄠᅳᆺ이 업다 ᄒᆞ여 슬허ᄒᆞ면 <下 41b-43a>, <下 41b-43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병이 잇거든 의원을 ᄎᆞ자 ᄃᆞ려 와 약 먹여 고치고 朝夕에 뭇고 ᄠᅳᆺ에 마즌 거슬 먹이라 <7:17b>
「蒙老」 병 잇거든 ᄣᅥ리지 말고 의원을 청ᄒᆞ야 약 ᄡᅥ 다ᄉᆞ리고 朝夕에 病症 무ᄅᆞ라 이러ᄐᆞ시 보살피면 十分 병에 五分이 나을 것이오 <7:16b>
「重老」 져 病人이 ᄉᆡᇰ각호되 벗의 情分이 업다 ᄒᆞ여 ᄆᆞᄋᆞᆷ에 悽惶ᄒᆞ면 맛치 五分ㅅ 病을 어더도 ᄯᅩ 十分이 더ᄒᆞ리라 <下 44a-45a>

피인용문과 후행하는 용언 사이에 'ᄒᆞ야'가 개재되기는 하였으나 이 'ᄒᆞ야'는 피인용문에 선행하는 '녀교ᄃᆡ'의 대동사이다. 『老諺』 이후의 이본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의 'ᄒᆞ야'는 (5ㄴ)의 경우와 달리 생략될 수 없는 요소였다.

이밖에 'ᄒᆞ야'가 개재된 구문으로 다음과 같은 구문들도 있다.

(7)
ㄱ. 「飜老」 네 본ᄃᆡ 셔울 가 쳔량 ᄑᆞ라 ᄯᅩ 소음 깁 사 王京의 가 ᄑᆞ노라 ᄒᆞ야 前後에 언메나 오래 머므는다 <上 14b-15a>
「老諺」, 「平老諺」 네 본ᄃᆡ 셔울 가 貨物을 ᄑᆞ라 ᄯᅩ 소옴과 깁을 사 王京에 가 ᄑᆞ노라 ᄒᆞ면 前後에 언메나 오래 머믈러뇨 <上 13b>, <上 13b>
「老新」 네 본ᄃᆡ 셔울 가 貨物을 풀고 즉시 綾과 깁을 사 王京에 가 ᄑᆞ노라 ᄒᆞ면 前後에 몃 날을 머믈러뇨 <上 18b>
「淸老」 네 본ᄃᆡ 황성에 가 화물을 풀고 ᄯᅩ 소옴과 깁을 사셔 황경에 흥정ᄒᆞ라 가면 왕래 몃ᄃᆞᆯ ᄃᆞᆫ니ᄂᆞᆫ다 <1:21a>

「蒙老」 네 본디 셔울 가셔 소옴과 깁을 사 왕경 가 풀면 길히 몃눌 힝 홀너뇨 <1:20a>

「重老」 네 본디 셔울 가 貨物을 풀고 곳 綾과 깁을 사 王京에 가 프노라 ᄒᆞ면 前後에 몃 날을 머믈러뇨 <上 13ab>

ㄴ. 「飜老」 내 遼東 잣 안해셔 사노라 셩이 王개로니 王 아뫼라 ᄒᆞ야 쓰라 <下 15b-16a>

「老諺」, 「平老諺」 내 遼東 잣 안해셔 사노라 셩이 王개니 王 아뫼라 쓰라 <下 14ab>, <下 14a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내 셩은 王가요 遼東城 안히 사노라 <5:23a>

「蒙老」 내 셩은 王가요 遼東城 안히셔 사노라 <5:19b>

「重老」 내 遼東ㅅ城 안히 이셔 살고 姓이 王가ㅣ니 王 아모ㅣ라 쓰라 <下 15b>

(7ㄱ)은 일종의 구실표현으로 규정되어 온 것인데[27] 'ᄒᆞ야'가 이본들에는 'ᄒᆞ면'으로 바뀌어져 있다. 위와 같은 용례에 대해서는 구실표현 전반과 관련하여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7ㄴ)은 『老諺』 이후의 이본들에 나타나는 양상이 (5)의 예들의 그것과 유사하다. 『老諺』 이후의 이본들에서는 'ᄒᆞ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飜老』에서는 '쓰-'와 피인용문 사이에 'ᄒᆞ야'가 개재되어 있음이 흥미롭다.

이외에도 『老乞大』와 『朴通事』 언해본의 인용문들에서는 다양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8)

ㄱ. 「朴諺」 또 닐ᄋᆞ디 아녓ᄂᆞ냐 사ᄅᆞᆷ이 離鄕ᄒᆞ면 쳔ᄒᆞ고 물이 이향ᄒᆞ면 貴타 ᄒᆞᄂᆞ니라 <中 17b>

「朴新」 상언에 니ᄅᆞ되 사ᄅᆞᆷ이 離鄕ᄒᆞ면 賤ᄒᆞ고 物이 離鄕ᄒᆞ면 貴타 ᄒᆞ

27) '구실표현'이라는 용어는 이현희(1994:347)에서 가져온 것이다.

니 ᄒᆞ믈며 뎌 朝鮮 ᄌᆞ댱은 ᄀᆞ장 이 有名ᄒᆞᆫ 거시라 <2:26a>

ㄴ. 「飜老」 별히 내라 외방의 나가면 집 이고 ᄃᆞᆫ니려 ᄯᅩ 人家로 드러가 밥 어더 머글 거시니 ᄯᅩ 아니 니ᄅᆞᄂᆞ녀 쳔리엣 나그내를 됴히 보와 보내여 만 리예 일후믈 음끌 디니라 <上 44a>

「老諺」, 「平老諺」 독별이 내라 외방의 나가면 집을 이고 ᄃᆞᆫ니랴 ᄯᅩ 人家로 드러가 밥 어더 먹으리라 ᄯᅩ 아니 니ᄅᆞᄂᆞ냐 千里엣 나그내를 됴히 보와 보내미 萬里에 일홈을 면코져 홈이라 <上 39b-40a>, <上 39b-40a>

「老新」 人家에 드러가 밥 어더 먹기를 ᄉᆞ양치 못ᄒᆞ리라 쇽말에 니ᄅᆞ되 千里에 나그네를 죠히 보미 萬里에 일홈을 젼코져 호미라 ᄒᆞ니 이 말이 그르지 아니ᄒᆞ니라 <上 55b>

「淸老」 내 만일 밧긔 가면 집을 이고 ᄃᆞᆫ니랴 ᄯᅩ 사ᄅᆞᆷ의 집의 가셔 밥을 비러 먹ᄂᆞ니라 닐러시되 쳔리에 손을 잘 ᄃᆡ졉ᄒᆞ여 보내ᄂᆞᆫ 거시 만리 일홈을 엇고져 ᄒᆞᆫ다 ᄒᆞ엿ᄂᆞ니라 <3:12a>

「蒙老」 그리 니ᄅᆞ지 말라 나도 밧긔 나가면 집을 이고 ᄃᆞᆫ니랴 ᄯᅩ 놈의 집 향ᄒᆞ야 가셔 밥 어더먹ᄂᆞ니라 ᄯᅩ 쳔리엣 손을 잘 대졉ᄒᆞ면 만리에 일홈이 젼파ᄒᆞᆫ다 ᄒᆞ지 아니ᄒᆞ얏ᄂᆞ냐 <3:9a>

「重老」 네 그리 니ᄅᆞ지 말라 뉘 밧긔 나가매 집을 이고 ᄃᆞᆫ니랴 ᄯᅩ 人家에 드러가 밥 어더 먹기를 ᄉᆞ양치 못ᄒᆞ리라 ᄯᅩ 니ᄅᆞ지 아니ᄒᆞ엿ᄂᆞ냐 千里에 나그네를 죠히 보미 萬里에 일홈을 젼코져 홈이라 <上 40ab>

ㄷ. 「朴諺」 인연이 이시면 千里라도 능히 서ᄅᆞ 못ᄀᆞ고 인연이 업스면 ᄂᆞᆺ출 ᄃᆡᄒᆞ여도 서ᄅᆞ 만나디 못ᄒᆞᄂᆞ니 둘히 ᄆᆞᄋᆞᆷ이 서ᄅᆞ 비최면 ᄯᅩᄒᆞᆫ 어렵디 아니ᄒᆞ니라 「中 19a>

「朴新」 녜로부터 닐러시되 인연이 이시면 千里라도 능히 서ᄅᆞ 못ᄀᆞ고 인연이 업스면 ᄂᆞᆺ출 ᄃᆡᄒᆞ여도 서ᄅᆞ 만나디 못ᄒᆞᆫ다 ᄒᆞ니 이믜 둘희 ᄆᆞᄋᆞᆷ이 서ᄅᆞ 비최면 ᄯᅩ 어렵디 아니ᄒᆞ니 <2:27b>

ㄹ. 「朴諺」 네 므슴 말 니ᄅᆞᄂᆞᆫ다 拙ᄒᆞᆫ 장인이오 巧ᄒᆞᆫ 주인이니라 <下 6b>

「朴新」 네 무슴 말 니ᄅᆞᄂᆞᆫ다 常言에 니ᄅᆞ되 拙ᄒᆞᆫ 장인이오 巧ᄒᆞᆫ 주인이라 ᄒᆞ니라 <3:11a>

ㅁ. 「飜老」 큰형님 니ᄅᆞ샤미 올ᄒᆞ시이다 일즉 외방의 나ᄃᆞᆫ니기 니그면 일편도이 나그내를 에엿비 너기고 나옷 수을 탐ᄒᆞ면 취ᄒᆞᆫ 사ᄅᆞᆷ올 앗기ᄂᆞ니라 <上 41b-42a>

「老諺」, 「平老諺」 큰형의 니롬이 올타 일즙 외방의 나ᄃᆞᆫ니기 니그면 일편되이 나 그내롤 에엿비 너기고 나곳 술을 탐ᄒᆞ면 취ᄒᆞᆫ 사롬을 앗기ᄂᆞ니라 <上 37b>, <上 37b>

「老新」 큰형의 니ᄅᆞ미 올타 쇽말에 닐러시되 밧긔 나가기 닉으면 독별이 나 그녀롤 에엿비 너기고 이 녁이 술을 貪ᄒᆞ면 醉ᄒᆞᆫ 사롬을 앗긴다 ᄒᆞ니 果然 그르지 아니ᄒᆞ도다 <上 52b>

「清老」 형아 네 니ᄅᆞᄂᆞᆫ 말이 올타 밧긔 ᄃᆞᆫ녀 니근 이면 待客ᄒᆞᄂᆞᆫ 거시 重ᄒᆞ고 술 죠하ᄒᆞ면 취ᄒᆞᆫ 사롬을 앗기ᄂᆞ니라 <3:9a>

「蒙老」 큰 형의 니ᄅᆞᄂᆞᆫ 거시 올타 전에 밧긔 ᄃᆞᆫ니기 닉으면 정히 손들을 사랑ᄒᆞ고 네 술에 즐기면 취ᄒᆞᆫ 사롬을 앗긴다 ᄒᆞ엿ᄂᆞ니라 <3:5b>

「重老」 큰형의 니ᄅᆞ미 올타 쇽말에 니ᄅᆞ되 밧긔 나가기 닉으면 편벽히 나그녀롤 어엿비 너기고 이 녁이 술을 貪ᄒᆞ면 醉ᄒᆞᆫ 사롬을 앗긴다 ᄒᆞ니라 <上 38ab>

ㅁ'. 「朴諺」 慶壽寺에서 모든 망령을 위ᄒᆞ여 盂蘭勝會롤 ᄒᆞᄂᆞ니라 <下 8a>

「朴新」 慶壽寺에서 盂蘭勝會를 ᄒᆞᆫ다 ᄒᆞ니 우리도 구경ᄒᆞ라 가쟈 <3:12b>

(8ㄱ)의 『朴諺』은 언뜻 보면 '니ᄅᆞ더 + 인용문 + ᄒᆞ-'의 구조를 이루는 것을 보이는 것 같지만 '니ᄅᆞ더'가 오지 않고 '또 닐ᄋᆞ더 아녓ᄂᆞ냐'와 같이 의문형 종결어미로 맺은 문장이 왔다. 인용 내용의 강조를 위해 인용동사의 부정문이 의문문을 이루고 있다. 『朴新』에서는 인용문에 후행하는 'ᄒᆞ-'에 연결어미가 통합되어 있으며 이에 후행하는 문장은 수사의문문이 왔다.

(8ㄴ)도 (8ㄱ)과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 인용 내용의 강조를 위해 인용동사의 부정문이 선행하고 그 실질적인 인용의 내용은 후행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老新』의 '쇽말에 니르되'로 시작하는 구조와 나머지 이본들간의 구조가 대비된다.

(8ㄷ)에서 『朴諺』은 인용문이 아닌데 『朴新』에서는 인용문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원문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朴諺』의 원문에는 '自古道…'와 같이 인용문적인 부분이 있지만 『朴新』의 원문에는 이러한 인용문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8ㄹ)에서는 겉으로 인용문의 형식을 띠지 않는 『朴諺』에 비해 『朴新』이 인용문의 형식을 보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는 원문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8ㅁ)의 『飜老』 등은 인용문 구성이 아니다. 그러나 『老新』에서는 인용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飜老』에서 원칙법을 포함시켜 언해한 문장이 후대 이본들에서 인용문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꽤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老乞大』, 『朴通事』의 언해본 전반에 걸쳐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는 사태의 불변적, 기정적인 면을 드러내어 듣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하는 원칙법[28]의 현현과, 널리 알려진 옛말의 인용이나 통상적으로 상식화되어 있는 속언적인 말을 인용하는 것이 대부분인, 『老乞大』와 『朴通事』 언해본 인용문 전반적 특성이 맞닿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8ㅁ')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朴諺』은 비인용문으로 언해되고 있는 반면 『朴新』에서는 인용문으로 언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원문 차에 인한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원문의 구조에 있어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老乞大』와 『朴通事』 언해본의 인용문은 앞에서 관찰한 바와 같

28) 이에 관해서는 고영근(1981) 참조.

이 지문적인 요소가 개입된 부분에 나타나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에 나타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旣定的인 옛 말씀을 인용한 부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朴通事』 언해본의 경우에는 한 장면이 끝날 때 그 장면을 휘갑하는 식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상식화된 속언이나 옛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이러한 형식의 인용문은 '常言에 닐오디 + 인용문+ (ᄒᆞ-)'의 형식을 띠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음의 예가 그 전형적인 유형을 보인다.

(9)

ㄱ. 「朴諺」 常言에 닐오ᄃᆡ 도적 잡기ᄂᆞᆫ 장믈 보고 서르 싸호ᄃᆡᄂᆞᆫ 傷處ᄅᆞᆯ 驗ᄒᆞᆫ다 ᄒᆞᄂᆞ니라 <下 55a>

「朴新」 常言에 니ᄅᆞ되 도적잡기ᄂᆞᆫ 贓物을 보고 서ᄅᆞ 빠호ᄃᆡᄂᆞᆫ 傷處를 驗ᄒᆞᆫ다 ᄒᆞ니라 <3:53a>

ㄴ. 「飜老」 샹녯 말소매 닐오ᄃᆡ ᄆᆞ리 밤들 몯 머그면 술지디 아니ᄒᆞ고 사ᄅᆞ미 ᄲᅳᆫ 쳔곳 엇디 몯 어드면 가ᅀᆞ며디 몯ᄒᆞᄂᆞ니라 <上 32ab>

「老諺」, 「平老諺」 常言에 닐오되 ᄆᆞᆯ이 밤 여믈을 엇디 못ᄒᆞ면 술지디 못ᄒᆞ고 사ᄅᆞᆷ이 ᄲᅳᆫ 財物을 엇디 못ᄒᆞ면 가ᄋᆞᆷ여디 못ᄒᆞᆫ다 ᄒᆞᄂᆞ니 <上 29ab>, <上 29ab>

「老新」 常言에 니ᄅᆞ되 ᄆᆞᆯ이 밤 여믈을 엇지 못ᄒᆞ면 술지지 못ᄒᆞ고 사ᄅᆞᆷ이 橫財ᄅᆞᆯ 엇지 못ᄒᆞ면 가ᄋᆞᆷ여지 못ᄒᆞᆫ다 ᄒᆞ니 <上 40b-41a>

「淸老」 속담에 니ᄅᆞ되 ᄆᆞ이 밤여믈을 먹지 못ᄒᆞ면 술찌지 못ᄒᆞ고 사ᄅᆞᆷ이 횡재ᄅᆞᆯ 엇지 못ᄒᆞ면 가은여지 못ᄒᆞᆫ다 ᄒᆞ엿ᄂᆞ니 <2:22a>

「蒙老」 상담에 니ᄅᆞᆫ 거시 ᄆᆞᆯ이 밤여믈을 먹지 못ᄒᆞ면 능히 술지지 못ᄒᆞ고 사ᄅᆞᆷ이 횡재ᄅᆞᆯ 엇지 못ᄒᆞ면 능히 가ᄋᆞᆷ여지 못ᄒᆞᆫ다 ᄒᆞᄂᆞ니 <2:18b>

「重老」 常言에 니ᄅᆞ되 사ᄅᆞᆷ이 橫財ᄅᆞᆯ 엇지 못ᄒᆞ면 가ᄋᆞᆷ여지 못ᄒᆞ고 ᄆᆞᆯ이 夜草를 엇지 못ᄒᆞ면 술지지 못ᄒᆞᆫ다 ᄒᆞ니 <上 29ab>

대중에게 잘 알려진 격언적 성격의 말이나 옛 사람들이 전하는 말들이 『老乞大』와 『朴通事』 언해본 인용문의 대부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정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청자에게 전하는 인용문 구조는 드물게 나타난다.

3.2.1.2. 시점의 전이와 내적화법적 인용문

일련의 내적화법적 인용문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주목된다.

(10)

ㄱ. 「飜老」 제 닐오ᄃᆡ 즉제 오려 ᄒᆞ더니 네 안직 나갓다가 ᄒᆞᆫ 디위 기드려 다시 오나라 <下 lab>

「老諺」 제 닐오ᄃᆡ 즉제 오려 ᄒᆞ더니 네 아직 나갓다가 ᄒᆞᆫ 디위 기드려 다시 오나라 <下 lab>

「平老諺」 제 닐오ᄃᆡ 즉제 오마 ᄒᆞ여시니 네 아직 나갓다가 ᄒᆞᆫ 디위 기드려 다시오라 <下 la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그 나그ᄂᆡ 양 져제 가셔 즉시 오마 ᄒᆞ여 니ᄅᆞ고 가시니 네 아직 나갓다가 젹이 즈음ᄒᆞ여 다시 오라 <5:4b>

「蒙老」 그 나그ᄂᆡ 점에 잇더니 ᄀᆞᆺ 나가 양 져지 갈 쩍 닐ᄋᆞ되 즉시 오마 ᄒᆞ야시니 네 아직 나가 ᄒᆞᆫ번 기ᄃᆞ려 다시 오라 <5:1b>

「重老」 제 닐오ᄃᆡ 즉시 도라 오마 ᄒᆞ여시니 네 아직 밧긔 이셔 ᄒᆞᆫ 지위 기ᄃᆞ려 다시 오라 <下 lab>

ㄴ. 「飜老」 네 비록 遼東人이로라 ᄒᆞᆫ둘 내 믿디 몯ᄒᆞ애라 <上 49b-50b>

「老諺」, 「平老諺」네 비록 遼東 사ᄅᆞᆷ이로라 ᄒᆞ나 내 밋디 못ᄒᆞ여라 <上 44b-45b>, <上 44b-45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네 비록 요동 사룸이라 ᄒᆞ나 내 밋지 못ᄒᆞ리로다 <3:20b>
「蒙老」 네 비록 요동 사룸이라 ᄒᆞ나 내 밋지 못ᄒᆞᆯ노다 <3:17b>
「重老」 네 비록 니ᄅᆞ되 遼東ㅅ사룸이라 ᄒᆞ나 내 敢히 네 來歷을 밋지 못ᄒᆞ고 <上 45b-46b>

(10ㄱ)의 예에서 『飜老』, 『飜朴』의 '-오려'가 『平老諺』 이후 '-오마'와 교체되었음을 볼 수 있다. 15세기에서 직접화법의 피인용문에 쓰이는 어미 구조체 '-오리라'가 간접화법적 피인용구문에서 '-오려'로 교체됨[29]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려'와 교체를 보이는 것에는 '-오리라'뿐 아니라 '-오마'도 있다는 것을 위의 예는 잘 보여준다. 그런데 '-오리라'가 '-오려'로 교체를 보이든 '-오마'가 '-오려'와 교체를 보이든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오리라'와 '-오마'에서 연원한 간접화법적 인용구문에 나타나는 '-오려'[30]가 '오'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리라', '-오마'의 '오'는 1인칭화자와 관련된 '오'이다. 이렇게 직접화법적 구문에서 1인칭 화자와 관련되어 쓰인 '오'가 간접화법적인 문장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서 상기해 보아야 할 사실은 이 시기 인용구문의 전반적 성격이다. 현대국어 인용구문에서도 그러한 면이 적잖이 발견되지만

29) '-오리라'가 간접화법구문에서 '-오려'의 형식을 띠어 상위문에 연결되는 현상을 간접화법이 가지는 일반적 성격과 관련지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간접화법의 인용문은 직접화법에 비해 상위문의 일부이기도 한 후행문과 통사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간접화법이라는 것이 상위문을 포함한 인용문 전체에 대한 화자의 재해석에 의해 발화되는 화법이라는 점이 상위문과 피인용문의 밀접한 관계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하위문간의 통사·의미적 긴밀성의 언어적 표출이 '-오려'에 의한 상·하위문의 통합으로 현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종결어미적 구조체 '-오리라'와 상위문의 통합이 현현하는 상·하위문간의 긴밀성보다는 연결어미 요소인 '-어'가 포함된 '-오려'와 상위문의 통합이 현현하는 상·하위문간의 긴밀성이 더 견고한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30) '-오려'의 '오'가 상성으로 표시됨도 '-오려'의 '오'가 1인칭 화자와 관련된 요소임을 보여준다.

중세국어 및 근대국어 인용구문의 직접화법과 간접화법도 그 구분이 그다지 명확한 편이 아니었다. 형태상으로 보아도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오'의 유지를 직접화법의 간접화법으로의 일반적인 화법 전이시 나타나는 '시점의 전이'라는 현상과 관련하여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직접화법은 인용문을 발화하는 화자가 연극을 하는 양 피인용문을 다른 사람(피인용문의 화자)이 말한 그대로 발화하는 방식의 화법을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화자 자신의 시점은 절대로 피인용문에 투영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에 비해 간접화법은 화자가 자신의 시점을 중심으로 피인용문을 재해석하여 발화하는 방식의 화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피인용문과 그 상위문 전체를 발화하되 화자 자신이 발화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려'에서 유지되는 '오'는 명백히 직접화법적인 발화, 즉 피인용문 화자의 시점이 현현된 것이지 피인용문과 상위문 전체를 발화하는 화자의 시점이 투영된 것이 아니다. '-오려'가 포함된 문장이 간접화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려'의 '오'는 피인용문 화자의 시점이 유지된 표지로 해석된다. 이는 '-오려' 포함 문장이 간접화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화법적인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음을 보인다.

피인용문과 상위문 전체를 발화하는 화자는 피인용문을 자신의 시점을 중심으로 재해석하여 화법구문을 구성하기는 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피인용문 화자의 시점을 유지하여 화법의 전이시 전제되어야 할 '시점의 전이'를 완벽하게 보이지 못함으로써 '오'를 유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오려'의 '오'는 불완전한 간접화법의 징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며 인용문 전체의 화자가 피인용문 화자의 시점을 고려하여 사태를 진술한 자취인 것이다.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중세국어의 특징이 근대국어 시기에도 그대

로 이어짐이 여기서 확인되는 셈이다.[31]

(10ㄴ)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비록 요동 사ᄅᆞᆷ이로라 ᄒᆞᆫ둘 '에서 이 구절 전체의 화자를 중심으로 지칭된 '네'가 있는 것으로 보아도 이 구문은 간접화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사ᄅᆞᆷ이로라'에서와 같이 '오'가 통합된 것은 간접화법의 특징인 화자 중심으로의 시점의 전이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려'의 '오'는 『老諺』 이후 사라져 이후 '오려'는 '-으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11)의 예가 참조된다.

(11)

ㄱ. 「飜老」 네 ᄒᆞ마 ᄑᆞ로려 ᄒᆞ거니 우리 혜아리져 이 ᄎᆞᆼ이ᄆᆞ리 나히 언멘고 <7b-8a>

「老諺」, 「平老諺」 네 이믜 ᄑᆞᆯ려 ᄒᆞ면 우리 혜아리쟈 이 ᄎᆞᆼ이ᄆᆞᆯ이 나히 언머고 <下 6b-7b>, <下 6b-7b>

「老新」 〔해당문장 빠짐〕

「淸老」 네 다 져의게 ᄑᆞᆯ면 올흘 듯ᄒᆞ다 우리 대되 안자 갑슬 의논ᄒᆞ쟈 이 ᄎᆞᆼ이 ᄆᆞᆯ이 나히 언머뇨 <5:12b>

「蒙老」 이 ᄆᆞᆯ을 다 사셔 산동에 ᄑᆞᆯ라 가려 ᄒᆞᄂᆞ니 이지 저지 갈씨라도 또 ᄒᆞᆫ가지라 천조각이 ᄒᆞᆫ덩이에 밋지 못ᄒᆞ다 ᄒᆞ니 네 다 져긔

---

31) 이현희(1985:194-197)에서는 (10ㄱ)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제 '올호라' ᄒᆞ고 ᄂᆞᄆᆞᆯ '외다' ᄒᆞ야<釋譜 9:14>'와 같은 문장에서 피인용문의 서술어에 반드시 '-오-'가 개재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위의 예와 같이 피인용문의 3인칭 주어와 상위문의 주어가 동일인일 때는 대격주제화가 수행되기보다 피인용문의 주어가 재귀대명사로 변형되어 상위문에 나타나며 이때 피인용문의 주어는 '제(내) 올호라 ᄒᆞ고'에서와 같이 통사상으로 엄연히 살아 있게 되어 '-오-'가 개재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현상에 대한 이러한 기술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설명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에 전체 문장 '제 '올호라' ᄒᆞ고 ᄂᆞᄆᆞᆯ '외다' ᄒᆞ야'의 화자가 사태를 기술하되 자신을 중심으로 완전히 관점의 전이를 하지 못하고 피인용문 '올호라'의 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피인용문 '올호라' 화자의 입장에서 사태를 진술한 결과 '-오-'가 개재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설명 방식인 것이다.

풀미 올흘 ᄯᅳᆺᄒᆞ다 네 말이 올ᄒᆞ니 우리 혜아리쟈 이 총이물이 나히 몃고 <5:10b>

「重老」 네 다 풀려 ᄒᆞ면 우리 죠히 商量ᄒᆞ쟈 이 총이물이 나히 언머고 <下 7b-8a>

ㄴ. 「飜老」 네 이리 간대로 갑슬 바도려 말라 엇디 너를 주어ᅀᅡ 올흘고 <下 10b>

「老諺」 네 이리 간대로 갑슬 바드려 말라 엇디 너를 주어야 올ᄒᆞ료 <下 9b>

「平老諺」 네 이리 간대로 갑슬 바드려 말라 엇디 너를 주어야 올ᄒᆞ료 <下 9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처음대로 벅벅이 움즈기지 아니ᄒᆞ면 언제 비로소 갑 졍ᄒᆞ리오 <5:16a>

「蒙老」 네 간대로 갑슬 바드려 말라 엇지 네게 주어야 올흐리 <5:13b>

「重老」 이리 간대로 헷갑 꾀오지 말라 날로 ᄒᆞ여 엇지 네게 갑하야 올흐료 <下 10b>

'-오려'의 '오'는 1인칭 화자주어와 관련된 '오'의 소멸 시기와 일치하는 소멸 시기를 보인다. 이밖에 '오'와 관련하여 더 언급되어야 할 구성 중 하나는 구실표현으로 일컬어지는[32] 다음과 같은 구성들이다.

(12)

ㄱ. 「飜老」 네 본디 셔울 가 쳔량 ᄑᆞ라 ᄯᅩ 소옴 깁 사 王京의 가 ᄑᆞ노라 ᄒᆞ야 前後에 언메나 오래 머므는다 <上 14b-15a>

「老諺」, 「平老諺」 네 본디 셔울 가 貨物을 ᄑᆞ라 ᄯᅩ 소옴과 깁을 사 王京에 가 ᄑᆞ노라 ᄒᆞ면 前後에 언메나 오래 머믈러뇨 <上 13b>

「老新」 네 본디 셔울 가 貨物을 풀고 즉시 綾과 깁을 사 王京에 가 ᄑᆞ노라 ᄒᆞ면 前後에 몃 날을 머믈러뇨 <上 18b>

32) '구실표현'이라는 용어는 이현희(1994: 347)에서 가져온 것이다.

「淸老」 네 본디 황셩에 가 화믈을 풀고 또 소옴과 깁을 사셔 황경에 홍졍ᄒᆞ라 가면 왕래 몃ᄃᆞᆯ ᄃᆞᆫ니ᄂᆞᆫ다 <1:21a>

「蒙老」 네 본디 셔울 가셔 소옴과 깁을 사 왕경 가 풀면 길히 몃ᄂᆞᆯ 힝ᄒᆞᆯ너뇨 <1:20a>

「重老」 네 본디 셔울 가 貨物을 풀고 곳 綾과 깁을 사 王京에 가 ᄑᆞ노라 ᄒᆞ면 前後에 몃 날을 머믈러뇨 <上 13ab>

ㄴ. 「飜老」 우리 ᄲᆞᆯ리 짐ᄃᆞᆯ 설어즈라 ᄆᆞᆯ 기ᄅᆞ마 진노라 ᄒᆞ면 하ᄂᆞᆯ히 ᄇᆞᆯ그리로리다 <上 38ab>

「老諺」 우리 ᄲᆞᆯ리 짐들 收拾ᄒᆞ쟈 ᄆᆞᆯ 기ᄅᆞ마 짓노라 ᄒᆞ면 하ᄂᆞᆯ이 ᄇᆞᆯ그리로다 <上 34b>

「平老諺」 우리 ᄲᆞᆯ리 짐들 收拾ᄒᆞ쟈 ᄆᆞᆯ 기ᄅᆞ마 짓노라 ᄒᆞ면 하ᄂᆞᆯ이 ᄇᆞᆰ으리로다 <上 34b>

「老新」 밧비 니러 ᄂᆞᆾ 싯고 옷 닙고 여러 잔 술 먹고 行李ᄅᆞᆯ 收拾ᄒᆞ여 ᄆᆞᆯ 기ᄅᆞ마 짓고 하ᄂᆞᆯ이 ᄇᆞᆰ거든 主人의게 하직ᄒᆞ고 가쟈 <上 48a>

「淸老」 우리 ᄲᆞᆯ리 짐을 출ᄒᆞ고 ᄆᆞᆯ 기르마 지을 ᄉᆞ이에 하ᄂᆞᆯ이 ᄇᆞᆰ을가 ᄒᆞ노라 <3:4a>

「蒙老」 우리 ᄲᆞᆯ리 짐을 출히쟈 ᄆᆞᆯ께 기ᄅᆞ마 짓노라 ᄒᆞ면 하ᄂᆞᆯ이 ᄇᆞᆰ으리라 <3:1b>

「重老」 ᄲᆞᆯ리 니러 ᄂᆞᆾ 싯고 옷 닙고 여러 잔 술 먹고 行李ᄅᆞᆯ 收拾ᄒᆞ여 ᄆᆞᆯ 기ᄅᆞ마 짓고 하ᄂᆞᆯ이 ᄇᆞᆰ거든 主人의게 하직ᄒᆞ고 가쟈 <上 34b>

ㄷ. 「飜老」 우리 ᄆᆞᆯ 모라 가 하츄에 가 짐ᄃᆞᆯ 설엇노라 ᄒᆞ면 마치 ᄇᆞᆯᄀᆞ리로다 <上 58ab>

「老諺」, 「平老諺」 우리 ᄆᆞᆯ 모라 가 하쳐의 가셔 짐들 收拾ᄒᆞ노라 ᄒᆞ면 마치 ᄇᆞᆯ그리로다 <上 52b>, <上 52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ᄆᆞᆯ을 모라 하쳐의 가져 가 짐을 출ᄒᆞᆯ 즈음에 반ᄃᆞ시 ᄇᆞᆰ으리라 <4:10a>

「蒙老」 우리 물을 잇그러 가쟈 햐쟈에 가 짐을 출히노라 ᄒᆞ면 채 붉으리라 <4:5a>

「重老」 우리 물을 모라 下處에 가 行李 收拾ᄒᆞ노라 ᄒᆞ면 그저 저프건대 하늘이 곳 붉으리로다 <上 53b>

ㄹ. 「飜老」 요조숨 아숨 청ᄒᆞ야 이바디ᄒᆞ노라 ᄒᆞ며 ᄯᅩ 병으로 머므러 가디 몯ᄒᆞ얏다니 <下 55b-56a>

「老諺」, 「平老諺」 내 이 황호엣 것들 사 涿州로 풀라 가려 ᄒᆞ더니 요즈음 권당 청ᄒᆞ여 이바디ᄒᆞ며 ᄯᅩ 병으로 머믈어 가디 못ᄒᆞ엿더니 <下 50ab>, <下 50a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내 이 貨物을 사셔 涿州 ᄶᅡ히 풀라 가고져 ᄒᆞ더니 요ᄉᆞ이 친척을 정ᄒᆞ여 잔치ᄒᆞ고 ᄯᅩ 병애 가지 못ᄒᆞ엿더니 <8:1b>

「蒙老」 내 이 物貨를 사셔 涿州 ᄶᅡ희 풀라 가려 ᄒᆞ더니 ᄀᆞᆺ 친척을 청ᄒᆞ여 잔치ᄒᆞ고 ᄯᅩ 병 들무로 가지 못ᄒᆞ엿더니 <8:1b>

「重老」 내 이 貨物을 사 涿州ㅣ 가 풀라 가려 ᄒᆞ되 이 여러 날 권당을 請ᄒᆞ여 잔치호믈 위ᄒᆞ고 ᄯᅩ 져기 病 이셔 머믈믈 위ᄒᆞ여 일즉 가지 못ᄒᆞ엿더니 <下 52ab>

ㅁ. 「飜老」 ᄯᅩ 이 ᄒᆞᆫ 가짓 뵈 ᄡᅳ니 언노라 ᄒᆞ면 ᄯᅩ ᄒᆞᆫ 돈 은을 ᄡᅳᄂᆞ니 이런 젼ᄎᆞ로 살 사ᄅᆞ미 져그니라 <下 62b-63a>

「老諺」, 「平老諺」 ᄯᅩ 이 ᄀᆞᆺ튼 뵈 ᄡᅳ니 언노라 ᄒᆞ면 ᄯᅩ ᄒᆞᆫ 돈 은을 ᄡᅳᄂᆞ니 이런 젼ᄎᆞ로 살 사ᄅᆞᆷ이 져그니라 <下 56b>, <下 56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이ᄀᆞᆺ흔 뵈 조각을 사면 ᄒᆞᆫ 돈 은을 허비ᄒᆞ리라 네 말대로 ᄒᆞ면 반ᄃᆞ시 살 사ᄅᆞᆷ이 적으리라 <8:11a>

「蒙老」 ᄯᅩ 근본 몸 ᄀᆞᆺ흔 뵈 조각을 구ᄒᆞ면 ᄒᆞᆫ 돈 은이 들리니 이러 타스로 살 사ᄅᆞᆷ이 적으리라 <8:11a>

「重老」 반ᄃᆞ시 져기 쁜 뵈를 붓텔 거시니 ᄯᅩ ᄒᆞᆫ 돈 은을 허비ᄒᆞ리라 그러므로 살 사ᄅᆞᆷ이 져그니라 <下 58b-59a>

위의 예들에서 현대국어의 '-하느라고'로 이어지는 형식인 '-ᄒᆞ노라 ᄒᆞ야'의 구실 표현들을 볼 수 있다. '-ᄒᆞ노라 ᄒᆞ-'의 '-노라'에 포함되어 있는 '오'는 본질적으로는 1인칭 화자 주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때의 1인칭 화자는 (12ㄱ)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ᄑᆞ노라'가 지시하는 행동의 주체이지 구실 표현 전체를 발화하는 화자가 아니다. 결국 구실 표현 전체를 발화하는 화자가 'ᄑᆞ노라'가 지시하는 행동 주체의 시점을 고려한 상태에서 그 행동 주체와 관련된 사태를 표현한 것이 (12ㄱ)인 것이다. 그런데 (12ㄱ)과 같이 'ᄑᆞ노라'의 행동 주체와 구실 표현 전체를 발화하는 화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12ㄴ)과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12ㄴ)에서는 구실 표현을 발화하는 화자가 '진노라'가 지시하는 사태를 기술하는 데 있어 '진노라'의 주체이며 동시에 구실 표현 전체의 화자인 자신의 시점을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긴 했으나 여기서 나타나는 구조의 본질적 성격은 (12ㄱ)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12)와 같은 구실 표현 속에 나타나는 '오'는 본질적으로는 간접화법구문에 나타나는 '-오려'의 '오'와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러한 구실 표현 속의 '오'는 『重老』, 『朴新』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을 유지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구실 표현 속의 '오'의 기능이 살아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한편 '-오려'는 '-고져'와 교체를 보이기도 한다. 다음의 예가 참조된다.

(13)

ㄱ. 「飜老」 모도와 언메나 갑슬 받고져 ᄒᆞᄂᆞ다 <下 10a>

「老諺」, 「平老諺」모도와 언머 갑슬 밧고져 ᄒᆞᄂᆞ다 <下 9a>, <下 9a>

「老新」 〔해당문장 빠짐〕

「淸老」 언머 갑 밧고져 ᄒᆞᄂᆞᆫ 거슬 각각 ᄒᆞᆫ나식 갑슬 알외라 <5:15a>
「蒙老」 언마나 밧고져 ᄒᆞᄂᆞᆫ다 ᄒᆞ나식 갑슬 닐ᄋᆞ라 <5:13a>
「重老」 대되 언머 은을 바드려 ᄒᆞᄂᆞ뇨 <下 10a>

ㄴ. 「飜老」 너옷 사고져 커든 우리 의논ᄒᆞ져 <下 21b>
「老諺」, 「平老諺」네 사고져 커든 우리 의논ᄒᆞ쟈 <下 19b>, <下 19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네 사고져 ᄒᆞ거든 ᄒᆞᆫ나식 ᄒᆞᆫ나식 ᄉᆞᆲ혀 자세히 보고 다시 갑슬 의논ᄒᆞ쟈 <6:8a>
「蒙老」 네 사려 ᄒᆞ거든 혜아리쟈 <6:4a>
「重老」 네 만일 사려 ᄒᆞ면 우리 죠히 商量ᄒᆞ쟈 <下 20b>

ㄷ. 「飜老」 이 ᄆᆞᆯ 우희 시른 아니한 모시뵈도 이믜셔 ᄑᆞᆯ오져 ᄒᆞ야 가노라 <上 8ab>
「老諺」, 「平老諺」이 ᄆᆞᆯ께 실은 져근 모시뵈도 이믜셔 ᄑᆞᆯ고져 ᄒᆞ여 가노라 <上 7b>, <上 7b>
「老新」 이 ᄆᆞᆯ께 시른 져기 여러 모시뵈도 홈ᄭᅴ ᄑᆞᆯ려 ᄒᆞ니 <上 10ab>
「淸老」 ᄆᆞᆯ께 시른 모시 뵈도 ᄑᆞᆯ거시라 <1:10b-11a>
「蒙老」 이 ᄆᆞᆯ께 시ᄅᆞᆫ 모시 뵈도 홈ᄭᅴ ᄑᆞᆯ고져 ᄒᆞ노라 <1:11b>
「重老」 이 ᄆᆞᆯ께 시른 약간 모시뵈도 홈ᄭᅴ ᄑᆞᆯ려 ᄒᆞᄂᆞᆫ 거시니 <上 7b-8a>

(13ㄱ), (13ㄴ)에서는 '-고져'가 『重老』에 이르러 '-오려'에서 연원한 '-(으)려'로 교체되었음을 볼 수 있다. (13ㄷ)에서는 '오'의 소멸로 '-오려'가 『老新』 이후에 '-(으)려'로 교체됨을 보인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예문을 중심으로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에 나오는 인용문의 양상을 비교해 보았다. 『老諺』과 『朴諺』 이후부터 피인용문에 대해 '니ᄅᆞ듸', 'ᄒᆞ-'가 후치되는 현상이 보이는데 이는 18세기 언해본들에도 그대로 이어져 나타난다. 또 예외로 분류

되는 예문들도 대사 중에 등장하는 인용문이 아닌, 지문적 요소가 개재된 문장 중에 나타나는 예문들이기에 진정한 예외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인용동사의 피인용문에 대한 후치 현상이 17세기 이후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통시적 경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접화법에 나타나는 어미구조체 '-오리라, -오마'가 자주 간접화법에서는 '-오려'등으로 교체되어 나타나는데 이 때 '-오려'에 개재된 '오'는 1인칭 화자와 관련된 것으로 불완전한 간접화법의 표지로 해석될 수 있었다. '-오려'의 '오'의 소멸 시기가 1인칭 화자와 관련된 '오'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점과 '-오려'에 포함된 '오'의 성조가 상성임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른바 '구실 표현'이라 명명되었던 'ᄑᆞ노라 ᄒᆞ야'와 같은 표현 중에 개입된 '오'도 동일한 관점에서 그 기능을 파악해 보았다. 논의한 일련의 형식들은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경계가 모호했던 국어 인용문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3.2.2. 장형사동구문의 비교

3.2.2.1. 피사동주 통합 격조사 교체형의 단일화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들의 비교에 있어 가장 주목되어 온 사실들 중 하나는 장형사동문에서,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ᄒᆞ여'가 개재된 장형사동문에서 '올~로'와 같이 교체를 보이면서 피사동주에 통합되던 격조사가 『老諺』과 『朴諺』 이후 '-로'로 굳어지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점이다. 다음과 같은 예가 이러한 현상의 일단을 잘 보인다.

(1)
ㄱ. 「飜老」 ᄃᆡ 버ᄃᆞᆯ ᄒᆞ야 오게 ᄒᆞ라 <上 58a>
「老諺」 ᄃᆡ 벗으로 ᄒᆞ여 오게 ᄒᆞ라 <上 52a>

ㄴ. 「飜朴」 누ᄅᆞᆯ ᄒᆞ야 가 어드라 ᄒᆞ료 <上 3a>
「朴諺」 눌로 ᄒᆞ여 가 어더 오료 <上 2b>

(1)류에 대해 김완진(1976)에서 언급된 격조사의 교체 경향은 말 그대로 하나의 경향이라고 해석될 필요가 있다. 아래의 (2)는 이미 『老諺』이나 『朴諺』 시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飜老』 시기에 이미 피사동주의 격표지로 '-로'가 쓰이고 있음을 보인다. 『老諺』·『朴諺』 시기에 '-로'가 갑작스럽게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老諺』 이후의 이본들도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한다.

(2) 「飜老」 사ᄅᆞ모로 ᄒᆞ야 面에 올인 ᄡᆞᆯ와 ᄃᆞᆼ 우희 ᄭᆞ론 힘 뵈오 <下 31b>
「老諺」 사ᄅᆞᆷ으로 ᄒᆡ여 面에 올닌 ᄡᆞᆯ와 ᄃᆞᆼ 우희 ᄭᆞᆫ 힘 뵈고 <下 28b>
「平老諺」 사ᄅᆞᆷ으로 ᄒᆡ여 面에 올닌 ᄡᆞᆯ와 ᄃᆞᆼ 우희 ᄭᆞᆫ 힘 뵈고 <下 28b>
「重老」 사ᄅᆞᆷ으로 ᄒᆞ여 面에 올린 ᄡᆞᆯ와 ᄃᆞᆼ 우희 ᄭᆞᆫ 힘을 뵈고 <下 28b>

그런데 이미 『飜老』·『飜朴』 이전의 15세기의 자료에서도 'ᄒᆞ여'가 개재된 장형사동문의 피사동주가 'ᄋᆞᆯ'과 '로'로 수의적 교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3)]. 따라서 격표지의 교체 현상 자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 「法華」 내 오래 너희ᄅᆞᆯ 부텻긔 善根을 시므게 ᄒᆞ야 <4:41b>
「杜詩」 날로 ᄒᆡ여 ᄀᆞ마니 넉ᄉᆞᆯ 뮈우ᄂᆞ다 <8:19b>

다만 『飜老』·『飜朴』의 피사동주 표지로는 'ᄋᆞᆯ'이 통합되는 용례

가 대다수라는 점과 『老諺』·『朴諺』 이후 언해본들의 언해문에서는 이들이 '-로'로 교체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시되어야 할 점이 있다. 뒤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飜老』·『飜朴』에 '-로'가 출현하는 용례에 대해, 후대 이본들의 대당하는 용례에 'ᄋᆞᆯ'이 출현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이다. 만일 『老諺』·『朴諺』 이후의 언해본들에서 15세기에서와 같은 동질적인 질서, 즉 'ᄋᆞᆯ'과 '로'가 어떤 편재적 분포도 보이지 않고 글자 그대로 수의적으로 교체하는 질서가 작용했다면 역의 용례도 기대할 만한데 그러한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飜老』·『飜朴』이 『老諺』·『朴諺』에서 보이는 변화가 적어도 『老乞大』와 『朴通事』 언해본의 이본들 내에서는 17세기 이후에도 고수됨으로써 통시적으로 굳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확인된 사실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는 용례가 있다. 애초에 『飜老』·『飜朴』에서부터 격조사가 생략되어 나타났던 용례가 『老諺』·『朴諺』에서는 격조사가 보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예외 없이 '-로'가 보충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다음의 예가 참조된다.

(4)

ㄱ. 「飜老」 네 ᄒᆞᆫ 벋 ᄒᆞ야 날 조차 가면 <下 18b>

「老諺」 네 ᄒᆞᆫ 벋으로 ᄒᆞ야 날 조차 가면 <下 16b>

「平老諺」 네 ᄒᆞᆫ 벗으로 ᄒᆞ여 날 조차 가 데 가면 <下 16b-17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네 ᄒᆞᆫ 벗을 보내여 나ᄅᆞᆯ 조차 가라 ᄒᆞ고 <6:4a>

「蒙老」 네 ᄒᆞᆫ 벋으로 날을 좃차 가라 ᄒᆞ여라 <5:23b>

「重老」 네 ᄒᆞᆫ 벗으로 ᄒᆞ여 나ᄅᆞᆯ ᄠᆞ라 가 졔 가 稅ᄅᆞᆯ 밧치고 <下 17b-18a>

ㄴ. 「飜老」 문득 그 사ᄅᆞᆷ ᄒᆞ야 글 외오요ᄃᆡ <上 3b>
「老諺」, 「平老諺」 문득 그 사ᄅᆞᆷ ᄒᆞ여 글 외오ᄃᆡ <上 3b>, <上 3b>
「老新」 곳 그 사ᄅᆞᆷ으로 ᄒᆞ여 글 외오되 <上 4b>
「淸老」 〔해당 문장 빠짐〕
「淸老」 〔해당 문장 빠짐〕
「重老」 곳 그 사ᄅᆞᆷ으로 ᄒᆞ여 글 외오되 <上 3b>

(4ㄱ)의 『飜老』에는 어떤 격조사도 통합되어 나타나지 않다가 『老諺』에서부터 '-로'가 통합되어 나타나는데 후대본들에도 이것이 고수된다. (4ㄴ)에서는 『老諺』과 『平老諺』에서까지는 조사가 보충되지 않지만 『老新』과 『重老』에서는 조사가 보충되는데 이 경우 '-ᄅᆞᆯ'이 아닌 '-로'가 통합되고 있음이 주목을 끈다. 초간본에서는 생략되었던 조사가 보충되는 경우엔 예외없이 '-로'가 보충되었다. 결국 이러한 현상도 통시적으로 격조사 '-로'가 통합되는 경향이 굳어져 갔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15세기와는 다소 다른 질서가 작용했던 것이다.

3.2.2.2. 한어 원문과의 대비

위에서 언급한 현상의 배경에는 통시적으로 'ᄒᆞ여'가 개재된 장형사동 구문이 겪은 성격 변화가 가로 놓여 있는 것 같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본들에서 보이는 구문의 유형들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3.2.2.3.과 3.2.2.4.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피사동주에 격조사 '-로'가 편향되게 후행하기 시작하는 배경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우선 'ᄒᆞ여' 개재 장형사동문의 한어 원문의 양상과 이들 구문에서 'ᄒᆞ여'가 가지는 성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에서 (1)과 같은 구문들은 사역적

요소인 '敎, 着[33], 使' 등이 통합된 한어문과 대응된다. 보통 이들은 한어문에서 사동주에 선행하는 곳에 출현한다. 가령 '몬져 둘흘 ᄒᆞ야 ᄆᆞᆯ 노ᄒᆞ라 보내오<飜老 上 57a>'에 대응하는 한어 원문은 '先着兩箇放馬去'이다. '着'이 피사동주인 '兩箇' 앞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고대한어에서는 '使, 敎' 등이 사동 구문에 널리 쓰였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老乞大』와 『朴通事』 언해본의 (1)류와 대응하는 백화문의 특징 중 하나는 원문에 '使'가 나타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확연히 구분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ᄒᆞ여'가 개재된 장형사동구문의 경우 한어 원문에 '敎'와 '着'이 압도적으로 쓰였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예가 참조된다.

(5) 「飜老」 敎別人看	녀느 사ᄅᆞᆷ ᄒᆞ여 보게 ᄒᆞ라 <上 65b>
「飜老」 敎堂直的學生背起	딕싈 션비 ᄒᆞ야 어피고 <上 4a>
「飜老」 着兩箇後頭赶將頭口來	둘흐란 ᄒᆞ여 뒤헤 즘ᄉᆡᆼ 모라 오게 ᄒᆞ고 <上 66b>
「飜老」 着這老的看着	이 늘그니 ᄒᆞ야 보라 ᄒᆞ야라 <上 34ab>

이에 비해 '使'가 쓰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더욱이 '敎'와 '着'이 나타나는 경우와 분포상 상이한 양상을 나타낸다. 문헌별로 분포상의

33) '着' 역시 백화문을 중심으로 이미 이른 시기부터 사동 구문에 쓰였다. 着은 '附着'의 의미로부터 허사화하였다. 王力(1945)에 의하면 着은 한말에 이미 허사화하는 경향을 보여 사동적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에 쓰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了'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했는데 17세기 이후에야 '了'와의 구분이 다소 확연해졌다고 한다. 현대 중국어에서 '着'이 부가된 문장은 '행동주의 고의적, 의도적 행동의 결과로서의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거나 '선행하는 행동에 의해 초래된 결과에 대한 상태'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견해가 있다(Jaxontov 1988:115-132). 이때 '着'이 의미를 부가하는 동사는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다. 이와 같은 '着'의 용법과 관련하여, '着'이 부가된 원문을 언해한 『老乞大』, 『朴通事』 언해문들의 사동적인 의미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차이를 보인다. 우선 『老乞大』에서는 '使'가 사동 구문에 쓰인 예 자체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모든 경우에 '教' 아니면 '着'이 쓰이고 있다[(5)].

『朴通事』의 언해본에서는 나타나는 양상이 간단하지 않다. 현존하는 『飜朴』(上)에서는 『老乞大』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동 구문에 대해 원문에 '使'가 쓰이는 경우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모두 '教'와 '着'만이 나타난다. 그런데 전하지 않는 『飜朴』(下)에 대응하는 『朴諺』과 『朴新』의 대당 부분에는 원문에 드물기는 하지만 '使'가 쓰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우 'ᄒᆞ여'가 개재된 장형사동문과 대응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보통 '使'는 '브리-'와 같이 그 자체가 사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어간에 연결어미 '-어'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브려-' 등의 형식에 대응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6) 「朴諺」 我妳妳使的我說將來　　우리 妳妳ㅣ 날을 브려 닐러늘 가져 왓노이다 <中 16b>
「朴新」 我妳妳使喚我來 問大娘好　　우리 妳妳 나를 부려 와 大娘의 평안함을 뭇고 <2:25a>

위의 『朴諺』과 『朴新』의 용례는 그러한 양상을 잘 보인다. 다음과 같은 『朴諺』의 용례도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7)
ㄱ. 「朴諺」 皇后暗使一箇宮娥 說與先生櫃中有一顆桃
皇后 ㅣ ᄀᆞ만이 ᄒᆞᆫ 宮娥ᄅᆞᆯ 브려 先生ᄃᆞ려 궷 가온대 ᄒᆞᆫ낫 복셩홰 잇다 닐럿더니 <下 21b>

ㄴ.「朴諺」 便使黑心
　　　문득 게엄 ᄆᆞ옴을 ᄇᆞ려 <下 18a>

그런데 이러한 대체적인 경향에 대해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는 용례들이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8)
ㄱ.「朴新」 皇后暗使一箇宮娥 說與先生櫃中有一顆桃
　　　皇后 ㅣ ᄀᆞ만이 ᄒᆞᆫ 宮娥로 ᄒᆞ여곰 先生ᄃᆞ려 닐러 궤 가온대 ᄒᆞᆫ 복셩홰 잇다 ᄒᆞ엿더니 <3:25a>

ㄴ.「朴新」 怎生使他現出本像
　　　엇지 뎌로 ᄒᆞ여곰 本像을 現出케 ᄒᆞ리오 <3:28b>

(7ㄱ)의 『朴諺』의 용례에 대응하는 『朴新』의 원문[(8ㄱ)]은 '使'가 쓰임에도 불구하고 'ᄇᆞ려'로 언해되지 않고 'ᄒᆞ여' 개재 장형 사동문으로 언해가 되어 있다. 이외에도 『朴新』에는 '使'가 쓰인 원문에 'ᄒᆞ여' 개재 장형 사동문이 대응되는 예가 하나 더 보인다[(8ㄴ)]. 원문이 개수된 『朴新』의 경우에만 이러한 예외들이 보임이 주목된다.

이와 같이 『朴新』에는 예외적으로 '使'가 포함된 한어문 문장이 'ᄒᆞ여'가 개재된 장형사동문으로 언해되고 있는 용례가 둘 정도 보인다. 그러나 이들 용례가 예외에 속할 만큼 '使'가 이러한 문맥에 나타나는 예는 드물다. 거론한 용례가 찾을 수 있는 전부이며 그들 모두가 원문이 개수되고 그에 대한 새로운 번역이 이루어진 『朴新』에 집중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한편 (7ㄱ)과 (8ㄱ)은 흥미로운 대응 양상을 보인다. 『朴諺』의 'ᄒᆞᆫ 宮娥를 ᄇᆞ려'에 대응되는 『朴新』의 언해는 'ᄒᆞᆫ 宮娥로 ᄒᆞ여곰'이다. 뒤에서도 언급되겠지만 'ᄒᆞ여곰'에서의 'ᄒᆞ여'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지금까지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에서 장형 사동문의 원문에 '使'가 거의 대응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장황하게 설명한 셈인데 이는 『老朴集覽』의 '使'에 대한 해설 양상과도 일치한다.

(9) 使
上聲 差也 役也 使的我 날 브려 又用也 使用了 吏語行使 쓰다 又使船 비 달호다
又去聲 使臣 差使 又官名 <單字解 5>

『老朴集覽』의 내용 중 '使'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설은 'ᄒᆞ여'가 개재된 장형사동구문에 대당하는 원문에 출현하는 '着, 教' 항목의 해설과 대조된다. 『老朴集覽』의 '着, 教' 항목에는 공통적으로 장형 사동문에서의 용법을 보이는 '使之爲也'와 같은 해설이 부기되어 있다. 『老乞大』와 『朴通事』 언해본에서의 실제적 쓰임과 일치하는 기술이다. 이에 비해 '使' 항목에는 (9)에서도 볼 수 있듯이 '着, 教' 항목의 '使之爲也'에 상응하는 구절이 들어 있지 않다. 이러한 해설 양상의 차이도 '使'[34]가 '着, 教'과는 달리 『老乞大』, 『朴通事』의 언해본에서

34) 다음과 같은 예들은 '使'의 번역과 관련해 주목을 끈다.

①將軍으로 ᄒᆞ여 보라 ᄒᆞ니(教將軍看) ②將軍이 쇠갈고리로 ᄢᅢ(將軍使金鉤子) ᄒᆞᆫ 므르노가 ᄢᅧ만 잇ᄂᆞᆫ 先生을 건뎌내니 孫行者 ㅣ 닐오ᄃᆡ 내 이제 드러가 모욕ᄒᆞ리라 ᄒᆞ고 오ᄉᆞᆯ 벗고 ᄒᆞᆫ번 跟阧질ᄒᆞ여 ᄠᅱ여 기름 가온대 드러가 ᄀᆞ 모욕ᄒᆞ고져 ᄒᆞ더니 볼셔 보디 몯ᄒᆞᆯ러라 王이 닐오ᄃᆡ 將軍아 네 건디라 가라 行者 ㅣ 죽은 ᄃᆞᆺ ᄒᆞ다 ③將軍이 갈고리로 ᄢᅢ 건디라 가니(將軍用鉤子搭去) <朴諺 下 22b-23a>

④將軍으로 ᄒᆞ여 쇠갈고리로(教將軍使金鉤子) ᄒᆞᆫ 뮌 ᄢᅧ만 그터내니 行者 ㅣ 니ᄅᆞ되 내 이제 들어가 목욕ᄒᆞ리라 ᄒᆞ고 곳 옷슬 벗고 ᄒᆞᆫ번 跟阧질ᄒᆞ여 ᄯᅱ여 기름 가온대 들어가 ᄀᆞ 목욕ᄒᆞ려 ᄒᆞ더니 볼셔 보지 몯ᄒᆞᆯ러라 王이 니ᄅᆞ되 장군아 네 건디라 行者 ㅣ죽은 ᄃᆞᆺᄒᆞ다 ⑤將軍이 갈고리로 ᄢᅢ 글려 ᄒᆞ니(將軍用鉤子搭去) <朴新 3:26b>

①은 전형적인 'ᄒᆞ여' 개재 장형사동구문으로 원문에는 사역적 요소로 '教'가 쓰

는 '브리-'와 같이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동사로 주로 번역되었음을 보인다.[35] 그런데 '使'에 대해서는 '브려' 등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위의 용례들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용례들이 있다.

(10)

ㄱ. 「飜老」 우리 밥머기 ᄆᆞ차든 여긔 둘흘 <u>머믈워</u> 짐돌 보게 ᄒᆞ고 몬져 둘흘 ᄒᆞ야 ᄆᆞᆯ 노ᄒᆞ라 보내오 <上 56b-57a>

「老諺」, 「平老諺」 우리 밥먹기 ᄆᆞᆺ차든 여긔 둘흘 <u>머믈워</u> 짐들 보게 ᄒᆞ고 몬져 둘 <u>ᄒᆞ로</u> ᄒᆞ여 ᄆᆞᆯ 노ᄒᆞ라 보내고 <上 51ab>, <上 51a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우리들히 여긔셔 져 짐을 직회쟈 져들로 ᄆᆞᆯ 노ᄒᆞ라 보내엿다가 <4:7b>

「蒙老」 우리 밥 먹거든 둘흔 여긔 짐을 직회오고 둘흔 져긔 ᄆᆞᆯ을 노케 ᄒᆞ고 <4:3a>

「重老」 우리 밥 먹거든 두룰 <u>머무러</u> 예 이셔 行李룰 보고 둘로 ᄒᆞ여 ᄆᆞᆯ을 노ᄒᆞ라 가 <上 52a>

ㄴ. 「飜老」 ᄒᆞ나 <u>두워</u> 방 보라 ᄒᆞ고 다ᄅᆞ니 ᄆᆞᆯ 잇그러 가라 ᄒᆞ져 <上 33b」

「老諺」, 「平老諺」 ᄒᆞ나 <u>머무러</u> 房 보라 ᄒᆞ고 다ᄅᆞ니는 ᄆᆞᆯ 잇그러 가쟈 <上 30ab>, <上 30ab>

「老新」 아직 ᄒᆞ나흘 <u>머무러</u> 집을 보게 ᄒᆞ고 둘로 ᄒᆞ여 ᄆᆞᆯ을 잇그러 가

였다. ②는 '使'가 '쓰-'의 활용형 '뻐'와 대응되는 용법을 보인다. 『老朴集覽』의 용례와 일치하는 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 ③에서는 ②와 비슷한 환경의 원문에 '用'이 쓰였고 이에 대한 언해가 '뻐'로 되어 있는 것이 참조된다. 『朴新』의 ⑤도 '用'과 '뻐'가 서로 대응되고 있음을 보인다. 그런데 『朴新』의 ④에서는 '使'가 조격조사 '로'에 대응되는 것처럼 보인다. 『老朴集覽』의 용례에는 보이지 않는 용법이다. 이와 같이 '使'가 조격조사 '로'에 대응되는 예는 매우 드물지만 '이 다홍 비단오로 깃 ᄃᆞ라 이시니<飜老 下 53a> 都使大紅紵絲綠口子'와 같은 예에서도 확인됨을 참조할 수 있다.

35) 단 『朴新』에서는 위와 같은 대체적인 경향에 위배되는 예 둘 정도를 보인다고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8ㄱ)〕. 이는 『朴新』이 『老朴集覽』의 그늘에서 벗어나 간행된 책임을 보인다.

미 무던ᄒᆞ다 <上 42a>

「淸老」 ᄒᆞ나ᄒᆞᆯ 쪄지워 방을 보숣히게 ᄒᆞ고 그 밧긔 다ᄅᆞᆫ 사ᄅᆞᆷ은 ᄆᆞᆯ을 잇그러 가면 므어세 두려오리오 <2:23a>

「蒙老」 ᄒᆞ나ᄒᆞᆯ 쪄지워 방을 직희오고 우리 다 ᄆᆞᆯ을 모라 가쟈 <2:20a>

「重老」 ᄒᆞ나ᄒᆞᆯ 머무러 집을 보게 ᄒᆞ고 둘로 ᄒᆞ여 ᄆᆞᆯ 잇그러 가쟈 <上 30a>

ㄷ. 「飜老」 네 내 말 드러 ᄒᆞ나 두워 방 보게 ᄒᆞ라 <上 34a>

「老諺」, 「平老諺」 네 스ᄉᆞ로 내 말대로 ᄒᆞ나ᄒᆞᆯ 두어 방 보게 ᄒᆞ라 <上 30b>, <上 30b>

「老新」 내 말대로 반ᄃᆞ시 ᄒᆞᆫ 사ᄅᆞᆷ을 머무러 집을 뵈미 맛치 죠타 <上 42b>

「淸老」 네 내말을 조차 ᄒᆞᆫ나ᄒᆞᆯ 쪄지워 방을 직희오라 <2:24a>

「蒙老」 네 내 말을 조차 ᄒᆞ나ᄒᆞᆯ 쪄지워 방을 직희게 ᄒᆞ쟈 <2:20b>

「重老」 내 말대로 반ᄃᆞ시 ᄒᆞ나ᄒᆞᆯ 머무러 집을 보게 ᄒᆞᆷ이 맛치 올타 <上 30b>

ㄹ. 「朴諺」 하ᄂᆞᆯ 긔운이 차 사ᄅᆞᆷ을 죽게 ᄒᆞ니 <中 29b>

ㅁ. 「朴諺」 내 뎌 광주리와 피대ᄅᆞᆯ 가져다가 당방올 막대ᄅᆞᆯ 내여 崔哥ᄅᆞᆯ 빌려 주어 티게 ᄒᆞ라 <下 34b>

「朴新」 이러면 내 이 皮袋를 가져와 당방올 막대를 내여 崔哥를 빌려 주어 치게 ᄒᆞ쟈 <3:37a>

위의 구문들에서는 'ᄒᆞ여'나 'ᄇᆞ려'가 기대되는 자리에 '머믈워', '두워', '내여', '차' 등이 통합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문들에 대응되는 원문의 특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구문의 원문에는 'ᄒᆞ여'가 개재된 구문들의 원문과는 달리 사동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즉 'ᄒᆞ여'가 개재된 장형사동문의 원문에 나타나는 '教, 着'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 구문들이 가지는 표현효과가 'ᄒᆞ여'가 개재된 장형사동문의 그것과 같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36)]

문맥에 따라 연결어미 '-어'가 통합된 선행절 속의 논항들 중 하나는 '-게 ᄒᆞ-'에 의해 표현되는 장형사동적 구성에서 의미적으로 사동주나 피사동주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이때 이 사동주나 피사동주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가령 (10ㄹ)의 '하ᄂᆞᆯ 긔운이 차 사ᄅᆞᆷ을 죽게 ᄒᆞ니<朴諺 中 29b>'에서 '사ᄅᆞᆷ을 죽게 ᄒᆞ니'의 의미상의 사동주는 선행하는 절의 주어인 '(찬) 하ᄂᆞᆯ 긔운'이지만 후행절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여긔 ᄃᆞᆯ흘 머믈워 짐ᄃᆞᆯ 보게 ᄒᆞ고<飜老 上 56b>'〔(10ㄱ)〕에서는 '짐ᄃᆞᆯ 보게 ᄒᆞ고'에 대한 피사동주로 선행절의 목적어 논항인 'ᄃᆞᆯ흘'을 상정할 수 있으나 역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3.2.2.3. 'ᄒᆞ여'의 성격과 'ᄒᆞ여' 개재 장형사동문의 기원

(10) 유형의 문장들과 관련하여 다음의 예도 흥미로운 양상을 보인다.

(11) 「飜老」 이러면 이제 ᄒᆡ여곰 가져오게 호마 <上 56b>
「老諺」, 「平老諺」 이러면 이제 ᄒᆡ여곰 가져오게 ᄒᆞ마 <上 51a>, <上 51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36) 고대한어에서는 사역문에 '令', '使' 등이 주로 쓰이는데 이 때 이들은 목적어 등에 영향을 미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의미기능을 가진다(홍인표 1976:99-103). 그런데 거론된 '使' 외에도 문맥에 따라 '勸', '請', '任' 등의 동사들도 가볍게 사역의 의미를 띠는 경우가 있다. 즉 이 동사들이 목적어를 취하고 이 동사가 연계된 결과 그 목적어의 상태에 변화를 입히게 될 때 주로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연결어미 '-어'를 통합시킨 '머믈워' 등의 동사가 목적어 논항을 취하되 그 목적어 논항이 후행하는 '보게 ᄒᆞ고'에 대해 피사동주가 될 때 '머믈워'는 자신의 목적어 논항(피사동주)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킨 動因이 된다. 변화에 대한 動因이 된다는 점에서 'ᄒᆞ여, ᄇᆞ려' 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淸老」 〔해당 문장 빠짐〕
「蒙老」 이러ᄒᆞ면 가져오라 ᄒᆞ쟈 <4:2b>
「重老」 이러면 내 곳 아희들 ᄒᆞ여 등잔 보내고 또 너를 두세 낫 룽지를 주마 <上 52a>

(11)과 같은 예는 연결어미 '-어'가 통합된 선행절을 전제하지 않고도 담화의 맥락에 의해 함축된 논항을 전제로 'ᄒᆞ여' 개재 사동구성이 이루어진 예로 볼 수 있다.

(10), (11)에서도 드러나듯이 연결어미 '-어'를 통합시키고 이 때 '-게 ᄒᆞ-' 표현을 후행 시킬 수 있는 용언의 성격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브려'처럼 그 자체의 의미가 사동의 의미를 가진 동작동사가 올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차-'〔(10ㄹ)〕와 같이 상태동사가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구문들의 유형은 'ᄒᆞ여'가 개재된 장형사동구문의 기원에 대해 중대한 암시를 주는 것 같다. 'ᄒᆞ여' 개재 사동구문도 표면적으로 연결어미 '-어'가 통합된 선행절에 후행절이 연결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구문 유형들이나 'ᄒᆞ여' 개재 사동구문이 구조적 평행성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ᄒᆞ여' 개재 사동구문이 위의 예들처럼 복문의 구조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전제로 'ᄒᆞ여'에 대해 좀더 논의해 보기로 한다. 'ᄒᆞ이-'에 연결어미 '어'가 통합된 형식인 'ᄒᆞ여'[37]가 (7ㄱ), (8ㄱ)[38]에서

---

37) 『老諺』 시기 정도부터 'ᄒᆞ야'가 집중적으로 'ᄒᆞ여'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ᄒᆞ여'는 'ᄒᆞ-'에 '-어'가 통합된 형식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ᄒᆞ여' 사동구문에서의 'ᄒᆞ여'가 '브려' 등으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이는 (7ㄱ), (8ㄱ) 등을 고려해 볼 때 어간 'ᄒᆞ이'에 '-어'가 통합된 구조를 상정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한편 'ᄒᆞ이-'는 16세기부터 문헌에 나타나지만 17세기 어느 순간 이후 '시기-'로 대체되었다. '일 식이다<漢淸文鑑 2:61>'과 같은 예가 그 증거로 들어지기도 한 바 있다(이기문 1972). 그렇다면 17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ᄒᆞ여'개재 장형사동문에 나타나는 'ᄒᆞ

처럼 '브려'로 대체되었던 용례를 살펴보면 'ᄒᆞ여'는 어느 정도 '브려' 등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본다면 일면 'ᄒᆞ여'는 '브려'와 같이, 동사 자체의 의미가 사동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는 동사류들을 포괄하는 성격을 띠었던 것으로 파악될 수 있을 듯하다. 'ᄒᆞ여'의 이러한 포괄적 성격은 애초에 어간 'ᄒᆞ-'의 포괄적 성격에서 연원한 것이다.

위의 용례들은 'ᄒᆞ여'의 형식이 관할하는 의미가 포괄적임을 보이는 일례들이다. 'ᄒᆞ다'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이라고 해서 대동사적 성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39] 문맥에 따라 'ᄒᆞ다'의 대동사적 의미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다. 장형사동구문의 'ᄒᆞ여'는 일면 '브려' 등을 대신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형사동구성과 관련된 (7ㄱ), (8ㄱ) 등과 같은 용례들은 그러한 생각을 더 굳혀 주는 것 같다.

그런데 장형사동문의 'ᄒᆞ여'나 (10ㄱ)의 '머믈워'는, 후행절과 논항을 공유하여 피사동주(공유된 논항)을 어떤 변화된 상황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문맥에 따라 직접 변화된 상태에 이르게 하지도 하지만 변화된 상황에 이르도록 그것을 教唆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때 'ᄒᆞ여'는, 'ᄒᆞ다' 동사의 포괄적이며 대동사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동사의 연결어미 '-어' 통합형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후행하는 피사동주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변화된 상황의 상태를 부가할 수 있는 동사 모두의 연결어미 통합형을 포괄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40]

여'는 'ᄒᆞ이-'와의 어휘적 연관성이 그 전 시기에 비해 상당히 약화된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ᄒᆞ여'의 성격변화에도 모종의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38) (7ㄱ)과 (8ㄱ)은 서로 대응하는 예인데 (7ㄱ)의 '브려'가 (8ㄱ)에서는 'ᄒᆞ여'로 대체되었음을 보인다.

39) '하다' 동사의 포괄적 성격에 대해서는 김영희(1981, 1984), 임홍빈(1973) 등이 참조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ᄒᆞ여'와 '머믈워'류를 구분지어 주는 것은 이들을 후행할 수 있는 후행절의 형식이다. 가령 '머믈워'가 '머믈워'라는 동작의 효과를 피사동주에 부가하여 피사동주에게(혹은 피사동주를 敎唆하여)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장형사동구성을 이루려면 반드시 '-게 ᄒᆞ-' 구성을 후행시켜야 한다. (10), (11)의 예들이 이 점을 잘 보인다.

그러나 'ᄒᆞ여'의 후행절에는 장형사동구성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게 ᄒᆞ-'구성이 와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가령 '네 ᄒᆞᆫ 번 ᄒᆞ야 날 조차 가<飜老 下 18b>; 믄득 그 사ᄅᆞᆷ ᄒᆞ야 글 외오ᄃᆡ<老諺 上 4a>'와 같은 경우가 좋은 예이다. 후행절에 능동사, 사동사, '-게 ᄒᆞ-' 구성 등 다양한 형식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즉 'ᄒᆞ여'가 선행하는 한 후행절은 그 형식이 어떠하든 장형사동적 해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게 ᄒᆞ-' 구성이 본래적인 사동 구성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ᄒᆞ여 -게 ᄒᆞ-'의 구성에서 '-게 ᄒᆞ-'는 장형사동문을 형성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잉여적인 성격을 띠었을 가능성이 있다.[41] 피사동표현으로 쓰이는 사동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ᄒᆞ여'가 개재된 장형사동문에서 후행문으로 능동사, 사동사,

40) 앞에서 한어에서 '着'이 부가된 문장은 '행동주의 고의적, 의도적 행동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상태화'라는 기능을 가진다는 의견을 참조한 바 있는데 이는 'ᄒᆞ여'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도 하나의 단서를 준다. 행동주의 고의적, 의도적 행동이란 그것이 무엇이든 'ᄒᆞ여'에 의해 포괄되어 표현될 수 있는 것이며 후행하는 '-게 ᄒᆞ-'의 '-게'는 'ᄒᆞ여'에 의해 초래되는 '변화된 결과에 대한 상태화'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그 결과 상태의 기준 시점은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에 주어지는 문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41) 이는 한어에서 '着' 등이 통합된 문장이 궁극적으로는 장형사동적 의미를 가지지만 이 문장 자체가 본래적인 사동구문이었다기보다는 일련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초래된 결과를 상태화하는 의미를 가지는 구성이었다는 사실과 비교될 수 있어 흥미롭다.

'-게 ᄒᆞ-' 구성 등 다양한 표현이 올 수 있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15세기 문헌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이기 때문이다. 'ᄒᆞ여'개재 장형사동문의 다양한 유형을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제부터 피사동표현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양상과 피사동주 격표지의 교체 양상 등을 문헌별로 실제 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2) 「飜老」 우리 버듸 듕에 ᄒᆞ나 ᄒᆞ야 제 고기 봇게 ᄒᆞ라 <上 21ab>
「老諺」 우리 벗 듕에 ᄒᆞ나흐로 ᄒᆞ여 손조 고기 봇게 ᄒᆞ쟈 <上 19ab>
「平老諺」 우리 벗 듕에 ᄒᆞ나흐로 ᄒᆞ여 손조 고기 복게 ᄒᆞ쟈 <上 19ab>
「老新」 우리 벗 즁에 ᄒᆞᆫ 사ᄅᆞᆷ으로 ᄒᆞ여 가 고기 복게 ᄒᆞ쟈 <上 19a>
「淸老」 우리 벗 즁에 ᄒᆞᆫ 사ᄅᆞᆷ을 내여 고기 복기게 ᄒᆞ쟈 <2:5a>
「蒙老」 우리 벗ᄒᆞ나흐로 고기 복게 ᄒᆞ쟈 <2:2b>
「重老」 우리 벗 즁에 ᄒᆞ나흐로 ᄒᆞ여 손조 가 고기 복게 ᄒᆞ쟈 <上 26b-27a>

(12)는 'ᄒᆞ여' 개재 장형사동문의 전형적인 대응 양상을 보인다. 『飜老』에서는 피사동주에 통합하는 격조사가 생략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老諺』 이후에는 '-로'로 보충되어 『重老』에까지 이른다. 한어본 『老乞大』의 언해본이 아닌 『蒙老』에도 이러한 양상이 이어짐이 주목을 끈다. 피사동주의 격표지로는 '-로'의 굳어짐이 대세였던 것이다. 『淸老』의 '복기게 ᄒᆞ자'가 특이하다. 사동사 '복기-'와 '-게 ᄒᆞ-'의 표현이 혼효되어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인다.

(13) 「飜老」 믄득 그 사ᄅᆞᆷ ᄒᆞ야 글 외오요ᄃᆡ <上 3b-5a>
「老諺」, 「平老諺」 믄득 그 사ᄅᆞᆷ ᄒᆞ여 글 외오ᄃᆡ <上 3b-4b>, <上 3b-4b>
「老新」 곳 그 사ᄅᆞᆷ으로 ᄒᆞ여 글 외오되 <上 4b-5b>
「重老」 곳 그 사ᄅᆞᆷ으로 ᄒᆞ여 글 외오되 <上 3b-4b>

(13)의 『飜老』에서는 피사동표현에 사동사가 왔지만 『老諺』 이후에는 피사동표현으로 능동사가 옴을 볼 수 있다. 『老新』 이후에 피사동주에 통합되는 격조사가 보충되는데 '-로'가 통합됨을 보인다. 보충되는 격조사가 한결같이 '-로'로 유지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飜老』를 참조한 상태에서 언해가 행해진 『老諺』에 나타난 언어 변화는 특히 진정한 언어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朴通事』의 언해본에서도 이러한 조사의 교체 양상이 대세를 거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

ㄱ. 「飜朴」 누를 ᄒᆞ야 가 어드라 ᄒᆞ료 <上 3a>
「朴諺」 눌로 ᄒᆞ여 가 어더 오료 <上 4b-5a>
「朴新」 이ᄌᆡ 몬져 눌로 ᄒᆞ여 가 ᄉᆞᆯ을 엇게 ᄒᆞ료 <1:3a>

ㄴ. 「飜朴」 張三이 ᄒᆞ야 양 사라가게 호ᄃᆡ 스므 낫 됴한 ᄉᆞᆯ진 양을 사게 ᄒᆞ라 <上 2:a-b>
「朴諺」 張三으로 ᄒᆞ여 羊을 사라 가 二十낫 ᄀᆞ장 ᄉᆞᆯ진 羊을 사되 암을 사디 말고 <上 1a-2a>
「朴新」 張三으로 ᄒᆞ여 가 ᄒᆞᆫ 빡 羊을 사되 ᄉᆞᆯ진 거ᄉᆞᆯ ᄒᆞ라 <1:2a>

(14ㄱ)는 사역문이 의문문을 이루고 있다. 『飜朴』의 피사동주 격표지 '-올'이 『朴諺』 이후 역시 '-로'로 나타나고 있다. (14ㄴ)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격조사가 『朴諺』에서 보충되는 경우에도 역시 『老諺』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인다. (14ㄴ)에서는 『飜朴』의 경우 피사동표현으로 '-게 ᄒᆞ-' 구성이 온 데 비해 『朴諺』 이후에는 능동사가 와 언해 양상에 있어 차이를 보임을 지적할 수 있겠다.

다음의 예를 보자.

(15)

ㄱ. 「飜老」 네 ᄒᆞᆫ 번 ᄒᆞ야 날 조차 가 뎨 가면 곧 그제어니ᄯᅡ니 <下 18b>

「老諺」, 「平老諺」 네 ᄒᆞᆫ 벗으로 ᄒᆞ여 날 조차 가 뎨 가면 곳 ᄒᆞ리라 <下 16b-17a>, <下 16b-17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네 ᄒᆞᆫ 벗을 보내여 나ᄅᆞᆯ 조차 가라 ᄒᆞ고 원치 아니면 곳 여긔셔 기ᄃᆞ리라 <6:4a>

「蒙老」 네 ᄒᆞᆫ 벗으로 날을 좃차 가라 ᄒᆞ여라 져긔 가면 됴흐리라 <5:23b>

「重老」 네 ᄒᆞᆫ 벗으로 ᄒᆞ여 나ᄅᆞᆯ ᄯᆞ라 가 졔 가 稅ᄅᆞᆯ 밧치고 그리 아니려 ᄒᆞ면 너희 다 여긔 이셔 기ᄃᆞ리라 <下 17b-18a>

ㄴ. 「飜老」 네 어버ᅀᅵ 너를 ᄒᆞ야 비호라 ᄒᆞ시ᄂᆞ녀 <上 6a>

「老諺」, 「平老諺」 네 어버이 널로 ᄒᆞ야 비호라 ᄒᆞᄂᆞ냐 <上 5ab>, <上 5ab>

「老新」 당시롱 네 父母ㅣ 널로 가 비호라 ᄒᆞᆫ 것가 <上 6b-7a>

「淸老」 네 이 ᄒᆞᆫ 글을 비호ᄂᆞᆫ 거시 혹 네 임의로 비호ᄂᆞ냐 네 부모ㅣ 비호라 ᄒᆞ더냐 <1:7b>

「蒙老」 네 이리 한 글을 비호면 네 임의로 비혼다 네 부모ㅣ 널로 비호라 ᄒᆞᄃᆞ냐 <1:8a>

「重老」 이 네 ᄆᆞ옴으로 비호려 ᄒᆞᆫ 것가 도로혀 네 父母ㅣ 너로 ᄒᆞ여 비호라 ᄒᆞᆫ 것가 <上 5ab>

ㄷ. 「飜老」 그러면 너 ᄒᆞ야 슈례ᄒᆞ게 ᄒᆞᆯ 거시로고나 ᄒᆞ야ᄂᆞᆯ <上 64ab>

「老諺」, 「平老諺」 그러면 너 ᄒᆞ여 受禮ᄒᆞ라 호ᄃᆡ <上 58a>, <上 58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해당 문장 빠짐〕

「蒙老」 네게 예ᄅᆞᆯ 밧으라 ᄒᆞ믈 네 이리 세워 좃지 아니면 그리ᄒᆞ쟈 <4:12b>

「重老」 그러면 널로 ᄒᆞ여 禮ᄅᆞᆯ 바드라 호ᄃᆡ <上 58b>

ㄹ.「飜老」 네 은곳 모르거든 녀느 사ᄅᆞᆷ ᄒᆞ야 보게 ᄒᆞ라 <上 65a>
「老諺」,「平老諺」 네 은을 아디 못ᄒᆞ거든 다ᄅᆞᆫ 사ᄅᆞᆷ ᄒᆞ여 뵈라
<上 58b>, <上 58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네 은을 아지 못ᄒᆞ면 다ᄅᆞᆫ 사ᄅᆞᆷ의게 뵈라 <4:20a>
「蒙老」 네 은을 아지 못ᄒᆞ니 다ᄅᆞᆫ 사ᄅᆞᆷ의게 뵈라 <4:13b>
「重老」 네 은을 아지 못ᄒᆞ거든 다ᄅᆞᆫ 사ᄅᆞᆷ ᄒᆞ여 뵈라 <上 59ab>

ㅁ.「飜老」 이러면 뵈쟐의 은 가져다가 즈르믈 몬져 뵈라 <下 14b>
「老諺」 이러면 布袋엣 銀을 가져다가 즐음으로 몬져 뵈라 <下 13a>
「平老諺」 이러면 布袋엣 銀을 가져다가 즐음으로 몬져 뵈고 <下 13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이러ᄒᆞ면 뵈쟐릐 갓다가 즈름의게 뵈라 <5:21b>
「蒙老」 이러ᄒᆞ면 뵈쟐릐 은을 가져 와 즈름의게 뵈라 <5:18a>
「重老」 이믜 이러면 은이 布袋 속에 이시니 즈름으로 ᄒᆞ여 몬져 뵈고
<下 14a>

ㅂ.「飜老」 너희 세희 듕에 이 늘그니 ᄒᆞ야 보라 ᄒᆞ야라 <上 34ab>
「老諺」 너희 셋 듕에 이 늘그니 ᄒᆞ야 보게 ᄒᆞ라 <上 31a>
「平老諺」 너희 셋 듕에 이 늙으니 ᄒᆞ야 보게 ᄒᆞ라 <上 31a>
「老新」 너희 셋 즁에 이 늙으니로 ᄒᆞ여 보게 호미 무던ᄒᆞ다 <上 42b>
「淸老」 세 사ᄅᆞᆷ이 ᄒᆞᆷ끠 ᄃᆞᆫ닐 제 졈은이 반ᄃᆞ시 수고ᄒᆞᆫ다 ᄒᆞ니 이ᄅᆞᆯ 혜
아리져 <2:24b>
「蒙老」 너희 세 사ᄅᆞᆷ 중에 늙은 사ᄅᆞᆷ으로 직희게 ᄒᆞ쟈 <2:21a>
「重老」 너희 셋 즁에 이 늙은이로 ᄒᆞ여 보게 ᄒᆞ쟈 <上 31a>

ㅅ.「飜老」 너를 ᄒᆞ야 ᄒᆞᆯᄅᆞᆯ 내내 슈고ᄒᆞ게 ᄒᆞ과이다 <下 35ab>
「老諺」,「平老諺」 널로 ᄒᆞ여곰 ᄒᆞᆯᄂᆞᆯ 슈고ᄒᆞ여다 <下 32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해당 문장 빠짐〕
「蒙老」 네 크게 수고ᄒᆞ여다 <6:16b>, <下 34a>

(15ㄱ)의 『淸老』와 『蒙老』의 예에서는 피사동표현이 올 자리에 명령문 구성이 나타나고 있다. (15ㄴ)에서는 피사동표현으로 명령문이 와서 '명령문 + ᄒᆞ-'구성을 이루었다. 『老諺』에서 조사가 피사동주에 통합되는 조사가 '-로'로 교체되었으며 이것이 후대본들에도 계속 이어진다.

(15ㄷ)에서는 『飜老』의 'ᄒᆞ야… -게 ᄒᆞ-' 구성이 『老諺』 이후 'ᄒᆞ야…… 명령문+ᄒᆞ-'구성으로 교체되어 나타난다. 이들의 표현효과가 동일한 선상에 놓여있음을 보인다. (15ㄹ)에서는 피사동표현으로 초간본의 '-게 ᄒᆞ-'에 대해 『老諺』 이후에는 사동사가 통합됨이 주목을 끈다. 『淸老』와 『蒙老』에서는 단형사동문이 나타난다. 『淸老』와 『蒙老』의 번역은 '-의게 뵈라'로 되어 있다. 『淸老』, 『蒙老』의 번역이 다른 『老乞大』의 언해본들과 상이한 것은 한어로부터 번역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15ㅁ)의 원문에는 '着'이 통합되어 있다. 원문에 '着'이 통합되어 있는데 'ᄒᆞ여'가 노출되지 않은 예로는 이 용례가 유일하다. 따라서 'ᄒᆞ여'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42] 후대본인 『重老』에서 'ᄒᆞ여'가 다시 개재됨으로써 이를 잘 뒷받침한다. 다만 『淸老』와 『蒙老』의 번역에 '의게 뵈라'의 형식이 나오는 것은 (15ㄹ)의 용례와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15ㅂ)의 『飜老』의 '너희 세희 듕에 이 늘그니 ᄒᆞ야 보라 ᄒᆞ야라<飜老 上 34ab>'는 다른 이본들의 용례와 달리 '명령문 ᄒᆞ-'의 간접인용문의 구조를 띠고 있다. 따라서 '늘그니 ᄒᆞ야 보라 ᄒᆞ야라'의 'ᄒᆞ야라'의 'ᄒᆞ-'는 '니ᄅᆞ라' 정도로 대치될 수 있는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43]

---

42) 'ᄒᆞ야'의 생략에 관해서는 후술될 것이다.

43) 그런데 『飜老』의 이 'ᄒᆞ-'는 다른 이본들의 대당 형식인 '-게 ᄒᆞ-'의 'ᄒᆞ-'와 구조적 평행성을 보인다. 한편 이현희(1986)에서는 간접인용구문을 '내적화법'에 소속

(15ㅅ)에서는 『老諺』부터 '-로'가 피사동주표지로 통합되었으며 'ᄒᆞ여'가 'ᄒᆞ여곰'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피사동표현으로 오는 '-게 ᄒᆞ-'구성과 능동 표현의 교체를 볼 수 있다.

『朴通事』의 언해본들을 중심으로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6)

ㄱ. 「飜朴」 일훔난 장흑이라 ᄒᆞᆯ 쟝신이 ᄆᆡᆼᄀᆞ론 갈히 됴ᄒᆞ니 더 ᄒᆞ야 ᄆᆡᆼᄀᆞᆯ이디 몯ᄒᆞᆯ가 <上 15b>

「朴諺」 有名ᄒᆞᆫ 張黑子ㅣ ᄆᆡᆫ든 칼이 됴ᄒᆞ니라 더 ᄒᆞ여 ᄆᆡᆫᄃᆞ디 못ᄒᆞ랴 <上 15a>

「朴新」 큰 거리 四牌樓 동편에 張黑子ㅣ 이시니 ᄆᆡᆫ든 칼이 ᄀᆞ장 됴하 ᄆᆡᆫ든 것과 ᄭᅮ민 모양이 다 됴ᄒᆞ니라 <1:17b>

ㄴ. 「飜朴」 몃 히멧 화를 ᄆᆡᆼᄀᆞᆯ이고져 ᄒᆞ시ᄂᆞᆫ고 <上 59b>

「朴諺」 네 언머 힘에 활을 ᄆᆡᆫ돌고져 ᄒᆞᄂᆞᆫ다 <上 53a>

시켜 '부사어 + ᄒᆞ'로 그 구조를 상정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의 자료는 실제로 간접인용구문이 '부사어+ᄒᆞ'로 그 구조를 상정할 수 있는 '-게 ᄒᆞ-' 구성과 대응함을 보인다. 이로써 우리는 간접인용구문과 '-게 ᄒᆞ-'구문의 구조적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보았을 때 한 가지 문제가 가로놓여 있음을 알게 된다. '이 늘그니 ᄒᆞ야 보라 ᄒᆞ야라'의 후반부 '보라 ᄒᆞ야라' 부분을 간접인용 구조로 파악했을 때 '늘그니 ᄒᆞ야'의 'ᄒᆞ야'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NP1이 NP2를 S2 니ᄅᆞ-; NP1이 NP2를 닐오ᄃᆡ S2 ᄒᆞ-(NP2는 S2주어와 동일지시적)'와 같은 중세국어의 전형적 인용문 구조(이현희 1994 참조)들과 관련시켜 생각해 본다면 이 '늘그니'는 NP2에 대응시켜 생각할 수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ᄒᆞ야'가 '닐오ᄃᆡ'와 같이 '-오ᄃᆡ'가 통합되지 않은 형식이라는 점 등이 이 'ᄒᆞ야'를 '니ᄅᆞ-' 등과 쉽게 관련시키기 어렵게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명령을 나타내는 화법동사 '出令ᄒᆞ-'가 화법동사로 쓰이는 중세국어 구문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현희(1994:404)에 제시된 '出令ᄒᆞ-'의 인용구문으로 '王이… 나라해 出令ᄒᆞ샤 五百 졋어밀 어드라 ᄒᆞ시더니<釋譜 11:33>'와 같은 유형이 있다. 이 구문에서는 '出令호ᄃᆡ'가 아닌 '出令ᄒᆞ샤'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에서의 '出令ᄒᆞ샤'가 다름 아닌 '이 늘그니 ᄒᆞ야 보라 ᄒᆞ야라'의 'ᄒᆞ야'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는 요소임을 알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피사동표현으로 명령문 형식이 나타나는 'ᄒᆞ야' 개재 장형사동문 구조와, 간접인용문 구조의 동질성을 확인하게 된다.

「朴新」 언머 힘에 활을 ᄆᆡᆫᄃᆞᆯ고져 ᄒᆞ는다 <1:57 b>

ㄷ. 「朴諺」 어제 李三으로 ᄒᆞ여 木匠의 집의 ᄒᆞᆫ 귀ᄅᆞᆯ 마초이되 <中 2b>
「朴新」 어지 李三으로 ᄒᆞ여 木匠의 집의 가 ᄒᆞᆫ 櫃ᄅᆞᆯ ᄆᆡᆫᄃᆞᆯ리되 <2:13a>

(16ㄱ, ㄴ)은 비슷한 유형의 대응 양상을 보인다. 『飜朴』의 피사동 표현으로는 사동사가 왔으나 이에 대응되는 『朴諺』과 『朴新』의 피사동표현으로는 능동사가 왔음을 볼 수 있다. (16ㄷ)은 『老諺』과 『朴新』에 피사동표현으로 사동사가 왔다.

한편 원문과의 대비 시 언해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문장 유형도 재미있는 양상을 보인다.

(17) 「飜老」 내 이 약 듕에 너를 쇼화ᄒᆞᆯ 약을 주리니 머그면 곧 ᄒᆞ야곰 일 업스리라 <下40a>
「老諺」, 「平老諺」 내 이 약 듕에 너ᄅᆞᆯ 쇼화ᄒᆞᆯ 약을 줄 거시니 먹으면 곳 ᄒᆞ야곰 일 업ᄉᆞ리라 <下 36a>, <下 36a>
「老新」 〔해당문장 없음〕
「淸老」 〔해당문장 없음〕
「蒙老」 〔해당문장 없음〕
「重老」 네 먹으면 可히 즉시 효험 볼 ᄡᅥ시라 <下 39a>

원문은 '喫了敎無事'라 되어 있다. '喫了'가 '敎無事'에 대해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敎'는 사역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대국어로는 '(그 약을) 먹는 것이 일을 없게 할 것이다'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구문이다. 언해에 '敎'의 사역의 뜻이 반영되어 'ᄒᆞ여곰'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때 '喫了' 부분은 '敎無事'에 대한 주어로 번역되지 않고 연결어미 '-면'이 통합된 조건절로 번역된 것이 특이하다. '그ᄅᆞᆯ 머그미 곧 너ᄅᆞᆯ ᄒᆞ야곰 일 업스리라' 정

도가 기대될 수 있을 터인데 구조적으로 '그룰 머그미'와 같은 명사절이 사동주가 되는 구문이 허용될 수 없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3.2.2.4. 'ᄒᆞ여'의 성격 변화와 피사동주 통합 격조사 교체형의 단일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이본들간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에는 피사동주의 격표지가 '-로'로 나타나는 경향이 매우 우세하다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격표지 통합을 지배하는 질서의 변화에 작용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장형사동문에서 피사동주의 격표지로 조격조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격조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현상은 국어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사동에 관한 언어유형론적(typological) 관점에서의 연구[44]는 피사동주 표지의 교체가 피사동주의 피사동행위에 미치는 통제성(control)의 정도를 반영한다고 본다. 피사동주에 조격조사가 통합하는 경우가 피사동주에 대격표지가 통합되는 경우보다 피사동주가 피사동행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 언어들의 장형사동구성의 유형을 통계적으로 조사하여 얻은 결과이기도 하다.[45]

그런데 조격과 대격의 교체를 수의적으로 보이는 15세기 국어에 대해서는 이러한 생각을 바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언어유형론적(typological) 관점에서의 연구가 주장하고 있듯이 15세기에 피사동

---

44) 이에 관해서는 Comrie(1981:165-184), Croft(199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45) 아마도 조격조사가 대상과의 접촉에 있어 더 직접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 표지가 조격인 경우와 대격인 경우의 예들이 의미상의 차이를 가졌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ᄒᆞ여'개재 장형사동문의 통시적 국면에서 보이는 '-로'의 우세 현상도 피사동주의 통제성 강화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언어유형론적 관점을 그대로 적용해 생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다만 피사동주의 격표지가 교체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 정도는 범언어적 현상의 일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관점을 달리 하여 'ᄒᆞ여'의 성격 변화로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로'가 지배적이 된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ᄒᆞ여'가 개재되어야 할 문맥에서 'ᄒᆞ여'가 드물게는 생략되는 다음과 같은 용례가 주목을 끈다.

(18)「蒙老」 네 ᄒᆞᆫ 번으로 날을 졷차 가라 ᄒᆞ여라 <5:23b>
「老諺」 즐음으로 먼저 뵈라 <下 13a>
「朴諺」 이번은 당승으로 몬져 알게 ᄒᆞ라 <下 21b>

이렇게 'ᄒᆞ여'가 생략되는 것은 적어도 한어 번역본인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에서는 피사동표현에 명령문이나 사동사가 올 경우와 '-게 ᄒᆞ-' 구성이 올 경우에 국한된다.[46] 이러한 예 자체도 많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예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하다. 위의 문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ᄒᆞ야'가 생략되었어도 장형사동구성의 의미를 도출해 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명령문 ᄒᆞ-' 구성, '사동사', '-게 ᄒᆞ- 구성'으로 나타나는 피사동표현 자체가 장형사동구성으로의 해석을 보장해 준다. 결국 위와 같은 문맥에서 'ᄒᆞ여'는 어느 정도 잉여성을 지닌 존재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ᄒᆞ

46) 피사동표현에 명령문이나 사동사가 오게 되면 이는 사동의 의미를 함축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의 잉여성은 'ᄒᆞ-' 동사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으로부터 연원한 것이긴 하지만 위와 같은 문맥 구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표면화되어 'ᄒᆞ여'의 생략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에서 나오는 예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예도 흥미를 끈다.

(19) 쳐와 계집들로 큰 집의 두 분인 겻히 벗 삼게 ᄒᆞ고 <三譯總解 2:22a>

(19) 역시 피사동주인 '쳐와 계집들로' 뒤에 'ᄒᆞ여'가 생략되어 있지만 후행절에 '-게 ᄒᆞ-'구성이 옴으로써 피사동주의 상태 변화가 전제되어 장형사동적 해석이 보장되고 있다. (18)에서 피사동주 자리에 오는 사동사와 명령문이 전체 문장의 장형사동적 해석을 보장하고 있다면 위의 예에서는 '-게 ᄒᆞ-'구성이 'ᄒᆞ여' 없이 전체 문장의 장형사동적 해석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문맥에 따라 'ᄒᆞ여'가 상당히 잉여적일 수 있었음을 잘 보인다. 예를 들어 '삼게 ᄒᆞ고'의 자리에 '삼고'와 같이 능동사가 왔다면 위의 문장은 장형사동적 해석을 받기 힘들 것이다. '삼게 ᄒᆞ고'의 자리에 '삼고'와 같이 능동사가 왔다면 '쳐와 계집들로'의 '로'는 재료의 의미 혹은 수단의 의미로밖에 해석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에서 장형사동적 해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ᄒᆞ여'가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에서 'ᄒᆞ여'가 개재된 장형사동문과, '두어' 등의 일반동사가 선행하고 '-게 ᄒᆞ-'가 후행하는 장형사동구문〔(10) 등 참조〕의 구조적 평행성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ᄒᆞ여'가 개재된 장형사동문은 후자처럼 복문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ᄒᆞ여' 개재 장형사동문을 연결어미 '-어'에 의해 선행문장과 후행문장이 연결된 구조로부터 출발한 구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문에서 출발했던 형식은 '롤 ᄒᆞ여 게 ᄒᆞ-(사동사, 능동사, '명령문+ᄒᆞ')'이었다.[47]

그런데 이러한 복문의 구조로부터 '-로'로의 굳어짐이 점차 진행되었다고 볼 때 '-로'로의 굳어짐은 'ᄒᆞ여'에 의한 격지배 현상이 조격한 쪽으로 굳어져 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김훈태(1999:41)은 '-를 ᄲᅧ>-로 ᄲᅧ, -를 브터>-로 브터, -를 조차>-로 조차'와 같은 일련의 후치사의 격지배 변화 현상과 동일한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피사동주표지의 '-로'로의 굳어짐은 위와 같은 후치사의 격지배 변화 현상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표면상으로는 격지배의 변화가 '-로' 쪽으로 굳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ᄒᆞ여' 개재 장형사동문의 경우는 위의 일련의 후치사의 격지배 변화 양상과 변화의 시작, 과정, 결과를 달리 하는 것 같다.

시작을 달리 한다는 것은 15세기에 이미 피사동주 격표지 '-올', '-로'가 어떤 의미 차이나 빈도상의 차이가 거의 없이 수의적으로 교체되어 나타났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위의 후치사 형성 과정 초반기에 있어서는 이들 형식이 '-롤 ᄲᅧ'와 같이 거의 예외 없이 대격 쪽으로만 나타났었다. 그러다가 근대국어 이후에야 대격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격으로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 변화의 결과를 보더라도 위의 'ᄲᅧ'와 같은 동사들은 격지배 양상의 변화로 조사의 일부가 되어 버렸지만 'ᄒᆞ여'는 조사의 일부가 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ᄒᆞ여'는 문맥에 따라 그 잉여성이 표출되어 생략되는 경우도 보이지만[(18), (19)] 'ᄲᅧ' 등은 생략되는 경우를 보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ᄒᆞ여'의 변화 양상은 일련의 후치사의 변화 양상과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ᄒᆞ여' 자체의 포괄적, 일반적 의미와도 관련이 있는 현상으

47) 이 때의 'ᄒᆞ여'는 '브려', '두어' 등 문맥에 따라 대체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로 파악된다. 가령 '쁘-'의 활용형 '뻐'는 대략 '用'의 의미 범주를 넘기지는 않는,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특정한 의미영역을 관할하는 데 비해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ᄒᆞ여' 개재 장형사동문에서의 'ᄒᆞ여'는 '브려' 등과 일정한 관련을 갖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영역을 관할할 수 있어 피사동주의 상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동사어간의 연결어미 '-어' 통합형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ᄒᆞ여'의 이러한 일반적인 성격은, 'ᄒᆞ여'가 생략되어도 장형사동문으로의 해석이 보장되는 일정한 상황만 주어지면 'ᄒᆞ여'라는 형식이 생략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動因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시한 상황에서의 'ᄒᆞ여'는 잉여적이고 형식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ᄒᆞ여'가 가지는 이러한 일면은 통시적으로 더 굳어져 간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현대국어에서는 '로 ᄒᆞ여 + 능동사(사동사)'의 구성이 장형사동구성으로 쓰이지 않는데 이는 이러한 구성에서는 『重老』에서까지도 목격되었던 'ᄒᆞ여'가 가지는 장형사동형성의 적극적 기능이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飜老』에서 『重老』에 이르는 시기에까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러한 'ᄒᆞ여'의 형식성 강화는 계속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국어의 '로 하여금 -게 하-'에서 '하여금'이 언어단위의 일부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과, '하여'가 '로 하여금 게 하-'의 문맥 외에서는 장형사동문에 출현할 수 없게 된 현상도 'ᄒᆞ여'의 형식성 강화가, 진행될 대로 진행되어 대단히 잉여적인 존재로밖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ᄒᆞ여'의 이러한 형식성 강화는 애초에는 존재했던 '브려' 등과 같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사와의 관련성을 더 희박하게 했을 것이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브려'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대격'을

지배함이 보통이며 현대국어에서도 이는 변함이 없다. '브려' 등과 멀어져 형식적이고 잉여적인 존재가 되어갔던 'ᄒᆞ여'는 어느 순간 이후에는 더 이상 대격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안으로 조격을 지배하는 양상을 고수해 가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격과 조격이 수의적으로 교체될 수 있었던 15세기의 상황과 달리 어느 순간 이후(대체로 『老諺』, 『朴諺』 이후) 대격으로의 지배가 불가능해지니 조격으로의 교체를 대안으로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문에 대한 특정한 번역 태도에 의해 장형사동 구문의 유형이 다소 특이하게 나타난 몇몇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20)

ㄱ. 「重老」 날로 ᄒᆞ여 엇지 네게 갑ᄒᆞ야 올흐료 <下 10b>

ㄴ. 「飜老」 글워를 눌 ᄒᆞ야 쓰이료 <下 15a>
「老諺」, 「平老諺」 글월을 눌로 ᄒᆞ여 쓰이료 <下 13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문서롤 뉘게 쓰이리 <5:22a>
「重老」 글월을 눌로 ᄒᆞ여 쓰이리오 <下 14b>

(20ㄱ)은 비록 『老新』에서만 볼 수 있는 유형이긴 하지만 매우 특이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피사동주가 화자 자신이기 때문이다. 원문 '教我怎麽還你是'을 직역한 번역 태도로 인해 위와 같은 문장 유형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20ㄴ)에서와 같이 재미있는 비교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우선 『淸老』와 『重老』를 제외한 한어 번역본들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老諺』에서부터 조격조사가 피사동주에 통합되어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淸老』와 『重老』는 장형사동문이 아닌 단형사동

문으로 언해되어 있음이 흥미롭다. 또 이들 문장에서 어순이 도치되었음을 볼 수 있다. 정상적인 어순이라면 『飜老』와 같은 경우 '눌 ᄒᆞ야 글워를 쓰이료'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쓰이료'의 목적어 논항이 도치되어 문두로 나가 있다. 이러한 어순을 보이는 이유는 원문 '文契着誰寫'의 어순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한어 원문의 어순을 반영하느라 어순이 도치된 양상을 보이는 예는 『朴通事』의 언해본에서도 발견된다.

(21) 「朴諺」 내 이 上直을 눌로 ᄒᆞ여 당ᄒᆞ리오 <下 39a>
「朴新」 이 어문에 上直을 눌로 ᄒᆞ여 나를 톄당케 ᄒᆞ리오 <3:40a>

『朴諺』의 원문 '我這上直着誰當着'을 직역한 결과 위와 같은 어순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에 출현하는 'ᄒᆞ여'개재 장형사동문에 관해 살펴보았다. 'ᄒᆞ여'개재 장형사동문 원문의 두드러진 양상들을 살펴보았으며 독특한 번역 태도 때문에 등장하는 몇 가지 특이한 사동문들도 살펴보았다. 'ᄒᆞ여'개재 장형사동문이 복문에서 연원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ᄒᆞ여'개재 장형 사동문에서 통시적으로 나타나는 피사동주의 격표지 단일화 과정을 구체적 예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기도 하였는데 특히 이 격표지 단일화 과정을 'ᄒᆞ여'의 성격 변화와 관련지어 논의해 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구문에서 'ᄒᆞ여'가 가지는 특이한 성격은 동사 'ᄒᆞ-'가 가지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으로부터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2.3. 명령문의 비교

3.2.3.1. 명령형 어미 '-오ᄃᆡ여'의 기원과 출현 배경

『飜老』와 『飜朴』에는 매우 특이한 유형의 명령형 어미가 등장한다. '-오ᄃᆡ여', '-과ᄃᆡ여' 등의 형식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어미는 어떤 행위를 하기를 바라는 상위문[48] 주어의 소망을 표현하는 연결어미로 간주됨이 보통이었다.[49] 이에 비해 이들이 포함된 문장을 청자가 어떠한 행위를 해 주었으면 하는 화자의 소망을 표현하는 평서법적인 문장에서 상위문 서술어가 생략된 문장으로 보고 그 발화 수반 효과만이 명령문적인 것으로 간주한 견해도 있다.[50] 또 이들의 종결어미적 성격에 대해 논의되기도 하였다.[51]

'-과ᄃᆡ여'와 관련하여 가장 특이한 사항은 '-과ᄃᆡ여'나, '-과ᄃᆡ여'에 녹아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거-'가 빠진 형식이 근대국어 시기 명령형어미로 기능하는 문맥을 보인다는 것이다. (1)과 같은 예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1) 「飜老」 다ᄅᆞᆫ 뎜에 시험ᄒᆞ여 보라 가듸여 <上 18b>
「飜老」 더 주디 몯ᄒᆞ리로다 즐기거든 즐기고 슬커든 마로ᄃᆡ여 <上 23a>

'-과ᄃᆡ여(과ᄃᆡ)'에서 '-거-'가 빠진 형식이 '-오ᄃᆡ여'이리라는 추정은 '-과ᄃᆡ여'의 '-과-'를 '-거-'와 '-오-'로 분석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과ᄃᆡ여'와 동일한 형식 '-과-'를 현현하는 어미구조체 '-과라'가

48) 이 때 상위문의 동사로는 '願ᄒᆞ-, ᄇᆞ라-' 등이 쓰인다.
49) 이현희(1988) 참조.
50) 장윤희(1998) 참조.
51) 이현희(1995) 참조.

'거+오+라(←다)'의 통합체라는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분석 방식인 것이다.

'-과뎌'의 15세기에서의 쓰임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나가기로 한다. '-과뎌'는 보통 '-고져, -오려' 등과 함께 내포문인 피인용문에 쓰여 의도나 소망을 나타내는 어미로 간주되어 왔다. '-과뎌'와 나머지 어미들의 차이는 '-과뎌'가 이끄는 절의 주어는 모문의 주어와 동일지시적이지 않은 반면 '-고져'나 '-오려'가 이끄는 절의 주어는 모문의 주어와 동일지시적이라는 데 있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2) ㄱ. 「論語諺」 내 人이 내게 加ᄒᆞ과댜 아니ᄒᆞᄂᆞᆫ 거슬 내 ᄯᅩᄒᆞᆫ 人의게 加홈이 업고져 ᄒᆞ노이다 <1:44b-45a>

ㄴ. 「飜朴」 면피 사 ᄆᆞᅀᆞᆷ호려 ᄒᆞᄂᆞᆫ다 <上 31a>

(2ㄱ)은 '-과댜(과뎌여)'와 '-고져'가 어떻게 대립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내 人이 내게 加ᄒᆞ과댜 아니ᄒᆞᄂᆞᆫ'에서 모문의 주어 '내'는 내포문의 주어 '人이'와 괴리되고 있다. 반면 '내 ᄯᅩᄒᆞᆫ 人의게 加홈이 업고져 ᄒᆞ-'에서는 모문의 주어 '내'와 내포문의 주어가 동일한 인물이다. (2ㄴ)에서는 내포문에 '-오려'가 쓰였는데 이때 모문의 주어와 내포문의 주어는 일치한다.

그런데 이들 어미들은 16세기 이후 운명을 달리 한 것으로 보인다. '-과뎌'에서 연원한 '-오뎌여' 등의 명령형 어미에 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에 나타나는 '-과뎌, -오려, -고져'의 출현 양상에 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과뎌'는 15세기적 기능을 유지하는 쓰임도 보이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명령문 어미로의 쓰임을 보이기도 한다.

(3) 「朴諺」 므서슬 니ᄅᆞ과뎌 ᄒᆞᄂᆞ뇨 <下 56b>
「朴新」 네 날ᄃᆞ려 니ᄅᆞ라 ᄒᆞ여 므슴홀다 <3:55a>

(3)의 『朴諺』에 선행하는 대사는 '先生아 네 니ᄅᆞ라'이다. (3)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너는 내게(내가)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냐'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즉 'ᄒᆞᄂᆞ뇨'의 주어는 대화상의 청자인 반면 '므서슬 니ᄅᆞ과뎌'의 의미상의 주어는 대화상의 화자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다소 특이한 문맥이긴 하지만 '-과뎌'의 15세기적 용법이 『朴諺』에서도 살아있음을 보인다.[52]

'-오려'는 근대국어 전반을 지배하는 '오'의 소멸로 쇠퇴를 맞이함이 보통이었다. (4)의 『老諺』에서는 『飜老』의 '-오려'에서 '오'가 빠졌음을 보인다.

(4) 「飜老」 네 ᄒᆞ마 ᄑᆞ로려 ᄒᆞ거니 <下 7b>
「老諺」 네 이믜 풀려 ᄒᆞ면 <下 6b>

한편 위의 예와 같은 『飜老』의 '-오려'와 관련하여서는 현현되어 있는 '오'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오려' 전체를 한 단위의 어미로 보는 것이 종래의 입장이었으나 선어말어미 '오'의 소멸이라는 근대국어적 질서에 '-오려'의 '오'도 그대로 순응함을 보이는 점은 '-오려'의 '오'가 종래 선어말어미 '오'라 불려왔던 '오'와 모종의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 해결의 실마리를 '-오려'가 통합된 절 자체가 가지는 간접화법적 성

52) 여기서 '므서슬 니ᄅᆞ과뎌'를 피인용문의 자격을 가진 명령문으로 볼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 볼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여기서의 '-과뎌'는 연결어미적인 것이기보다는 종결어미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볼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일단 '-오ᄃᆡ여'가 아닌 '-과뎌'가 온전히 왔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배제된다.

격에서 찾을 수 있다.

중세국어에 있어서는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구분이 쉽지 않음이 보통이다. 그 만큼 양자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관련하여 강인선(1977:47)에서 관찰된 사실이 흥미롭다. 직접화법의 간접화법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오/우'가 그대로 남아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이 현상이 직접화법의 간접화법으로의 전환이 철저하지 못함을 지적함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전환에 있어 우리말의 질서, 특히 중세어의 질서는 그 전환이 완전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오려'의 '오'는 직접화법의 간접화법으로의 전환이 불충분함을 보이는 한 증거로 해석될 가능성[53]이 있다. 때때로 '-오려'가 직접화법에 쓰이는 '-오리라'와 교체되는 관계에 있는 점이 참조된다. '오'의 잔존에 의해 증명되는 간접화법화의 불충분함이란 대화 상황에서 화자가 어느 정도 피인용문의 주어(피인용문의 화자)의 입장(시점)에서 진술함을 말한다. 직접화법에서는 상황을 진술하는 중심 축이 화자가 아니지만 간접화법에서는 상황 진술의 중심 축이 화자이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당시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구분이 모호했으므로 간접화법에서 상황을 진술하는 관점이 완전히 화자 중심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상황을 진술하는 태도로 피인용문의 주어(피인용문의 화자)의 시점을 고려하는 면면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직접화법에서의 '-오리라'가 간접화법의 '-오려'로 바뀌면서 '오'를 잔존시키는 상황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결국 '-오려'의 '오'는 일종의 시점이입적인 존재라 말할 수 있다. 즉 간접인용구문에서조차 화자가 피인용문의 주어(피인용문의 화자)의 시점을 유지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어느 정도 견지하는 것이 그

53) 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3.2.1.2. 참조.

당시 인용문의 질서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오려'의 '오'는 1인칭화자와 관련된 '오'와 성격이 다르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애초에 '-오리라'의 '오'는 1인칭화자와 관련된 요소이었기 때문이다. '-오려-'의 '오'의 소멸이 1인칭화자와 대응되는 '오'의 소멸과 그 시기를 같이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바이다. 다만 쓰이는 문맥이 간접인용구문이어서 피인용문의 화자와 관련을 보이게 되고 이것이 국어의 직접인용구문적인 간접인용구문의 성격과 맞물려져 '-오려'에서와 같은 '오'의 잔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고져'는 어미의 양성화와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를 거쳐 현대국어의 '고자'로 이어진다. 형태상의 변형을 겪기는 하지만 그 연결어미로서의 쓰임이 이어지는 '-오려, -고져'와는 달리 '-과뎌여'는 명백한 종결어미로의 쓰임을 현현하는 변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애초에 '-과뎌여'의 근본적 성격이 무엇이었나 하는 질문을 던져줌과 동시에 '-오려, -고져' 등의 자격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들게 한다. 애초에 이들 모두가 종결어미였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오려, -고져'는 어떤 문맥에서도 종결어미적 쓰임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 점이 '-과뎌여'와 차이나는 점인 것이다.

다시 '-과뎌여'와 관련한 문제로 돌아가기로 한다. 『飜老』, 『飜朴』 등의 명령문의 문맥에서 쓰이는 어미의 유형은 내포문에 쓰였던 '-과뎌여'에서 '-거-'가 빠진 형식을 보인다. 이러한 형식상의 변화도 주목을 끌지만 명령문의 문맥에 쓰이는 '-오뎌여'가 '-과뎌여'에서 왔다면 매우 제한된 조건의 '-과뎌여'에서 연원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5) 「飜朴」 네 손조 뫼 제제 골히여 사라 :가뎌여 <上 63a>
「朴諺」 네 손조 뫼 져제 골히여 사라 가라 <上 55b>

「朴新」 네 이제 ᄯᅩ ᄆᆞᆯ 져제 손조 ᄀᆞᆯᄒᆡ여 사라 가라 <2:1b>

(5)에서 『飜朴』의 '-오ᄃᆡ여'는 『朴諺』의 명령형 어미 '-라'와 대응함을 볼 수 있다. 『飜老』의 '가ᄃᆡ여'의 첫음절 '가'가 상성으로 나타나 '가ᄃᆡ여'가 '가-+-오ᄃᆡ여'의 구조임을 보인다. '-오ᄃᆡ여'가 '-과ᄃᆡ여'로부터 연원한 것이라면 『飜老』의 전체 문장은 '내 ᄇᆞᄅᆞ건대 네 손조 ᄆᆞᆯ 제제 ᄀᆞᆯᄒᆡ여 가라 가과ᄃᆡ여 ᄒᆞ-' 정도의 문장으로부터 연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내포문의 주어가 청자이고 모문의 주어가 화자인 상황만이 『飜老』와 같은 명령문적인 문장을 도출하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 연원한 '-과ᄃᆡ여'만이 명령문의 문맥에서 종결어미적 쓰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형태상으로 '-과ᄃᆡ여'에서 '-거-'가 빠진 '-오ᄃᆡ여'가 명령형어미로 쓰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飜老』와 『飜朴』의 예에서는 예외 없이 '-오ᄃᆡ여'만이 나타난다. 왜 '-거-'가 빠진 형태가 나타났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와는 달리 17세기 간행의 왜학서 『捷解新語』의 몇몇 예들은 '-거-'가 그대로 통합된 채 나타남이 주목을 끈다. 『捷解新語』의 예들은 '-오ᄃᆡ여'가 아닌 '-과댜'(과ᄃᆡ여)가 명령문의 문맥에 쓰임을 보이는데 이후 간행된 『改修 捷解新語』에는 '과댜'가 대부분 'ᄒᆞ쇼셔'체에 대응하는 명령형으로 개수되어 있다.

(6)

ㄱ. 「捷新」 몬져 니르실디라도 내 迷惑을 <u>프르시과댜</u> <2:30>
「改捷新」 몬져 니ᄅᆞ실지라도 나의 어려오미 되디 아니케 ᄒᆞ여 주쇼셔 <2:45>

ㄴ. 「捷新」 잘 혜아려 <u>ᄆᆞᄎᆞ시과댜</u> <4:26>
「改捷新」 잘 혜아려 ᄆᆞᄎᆞ쇼셔 <4:37>

ㄷ.「捷新」 그러면 게셔도 日吉利 이실 둣ᄒᆞ다 니르ᄋᆞᆸ노쇠 <5:14>
「改捷新」그러면 게셔도 일길리ㅣ 이실듯 ᄒᆞ다 니ᄅᆞᄋᆞᆸᄂᆞᆫ가 <5:21>

ㄹ.「捷新」 아므려나 그러콰뎌 <5:14>
「改捷新」아모례나 그러콰져 <5:21>

(6ㄹ)은 '아무렴 그래야지'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예들과 달리 『改修捷解新語』에서도 구개음화로 인해 '뎌'가 '져'가 된 것을 제외하고는 『捷解新語』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捷解新語』 등의 예와 달리 『老乞大』와 『朴通事』 언해본에서의 '-오더여'는 『飜老』, 『飜朴』에서는 보이지만 17세기 『老諺』, 『朴諺』부터는 확인되지 않음이 특징적이다.

이들 형식이 17세기 『老諺』과 『朴諺』에서 쓰이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 최세진의 번역을 참조하여 당대의 언어 직관으로 최세진의 번역 중 수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老諺』에조차 '-오더여'의 형식은 묵수되지 않는다. 『捷解新語』의 양상과 대조된다.

한편, 우리는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로 '-과뎌'류 외에 '-오려, -고져' 등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 의도법의 범주로 묶이기도 했던 이러한 일련의 어미 중 '-과뎌'만이 종결어미화의 변화를 입게 된 것은 이미 15세기부터 '-오려, -고져' 등의 어미가 '-과뎌'와는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어미였다는 사실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54] 상위문과 하위문 주어의 동일지시성 여부에 대해 차이를 보이는 것은

54) 이러한 추정은 '-오려'가 더 적어도 기원적 형성 과정에 있어서는 다소 이질적인 과정을 겪은 어미일 것을 추정 가능하게 한다. 소망 표현과 관계된 형식 '져, ㅈ, 거' 등(이현희 1995)이 포함된 '-고져, -과뎌'와는 달리 '-오려'는 그러한 형식을 포함하지 않았다.

주지의 사실이다. '-과뎌'의 종결어미적 쓰임새에는 '-오려, -고져'의 그것과는 다른 상위문 주어와 하위문 주어의 비동일지시성의 조건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연결어미가 통합된 하위문의 상위문에 대한 의존성은 동일주어 접속문에서보다 비동일주어 접속문에서 그 정도가 낮아진다.[55] 즉 내포문과 모문이 연결어미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 두 절의 주어가 동일지시적이지 않을 때 두 절 간의 통사·의미적 긴밀성과 의존성이 더욱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두 절 간의 통사·의미적 긴밀성과 의존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두 절 각각의 독립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특징은 두 절 각각의 외현에도 영향을 미쳐 그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과뎌' 통합 절이 더 이상 내포문으로 기능하지 않고 독립적인 문장으로 기능하게 된 것은 원래 '-과뎌' 통합 절이 모문의 주어와 비동일지시적인 주어를 취한 내포문으로 기능하는 절이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모문과 비동일지시적인 주어를 포함하는 '-과뎌' 통합 절은 원초적으로 모문에 대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일부 문맥에서 내포문의 소망형 어미가 명령형 어미와 같은 종결어미로 기능하기 시작했던 현상은 내포문의 간접의문문 어미로 쓰였던 '-ㄴ가'가 근대 이후 직접의문문의 어미로 기능하기 시작했던 현상을 상기시킨다. 두 현상을 어느 정도 평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많다. 두 현상이 보이는 공통점 중 하나는 원래의 어미가 내포문의 어미였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내포문 어미가 독립적으로 문을 종결하는 어미로 쓰이기

---

55) 이에 관해서는 Givon(1984:314-316), 이은경(1992:15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두 현상을 동질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ㄴ가' 역시 하위문에 통합되어 상위문에 내포될 때에 상위문의 주어와 동일지시적인 주어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이 때 동일지시적인 주어를 상정하는 상황이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 된다. 예를 들어 청자를 전제한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거나 질문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색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ㄴ가'에 의한 내포문은 '-과뎌'에 의한 내포문이 그러했듯이 상위문에 대해 독립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궁극적으로 '-ㄴ가'는 독립적으로 문을 종결할 수 있는 직접의문문의 종결어미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내포문의 '-ㄴ가'나 소망형 어미 '-과뎌'에 의해 이끌어지는 절은 모두 비단언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도 함께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과뎌'에 의한 내포문과 '-ㄴ가'에 의한 내포문이 구조적으로 공통적인 면면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이를 보이는 면도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야 한다. 여기서 보이는 차이는 그들이 획득한 새로운 기능이 전면적으로 모든 문맥에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는가 하는 의문과 관련되어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상위문의 주어와 하위문에서의 주어가 비동일지시적인 상황에서 내포문의 '-과뎌'가 명령형 종결어미로 기능하려면 그 비동일지시적인 상위문의 주어와 하위문의 주어는 각각 반드시 화자와 청자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따랐었다. 그만큼 '-과뎌'가 종결어미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은 제약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ㄴ가'를 포함한 하위문의 주어와, 그 상위문의 주어는 비동일지시적이어야 하긴 하였으나 '-과뎌'의 경우에서처럼 화자와 청자로 제한되지는 않았다. 이 점은 '-ㄴ가'가 근대 이후 보다 보편적인 직접의문의 종결어미로 쓰이는 반면 '-과뎌'는 명령형 종결어미로

일시적으로 쓰이다가 근대 이후 어느 순간부터 종결어미로 쓰이지 않게 되는 상황, 즉, '-ㄴ가'와 '-과뎌'가 서로 다른 문법사적 경로를 밟게 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3.2.3.2. 제 이본에서의 대응형

한편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에 나타나는 '-오ᄃᆡ여'는 『老諺』과 『朴諺』이후에는 대부분 'ᄒᆞ라'체의 명령형어미로 나타난다.

(7)

ㄱ. 「飜老」 즐기거든 즐기고 슬커든 마로ᄃᆡ여 <下 23a>
「老諺」, 「平老諺」 즐기거든 즐기고 슬커든 말라 <下 20b-21a>,
<下 20b-21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네 ᄑᆞᆯ고져 ᄒᆞ면 ᄑᆞᆯ고 ᄑᆞ지 아니려 ᄒᆞ면 치라 <6:10a>
「蒙老」 네 ᄑᆞᆯ고져 ᄒᆞ거든 ᄑᆞᆯ라 <6:5b>
「重老」 즐겨 ᄑᆞ나 즐겨 ᄑᆞ지 아니ᄒᆞ나 네대로 ᄒᆞ라 <下 21b>

ㄴ. 「飜朴」 네 손조 ᄆᆞᆯ 졔제 ᄀᆞᆯ히여 가라 가ᄃᆡ여 <上 63a>
「朴諺」 네 손ᄌᆞ ᄆᆞᆯ 져제 ᄀᆞᆯ히여 사라 가라 <上 55b>
「朴新」 네 이제 ᄯᅩ ᄆᆞᆯ 져제 손조 ᄀᆞᆯ히여 사라 가라 <2:1b>

(7ㄱ)은 『老乞大』 이본들의 예이고 (7ㄴ)은 『朴通事』 이본들의 예이다. (7ㄱ)과 같은 경우에는 원문의 어말에 '罷'가 통합되어 있다. 어말에 '罷'가 통합되어 있는 구문은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들에서는 '므던ᄒᆞ-'로 언해되거나 명령문으로 언해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원문을 고려할 때 '-오ᄃᆡ여'가 명령문 어미로 쓰였음이 더 확연해진다. 그런데 (7ㄱ)과 (7ㄴ) 모두 『老諺』, 『朴諺』 이후로는 '-오ᄃᆡ

여' 등의 명령형 어미가 보이지 않으며 모두 'ᄒᆞ라'체의 명령형 어미로 언해되었음이 주목된다.[56]

이는 '-고라'에 의한 명령문이 『老諺』, 『朴諺』 이후로는 '-고려' 등으로 이어짐과 사뭇 대조를 이룬다[(8)].

(8) 「飜老」 우리 뎌긔 오나든 小人을 ᄇᆞ리디 아니커시든 모로매 지부로 <u>오고라</u> <上 44b>
「老諺」, 「平老諺」 우리 뎌긔 오나든 小人을 ᄇᆞ리디 아니ᄒᆞ시면 모로매 집으로 <u>오고려</u> <上 40ab>, <上 40ab>
「老新」 우리 졔 와 ᄇᆞ리지 아니ᄒᆞ거든 ᄯᅩ 우리집의 와 <u>ᄇᆞ리오라</u> <上 56b>
「淸老」 우리 ᄯᅡ히 가거든 소인을 ᄇᆞ리지 아니ᄒᆞ면 반ᄃᆞ시 내 집의 ᄎᆞ자 가리잇가 <3:13a>
「蒙老」 우리 져긔 ᄃᆞᆫ니거ᄃᆞᆫ 소인을 ᄇᆞ리지 아니면 반ᄃᆞ시 내 집의 <u>오라</u> <3:10a>
「重老」 우리 졔 와 ᄇᆞ리지 아니ᄒᆞ거든 ᄯᅩ 우리집의 <u>오게 ᄒᆞ라</u> <上 40b-41a>

'오고라'에 대응하는 위의 번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역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원문에 대해 『重老』에서는 '오게 ᄒᆞ라'와

---

56) 아래의 예는 흥미로운 대응 양상을 보인다.

소인는 바티ᅀᆞ오미ᅀᅡ 올ᄒᆞ니 오직 위두로 ᄡᅳ시과뎌 <u>원ᄒᆞ노이다</u> <飜朴 上 60a>
소인이 奉承홈이 곳 올흐니 그저 원컨대 웃ᄠᅳᆷ으로 <u>ᄡᅳ쇼셔</u> <朴諺 上 53b>
응당 效勞홀 거시니이다 <朴新 1:57b>

『朴諺』의 예가 'ᄡᅳ쇼셔'와 같이 'ᄒᆞ쇼셔'체를 보인다. 이것은 연결어미로 쓰인 '-과뎌'에서 연원한 것이라기보다는 『飜朴』의 상위문에 나타나는 '원ᄒᆞ노이다'의 경어법 등급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 생각될 수 있다. 그런데 『飜朴』의 언해를 『朴諺』의 언해자들이 보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경어법상의 문제로 환원시켜 생각하기보다는 번역 태도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 같다.

같은 번역을 대응시키고 있는데 이는 다음의 『飜老』에 나오는 '-게 호더여'와 같은 표현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9) 「飜老」 우리를 ᄒᆞᆫ밤만 자게 호더여 <上 49ab>
「老諺」, 「平老諺」 우리로 ᄒᆞ여 ᄒᆞᆫ밤만 재라 <上 44b>, <上 44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우리롤 ᄒᆞᆫ밤만 재오라 <3:19b>
「蒙老」 우리롤 ᄒᆞᆫ밤만 재라 <3:16a>
「重老」 우리롤 ᄒᆞᆫ밤 자게 ᄒᆞ라 <上 45ab>

(9)에서도 청자가 명령문에서의 의미상 주어가 된다. 그러나 명령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화자를 포함한 '우리'가 됨으로써 '-게 호더여', 『老諺』, 『平老諺』 등에서와 같이 장형 사동 형식이 개재된 명령문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을 중심으로 '-과뎌여'에서 연원한 것으로 보이는 '-오뎌여'가 명령문의 종결어미로 쓰이는 경우들을 살펴보았다. 이 형식이 이렇게 종결어미적 쓰임을 가지게 된 데에는 애초에 '-과뎌여'가 통합된 내포문의 주어가 상위문의 주어와 비동일지시적이라서 '-과뎌여' 통합 절의 통사·의미적 독립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老諺』과 『朴諺』 이후로는 이 형식이 보이지 않는데 동 시기 『捷解新語』에는 이 형식이 출현하고 그 나타나는 형식도 '-거-'가 개재된 형식이라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더 考究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2.4. 의문문의 비교

3.2.4.1. '-ㄴ고', '-ㄴ가' 의문문의 확장과 그 한계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의 의문문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왕성하게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기존 논의의 대부분은 꼭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만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의문문 일반적인 통시적 변화의 면면을 다루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미 '-ㄴ다'형의 쇠퇴, '-ㄴ가', '-ㄴ고', '-뇨' '-냐'의 세력확대 양상의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주경미(1996)은 드물게 한어를 번역한 『老乞大』, 『朴通事』 언해본의 이본들만을 대상으로 의문문의 변화 양상을 고찰한 것인데 『老乞大』와 『朴通事』 언해본의 이본에 나타나는 의문문을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기술하였으며 주로 각각의 의문어미 형식을 중심으로 그 통시적 면면을 고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에서 다루어진 일련의 의문문의 변화 양상이 과연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 주경미(1996)를 포함하여 기존의 논의에서 뭉뚱그려 다루어진 『老乞大』 언해본의 의문문과 『朴通事』 언해본의 의문문이 동질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또 『淸老』와 『蒙老』를 포함시킴으로써 논의가 달라지지는 않는가 하는 문제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老乞大』와 『朴通事』 언해본의 이본들에는 기존의 의문문과는 그 형식과 성격을 달리하는 '-이여'에 의한 의문문들도 많이 등장한다.[57] 또 『淸老』, 『蒙老』를 중심으로 '-으니'와 '-으리'에 의한 의문문도 나

57) 이들은 이현희(1982:97)에서 소형문으로 다루어졌던 의문문들이다.

타남을 볼 수 있다.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 초간본에 나타나는 의문문들은 그 15세기 이후의 변화 양상을 잘 보인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ㄴ고', '-ㄴ가' 의문문[58]의 약진이다.

(1)

ㄱ. 「飜老」 형님 일즉 아ᄂᆞ니 셔울 뭘갑시 엇더ᄒᆞ고 <上 8b>

「老諺」, 「平老諺」 형은 일즉 아ᄂᆞ니 셔울 뭘갑시 엇더ᄒᆞ고 <上 8a>, <上 8a>

「老新」 큰형아 알 쩌시니 셔울 뭘갑시 엇더ᄒᆞ고 <上 11a>

「淸老」 형아 너ᄂᆞᆫ 본ᄃᆡ ᄃᆞᆫ니ᄂᆞᆫ 사ᄅᆞᆷ이라 황셩 뭘갑시 엇더ᄒᆞ뇨 <1:11b>

「蒙老」 형아 너ᄂᆞᆫ 불셔 아ᄂᆞ니 셔울 뭘갑시 엇더ᄒᆞᄃᆞ뇨 <1:11b>

「重老」 큰형이 알 쩌시니 셔울 뭘갑시 엇더ᄒᆞ고 <上 8a>

ㄴ. 「飜老」 의론ᄒᆞᆯ 저긔 涿州예 흥졍 녀러온 동뫼 오나ᄂᆞᆯ 서르 보고 이대 이대 흥졍이 ᄠᅳ데 마즈녀 <下 65a>

「老諺」, 「平老諺」 의논ᄒᆞᆯ ᄉᆞ이예 涿州예 흥졍ᄒᆞ라 갓ᄯᅥᆫ 벗이 오나ᄂᆞᆯ 서ᄅᆞ 보고 이대 이대 흥졍이 ᄠᅳ의 <u>마즌가</u> <下 59a>, <下 59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네 이번 涿州 ᄯᅡ히 흥졍ᄒᆞ라 가ᄂᆞᆫ 거시 엇더ᄒᆞ뇨 <8:15a>

「蒙老」 의논ᄒᆞᆯ 제 涿州예 흥졍ᄒᆞ라 갓던 벗이 와셔 서ᄅᆞ 보고 네 됴히 잇ᄂᆞ냐 갑시 엇더ᄐᆞ뇨 <8:14b>

「重老」 네 보라 이 涿州ㅣ가 흥졍ᄒᆞ던 벗이 임의 오나다 벗아 편안ᄒᆞ냐 흥졍이 ᄠᅳᆺ에 마즈냐 <下 61ab>

58) 앞 절 3.2.3.1에서 우리는 '-ㄴ가', 'ㄴ고'가 내포문어미였다가 독립적인 종결어미로 기능하게 된 배경을 대부분의 경우에 '-ㄴ가', '-ㄴ고'가 통합된 절이 모문의 주어와 비동일지시적인 주어를 취하는 절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모문과 비동일지시적인 주어를 포함하는 '-ㄴ가', '-ㄴ고' 통합 절은 원초적으로 모문에 대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인 의문문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논의는 3.2.3.1.을 참조하라.

이들 의문문의 어미들은 15세기에서라면 '-뇨' 혹은 '-냐' 의 의문형어미가 기대될 수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의문문의 주어가 3인칭인 경우 '-냐', 혹은 '-뇨' 정도가 15세기에서는 기대될 수 있었다. 16세기 이후의 자료인 위의 자료들은 '-ㄴ가'를 보인다. (1ㄱ)에서는 초간본의 '-ㄴ고' 통합 양상이 『重老』에까지 이어짐을 볼 수 있다. 다만 『淸老』와 『蒙老』의 경우에만 '-뇨'가 쓰이고 있다. (1ㄴ)에서는 초간본의 경우에는 '-녀'가 통합된 양상을 보이지만 『老諺』 이후에는 이 '-ㄴ가'가 통합되어 『平老諺』에까지 이어진다. 대응되는 『淸老』와 『蒙老』의 예는 '엇더ᄒᆞ뇨'와 같이 아예 설명의문문적인 표현으로 바뀌었으므로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 다만 『重老』의 경우 '-냐'로 바뀐 것이 주목되는데 18세기 이후 일반적으로 확대되는 '-뇨, -냐' 어미의 영역 확대 현상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다.

'-ㄴ가', '-ㄴ고'는 15세기에는 원래 간접의문문에 쓰이던 어미로서 화자의 내적 의구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 그 주어는 1인칭이거나 3인칭이어야 했다. 그런데 『飜老』와 『飜朴』에서는 이것이 '-냐, -뇨'가 기대되는 자리에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내적화법에 쓰여 그 의문문의 주어가 1인칭이거나 3인칭이어야 했던 '-ㄴ가', '-ㄴ고' 의문문의 원래적 성격 때문에 '-ㄴ가', '-ㄴ고'에 의한 의문문은 모든 문맥에서 균질적인 확장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ㄴ가', '-ㄴ고'는 위와 같이 '-냐 -뇨' 가 출현할 수 있는 곳에서는 그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15세기라면 2인칭 의문형 '-ㄴ다'가 출현할 자리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게만 그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ㄴ가', '-ㄴ고'의 본래적인 출현 문맥이 1인칭 의문문의 문맥이나 3인칭 의문문의 문맥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후술될 것이다.

3.2.4.2. '-ㄴ다' 의문문과 '-뇨', '-냐' 의문문의 분포 변화

한편 2인칭 의문형어미 '-ㄴ다'는 이미 쇠퇴기에 있었던 의문어미였다. '-ㄴ다'가 나타날 자리에 '-냐 -뇨'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이 이미 초간본들에서도 포착된다.〔(2)〕[59]

(2ㄱ), (2ㄱ')에서는 초간본에서부터 '-뇨'가 출현하여 『重老』에까지 이어졌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淸老』, 『蒙老』의 경우에는 보다 보수적인 '-ㄴ다'가 출현한다는 점이다. 뒤에서도 다시 언급되겠지만 '-ㄴ다'가 『淸老』, 『蒙老』에 있어서는 매우 잦은 빈도로 등장한다. 이는 '-ㄴ다'를 단순히 쇠퇴기에 있었던 의문형 어미로 치부해 버리기 어렵게 한다. 특히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경우를 중심으로 '-ㄴ다'가 나타난다.[60] 특히 (2ㄴ)에서는 초간본의 '-ㄴ다'가 모든 이본들에 이어져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2)

ㄱ. 「飜老」 므슴 글을 강ᄒᆞᄂᆞ뇨 <上 3a>
「老諺」, 「平老諺」므슴 글을 강ᄒᆞᄂᆞ뇨 <上 3a>, <上 3a>
「老新」 므슴 글을 講ᄒᆞᄂᆞ뇨 <上 3b>
「淸老」 므슴 글을 講ᄒᆞᄂᆞᆫ다 <1:4a>
「蒙老」 네 므슴 글을 강ᄒᆞᄂᆞᆫ다 <1:3b-4a>
「重老」 므슴 글을 講ᄒᆞᄂᆞ뇨 <上 3a>

---

59) 초간본에는 몇몇 예만 보이다가 『老諺』 이후로는 많아짐을 볼 수 있다.

60) 이현규(1995)에서는 17~18세기에 주로 〔+의문사〕 구조에서 '-ㄴ다'에 의한 의문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들이 나타나는 문헌이 16세기나 그 이전에 초간본을 내었던 중간본들이기에 이들 문헌에서 나타나는 '-ㄴ다'는 보수적인 표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ㄴ다'가 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간본이라고 볼 수 없는 『伍倫全備諺解』와 같은 18세기 문헌에서도 '-ㄴ다'가 나타남을 고려할 때 '중간본적 문헌에만'이라는 단서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ㄱ'. 「飜老」 너는 高麗ㅅ 사ᄅᆞ미어시니 또 엇디 漢語 닐오미 잘 ᄒᆞᄂᆞ뇨 <上 2a>
「老諺」 너는 高麗ㅅ 사ᄅᆞᆷ이어니 또 엇디 漢語 니ᄅᆞᆷ을 잘 ᄒᆞᄂᆞ뇨 <上 2a>
「平老諺」 너는 高麗ㅅ 사ᄅᆞᆷ이어니 또 엇디 漢ㅅ 말 니ᄅᆞᆷ을 잘 ᄒᆞᄂᆞ뇨 <上 2a>
「老新」 너는 또 이 朝鮮ㅅ 사ᄅᆞᆷ이라 엇지 能히 우리 한말을 니ᄅᆞᄂᆞᆫ다 <上 2b>
「淸老」 너는 朝鮮 사ᄅᆞᆷ이라 또 므슴 겨를에 漢말을 ᄀᆞ장 잘 ᄇᆡ홧ᄂᆞᆫ다 <1:2b>
「蒙老」 너는 조선 사ᄅᆞᆷ이라 한말을 엇지ᄒᆞ야 잘 아ᄂᆞᆫ다 <1:2b>
「重老」 너는 또 이 朝鮮ㅅ 사ᄅᆞᆷ이라 엇지 能히 우리 한말을 니ᄅᆞᄂᆞᆫ다 <上 2a>

ㄴ. 「飜老」 큰형님 네 어드러로셔브터 <u>온다</u> <上 1a>
「老諺」 큰형아 네 어드러로셔브터 <u>온다</u> <上 1a>
「平老諺」 큰형아 네 어드러로셔 조차 <u>온다</u> <上 1a>
「老新」 형아 네 어드러로셔 <u>온다</u> <上 1a>
「淸老」 큰형아 네 어드로셔 <u>온다</u> <1:1a>
「蒙老」 큰형아 네 어ᄃᆡ셔 <u>온다</u> <1:1a>
「重老」 큰형아 네 어드러로셔 조차 <u>온다</u> <上 1a>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쇠퇴의 길에 있었다고 알려진 '-ㄴ다'는 '-냐 -뇨'에 의해 그 영역이 침범당하거나[(2ㄱ), (2ㄱ')] 혹은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킬 망정[(2ㄴ)] 앞에서 지적한 대로 '-ㄴ가'에 의해 영역 침범을 당한 경우는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3.2.4.3. 의문형 어미 분포 변화의 연쇄성과 '-ㄴ다' 의문문의 생산성

앞에서 관찰된 사실로부터 '-ㄴ가', '-ㄴ고'가 15세기와 16세기 교체기에 그 영역을 확장하기는 하였으나 제한된 문맥에서만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ㄴ가', 'ㄴ고'가 15세기라면 '-냐, -뇨'가 등장할 3인칭의문문의 문맥에서만 주로 영역을 확장했던 것이다. 2인칭 의문문에 쓰였던 '-ㄴ다'의 세력이 다소 쇠퇴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ㄴ다'의 영역은 '-ㄴ가', '-ㄴ고'에 의해서는 침범되지 않았다. 대신 '-ㄴ다'의 공백은 주로 '-ㄴ가', '-ㄴ고' 때문에 일정한 문맥에서 그 세력을 빼앗긴 '-냐, -뇨'에 의해 메워진다[(3ㄱ)].[61] 여기서 15세기에서 16세기 교체기에 이루어진 의문형어미의 세력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연쇄적인 성격을 띠었음을 알 수 있다. '-ㄴ가', '-ㄴ고'가 3인칭의문문의 문맥에서 '-냐 -뇨'의 영역을 침범했고 이렇게 3인칭 의문의 영역을 침범당한 '-냐 -뇨'는 2인칭의문형어미 '-ㄴ다'의 영역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전자의 변화가 15세기에 이미 3인칭 의문문을 중심으로 보이고 16세기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 초간본에서는 압도적인 양상을 보임과, 후자의 변화가 『老乞大』, 『朴通事』의 언해본 초간본에서는 몇몇 예에서만 보이다가 『老諺』과 『朴諺』 이후 특히 18세기 이본들을 중심으로 그 확대의 양상을 보임을 참조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3)

ㄱ. 「飜老」 므슴 글을 강ᄒᆞᄂᆞ뇨 <上 3a>

---

61) 이러한 양상도 『清老』와 『蒙老』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은 듯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문헌에는 '-ㄴ다'가 매우 자주 나타난다.

「老諺」, 「平老諺」 므슴 글을 강ᄒᆞᄂᆞ뇨 <上 3a>
「淸老」 므슴 글을 講ᄒᆞᄂᆞᆫ다 <1:4a>
「蒙老」 네 므슴 글을 강ᄒᆞᄂᆞᆫ다 <1:3b-4a>
「重老」 므슴 글을 講ᄒᆞᄂᆞ뇨 <上 3a>

ㄴ. 「飜老」 네 므슴 황호 사려 ᄒᆞᄂᆞᆫ다 <下 66a>
「老諺」 네 므슴 황호 사려 ᄒᆞᄃᆞᆫ다 <下 59b>
「平老諺」 네 므슴 황호 사려 ᄒᆞᄃᆞᆫ다 <下 59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해당 문장 빠짐〕
「蒙老」 네 무슴 물화ᄅᆞᆯ 살ᄶᅡ <8:15a>
「重老」 너희 져기 므슴 貨物을 사 죠히 가져가려 ᄒᆞᄂᆞᆫ다 <下 61b-62a>

ㄴ'. 「飜老」, 「老諺」, 「平老諺」 네 뉘손ᄃᆡ 글 ᄇᆡ혼다 <上 2b>, <上 2a>, <上 2a>
「老新」 네 누ᄅᆞᆯ ᄯᆞ라 글을 ᄇᆡ혼다 <上 2b>
「淸老」 네 뉘게 글 ᄇᆡ홧ᄂᆞᆫ다 <1:3a>
「蒙老」 네 글을 뉘게 ᄇᆡ혼다 <1:3a>
「重老」 네 누ᄅᆞᆯ ᄯᆞ라 글을 ᄇᆡ혼다 <上 2a>

ㄷ. 「飜朴」 어드메 닑거 갓ᄂᆞᆫ다 <上 49b>
「朴諺」 닑기ᄅᆞᆯ 어ᄃᆡᄭᆞ지 ᄒᆞ엿ᄂᆞ뇨 <上 44b>
「朴新」 겨요 반 권을 닑엇노라 <1:48a>

(4) 「飜老」 네 황호 다 ᄑᆞ나 몯ᄒᆞ얏ᄂᆞ녀 <下 66a>
「老諺」, 「平老諺」 네 황호를 다 ᄑᆞᆫ다 못ᄒᆞ엿ᄂᆞᆫ다 <下 59b>, <下 59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너희 貨物도 다 ᄑᆞ냐 <8:15b>
「蒙老」 네 物貨ᄅᆞᆯ 다 ᄑᆞ랏ᄂᆞ냐 못ᄒᆞ엿ᄂᆞ냐 <8:14b>
「重老」 너희 貨物을 다 ᄑᆞ랏ᄂᆞ냐 못ᄒᆞ엿ᄂᆞ냐 <下 61b>

(3ㄱ)과 (4)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ㄴ다'의 영역이 '-뇨, -냐'에 의해 침범당했음을 잘 보인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老乞大』의 언해본에서 초간본이 이미 '-뇨, -냐'를 보이는 경우에는 『淸老』, 『蒙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重老』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임에 반해〔(3ㄱ)〕 초간본이 15세기 질서대로 '-ㄴ다'를 보이는 경우에는 그것이 『老諺』에 가서 '-뇨, -냐'로 바뀌는 경우가 없고 『飜老』의 형식인 '-ㄴ다'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3ㄴ', ㄴ'')〕.

이와는 대조적으로 『朴通事』의 언해본에서는 초간본에 '-ㄴ다'를 보였던 경우에는 『朴諺』에서 '-뇨, -냐'로 바뀌는 경우를 많이 보이는데 (3ㄷ)이 그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앞 단락에서 논의한 『老乞大』 언해본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老諺』과 『朴諺』의 초간본 참조 여부가 달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즉 『老乞大』의 언해본의 경우에는 『老諺』의 번역자가 초간본을 보았기에 초간본에 '-뇨'가 나오든 '-ㄴ다'가 나오든(또 두 형식의 혼란기였기에) 초간본의 애초의 형식이 이후 이본들에 계속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朴通事』의 언해본에서는 『朴諺』의 언해자가 『飜朴』을 보지 않았기에 초간본의 형식이 '-ㄴ다'이었든 '-뇨, -냐'이었든 『朴諺』의 의문문 형식이 상대적으로 초간본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飜朴』에 '-ㄴ다'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에 대응하는 『朴諺』에서는 상대적으로 혁신형이라 할 수 있는 '-뇨, -냐'가 잦은 빈도로 출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朴諺』과 『老諺』의 의문문을 완전히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4ㄴ)에서는 오히려 『飜老』의 '-냐'가 『老諺』에서 '-ㄴ다'로 회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老諺』이 『飜老』를 참조한 번역이었다는 점, '-ㄴ다'가 쇠퇴기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외의 예에 해당할 수

도 있다. 그러나 그만큼 『老諺』의 시대인 17세기까지도 '-ㄴ다'를 대체하는 '-냐'의 세력이 완전히 '-ㄴ다'를 밀어낼 만큼 강력하지 못했음을 방증해 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를 18세기의 『清老』와 『蒙老』의 경우 '-ㄴ다'가 표면적으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중심으로 매우 잦은 빈도로 출현한다는 사실과 관련지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뇨, -냐'의 상대적으로 위축된 분포는 '-ㄴ가', 'ㄴ고'가 이미 초간본인 『飜老』, 『飜朴』의 시기에 3인칭 의문문의 문맥에서 압도적인 분포를 보임과 대조된다. 의문형어미에 있어 시차를 상정할 수 있는 연쇄적 분포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62]

한편 다음과 같은 예외적 상황도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ㄴ가', '-ㄴ고'가 2인칭의문문의 문맥에서 초간본에 출현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존재하기는 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예는 초간본에 나타나는 이러한 소수적인 양상마저 그 출현 환경이 제약적임을 보인다.

(5)

ㄱ. 「飜朴」 네 몃 히멧 화를 밍ᄀᆞ이고져 ᄒᆞ시ᄂᆞᆫ고 <上 59b>
「朴諺」 네 언머 힘에 활을 민ᄃᆞᆯ고져 ᄒᆞᄂᆞᆫ다 <上 53a>
「朴新」 언머 힘에 활을 민ᄃᆞᆯ고져 ᄒᆞᄂᆞᆫ다 <1:57b>

ㄴ. 「飜朴」 ᄆᆞᄉᆞᆷ 됴ᄒᆞ신 완편 형님아 어듸 가시ᄂᆞᆫ고 <上 7b>
「朴諺」 ᄆᆞᄋᆞᆷ 됴흔 완판 형아 어ᄃᆡ 가ᄂᆞᆫ다 <上 8a>

62) 사실 애초에 '-ㄴ가', 'ㄴ고'가 강력하게 '-냐', '-뇨'를 밀어내지만 않았어도 '-냐' '-뇨'가 '-ㄴ다'를 침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오랜동안 '-ㄴ다'가 끈질긴 생산성으로 보이고 '-냐' '-뇨'가 '-ㄴ다'의 세력을 일소하지 못한 것이 이러한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

「朴新」 완판 형아 네 어듸 가는다 <1:7b>

ㄷ. 「飜朴」 어듸 녀러 오시는고 <上 14a>
「朴諺」 어딕 갓돈다 <上 14a>
「朴新」 어딕 갓더뇨 <1:16b>

초간본에 나타나는 2인칭의문문에 '-ㄴ고'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ㄴ다'가 기대되는 15세기적 질서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환경의 16세기 『飜老』와 『飜朴』의 초간본의 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뇨' 등장의 양상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이 '-ㄴ고'가 초간본들에 국한되어 나타난다는 점과 초간본에 나타났던 '-ㄴ고'가 『朴諺』과 『朴新』에서는 오히려 '-ㄴ다'로 바뀌어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또 초간본에서 보이는 '-ㄴ고'에 의한 의문문도 모두 의문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의문문임을 뚜렷이 드러내는 설명의 문문에 한한다. 매우 제한된 출현 환경을 보이는 것이다.

『朴諺』의 번역이 『飜朴』의 번역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5)의 『朴諺』과 『朴新』에 '-ㄴ다'가 나타나는 양상을 단순히 보수적 성향의 표출이라고 단정해 버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에서 17세기 '-뇨 -냐'가 확대일로에 있기는 했지만 '-ㄴ다'를 완전히 일소할 만큼은 세력이 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 점이 참조된다. 따라서 『飜朴』의 '-ㄴ고'와 대응되는 『朴諺』의 '-ㄴ다'는 언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또 한어본의 번역은 아니지만 『淸老』와 『蒙老』의 용례들은 특히 의문사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ㄴ다' 어미의 고수를 상당히 많이 보여주는데 이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중시할 때 18세기 이본들에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들을 중심으로 '-ㄴ다'가 고수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단순히 중간

본들에 나타난 보수성의 현현으로만 간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중간본류가 아닌 『伍倫全備諺解』와 같은 문헌에서도 여전히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중심으로 '-ㄴ다'가 나타나는 것이다.[63]

한편 『朴通事』의 언해본에서뿐 아니라 『老乞大』의 언해본에서도 초간본의 의문문이 2인칭의문문인 경우에 '-ㄴ가'와 '-ㄴ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매우 제약적인 조건하에서 그러함에 주목해야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6)

ㄱ. 「飜老」 어듸 브리여 잇는고 <下 5b>
「老諺」 어디 부리워 잇는고 <下 5a>
「平老諺」 어디 부리워 잇ᄂᆞ뇨 <下 5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아직 부리워 잇ᄂᆞ뇨 <5:7a>
「重老」 다 어디 이셔 브리엇ᄂᆞ뇨 <下 5b>

ㄴ. 「飜老」 네 이 ᄃᆞᆯ 그믐씌 북경의 갈가 가디 몯ᄒᆞᆯ가 <上 2a>
「老諺」 네 이 ᄃᆞᆯ 그몸씌 北京의 갈가 가디 못ᄒᆞᆯ가 <上 1b-2a>
「平老諺」 네 이 ᄃᆞᆯ 그믐씌 北京의 갈가 가지 못ᄒᆞᆯ가 <上 1b-2a>
「老新」 네 이 ᄃᆞᆯ 금음씌 能히 北京 갈가 가지 못ᄒᆞᆯ가 <上 1b-2a>
「淸老」 네 혜아리니 이ᄃᆞᆯ 그믐씌 皇城에 니르랴 니르지 못ᄒᆞ랴 <1:2a>
「蒙老」 네 이ᄃᆞᆯ 금음씌 北京에 밋ᄎᆞᆯ싸 못 밋ᄎᆞᆯ싸 <1:2a>
「重老」 네 이 ᄃᆞᆯ 금음씌 能히 北京 갈싸 가지 못ᄒᆞᆯ싸 <上 1b-2a>

ㄷ. 「飜朴」 샹공하 이제 다 됴ᄒᆞ야 겨신가 몯ᄒᆞ야 겨신가 <上 38a>
「朴諺」 이제 다 됴흔는가 못ᄒᆞ엿는가 <上 35a>
「朴新」 네 이직 병이 다 됴핫는가 못ᄒᆞ엿는가 <1:37b>

63) 『伍倫全備諺解』의 예로 '너는 이 엇던 사ᄅᆞᆷ인다(1:11a), 永安아 어디 잇는다(1:13b)' 등이 참조된다.

2인칭주어가 쓰인 '-ㄴ가' 의문문의 경우에는 '-ㄴ가'에 의한 구문의 성격이 의문문이라는 점을 뚜렷하게 보이는 선정의문문인 경우〔(6ㄴ)〕와 역시 의문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의문문임을 뚜렷이 나타내는 '-ㄴ고'에 의한 설명의문문〔(6ㄱ)〕의 경우에 한해 '-ㄴ가', '-ㄴ고'가 쓰였음을 볼 수 있다. 선정의문문이 아닌 의문문에서는 '-ㄴ가'를 찾아 볼 수 없다. '-ㄴ고'의 경우엔 당연히 의문사와 공기하는 상황에서만 쓰인다.

초간본에서의 이와 같은 '-ㄴ가', '-ㄴ고'의 제약적인 쓰임은 초간본의 '-ㄴ고', '-ㄴ가'가 2인칭의 주어가 나타나는 직접의문문에서는 의문형어미로서 안정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리의 논지를 공고하게 하는 것은 초간본에서 보이는 제약적인 이들 '-ㄴ가' '-ㄴ고'에 의한 의문문마저 『老諺』의 번역자들이 『飜老』를 참조하여 『飜老』의 양상을 웬만하면 묵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老諺』 이후 『平老諺』 등에서는 '-뇨'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6ㄱ)〕. 또 혹 초간본 이후의 이본들에서 '-ㄴ가'가 지속되는 경우라도 그 경우는 의문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는 선정의문문이나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국한되었다〔(6ㄴ), (6ㄷ)〕.[64]

---

64) 이밖에 '-ㄴ가, -ㄴ고'의 의문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언급해 둘 것이 있다. '-ㄴ가, -ㄴ고'는 그 나타나는 양상에 있어 문헌별 편차를 심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老諺』과 『朴諺』에서는 17세기에도 '-ㄴ고'가 확대 일로에 있기는 하나 제한적인 문맥에만 출현하는 등 쓰임에 제한이 있는 양상을 보이나 같은 시기 『捷解新語』에는 '-ㄴ다' 가 전혀 쓰이지 않고 '-ㄴ고'만이 쓰이는 것처럼 보일 만큼 '-ㄴ고', '-ㄴ가'의 쓰임이 전면적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하다. 우선 '-ㄴ가 -ㄴ고'가 상당히 격식성을 전제하는 상황에 쓰였다고 한다면 『捷解新語』라는 문헌 자체가 대부분 보여주는 격식적 상황이 이러한 어미형을 전면적으로 선택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좀더 考究될 필요가 있다.

3.2.4.4. '-이여'에 의한 의문문

한편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 이본에는 소형문적인 의문문이 등장한다. 바로 '-이여'에 의한 의문문이 그것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7)

ㄱ. 「飜老」 형님 네 셩은 <上 8a>
「老諺」 형아 네 셩이여 <上 7a>
「平老諺」 형아 네 셩이여 <上 7a>
「老新」 큰형아 네 貴姓이여 <上 9b>
「淸老」 형아 네 성이 므엇고 <1:10a>
「蒙老」 형아 네 성이 무엇고 <1:10b>
「重老」 큰형아 네 貴姓이여 <上 7a>

ㄴ. 「飜老」 쥬인 형님 小人이 예 와 널이ᅀᆞ오ᄃᆡ 셩도 묻ᄌᆞᆸ디 아니ᄒᆞ얏다니 큰형님 셩이 므스거신고 <上 44ab>
「老諺」 쥬인 형아 小人이 예 와 널이오ᄃᆡ 셩도 일즉 뭇디 아니ᄒᆞ엿더니 큰형의 姓이 므스거신고 <上 40a>
「平老諺」 主人 兄아 小人이 예 와 널이오ᄃᆡ 셩도 일즙 뭇디 아니ᄒᆞ엿더니 큰형의 姓이 므스거신고 <上 40a>
「老新」 主人아 우리 이 半日을 너리오되 놉흔 姓조차 일즉 뭇지 못ᄒᆞ엿더니 큰형의 貴ᄒᆞᆫ 姓이여 <上 56a>
「淸老」 主人형아 小人들이 여긔 와 크게 슈고케 ᄒᆞᆯ ᄉᆞᄅᆞᆷ이오 姓도 뭇지 못ᄒᆞ엿다 형아 네 姓이 므엇고 <3:12b>
「蒙老」 主人형아 小人이 여긔 와셔 네 크게 의곡히 구되 姓도 뭇지 못ᄒᆞ얏ᄃᆞ니 형아 네 姓이 무엇고 <3:9b>
「重老」 主人아 우리 이 半日을 들레되 姓도 일즉 뭇지 못ᄒᆞ엿더니 큰형의 貴ᄒᆞᆫ 姓이여 <上 40b>

ㄴ'. 「飜老」 형님 네 나히 언멘고 <上 63b>
「老諺」 형아 네 나히 언머고 <上 57b>
「平老諺」 형아 네 나히 엇머고 <上 57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해당 문장 빠짐〕
「蒙老」 큰형아 네 나히 몃고 <4:11b>
「重老」 큰형아 네 귀호 나히여 <上 58a>

(7ㄱ)에서는 『飜老』의 '네 셩은'이 이본들 중 한어본의 언해본들에 있어서는 '네 셩이여'와 같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응 양상 때문에 '-이여'에 의한 의문문을 소형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대응되는 『淸老』와 『蒙老』에서는 '므스것고'와 같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으로 나타나는 것이 흥미롭다. (7ㄴ')에서도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과 『重老』의 '-이여'가 통합된 의문문이 대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重老』에까지 '-이여'에 의한 의문문이 나타남은 '-이여'의 생산성이 꽤 오래 지속되었음을 보인다. 특히 (7ㄴ')에서는 『重老』에만 '-이여'에 의한 의문문이 나타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ㄴ')에 『老新』에 대응되는 예는 없지만 (7ㄴ)의 『老新』의 예를 고려한다면 (7ㄴ')의 『老新』에도 '-이여'에 의한 의문문이 대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과 '-이여'에 의한 의문문이 대응되는 것은 '-이여'에 의한 의문문의 성격이 판정의문문의 성격보다는 설명의문문의 성격을 띤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체로 설명의문문에 나타나는 어미와 첨사의 계열이 '고'나 '오'계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형태적으로 '어/아'계열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 '이여'에 의한 의문문이 설명의문문의 성격을 띤다는 것은 다소 의외의 일이라 할 수 있다. 대당하는 한어 원문에도 의문사적 요소가 없음이 주목된다. 『朴通事』의 언해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된다.

(8)

ㄱ. 「朴諺」 청ᄒᆞ노니 沈先生아 小人의 문 앏픠 客이 이시니 이 뉜고 <下 58a>

「朴新」 밧비 청ᄒᆞ여 드려와 서ᄅᆞ 못게 ᄒᆞ라 沈형아 이분의 놉흔 姓이여 <3:56a>

ㄱ'. 「朴諺」 春秋 ㅣ 언머나 ᄒᆞ뇨 <下 58b>

「朴新」 先生의 貴ᄒᆞᆫ 나히여 <3:56b>

「朴諺」 三旬이오 또 二라 <下 58b>

「朴新」 셜흔 둘이라 <3:56b>

ㄱ". 「飜朴」 므슴 죠셔신고 <上 8a>

「朴諺」 므슴 詔書고 <上 8a>

「朴新」 므슴 詔書ㅣ여 <1:8a>

ㄴ. 「朴諺」 先生의 貴姓이여 <下 58a>

「朴新」 청컨대 문ᄂᆞ니 선생의 貴ᄒᆞᆫ 姓이여 <3:56b>

(8ㄱ, ㄱ')의 예는 『朴通事』 언해본의 예들인데 의문사를 쓴 『朴諺』과 달리 『朴新』에서는 굳이 의문사를 쓰지 않은 '-이여'에 의한 의문문을 쓰고 있음이 주목된다. 역시 『朴新』의 시기에도 '-이여'가 생산적이었음을 보인다. (8ㄱ")의 『朴新』에서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이여'가 통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이여'가 나타나는 의문문에는 의문사가 통합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의외의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이 예의 한어 원문 자체에 '甚麽'와 같은 의문사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8ㄴ)에서는 『朴諺』에서도 '-이여'를 볼 수 있다.

(9)는 『飜朴』에서 이미 '-이여'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9)

ㄱ. 「飜朴」 길 마갓ᄂᆞᆫ ᄒᆞᆫ 퍼깃 사미 비오나든 곳 퓌오 ᄇᆞ롬 ᄀᆞᆯ겨든 여름 ᄆᆡᆺᄂᆞᆫ 거셔 <上 40a>

「朴諺」 길헤 당ᄒᆞᆫ ᄒᆞᆫ 펵이 삼이 비오면 곳 픠고 ᄇᆞ람 블면 여ᄅᆞᆷ 여ᄂᆞᆫ 거시여 <上 36ab>

「朴新」 길에 당ᄒᆞᆫ ᄒᆞᆫ 펵이 삼이 비오면 쏫픠고 ᄇᆞ람 블면 여름 어둔 거시여 <1:39a>

ㄴ. 「飜朴」 ᄒᆞᆫ 킈 큰 노미 큰 신 ᄡᅳᅀᅳ고 나지어든 갓다가 바미어든 오ᄂᆞᆫ 거셔 <上 40a>

「朴諺」 ᄒᆞᆫ 킈 큰 놈이 큰 신 ᄡᅳ으고 나죈 가고 밤은 오ᄂᆞᆫ 거시여 <上 36b>

「朴新」 ᄒᆞᆫ 킈 큰 놈이 큰 신 ᄡᅳ을고 나죈 가고 밤은 오ᄂᆞᆫ 거시여 <1:39a>

ㄷ. 「飜朴」 ᄆᆞᆮ형은 뫼 우희셔 붑 티고 둘잿 형은 오락가락ᄒᆞ고 세잿형은 헤혀고져 ᄒᆞ고 넷잿형은 ᄒᆞᆫ디 모도고져 ᄒᆞᄂᆞ니 <上 41a>

「朴諺」 큰형은 산에셔 붑 티고 둘재형은 오락가락ᄒᆞ고 셋재 형은 ᄂᆞᆫ호고져ᄒᆞ고 넷재 형은 ᄒᆞᆫ디 모호고져 ᄒᆞᄂᆞᆫ 거시여 <上 36a>

「朴新」 큰 형은 상에셔 북티고 둘재형은 오락가락ᄒᆞ고 셋재형은 ᄂᆞᆫ호고쟈 ᄒᆞ꼬 넷재형은 ᄒᆞᆫ디 모호고져 ᄒᆞᄂᆞᆫ 거시여 <1: 38b>

(9)는 수수께끼를 내고 정답을 응답하는 장면이다. (9ㄱ)과 (9ㄴ)은 초간본의 '-이여'의 쓰임이 『朴新』에까지 이어졌음을 보인다. 『朴諺』의 번역이 『飜朴』의 언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이 '-이여'에 의한 의문문은 구어에서 상당히 오래 널리 쓰였던 형식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9ㄷ)의 『飜朴』은 다소 특이한 양상을 띤다. 다른 본의 '-이여'와 대응되는 부분이 연결어미 '-니'로 종결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9)에서 쓰인 '-이여'가 『飜朴』에서는 항상 '여'의 형식으로만 나타남도 주목된다.

한편 '-이여'가 나타나는 의문문의 표현효과가 대체로 설명의문문에 준하는 것이라면 그 한어 원문에도 의문사적 요소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쉽게 무너진다. 다시 (7ㄴ) 등을 (10)으로 가져와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10)

ㄱ. 「飜老」 큰형님 셩이 므스거신고 <上 44ab>
「老諺」, 「平老諺」 큰형의 姓이 므스거신고 <上 40a>, <上 40a>
「老新」 큰형의 貴ᄒᆞᆫ 姓이여 <上 56a>
「淸老」 형아 네 姓이 므엇고 <3:12b>
「蒙老」 형아 네 姓이 무엇고 <3:9b>
「重老」 主人아 우리 이 半日을 들레되 姓도 일즉 뭇지 못ᄒᆞ엿더니 큰형의 貴ᄒᆞᆫ 姓이여 <上 40b>

ㄴ. 「飜老」 형님 네 나히 언멘고 <上 63b>
「老諺」 형아 네 나히 언머고 <上 57b>
「平老諺」 형아 네 나히 엇머고 <上 57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해당 문장 빠짐〕
「蒙老」 큰형아 네 나히 몃고 <4:11b>
「重老」 큰형아 네 귀ᄒᆞᆫ 나히여 <上 58a>

(10ㄱ)의 모든 이본들의 한어 원문에는 '大哥貴姓'만이 나타난다. 원문에 어떠한 의문사적 요소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보통 '므슥' 등의 의문사로 언해가 되려면 그에 대당하는 한어 원문에는 의문사적 요소인 '甚麽' 정도가 옴이 보통이다. (7ㄴ)의 대사에 바로 후행하는 장면의 대사로 다음에 제시될 (11)이 오는데 (11)의 경우 그 원문에는 어김없이 '甚麽'가 통합되어 있다.

(10ㄴ)도 (10ㄱ)과 동궤로 설명할 수 있다. 어느 이본의 원문에도

의문사적 요소는 나타나지 않지만 『飜老』, 『老諺』, 『平老諺』에서는 '언머'와 같이 그 번역에 의문사적 요소가 나타나 있다. 『重老』에는 '-이여'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老新』에도 같은 번역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11)을 살펴보자.

(11) 「飜老」 나그내여 너는 또 셩이 므스고 <上 44b>
「老諺」, 「平老諺」 나그내 너는 또 姓이 므섯고 <上 40a>, <上 40a>
「淸老」 형이 내 姓을 므러심으로 네 姓도 내게 알외라 <3:12b>
「蒙老」 손아 네 또 姓이 무엇고 <3:9b>
「重老」 나그너 네 姓이 무섯고 <上 40b>

원문으로 의문사 '甚麽'를 포함한 '客人你姓甚麽'가 나타나고 이에 대당하는 언해도 '므스, 므섯' 등의 의문사적 요소가 나타난다. (11)의 예를, 의문사를 포함하지 않은 (10)의 원문과 비교해 볼 때 (10)의 『飜老』, 『老諺』, 『平老諺』의 의문사를 포함한 번역은 의외의 번역이라 할 만하다. 이런 점에서 『淸老』, 『蒙老』를 제외한 (10)의 『老新』 이후의 번역은 전대의 번역을 수정한 결과라 평가될 만하다.

(10)과 관련하여 다음의 예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 「飜朴」 므슴 죠셰신고 <上 8a>
「朴諺」 므슴 詔書고 <上 8a>
「朴新」 므슴 部書ㅣ여 <1:8a>

(12)의 원문에는 '甚麽詔'와 같이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다. 『飜朴』과 『朴諺』의 언해에 이것이 의문사 '므슴'으로 반영되어 있다. 『朴新』에도 언해에 의문사 '므슴'이 나타나지만 '-이여'가 나타나 있음이

특이하다. 대부분의 '-이여' 포함 의문문에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문에도 의문사가 나타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하겠다.

3.2.4.5. 수사의문문 어미의 고정화와 '-니', '-리'에 의한 의문문

한편 주경미(1996:42)에서는 흥미로운 경향이 하나 보고된 바 있다. 그것은 『老乞大』와 『朴通事』의 이본들 중 후대본에 이를수록 수사의문문의 경우 어미로 '-리오'가 나타나고 순수의문문의 경우에는 '-랴'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외도 있지만 이러한 경향이 어느 정도 자료로부터 확인됨을 (13)은 잘 보인다.

(13)

ㄱ. 「朴諺」 ᄯᅩ 큰 홍졍이 아니니 므슴 갑슬 ᄢᅬ올 곳이 이시리오 <中 57a>
「朴新」 ᄯᅩ 이 큰 홍졍이 아니니 무슴 거즛 갑슬 ᄢᅬ오리오 <3:2b>

ㄴ. 「飜老」 쥬신하 네 어듸 마롤 니ᄅᆞᄂᆞ뇨 됴ᄒᆞᆫ 사ᄅᆞᆷ 아니완ᄒᆞᆫ 사ᄅᆞᆷ을 엇디 모ᄅᆞ리오 <上 50b-52a>
「老諺」, 「平老諺」 쥬인아 네 어듸 말을 니ᄅᆞᄂᆞ뇨 됴ᄒᆞᆫ 사ᄅᆞᆷ 아니완ᄒᆞᆫ 사ᄅᆞᆷ을 엇디 모로리오 <上 46a-47a>, <上 46a-47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主人이 ᄀᆞ장 고집ᄒᆞᄂᆞᆫ 이로다 죠흔 사ᄅᆞᆷ 사오나온 사ᄅᆞᆷ을 ᄯᅩ 소기랴 <3:22a>
「蒙老」 主人아 네 무어시라 ᄒᆞ는다 됴흔 사ᄅᆞᆷ 사오나온 사ᄅᆞᆷ을 엇지ᄒᆞ야 分辨치 못ᄒᆞ리오 <3:18b>
「重老」 主人아 네 어듸 말을 니ᄅᆞ는다 죠흔 사ᄅᆞᆷ 사오나온 사ᄅᆞᆷ을 엇지 아지 못ᄒᆞ리오 <上 46b-47b>

ㄷ. 「飜老」 이 작되 드디 아니ᄒᆞᄂᆞ다 하나한 디플 어느제 사흘료 <上 19a>
「老諺」, 「平老諺」 이 쟈되 드디 아니ᄒᆞ니 하나한 딥흘 언제 싸흘뇨 <上 17a>
「老新」 이 쟈도ㅣ 드지 아니ᄒᆞ니 許多ᄒᆞᆫ 집흘 언제 마치 싸흐러 못ᄎᆞ리오 <上 23b>
「淸老」 이 쟈되 드지 아니ᄒᆞ니 하나ᄒᆞᆫ 집흘 엇지ᄒᆞ여 싸흘리오 <2:1b>
「蒙老」 이 작도ㅣ 무듸니 이다지 만ᄒᆞᆫ 집흘 언지 뻐흘리 <1:24a>
「重老」 이 쟈도ㅣ 드지 아니ᄒᆞ니 許多ᄒᆞᆫ 집흘 언제 싸흐러 못ᄎᆞ리오 <上 17a>

ㄹ. 「朴諺」 언제 와 가져 가료 <中 5a>
「朴新」 언제 물 드려 마ᄎᆞ료 <2:15a>

주경미(1996:63)에서는 동일한 문법범주를 표시하는 문법표지가 간소화되는 근대국어의 일반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새롭게 등장하는 이러한 세분화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분화를 한 가지의 의미(기능)에 대하여 한 가지의 형식을 대응시키려는 화자들의 심리적 경향을 반영한 현상이라 볼 수 있을 듯하다. 위의 예에서 우리는 '의미 : 형식=1 : 1'을 고수하려는 화자의 심리적 경향이 문법 표지 간소화를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상이한 문맥 의미에 따라 별개의 형식을 분화·고정시키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자료가 보여주고 있듯이 이러한 상황이 애초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18세기 이전 수사의문문의 문맥이나 순수의문문의 문맥에서 두 가지 형식 '-리오'나 '-료'가 차이 없이 쓰일 수 있었으며 이렇게 두 가지 형식이 동시에 문맥 의미에 관계없이 쓰일 수 있었던 상황이 18세기 이후에는 문맥 의미에 따라 형식을 분화·고정시키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 중 특히 『老乞大』의 언해본에는

'-니, -리'로 끝나는 의문문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특히 『淸老』와 『蒙老』를 중심으로 많이 나타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4)

ㄱ. 「飜老」 뎜도 ᄒᆞ마 다ᄃᆞᄅᆞ리로다 우리 므슴 음식을 머거ᅀᅡ 됴ᄒᆞᆯ고 <上 60b>

「老諺」, 「平老諺」 店도 ᄒᆞ마 다ᄃᆞ롤이로다 우리 므슴 음식을 먹어야 됴ᄒᆞᆯ고 <上 54b>, <上 54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店의 거의 니ᄅᆞ럿다 우리 무어슬 머그면 <u>조흐료</u> <4:12b>

「蒙老」 店에 거의 다ᄃᆞ랏다 우리 무엇을 먹어야 <u>됴흐리</u> <4:7a>

「重老」 夏店도 ᄒᆞ마 다돌을이로다 우리 져기 무슴 차반 먹어야 <u>죠흐료</u> <上 54b>

ㄴ. 「飜老」 이제 언머의 ᄑᆞᆯ고 <下 2b>

「老諺」, 「平老諺」 이제 언머에 ᄑᆞᄂᆞᆫ고 <下 2b>, <下 2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이제 언머의 ᄑᆞᄂᆞᆫ다 <5:6a>

「蒙老」 이ᄌᆡ 언마에 <u>ᄑᆞᄂᆞ니</u> <5:3b>

「重老」 이제 언머에 ᄑᆞᄂᆞ뇨 <下 2b>

ㄷ. 「蒙老」 갑시 언마나 <u>ᄒᆞ니</u> <6:12a>

「蒙老」 일백 열 근이라 네 저울이 <u>엇더ᄒᆞ니</u> <8:3a>

「蒙老」 의심 말고 홍정ᄒᆞ면 <u>얻더ᄒᆞ니</u> <8:8a>

「蒙老」 네 번이 몃치 잇ᄂᆞ니 <5:7a>

「蒙老」 네 간대로 갑슬 바드려 말라 엇지 네게 주어야 <u>올흐리</u> <5:13b>

「蒙老」 우리 이 몰 글월을 언지 <u>볏기리</u> <5:23a>

「蒙老」 네 성이 무어시면 어ᄃᆡ셔 <u>사ᄂᆞ니</u> <5:19b>

ㄹ. 「飜朴」 이 활을 엇지 봇 넙히지 아니ᄒᆞ엿ᄂᆞᆫ다 <6:18b>

「朴諺」 이 활을 엇지 봇 ᄡᅩ지 아니ᄒᆞ엿ᄂᆞ니 <6:13b>

ㅁ. 「飜朴」 문서ᄅᆞᆯ 뉘게 쓰이리 <5:22a>
「朴諺」 문서ᄅᆞᆯ 뉘게 ᄡᅳ이리 <5:18b>

ㅂ. 「淸老」 네 어제 십리라 ᄒᆞ여 닐럿더니 오ᄂᆞᆯ 엇지 삼십리라 ᄒᆞᄂᆞᆫ다 <4:11b>
「蒙老」 네 어제 십리 잇다 ᄒᆞ더니 오ᄂᆞᆯ은 ᄯᅩ 엇지 삼십리 남다 ᄒᆞᄂᆞ니 <4:6a>

특히 (14ㄷ)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蒙老』에 이러한 예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ㅁ)은 이미 『飜朴』과 『朴諺』에 이러한 의문문이 이어져 나타남을 보인다.

지금까지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에 나타나는 의문문의 양상을 비교해 보았는데 어미들의 세력 재편성과 관련해 나타난 의문문 유형의 변화가 연쇄적인 성격을 띠었음을 확인했고 '-이여'에 의한 의문문 등 특수한 의문문에 대한 논의도 함께 행해 보았다. 또 『老乞大』 언해본의 의문문과 『朴通事』 언해본의 의문문을 완전히 동질적 시각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움을 구체적인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수사의문문에 등장하는 어미가 후대 이본들로 갈수록 고정화되는 경향과 그 배경 등을 살펴보았다.

3.2.5. 의사타진구문의 비교

3.2.5.1. 의사타진구문의 특징

이 절에서는 '의사타진문형'이란 용어로 김완진(1976)에서 다루어

졌던 일련의 구문들을 그 용어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문형'을 '구문'이라 바꾸고 '의사타진구문'이라는 명칭으로 다루기로 한다. '의사타진구문'이란 글자 그대로 대화 참여자인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구문, 즉 어떤 사태에 대한 상대방의 수용 여부나 기호를 묻는 구문을 말한다. 그런데 이들 구문이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에서 유독 새로이 등장했던 것은 아니다. '아ᄃᆞ리어든 일후믈 孝子ㅣ라 ᄒᆞ고 ᄯᆞ리어든 孝養이라 호ᄃᆡ 엇더ᄒᆞ니잇고<月釋 8:97>' 등 이미 15세기에서도 의사타진구문은 많이 나타났었다. 다만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이 대화체로 되어 있기에 이들 구문이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에 자주 등장하는 특징을 보일 뿐이다. 의사타진구문이란 다음과 같은 예들을 말한다.

(1)「飜老」 우리 ᄆᆞᄅᆞ니 머구ᄃᆡ 엇더ᄒᆞ뇨 <上 60b>
「老諺」 우리 그저 ᄆᆞᄅᆞ니 먹음이 엇더ᄒᆞ뇨 <上 54b>

현대국어로는 '우리 마른 것 먹는 것이 어떨까?'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문장이다. 화자의 제안적 성격을 가지는 사태에 대해 청자의 수용 여부와 기호를 묻고 있다. 이 때 화자의 제안 대상이 되는 사태는 위에서와 같이 화자와 청자 모두가 주체가 되는 사태가 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 방향에 대한 권유의 대상이 되는 사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VP-오ᄃᆡ'나 'VP-옴'에 통합되는 주어는 2인칭 대명사인 '네'가 되기도 한다. 아래의 경우가 그러한 양상을 잘 보인다.

(2)「飜老」 네 져그나 더로ᄃᆡ 엇더ᄒᆞ뇨 <上 23>
「老諺」 네 져기 더로미 엇더ᄒᆞ뇨 <上 21ab>
「平老諺」 네 젹이 더롬이 엇더ᄒᆞ뇨 <上 21ab>
「老新」 져기 돈을 덜미 엇더ᄒᆞ뇨 <上 29a>

「淸老」 네 젹이 덜미 엇더ᄒᆞ뇨 <2:8b>
「蒙老」 네 젹이 ᄂᆞ리오면 엇더ᄒᆞ뇨 <2:6a>
「重老」 져기 돈을 덜미 엇더ᄒᆞ뇨 <上 21a>

의사타진구문에서는 '-오ᄃᆡ'가 이끄는 절의 주어로 화자나 청자 이외의 제3자는 잘 오지 않는다. 의사타진구문이란 화자가 어떤 사태에 대한 상대방의 수용 여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제3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 청자에게 그 수용 여부를 묻는 경우란 드물 수밖에 없다. 의사타진구문에서 언급되는 사태란 화자나 청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태이어야 한다. 적어도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에는 제3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 대화상의 청자에게 그 수용 여부를 묻는 의사타진구문은 나타나지 않는다. 예문의 주어가 모두 화자 혹은 청자에 준한다. 한편 의사타진구문의 '엇더ᄒᆞ뇨'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부분 원문에서 '如何'에 대응된다. 가령, 위의 '네 져그나 더로ᄃᆡ 엇더ᄒᆞ뇨?'에 해당하는 원문은 '你減了些箇如何'인 것이다.

의사타진구문의 일반적 특징과, 『老乞大』, 『朴通事』 언해본의 이본들에서 보이는 이들의 변화와 관련된 특징들 중 두드러진 것으로 의사타진구문이 평가구문과 공유하는 유사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사실 의사타진구문은 평가구문의 특정한 한 문맥이 굳어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 아래의 예는 전형적인 의사타진구문은 아니지만 의사타진구문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 준다.

(3)
ㄱ. 「飜老」 이제 갑시 엇더ᄒᆞ고 <下 5a>
「老諺」 이재 갑시 엇더ᄒᆞ뇨 <下 4b>

ㄴ. 「飜老」 人蔘갑곳 ᄀᆞ장 됴타 <下 5a>
「老諺」 人蔘갑슨 ᄀᆞ장 됴ᄒᆞ니라 <下 4b>

물음의 '엇더ᄒᆞ고, 엇더ᄒᆞ뇨'에 대해 'ᄀᆞ장 됴타'와 같이 응답하고 있다. '엇더ᄒᆞ-'에 대한 응답이 '됴타'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엇더ᄒᆞ-'의 성격을 잘 말해 준다. 그런데 (3ㄱ) 에서 '갑시' 자리에 '-오ᄃᆡ'가 통합된 절이나 '-옴'에 의한 명사절과 주격조사 'ㅣ'가 통합한 구성이 오게 되면 전형적인 의사타진구문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타진구문과 평가구문의 구조적 평행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의사를 타진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그 사태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를 전제한다. 의사타진구문을 달리 말하면 화자나 청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하여 상대방의 평가를 구하는 평가의문구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의 평가란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의 수용 여부 즉, 상대방의 궁극적인 의사를 염두에 둔 물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문을 의사타진구문이라 명명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의사타진구문은 언급된 사태의 수용 여부를 상대방에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설명의문문에 가깝지만 궁극적인 표현 효과나 언표내적 효력은 판정의문문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의사타진구문과 평가구문은 유사한 측면도 많이 보이지만 차이를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 중의 하나는 의사타진구문의 '-오ᄃᆡ'나 '-오미'에 통합되는 용언이 동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이 의사타진구문과 평가구문의 경계를 구분해 줄 수 있을 듯하다. 평가구문의 경우에서는 '-오미' 등에 동사는 물론 형용사와 계사가 통합될 수 있다.

(4) 「飜老」 네 져그나 더로ᄃᆡ 엇더ᄒᆞ뇨 <上 23b>
「老諺」 네 져기 더로미 엇더ᄒᆞ뇨 <上 21ab>
「平老諺」 네 적이 더롬이 엇더ᄒᆞ뇨 <上 21ab>
「老新」 져기 돈을 덜미 엇더ᄒᆞ뇨 <上 29a>
「淸老」 네 적이 덜미 엇더ᄒᆞ뇨 <2:8b>

「蒙老」 네 젹이 ᄂᆞ리오면 엇더ᄒᆞ뇨 <2:6a>
「老新」 져기 돈을 덜미 엇더ᄒᆞ뇨 <上 21a>

(4)는 의사타진구문으로 (2)를 다시 가져온 것이다. '-오ᄃᆡ'나 '-오미'에 동사가 통합되어 있다. 의사타진구문의 속성상 '-오ᄃᆡ'나 '-오미'에 형용사나 계사가 통합되기는 어렵다. '-오ᄃᆡ'나 '-옴'이 이끄는 절이 화자나 청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태를 지시해야 하는데 형용사문이나 계사문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위의 예에서는 '-옴'의 '-오-'의 소멸로 『老新』에서부터는 '더로미'가 아닌 '덜미'가 나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평가구문에서는 '-옴'이나 '-면' 등이 이끄는 절에 형용사문은 물론 계사문도 올 수 있다. (5ㄱ)은 형용사문의 예이고 (5ㄴ)은 계사문의 예이다.

(5)
ㄱ. 「朴諺」 너모 <u>믈러도</u> 됴티 아니ᄒᆞ고 <下 44>
「家禮諺解」 더옥 <u>두터오미 더옥 됴ᄒᆞ니라</u> <7:26>

ㄴ. 「飜老」 新羅ㅅ 人蔘이면 ᄯᅩ 더욱 됴커니ᄯᆞ나 <下 3a>
「老諺」, 「平老諺」 新羅蔘이면 ᄯᅩ 됴타 <下 2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新羅 人蔘이면 ᄯᅩ 죠타 <5:7a>
「蒙老」 新羅 人蔘이면 ᄯᅩ 됴타 <5:4a>
「老新」 新羅ㅅ蔘이면 ᄀᆞ장 죠흐니 므슴 ᄑᆞ지 못ᄒᆞᆯ까 저프미 이시리오 <下 2b>

3.2.5.2. 'VP-오ᄃᆡ'와 'VP-오미'의 교체와 그 배경

한편, 김완진(1976)에서는 이 의사타진구문의 유형이 『飜老』의 '-오ᄃᆡ 엇더ᄒᆞ뇨'에서 『老諺』의 '-옴이 엇더ᄒᆞ뇨'와 같이 달라짐을 지적하고 있다. 『飜朴』과 『朴諺』에 대해서도 같은 유형의 변화가 드러난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배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飜老』, 『飜朴』의 'VP-오ᄃᆡ 엇더ᄒᆞ뇨'가 17세기 이후의 이본들에서 'VP-옴이 엇더ᄒᆞ뇨'로 바뀌지 않은 예는 없는지, 또 언급된 변화가 'VP-오ᄃᆡ 엇더ᄒᆞ뇨>VP-오미 엇더ᄒᆞ뇨' 식의 수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었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예는 앞에서 제기했던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양상을 보인다.

(6) 「飜老」 우리 다티 홍졍ᄒᆞᆯ 쳔믈 의논호ᄃᆡ 엇더ᄒᆞ니오 <下 20b-21a>
「老諺」 우리 별로 살 貨物을 의논호ᄃᆡ 엇더ᄒᆞ뇨 <下 19a>
「平老諺」 우리 별로 살 貨物을 의논홈이 엇더ᄒᆞ뇨 <下 19a>
「淸老」 네 뵈 풀 사이에 내 羊을 사셔 涿州 ᄲᅡ히 풀라 가셔 다시 貨物을 사셔 가져오마 <6:7b>
「蒙老」 네 뵈 풀 ᄉᆞ이예 내 羊 사 涿州에 풀라 가셔 ᄯᅩ 다ᄅᆞᆫ 物貨 사오쟈 <7:7b>
「重老」 우리 ᄯᅩ ᄯᆞ로 貨物 사믈 商量호미 엇더ᄒᆞ뇨 <下 19b-20a>

『飜老』의 'VP-오ᄃᆡ 엇더ᄒᆞ뇨'의 문형이 17세기 이본인 『老諺』에 고수되어 있다. 언뜻 보면 김완진(1976)의 지적에 대한 예외인 것으로 생각된다. 『飜老』의 모든 의사타진구문이 『老諺』에서 다른 문형으로 바뀌지는 않았음을 보인다. 그러나 『平老諺』에는 다시 'VP-옴이 엇더ᄒᆞ뇨'로 『老諺』의 대다수의 의사타진구문이 보이는 형식으로 수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平老諺』과 『老諺』이 언해 양상에 있어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 있

어 일치하는 모습을 보임을 고려할 때 『平老諺』의 『老諺』에 대한 수정은 대단히 주목되는 것이다. 『老諺』의 번역이 『飜老』의 번역을 참조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용례에서 『飜老』의 'VP-오듸 엇더ᄒᆞ뇨'가 『老諺』의 'VP-옴이 엇더ᄒᆞ뇨'로 변화한 것은 전형적인 통시적 변화로 받아들여져 왔다. 위의 『老諺』의 번역은 『平老諺』의 번역자에게는 과거의 번역에 대한 잘못된 묵수로 인식되었고 이를 『平老諺』의 번역자가 적극적으로 수정한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平老諺』의 수정은 17세기 이후 우세하게 된 'VP-옴이 엇더ᄒᆞ뇨'의 지배적 질서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VP-오듸 엇더ᄒᆞ뇨'로 나타났던 구문은 17세기 이래 특히 『老乞大諺解』(1670)나 『朴通事諺解』(1745) 이후에 'VP-오미 엇더ᄒᆞ뇨'로 나타남이 일반적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역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단 한 예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17세기 이후 'VP-오듸 엇더ᄒᆞ뇨'는 더 이상 생산적으로 출현하던 구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자리가 'VP-오미 엇더ᄒᆞ뇨'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언급한 구문의 유형 변화를 번역자들의 상이한 취향에 의한 변이 현상이라 볼 근거가 전혀 없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老乞大』와 『朴通事』의 초간본에도 'VP-오미 엇더ᄒᆞ뇨'가 이미 등장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구문 출현이 갑작스러운 것만은 아님을 보인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7)

ㄱ. 「飜老」 <u>그저 이 문 앒 술웃방의 우리를 ᄒᆞᆯ밤 재게 호미 엇더ᄒᆞ뇨</u> <上 47ab>

「老諺」, 「平老諺」 그저 이 문 앒 술웃방의 우리를 ᄒᆞᆯ밤 재게 홈이 엇더

ᄒᆞᄂᆞ뇨 <上 42b-43a>, <上 42b-43a>
「淸老」 이 문 앏 술읫 집의 우리롤 ᄒᆞᄅᆞᆺ밤 재옴이 엇더ᄒᆞ뇨 <3:17a>
「蒙老」 그저 이 문 앏 수릿 집의 ᄒᆞᄅᆞᆺ밤 재오미 엇더ᄒᆞ뇨 <3:13a>
「重老」 곳 이 大門 겻 술위ㅅ방에 우리로 ᄒᆞ여 ᄒᆞᄅᆞᆺ밤 재오미 엇더 ᄒᆞ뇨 <上 43ab>

ㄴ. 「飜朴」 부모끠 효도ᄒᆞᅀᆞ오며 가문을 빗내요미 엇더ᄒᆞ고 <上 50b>
「朴諺」 孝順부모ᄒᆞ야 門閭에 光顯ᄒᆞ면 엇더ᄒᆞ뇨 <上 45b>

위의 예는 이미 『飜老』·『飜朴』 시기에 'VP-오미 엇더ᄒᆞ뇨'와 같은 문장형식이 나타났음을 보인다. 즉 『飜老』와 『飜朴』에 'VP-오ᄃᆡ 엇더ᄒᆞ뇨'의 형식이 대다수 나타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VP-오미 엇더ᄒᆞ뇨'의 형식도 이미 출현하기 시작했었던 것이다. 의사타진구문의 유형 변화가 『老諺』·『朴諺』 시기에 일률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님을 보인다.[65]

---

65) 이 점은 평가구문의 일부 문맥과 의사타진구문의 문맥이 유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뒤돈뇨미 아니 됴ᄒᆞ녀 <飜老 上 37ab>
뒤보기 됴티 아니ᄒᆞ랴 <老諺 上 33b>
뒤보기 됴티 아니ᄒᆞ랴 <平老諺 上 33b>
뒤보기 죠치 아니ᄒᆞ랴 <老新 上 46b-47a>
똥 눔이 엇더ᄒᆞ뇨 <淸老 3:2b>
똥 누미 엇더뇨 <蒙老 2:25a>
뒤보미 죠치 아니ᄒᆞ랴 <老新 上 33b>

가령 위의 '뒤돈뇨미'는 '뒤돈뇨ᄃᆡ'와 같이 '-오ᄃᆡ' 가 통합되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15세기에서도 일부 문맥에서는 '-오ᄃᆡ'와 '-오미'가 교체되어 나타날 수 있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현희(1994:69-70)에서는 특히 전제의 의미를 가지는 '-오ᄃᆡ'가 '-오미'로 바뀌어 쓰일 수 있는 예로 '됴ᄒᆞᆫ 고ᄌᆞᆯ 우리 ᄉᆞᅀᅵ에 노코 보ᄃᆡ 아니 됴ᄒᆞ니여<석보 3:15>'와 같은 유형의 문장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구문의 '-오ᄃᆡ'를 '-오미'로 바꾸었을 때 위의 '뒤돈뇨미 아니 됴ᄒᆞ녀'와 문형이 꼭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뒤돈뇨미 아니 됴ᄒᆞ녀'도 '뒤돈뇨ᄃᆡ 아니 됴ᄒᆞ녀'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런데 평가구

그렇다면 'VP-오ᄃᆡ 엇더ᄒᆞ뇨'가 'VP-오미 엇더ᄒᆞ뇨'로 애초에 교체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으며 17세기 이후 '-오미' 쪽으로 편재적 분포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가 궁금해진다. 이러한 논의는 '-오ᄃᆡ'가 이끄는 절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 'VP-오ᄃᆡ'가 일부 가정·조건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어미가 이끄는 절과 교체를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8)

ㄱ. 「飜老」 흥졍 ᄆᆞ차도 므던ᄒᆞ다 <下 12a>

「老諺」, 「平老諺」 흥졍호미 므던ᄒᆞ다 <下 10b-11a>, <下 10b-11a>

「老新」 〔해당문장 없음〕

「淸老」 네 들으라 아 다ᄉᆞᆺ 죠흔 ᄆᆞᆯ게 ᄆᆞᆯ마다 여ᄃᆞᆲ양식 ᄒᆞ면 마흔 양 되고 열조치 아닌 ᄆᆞᆯ게 ᄆᆞᆯ마다 엿양식 ᄒᆞ면 여슌 양 되니 대되 모도와 혜면 졍히 일백양 된다 <5:18b>

문 '뒤ᄃᆞ뇨미 아니 됴ᄒᆞ녀'와 '뒤ᄃᆞ뇨ᄃᆡ 아니 됴ᄒᆞ녀'는 의사타진구문 'VP-오미 엇더ᄒᆞ뇨'와 'VP-오ᄃᆡ 엇더ᄒᆞ뇨'와 문형이 거의 일치한다. 여기서 16세기에서 17세기 교체기에 보이는 의사타진구문 'VP-오ᄃᆡ 엇더ᄒᆞ뇨'의 'VP-오미 엇더ᄒᆞ뇨'로의 유형 변화가 갑작스러운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5세기에도 이미 '-오ᄃᆡ'를 포함하는 일부 평가구문의 문맥에서 '-오ᄃᆡ'가 '-오미'로 교체될 수 있었던 것이 의사타진구문의 문맥으로까지 확대되어(언급된 '둏-' 구문의 문맥에서도) 17세기 이후의 의사타진구문에서는 '-오미'로 굳어진 형식이 전반적으로 지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가구문이 의문문으로 나타나며 이때 '-오ᄃᆡ'나 '-옴'이 이끄는 절의 서술어가 동사이고 평가구문의 서술어가 '둏-, 므던ᄒᆞ-' 등인 경우에 이 평가구문은 의사타진구문과 구조적으로 거의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것 같다. 가령 위의 예에서 한어의 번역본들에 나타나는 '됴티 아니ᄒᆞ랴'가, 『淸老』와 『蒙老』에서 '엇더ᄒᆞ뇨' 등으로 나와 전형적인 의사타진구문의 유형을 보이는 점도 범상히 보아 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그만큼 평가구문의 일부 문맥의 경우 의사타진구문과의 경계를 명확히 긋기 힘들 정도로 의사타진구문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다시 말해 '-오ᄃᆡ'나 '-옴'이 이끄는 절의 서술어가 동사이고 전체 문장이 의문문이 되 이 의문문의 서술어가 평가구문에 쓰이는 서술어로 청자의 기호, 사태의 수용 여부 등을 염두에 둔 '둏-, 므던ᄒᆞ-' 등일 때에 평가구문은 의사타진구문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蒙老」 네 드르라 이 다숫 됴흔 물쎄 여돏양이면 마흔 양이오 열사오나온 물쎄 매 ᄒᆞ나에 엿양이면 예순 양이니 대되 일백양이로다 <5:15b>

「重老」 이 홍졍을 이로쟈 <下 11b-12a>

ㄴ. 「飜老」 은을 가져오면 곧 그제라 <下 29b-30a>

「老諺」, 「平老諺」 銀을 가져오미 곳 올ᄒᆞ니라 <下 26b-27a>, <下 26b-27a>

「老新」 〔해당문장 없음〕

「淸老」 다시 은 ᄃᆞ쟈 <6:18a>

「蒙老」 됴흔 은을 골희여 가져오라 <6:12b>

「重老」 은 가져오라 곳 ᄑᆞ라 너ᄅᆞᆯ 주마 <下 28a>

ㄷ. 「飜老」 뎜도 ᄒᆞ마 다ᄃᆞᄅᆞ리로다 우리 므슴 음식을 머거ᅀᅡ 됴ᄒᆞᆯ고 <上 60b>

「老諺」 店도 ᄒᆞ마 다ᄃᆞᆯ이로다 우리 므슴 음식을 먹어야 됴ᄒᆞᆯ고 <上 54b>

「平老諺」 店도 ᄒᆞ마 다ᄃᆞᆯ이로다 우리 므슴 음식을 먹어야 됴ᄒᆞᆯ고 <上 54b>

「老新」 〔해당문장 없음〕

「淸老」 졈의 거의 니ᄅᆞ럿다 우리 무어슬 머그면 조흐료 <4:12b>

「蒙老」 졈에 거의 다ᄃᆞ랏다 우리 무엇을 먹어야 됴흐리 <4:7a>

「重老」 夏店도 ᄒᆞ마 다돌을이로다 우리 져기 무슴 차반 먹어야 죠흐료 <上 54b>

ㄹ. 「飜老」 新羅ㅅ 人蔘이면 ᄯᅩ 더욱 됴커니ᄯᆞ나 <下 3a>

「老諺」 新羅蔘이면 ᄯᅩ 됴타 <下 2b>

「平老諺」 新羅蔘이면 ᄯᅩ 됴타 <下 2b>

「淸老」 신라 인삼이면 ᄯᅩ 죠타 ᄑᆞ면 내지 못ᄒᆞᆯ가 <5:7a>

「蒙老」 신라 인삼이면 ᄯᅩ 됴타 <5:4a>

「重老」 新羅ㅅ蔘이면 ᄀᆞ장 죠흐니 <下 2b>

(8ㄱ)에서 『飜老』는 'VP-아도 므던ᄒᆞ-'의 구성을 보여 준다. 이에 대당하는 『老諺』에서는 'VP-오미 므던ᄒᆞ'의 구성을 보인다. 이들은 평가구문이지만 『飜老』와 『老諺』에서 보이는 교체는 의사타진구문에서 '-오ᄃᆡ'가 '-오미'로 교체되는 상황과 꼭 같은 양상을 보인다. 다만 위의 예에서는 『飜老』에 '-오ᄃᆡ' 대신 '-아도'가 왔을 뿐이다. (8ㄴ)의 『老諺』은 'VP-오미 곳 올ᄒᆞ니라'의 구조를 보인다. 이 역시 의사타진구문의 'VP-오미 엇더ᄒᆞ뇨'를 연상시킨다. 『老諺』에 대응되는 『飜老』를 살펴보면 'VP-오ᄃᆡ'가 기대되는 자리에 'VP-면'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ㄷ)에서는 'VP-어ᅀᅡ'가 'VP-오ᄃᆡ', 'VP-오미' 자리에 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의 『飜老』의 예들에서는 '-오ᄃᆡ'가 기대되는 자리에 '-아도' 나 '-면'이 등장함을 볼 수 있다. '-아도'나 '-면'은 '가정(조건)'의 의미를 부가하는 연결어미들이다. '-오ᄃᆡ'의 자리에 이들이 왔다는 것은 '-오ᄃᆡ'가 이끄는 절도 가정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ᄃᆡ'가 가정의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면 '-오미'가 출현하는 『老諺』의 예들[(8ㄱ), (8ㄴ)]에서 'VP-오미'도 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인가? 단순히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다.

여기서 '-오ᄃᆡ', '-오미', '-아도', '-면'이 통합된 절이 전체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ᄃᆡ'나 '-아도' '-면'이 이끄는 절은 기본적으로 부사절이다. 평가구문과 의사타진구문은 부사절이 선행하고 그 뒤에 '므던ᄒᆞ-' 등의 형용사, '엇더ᄒᆞ뇨'등의 의문형용사가 후행하는 구조를 가진다. 그런데 이 때 형용사나 '엇더ᄒᆞ뇨'에 선행하는 부사절은 형용사 혹은 '엇더ᄒᆞ뇨'에 대한 '언급대상'의 특징을 가진다. 형용사 서술어의 '언급대상'이란 문장 전체에서 주제적 성격을 띠기 마련이다. 의사타진구문에 나타나는

부사절을 '엇더ᄒᆞ뇨'에 대한 언급대상이라 했을 때 이 부사절 역시 전체 문장 안에서는 주제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특히 '-아도'나 '-면'이 이끄는 절이 기본적으로 '조건(가정)절'이라는 사실과 관련해서도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모든 조건은 주제다'라는 Haiman(1978) 의 유명한 명제는 현대국어에 대해서도 서태룡(1982) 등에 의해 검증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주제'와 '조건'의, 범주상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9) 「飜朴」 ᄒᆞᆫ 킈 큰 노미 큰 신 ᄡᅳ스고 나지어든 갓다가 바미어든 오ᄂᆞᆫ 거셔 <上 40a>
「朴諺」 ᄒᆞᆫ 킈 큰 놈이 큰 신 ᄡᅳ으고 나ᄌᆞᆫ 가고 밤은 오ᄂᆞᆫ 거시여 <上 36b>
「朴新」 ᄒᆞᆫ 킈 큰 놈이 큰 신 ᄡᅳ을고 나ᄌᆞᆫ 가고 밤은 오ᄂᆞᆫ 거시여 <1:39a>

(9)에서 『飜朴』의 조건의 연결어미 '-거든'에 『朴諺』과 『朴新』의 주제의 보조사 '-은'이 대응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9)의 예로부터 '조건'이라는 범주가 주제적 성격을 띤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의사타진구문에서 '엇더ᄒᆞ뇨'에 대한 언급대상으로서 '-아도'나 '-면'이 이끄는 조건의 부사절이 가지는 주제적 특성에 대한 확인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의사타진구문의 부사절은 모두 文頭에 위치하는데 주제어의 일반적 특성 중 '文頭性'이라는 것이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의사타진구문에서의 부사절의 위치도 해당 부사절이 주제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언어유형론적 관점의 연구(typological study)도 지금까지의 논의에 무게를 더해 준다. 범언어적으로 조건 표현, 처격 표현 등과 같은 부사어 혹은 부사절이 전체 문장에서 주제어로 기능하는 경우가 발견된다(Thompson and Longacre 1985:171-

233).[66] 이 때에도 부사어, 부사절은 일반적으로 문장의 가장 앞에 위치한다고 한다.

문장에서 주제어는 서술어로부터 직접 의미역을 받지는 못하지만 서술어의 주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형용사문에서는 동사문에서보다 그러한 특징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동사문에서 동작주가 주어인 경우에는 주어가 행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주제어와의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비해 형용사문에서는 주어나 주제어가 모두 화자의 심리적인 대상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또 형용사문의 주어는 동사문의 주어처럼 행위의 주체라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제어와 공유하는 화자의 심리적 대상이라는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형용사문의 주어가 화자에 의한 서술 대상이라는 특성을 가지듯이 주제어도 화자에 의하여 형용사에 대한 '언급대상'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형용사문에서는 동사문에서보다 주제어와 주어가 훨씬 더 비슷해지는 형국을 이루게 된다.[67] 의사타진구문 전체 문장에서 주제어로서 기능하는 '-아도', '-면', '-오딕'가 이끄는 절 대신에 'VP-오미'가 교체되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형국을 잘 반영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다음의 예들도 '-아도', '-면', '-오딕'의 넘나드는 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들의 이러한 넘나드는 관계는 이들이 이끄는 절이 전체 문장

66) Thompson and Longacre(1985:171-233)에서는 부사절이 discourse안에서 응결성(cohesion)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 때 부사절은 일련의 주절에 연결됨으로써 전체 문장 구조 내에서 '주제'(topic)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부사절이 주제어로 나타나는 언어들의 범위는 Turkish, Hua어(Papuan Language의 일종), Lisu어(Tibeto Burman Language의 일종), Isthmus Zapotec어 등 광범위하다. 부사절이 주제어적 역할을 하는 현상이 유독 국어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이다. 주제의 일반적인 성격에 관해서는 Li & Thompson(1976) 등이 참조된다.

67) 보통 주제어는 주제의 보조사 '은/는'이 통합되지만 주격조사 '이/가'에 의해 대치될 수도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겨울이 눈이 많다.'와 같은 경우가 그것이다. 주제어가 가지는 화자의 '언급대상성(aboutness)'에 관한 논의와 주어와 주제어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는 임홍빈(1987:379-430), 이홍식(1996:43-44) 등이 주로 참조된다.

구조 내에서 가지는 주제어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10)

ㄱ. 「飜朴」 안직 여러 날 머겨 ᄑᆞ로ᄃᆡ 됴ᄒᆞ니라 <上 51b>
「朴諺」 아직 요ᄉᆞ이 먹여 ᄑᆞᆯ면 됴호려니와 <上 46b>
「朴新」 네 아직 여러날 喂養ᄒᆞ여 져기 기ᄃᆞ려 다시 ᄑᆞᆯ라 <1:50a>

ㄴ. 「飜朴」 ᄃᆞᆯ ᄎᆞᆫ 날 디나거든 머거도 므던ᄒᆞ니라 <上 56a>
「朴諺」 ᄃᆞᆯ이 차 디나면 먹어도 일에 해롭디 아니ᄒᆞ리라 <上 50a>
「朴新」 ᄃᆞᆯᄎᆞ기ᄅᆞᆯ 기ᄃᆞ려 곳 生命의 것을 머그면 일에 해롭지 아니ᄒᆞ니라 <1:54b>

ㄷ. 「朴諺」 져기 됴ᄒᆞᆫ 因緣을 지으면 됴티 아니ᄒᆞ랴 <中 49a>
「朴新」 져기 됴ᄒᆞᆫ 일을 ᄒᆞ여 됴ᄒᆞᆫ 因緣을 ᄆᆡᄌᆞᆷ이 엇지 이 됴치 아니ᄒᆞ랴 <2:54b>

ㄹ. 「飜朴」 네 네손ᄂᆞᆯ 더두면 마치 됴ᄒᆞ리로다 <上 23a>
「朴諺」 네 네흘 졉혜야 了 됴호리라 <上 22a>
「朴新」 네 므슴 큰 말 니ᄅᆞᄂᆞᆫ다 내 너ᄅᆞᆯ 네흘 졉쟈 <1:26b>

(10ㄱ)에서는 『飜朴』의 '-오ᄃᆡ'가 『朴諺』에서는 '-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10ㄴ)에서는 『飜朴』과 『朴諺』의 '-어도'가 『朴新』에서는 '-면'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부정 의문문의 의사타진문형이지만 수사의문문적인 표현 효과를 가지는 (10ㄷ)과 같은 구문에서도 『朴諺』의 '-면'이 '-(으)미'로 나타나고 있다. 명사형어미에 분포하는 '오'의 소멸로 '-(으)미'가 나타남이 주목된다. (10ㄷ)에서의 『朴新』의 '됴ᄒᆞᆫ 인연을 ᄆᆡᄌᆞ미 엇지 이 됴치 아니ᄒᆞ랴'에서 '이'는, 『朴諺』의 원문과는 달리 『朴新』의 원문 자체가 '是'가 첨가되는 식으로 개수되었기 때문에 이 '是'를 직역한 결과 나타난 요소임에

주의해야 한다. (10ㄹ)에서는 『飜朴』의 '-면'이 『朴諺』에서는 '-어야' 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특히 드물게 보이는 (11)과 같은 예는 의사타진구문과 같은 형용사문에서 주제어적 기능을 하는 구성이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의 것일 수 있음을 잘 보인다.

(11) 「朴新」 우리 ᄒᆞᆫ가지 ᄡᅧ시 이셔 너와 밧고고져 ᄒᆞ니 엇더ᄒᆞ뇨 <2:7a>

결국 의사타진구문에서 부사절 구성인 'VP-아도', 'VP-면', 'VP-오ᄃᆡ' 등과, 'VP-오미'가 교체되어 나타나는 이유는 의사타진구문이 기본적으로 형용사문이고 이러한 형용사문에서 위의 부사절 구성들이 주제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제어와 주어가 비슷한 형국을 이루는 형용사문의 일반적 특성상 'VP-오미'는 이들 부사절들과 교체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3.2.5.3. 구문 유형 변화의 양상과 그 배경

위와 같이 교체 양상의 배경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VP-오ᄃᆡ'가 『老諺』 이후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17세기 이후의 『老乞大』와 『朴通事』의 이본들의 의사타진구문에서도 '-오ᄃᆡ'가 올 자리에서 '-오미' 외에 '-어도', '-면', '오미((으)미)' 등의 구성은 찾아 볼 수 있으나 '-오ᄃᆡ(혹은 '으되')'에 의한 구성은 단 한 예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는 '-오ᄃᆡ'가 나타나지 않는 17세기 이후의 자료가 통시적 변화를 반영한 것임을 말해 준다. 정확하게 그 이유를 집어 말하기는 힘들지만 17세기 이후 나타나는 '-오미' 쪽으로의 편재적 분포는 화자의 선택에 의한 일종의 문체적 변화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다른 한편으로 '-오듸'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연결어미 '-오듸'의 전반적인 기능 축소와 관련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오'의 소멸로 인해 '-오듸'는 '으되, -되' 등 여러 형식으로 나타나는 등 부침을 겪기는 하지만 의사타진구문과 같은 형용사문의 문맥이 아닌 문맥에서는 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2) 「飜朴」 창 안해셔 지낼 삭 주듸 돈 셜흐네 ᄒᆞᆫ 셤 식 ᄒᆞ라 <上 12a>
「朴諺」 더ᄅᆞᆯ 적은 삭 갑ᄉᆞᆯ 주되 삼십 낫 돈에 ᄒᆞᆫ 짐 식 ᄒᆞ고 <上 13a>
「朴新」 또 더 쟈트메ᄂᆞᆫ 사ᄅᆞᆷ의 져근 삭 갑ᄉᆞᆯ 줄 써시니 이거시 다 결싼코 업지 못ᄒᆞᆯ 써시라 <1:14ab>

결국 '-오듸'는 17세기 이후 의사타진구문과 같은 형용사문 등의 문맥에서 특히 분포의 축소를 비롯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논의한 의사타진구문에서의 변화는 일종의 문체적 변화로 규정될 수도 있겠다.

한편, 다음과 같은 예에서는 근대국어 이후 의사타진구문의 변화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13) 「淸老」 네 이번 涿州 싸히 홍졍ᄒᆞ라 가ᄂᆞᆫ 거시 엇더ᄒᆞ뇨 <8:15a>

(13)은 '-옴'에 의한 명사절이 '오'의 소멸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ㄴ 것'의 명사구보문 구성으로 대체됨에 따라 의사타진구문의 유형도 변화되어 감을 보인다.[68] 이러한 변화가 현대국어에까지 이어짐은 굳이

68) '우리ᄂᆞᆫ 조선 사ᄅᆞᆷ이라 눅은 국슈 먹기 능히 못ᄒᆞ니 그저 ᄆᆞᄅᆞᆫ 것 먹으미 엇더ᄒᆞ니<蒙老 4:7b>'와 같이 '엇더ᄒᆞ니'로 맺는 의사타진구문도 볼 수 있다.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편 의사타진구문의 구조적 성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14)

ㄱ. 「飜朴」 ᄯᅩ 이 ᄒᆞᆫ 디위 마조믈 니버도 올토다 <上 36b>

「朴諺」 ᄯᅩ 이 ᄒᆞᆫ 디위 마즘을 니버도 올흐니라 <上 33b>

「朴新」 이 ᄒᆞᆫ 디위 티미 ᄯᅩ 이 맛당ᄒᆞ도다 <1:36a>

ㄴ. 「朴諺」 우리 사ᄅᆞᆷ이 오ᄂᆞᆯ 죽을 줄 너일 죽을 줄 아디 못ᄒᆞ니 져기 됴흔 因緣을 지으면 됴티 아니ᄒᆞ랴 <中 49a>

「朴新」 우리 사ᄅᆞᆷ이 사라 세상에 이셔 오ᄂᆞᆯ 죽을 ᄯᅩᆼ 너일 죽을 ᄯᅩᆼ 다 정치 못 ᄒᆞᄂᆞ니 져기 됴흔 일을 ᄒᆞ여 됴흔 인연을 ᄆᆡ즘이 엇지 이 됴치 아니ᄒᆞ랴 <2:54b>

(14ㄱ)에서는 『飜朴』과 『朴諺』의 원문 '却喫這一頓打也是' 중 '是'가 『飜朴』과 『朴諺』에서 '올ᄒᆞ-'로 번역됨을 볼 수 있다. 『朴新』에서는 원문이 개수되어 '這一頓打却也是該的'이 되었는데 이 때 '是'는 지시어이며 언해에도 지시어 '이'로 번역되었다. 그런데 『飜朴』과 『朴諺』의 언해에 '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飜朴』과 『朴諺』의 원문에 지시어에 해당하는 '是'가 아예 없기 때문이지 생략에 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飜朴』과 『朴諺』의 언해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14ㄴ)의 『朴諺』과 『朴新』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朴諺』의 원문은 '做些好因緣時不好'이다. 원문에 '是'는 포함되지 않았고 언해도 그런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朴新』은 원문이 '做些好事結箇好因緣 豈不是好呢'로 개수되어 원문 자체가 지시어 '是'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언해에 충실히 반영하여 지시어 '이'로 언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朴諺』의 언해문에 대해서는 지시어 '이'가 생략된 것으로 파악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朴諺』의 경우에는 원문 자체가 지시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해 부분의 의사타진구문 'VP-오딗 엇더ᄒᆞ뇨'와 'VP-오미 엇더ᄒᆞ뇨'에 있어서도 'VP-오딗'나 'VP-오미' 뒤에 '이'와 같은 지시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구조에서 '엇더ᄒᆞ뇨'의 언급대상은 어디까지나 'VP-오딗'나 'VP-오미' 자체임을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타진구문'은 평가구문의 한 문맥이 굳어져 형성된 구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사타진구문은 그 안에 포함된 절을 이끄는 형식이 여러 가지로 교체되어 나타났다. 의사타진구문에 포함된 절이 전체 문장 내에서 획득하는 주제어적 성격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老諺』과 『朴諺』 이후에는 의사타진구문의 형식들 중 'VP-오딗 엇더ᄒᆞ뇨'의 형식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VP-오딗 엇더ᄒᆞ뇨'는 『老諺』과 『朴諺』 이후 'VP-오미 엇더ᄒᆞ뇨'와 'VP-(으)미 엇더ᄒᆞ뇨'를 거쳐 '-ㄴ 거시 엇더ᄒᆞ뇨'로 이어진다.

3.2.6. 시간경과구문의 비교

3.2.6.1. 시간경과구문의 특징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에는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상황이 지속되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구문이 자주 보인다. 시간경과구문[69]은 15세기부터 관형사형어미와 의존명사 'ᄃᆞ', 그리고 주격

69) '시간경과구문'이란 용어는 정재영(1996:59-79)에서 가져온 것이다. 정재영(1996: 59-79)에서는 시간경과구문에 쓰이는 '-ㄴ 디'의 내적 구조를 기원적으로 [[[-ㄴ]#

조사가 통합된 '-ㄴ#디'([[(-ㄴ]#ᄃᆞ]+ㅣ])에 선어말어미 '-거/어-'를 개재한 채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70] 『老乞大』와 『朴通事』 언해본의 시간경과구문에도 '-ㄴ 디'에 선어말어미 '-거/어-'가 거의 필수적으로 개재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1)]. 그런데 이 때 '-거/어-'가 통합되는 용언은 동사로 제한된다.

(1)

ㄱ. 「飜朴」 우리 벋지셔 ᄆᆞᅀᆞᆷ 아란 디 여러 ᄒᆡ로ᄃᆡ ᄆᆞᅀᆞᆷ 됴히 너기ᄂᆞᆫ 형뎨 듨에 ᄒᆞᆫ번도 ᄆᆞᅀᆞᆷ 아논 말ᄉᆞ믈 니르디 몯ᄒᆞ야 이시니 <上 72a>

ㄴ. 「飜老」 ᄃᆞᆯ기 우런 디 세 홰어다 <上 38a>

시간경과구문의 '-ㄴ 디'에 대해서 경과된 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표현이 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시간경과구문의 '-ㄴ 디'에 '-거/어-'가 개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행하는 후행요소의 서술어에라도 '-거/어-'가 개재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15세기의 예이긴 하지만 (2ㄱ)의 '몯거시든'은 그러한 양상을 잘 보인다.

(2)

ㄱ. 「法華」 그 제로 오신 디 손ᄌᆞ 오라디 몯거시든 <5:119>

ㄴ. 「釋譜」 그 ᄢᅴ 人間애 이셔 부텨 몯 보ᅀᆞᄫᆞᆫ 디 오라더니 <11:1>

ㄷ. 「法華」 秦 시절에 飜譯ᄒᆞ야 오난 디 거싀 八百 ᄒᆡ니 <序:21>

ᄃᆞ]+ㅣ(주격조사)]와 같이 분석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하나의 통합구조체로 파악하고 있다. 본고는 이 시기 'ᄃᆞ'가 이러한 구조에서 문법화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ㄴ 디'를 통합구조체로 파악하기보다는 주격조사가 통합된 명사구 보문 구성으로 파악하여 기술한다. 이에 '-ㄴ 디'와 같이 'ㄴ'과 '디'를 띄어 쓰거나 'ㄴ#디'와 같이 표기하기로 한다.

70) 15세기에는 '나신 닐웨'와 같이 '동명사 + 양화표현'의 구조로 '-거/어-'나 '디'의 개재 없이 시간경과표현이 쓰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보통 '-ㄴ 디'에 '-거/어-'가 개재됨이 보통이었던 듯하다. 위와 같은 예들은 '-거/어-'가 시간경과구문의 형성에 있어 모종의 역할을 했음을 잘 보여준다.

3.2.6.2. '-거/어-'와 시간경과구문

그렇다면 '-거/어-'는 시간경과구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일까? (2ㄴ)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ㄴ) 역시 전형적인 시간경과구문이다. '보숩+아+ㄴ#디'의 구성에 '오라더니'와 같이 시간경과의 정도와 의미상 호응할 수 있는 서술어가 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2ㄴ)에서 '부처를 못 보아온 상황'이란 것이 어떠한 시간 국면에 전개되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쁴'라는 시간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쁴'가 지시하는 시간 이전부터 '그 쁴'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선상에 '부처를 못 보아온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쁴'는 시간경과구문이 등장하는 텍스트상에서 기준시점이 되고 그 기준시점 이전부터 벌어진 상황이 그 기준시점 '그 쁴'가 지시하는 시간에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2ㄴ)은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다름 아닌 '보ᅀᆞᄫᆞᆫ 디'에 통합된 '-어-'에 의해 획득되는 의미로 이해된다. 시간경과구문이 보이는 위와 같은 의미 특성은 '-ㄴ 디'에 통합되어 있는 '-거/어-'에 의해 획득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때의 '-거/어-'가 완료(perfect)의 기능[71]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후행하는 서술어 '오라더니'는 그 지속의 상황을 양적으로 구체화하여(정도화하여) 표현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量化를 위해 '오라다'와 같은 형용사가 올 수도 있지

71) '-거/어-'의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3.1.1.과 3.1.2. 참조.

만 (2ㄷ)의 '八百 ᄒᆡ니'에서처럼 구체적인 시간을 지시하는 명사에 계사가 통합한 구조가 오기도 한다. 시간경과구문에서 '-거/어-'의 완료적인 성격이 확연히 부각되는 것 같다. 텍스트가 부여하는 기준시점을 축으로 기준시점 이전부터 기준시점까지 전개되는 상황의 지속이 '-거/어-'에 의해 표지됨으로써 그러하다.

3.2.6.3. 제 이본에서의 시간경과구문

그런데 '-거/어-'가 개재되는 이 시간경과구문은 대부분 17세기 이후에도 '-거/어-'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을 중심으로 그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3)의 예를 살펴보자.

(3)

ㄱ. 「飜朴」 우리 벋지ᅀᅥ <u>ᄆᆞᅀᆞᆷ 아란 디 여러 ᄒᆡ로ᄃᆡ</u> <上 72a>
「朴諺」 우리 結相識ᄒᆞ여 <u>心腹 아란 디 여러 ᄒᆡ로ᄃᆡ</u> <上 63a>
「朴新」 우리 서ᄅᆞ <u>됴한 지 여러 ᄒᆡ라</u> <2:7a>

ㄴ. 「飜老」 너희 둘히 예 <u>오난 디 언머 오라니오</u> <上 68b>
「老諺」, 「平老諺」 너희 둘히 예 <u>오난 디 언머나 ᄒᆞ뇨</u> <上 61b>, <上 61b>
「淸老」 너희 둘히 여긔 <u>완 지 언머나 오래뇨</u> <5:1a>
「蒙老」 너희 둘히 여긔 <u>완 지 언마 오래뇨</u> <4:17b>
「重老」 너희 둘이 여긔 <u>완 지 언머째나 ᄒᆞ뇨</u> <上 62b>

ㄷ. 「朴諺」 우리집 놈을 다가 잡아 가 <u>가도완 디 이틀이오</u> <下 15b>
「朴新」 내 집 아ᄒᆡ 놈을 다가 자바 가 <u>가도완 지 이틀이오</u> <3:20a>

ㄹ. 「飜老」 ᄃᆞᆯ기 <u>우런 디 세 홰어다</u> <上 38a>
「老諺」, 「平老諺」 ᄃᆞᆰ이 <u>울언 디 세 홰니</u> <上 34b>, <上 34b>

「老新」 ᄃᆞᆰ이 우런 지 세 홰니 <上 48a>
「淸老」 ᄃᆞᆰ이 세번 울어 ᄒᆞᄂᆞᆯ이 거의 ᄇᆞᆰ게 ᄒᆞ여시니 <3:3b>
「蒙老」 ᄃᆞᆰ이 세번 우러시니 하ᄂᆞᆯ이 ᄒᆞ마 ᄇᆞᆰ으리라 <3:1a>
「重老」 ᄃᆞᆰ이 우런 지 세 홰니 <上 34b>

(3ㄱ)에서는 『飜朴』을 참조하지 못한 『朴諺』에서도 '-거/어-'가 통합되어 나타남이 주목을 끈다. 『朴新』에서도 '-거/어-'가 통합되었음을 볼 수 있다. 『朴新』의 '됴한지'는 '동-+-아-+ㄴ#지' 정도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ㄴ#지'는 '-ㄴ#디'의 '디'가 구개음화를 겪은 어형이다. 후행 요소로 경과된 시간을 量化시키는 표현인 '여러 ᄒᆡ니'가 통합되어 있다.

(3ㄴ)은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오-'에 대한 시간경과구문을 형성함에 있어 '-거/어-'의 이형태인 '-나-'가 초간본에서 『平老諺』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통합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老新』이후부터는 '-아-'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이하다. 따라서 『淸老』 이후의 '완지'는 '오+아+ㄴ#지' 정도로 분석되는 것이다.

(3ㄷ)의 경우 '가도완지'는 '가도+아+-ㄴ#지' 정도로 분석된다. '가도-'와 '-아-' 사이에 개재되는 '오'는 모음어미와 모음어미가 연결되는 경우 수의적으로 삽입되는 존재다.[72]

(3ㄹ)은 특이한 예이다. 『飜老』에서는 '-거/어-'가 '우런 디'와 '세 홰어다'에서 볼 수 있듯이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복은 『老諺』에서부터 바로잡혀 '우런#디'에서만 '-어-'가 통합됨을 볼 수 있다. (2ㄱ)의 '그 제로 오신 디 ᄉᆞᆫ직 오라디 몯거시든<法華 5:119>'과 같이 구체적인 경과 표현이 나타나는 서술부에 '-거/어-'가 통합되는 예와 대비된다.

(3)에서는 『老乞大』 언해본의 후대본들뿐 아니라 『朴通事』 언해본

72) 이에 관해서는 졸고(1996) 참조.

의 후대본들에서도 시간경과표현에 '-거/어-'가 개재되는 양상이 계속 이어짐을 볼 수 있다. 특히 『老諺』의 언해자들은 『飜老』를 참조한 반면 『朴諺』의 언해자들은 『飜朴』을 참조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飜朴』의 '-거/어-'가 개재된 시간경과표현이 『朴諺』에서도 변화없이 나타남은 '-거/어-'가 개재된 시간경과표현이 『朴諺』의 시기에도 변함없이 상용되었던 표현이었음을 확실히 알려준다. 또 위의 예는 이러한 시간경과표현이 심지어 『老新』, 『重老』, 『朴新』의 시기에도 여전히 사용되었음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4)에서도 『飜朴』의 '-거/어-'가 개재된 시간경과구문이 『朴諺』에 그대로 이어짐을 볼 수 있다.

(4) 「飜朴」 나ᄅᆞᆯ 에도라 ᄃᆞ니니 달라 ᄒᆞ얀 디 半年이나 ᄒᆞ되 <上 34b-35a>
「朴諺」 뎌 나귀 얼러 나ᄒᆞᆫ 놈이 그저 날을 수머 ᄃᆞ니고 달라 ᄒᆞ연 디 半年이로되 <上 31b-32a>
「朴新」 뎌 나귀씌 그저 나ᄅᆞᆯ 수머 ᄃᆞᆫ녀 도금 반년을 달라 ᄒᆞ되 <1:34b-35a>

그러나 (4)는 이러한 시간경과표현이 『朴諺』까지 유지됨을 보이지만 『朴新』에서는 번역 자체를 달리 하여 시간경과구문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게 된 예이다.

다른 본들의 표현 자체가 달라 비교를 행할 수는 없지만 '-거/어-'가 개재된 시간경과표현을 보이는 다음과 같은 예들도 있다.

(5)
ㄱ. 「淸老」 내 ᄃᆞ니지 아니ᄒᆞ연 지 여러 ᄒᆡ 오랜 고로 니ᄌᆞᆺ노라 <4:12b>

ㄴ. 「朴諺」 날을 ᄃᆡ희연 디 半年이니 <中 45b>
「朴新」 내 임에 이션 지 여러 ᄒᆡ로되 <2:50b>

이중에서 특히 (5ㄱ)과 (5ㄴ)이 주목되는데 (5ㄱ)의 경우 다른 이본에 대응되는 표현이 없다. 그러나 (5ㄱ)은 한어를 언해한 간본이 아니었음에도 '-거/어-'를 개재한 시간경과구문을 보임이 주목된다. (5ㄴ)의 경우도 『朴諺』에는 『飜朴』에 대응되는 표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朴諺』의 언해자들이 '-거/어-' 개재 시간경과구문을 사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飜老』의 번역을 참조한 『老諺』에서도 항상 『飜老』에 사용된 시간경과표현을 그대로 따라 사용하지는 않았다. 『老諺』의 언해자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飜老』에서 쓰였던 시간경과표현이 『老諺』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6)이 이를 잘 보인다.

(6) 「飜老」 우리 ᄆᆞᆫ그ᄉᆞ디 말오 서늘ᄒᆞᆫ 적 미처 ᄆᆞᆯ도 ᄯᅩ 머건 디 ᄇᆡ브ᄅᆞᆫ 저긔 모라 녀져 <上 60a>

「老諺」, 「平老諺」 우리 ᄆᆞᆫ그ᄋᆞ디 말고 서늘ᄒᆞᆫ 제 밋처 ᄆᆞᆯ이 ᄯᅩ 먹어 ᄇᆡ브론 제 모라 녜쟈 <上 54a>, <上 54a>

「清老」 우리 쉬지 말고 서늘ᄒᆞᆷ을 밋처 가쟈 <4:12a>

「蒙老」 우리 쉬지 말고 서늘ᄒᆞᆫ ᄣᅢ예 밋ᄎᆞ ᄆᆞᆯ이 집먹어 ᄇᆡ부로거든 잇그러 가쟈 <4:6b>

「重老」 우리 ᄆᆞᆫ그ᄋᆞ지 말고 서늘ᄒᆞᆫ 제 밋처 ᄆᆞᆯ이 ᄯᅩ 먹어 불러시니 이ᄅᆞ믈 밋처 ᄲᆞᆯ리 가쟈 <上 54b-55a>

(6)에서는 『飜老』의 언해자가 문장을 시간경과구문으로 언해하고 있는 반면 『老諺』 이후에는 『飜老』의 번역을 수정하여 언해문에 시간경과구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경과구문에서 '-거/어-'가 보이는 의미는 18세기 후반까지도 목격할 수 있는 '-거다/-어다'의 완료적

기능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을 알 수 있다. 『老乞大』, 『朴通事』의 18세기 언해본들의 시간경과구문에서도 '-거/어-'가 유지되어 나타나는 점은 종결형의 '-거다/-어다'에서의 '-거/어-' 역시 18세기 언해본들에서 유지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두 경우에서 모두 '-거/어-'의 완료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가 부여하는 일정한 기준시점 이전부터 그 기준시점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상황의 전개를 '-거/어-'가 통합된 '-ㄴ 디'의 구성으로 표현하되 후행요소로 구체적인 양화표현을 수반하여 어떠한 사태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지속되는 상황을 구체적인 시간표현으로 나타낸 구문이 바로 시간경과구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거/어-'가 '-ㄴ 디' 구성에 개재됨은 전체 구문이 획득하는 '시간경과'라는 의미 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할 수 있겠다. 『老乞大』 언해본들과 『朴通事』 언해본들을 비교한 결과 이러한 시간경과구문이 18세기까지도 생산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어휘의 비교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에는 매우 다양한 어휘들이 등장한다. 그 수효와 종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뿐 아니라 대상이 되는 어휘 하나 하나에 얽힌 논의거리 역시 무궁무진하다.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긴 시간과 정력을 소요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무수히 등장하는 차용어 사례[1]에 대한 설명과 고찰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 역시 단기간 내에 해명하기 힘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까지 집중적인 조명을 받지 못했던 어휘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되 어휘 하나 하나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본들마다 보이는 어휘간의 차이에 주목하고 그들간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 때 주로 개별 어휘가 쓰인 문맥을 중심으로 어휘의 의미를 추적해 보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되 번역문과

1) 이기문(1965; 1991)이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업적이다.

그와 비교되는 원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작업 중에 기존의 논의에서 잘못 해석된 것으로 보이는 어휘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老朴集覽』에 등재된 어휘와 그 해설에 대한 참조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 차용어 등의 어휘에 대해서는 그 어휘의 원문 한자에 달린 한자음 등에 주목하여 차용의 하한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老乞大』 언해본의 어휘에 대해 풀리지 않는 미궁의 문제를 『朴通事』 언해본의 어휘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해결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어휘가 그 다음 시기의 이본에서 다른 어휘로 대체되었다고 해서 그 어휘의 완전한 소멸이나 다른 어휘 형식으로의 완전한 대체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다만 이본들간에 차이를 보이는 어휘 대체의 양상은 통시적인 경향의 대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게 할 뿐이다.

어떤 어휘나 문법형식이 쓰이지 않게 되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飜老』의 초간본에서는 '곰'이 쓰이기도 하고 '식'이 쓰이기도 한다. 물론 『老諺』 이후로는 '식'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지만 『飜老』 시기에 이미 '식'이 쓰이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다.

(1) 「飜老」 이 됴ᄒᆞᆫ ᄆᆞᆯ 닷 피레[2]ᄆᆡ ᄒᆞᆫ 피레 은 여ᄃᆞᆲ 량곰 ᄒᆞ면 대되 마은 량이오 이 열 사오나온 ᄆᆞᆯ게ᄂᆞᆫ ᄆᆡ ᄒᆞ나ᄒᆡ 은 엿 량<u>시기면</u> 대되 예슌 량이니 <下 12a>

「老諺」 이 닷 빌 됴ᄒᆞᆫ ᄆᆞᆯ게ᄂᆞᆫ ᄆᆡ ᄒᆞᆫ 필의 여ᄃᆞᆲ 냥 <u>은식</u> ᄒᆞ면 대되 마은 냥이오 이 열 사오나온 ᄆᆞᆯ게ᄂᆞᆫ ᄆᆡ ᄒᆞ나ᄒᆡ 엿 냥 <u>은식</u> ᄒᆞ면 대되 예슌 냥이니 <下 10b-11a>

「平老諺」 이 닷 필 됴ᄒᆞᆫ ᄆᆞᆯ게ᄂᆞᆫ ᄆᆡ ᄒᆞᆫ 필의 여ᄃᆞᆲ 냥 <u>은식</u> ᄒᆞ면 대되 마은

---

2) 훨씬 우리말 어순에 가깝다. 특히 『老諺』 등의 '이 닷 빌 됴ᄒᆞᆫ ᄆᆞᆯ'과 비교해 보면 직역의 영향을 덜 받았음을 잘 알 수 있다.

냥이오 이 열 사오나온 몰게는 믹 ᄒᆞ나히 엿 냥 은싀 ᄒᆞ면 대되 예슌 냥이니 <下 10b-11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네 들으라 아 다ᄉᆞᆺ 죠흔 몰개 몰마다 여ᄃᆞᆲ양싀 ᄒᆞ면 마흔 양 되고 열조치 아닌 몰게 몰마다 엿양싀 ᄒᆞ면 <5:18b>
「蒙老」 네 드르라 이 다ᄉᆞᆺ 됴흔 몰쎄 여ᄃᆞᆲ양이면 마흔 양이오 열사오나온 몰쎄 매 ᄒᆞ나에 엿양이면 <5:15b>
「重老」 이 열 필 죠흔 몰쎄는 每 ᄒᆞᆫ 필에 여ᄃᆞᆲ 냥 은이니 대되 여ᄃᆞᆫ 냥이오 <下 11b-12a>

이제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에 나타나는 어휘 몇 가지를 중심으로 이본들마다 차이를 보이는 양상에 관한 논의와 그 쓰임새의 비교를 행해 보겠다.

4.1. 동사류 및 형용사류

♣ '두-, 둘우-'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들에는 그 의미나 내적구성이 분명하지 않은 어사들이 종종 눈에 뜨인다. '두어, 두워, 둘워'등의 형식들이 그에 해당한다.

『老乞大』와 『朴通事』의 이본들에는 '罷'가 연속된 '罷罷'에 대응하는 어사로 '두어 두어' 등과 같은 형식 등이 보이는데 이들의 실현양상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 그 내적 구성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반잔만 참기름 두워<飜老 上 21b>'의 구절은 '罷罷'에 대한 번역인 '두워, 두워'의 구조를 짐작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 「飜老」 두워 두워 四百 쉰 낫만 가져오라 <上 23b>
「老諺」, 「平老諺」 두워 두워 그저 四百 쉰 낫 돈을 가져오라 <上 21b>, <上 21b>
「老新」 두어 두어 네 그저 四百五十 낫 돈을 주미 무던ᄒᆞ다 <上 29a>
「清老」 두어라 두어라 사백 쉰 낫 돈으로 ᄒᆞ게 ᄒᆞ쟈 <2:8b>
「蒙老」 그리ᄒᆞ쟈 그리ᄒᆞ쟈 사백 쉰 잣 돈을 다고 <2:6a>
「老新」 두어 두어 네 그저 四百五十 낫 돈을 주고려 <上 21a>

위의 대사는 500 錢이나 되는 물건값을 조금만 깎아 달라는 손님의 의사타진에 대해 상점의 주인이 450 錢으로 물건값을 깎아 주겠다는 뜻으로 응답하는 부분이다. 결국 대사 초반부의 '두워 두워'는 앞서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문맥에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의 예 중 다른 이본들의 예와 대비되는 『清老』의 예는 '두워'라는 형식이 어디에서 연원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清老』의 '두어라'는 일단 『老新』의 '두어'와 관련 있어 보인다. 바로 'ᄒᆞ야라'체의 명령형인 '두어라'의 어말 음절 '라'가 탈락하면서 '두어'라는 형식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老新』의 예에서 우리는 그와 꼭 일치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타의 이본들의 형식이 '두어'가 아닌 '두워'와 같이 나타나는 이유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두워'는 15세기에서 16세기를 넘어가는 시기 개음절로 끝나는 용언어간과 '-아/-어'계 어미와의 결합시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w삽입에 의한 형식이 아닌가 추정된다.[3] 즉 개음절 어간 '두-'에 '-어라' 혹은 '어'와 같은 어미가 통합될 때 일어난 w삽입에 의해 '두워'와 같은 형

3) 이에 관해서는 김종규(1989), 졸고(1996) 참조.

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飜老』에 나타나는 개음절 어간으로 끝나는 용언어간 활용형의 형식들 중에는 이러한 활음 삽입에 의한 어형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 역시 '두워'에 대한 위와 같은 분석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듯하다. 가령 『老諺』 등의 예에 '주어'라는 형식이 나타남에 비해 이에 대응되는 『飜老』에는 '주워<飜老 上 24ab>'의 형식이 나타나는 예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다음 (2)의 예도 (1)의 예와 동궤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2) 「飜老」 두워 두워 너희 나그네내 그저 이 술윗방의 잘 뎌 ᄒᆞ야 이시라 <上 55ab>
「老諺」, 「平老諺」 두어 두어 너희 나그내 그저 이 술윗방의 잘 뎌 ᄒᆞ여 이시라 <上 49b-50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오냐 너희 여러 나그너들이 술윗집의 잘 곳을 출호라 <4:5b>
「蒙老」 오냐 너희 나그너들 그저 이 술윗집의 잘 곳을 다ᄉᆞ리라 <3:23a>
「重老」 ᄯᅩ 무던ᄒᆞ다 나그너들 아직 술위ㅅ방에셔 收拾ᄒᆞ라 <上 50b>

(2)의 예도 죽을 쑤어 줌이 어떠한가 하는 나그네들의 의사타진에 대해 숙소의 주인이 죽을 쑤어 주겠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문맥에서 '두워 두워'가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대응되는 부분의 『淸老』와 『蒙老』의 번역이 '오냐'에 해당하는 것도 이러한 점과 관련시켜 볼 수 있다. 위의 번역 양상은 '두어'라는 형식의 의미가 '됐어' 혹은 '그래그래' 정도로 파악될 수 있음을 보인다. '罷罷'는 현대 중국어에서도 '놔 두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됐어, 됐어'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두워'와 형식적으로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지만 의미상 비슷한 문맥에서 쓰이는 형식이 눈에 뜨인다. 『飜老』에서 보이는 '둘워'가 그것이다.

(3) 「飜老」 두워 두워 둘워 두져 ᄡᅳ디 몯ᄒᆞ야도 므던타 <上 65b>
「老諺」, 「平老諺」 두어 두어 두어라 ᄒᆞ여 두쟈 ᄡᅳ디 못ᄒᆞ여도 무던ᄒᆞ다 <上 59a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해당 문장 빠짐〕
「蒙老」 두어라 ᄡᅳ지 못ᄒᆞ야도 관계치 아니타 <4:14b>
「重老」 두어 두어 두어라 ᄒᆞ여 두쟈 곳 ᄡᅳ지 못ᄒᆞ여도 무던ᄒᆞ다 <上 60a>

『飜老』를 기준으로 앞에 나오는 두 개의 '두워'에 대한 원문이 '罷罷' 정도임에 비해 뒤의 '둘워'에 대해서는 '將就'가 대응된다. 또 『老諺』 등의 경우에는 그 '將就'에 대한 언해문으로 '두어라 ᄒᆞ-'가 대응됨을 볼 수 있다. '將就'는 '老乞大集覽'에도 나와 있는 표제어로 '용인'의 뜻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의 장면은 술 파는 사람이 나그네들에게 술이 좋지 않으면 술값을 내지 말라고 하고 그에 대해 나그네들이 응답하는 장면이다. 그러므로 문맥상 위에서 쓰인 '둘워'가 '됐다, 괜찮다' 정도의 '용인'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는 '罷罷'의 번역인 '두워라'라는 형식의 의미와도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다. '將就'에 대한 '猶容認扶護之意<老朴集覽 累字解>' 해설도 참조된다.

위와 같은 설명이 성립될지라도 '두워라'나 '둘워'가 국어의 어디에서 연원한 어사인지가 해명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먼저 '두워라'에 대해 알아보자. '반잔만 참기름 두워<飜老 上 21b>', '내 앗가 싱각호니 이 아니 여러 양도 ᄒᆞᆫ 디위 마가 ᄃᆞᆫ닐 거시니 ᄒᆞ마 가려 ᄒᆞ거니 내게 나믄 은이 이시니 힘히미 두워 므슴ᄒᆞ료<飜老 下 23b>'에서 '두워'라는 형식의 연원을 알 수 있을 듯하다. 전자에서는 '着

上'의 번역으로 후자에서는 '放'의 번역으로 '두워'가 쓰였다. '놓음, 방임, 수용' 등의 의미 모두를 '두-'라는 어사가 포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罷罷'에 대한 번역에 대해서도 그 문맥적 의미가 '관용적인 용인과 수용'을 나타낼 때 '두-'라는 어사가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관용적인 용인과 수용'은 기왕의 주어진 상황에 대한 용인과 수용으로 해석된다. 다음의 예에서 그러한 면을 잘 볼 수 있다.

(4) 「飜老」 두워 두워 데우라 가디 말라 우리 ᄎᆞ니 머구리라 <上 63b>
「老諺」, 「平老諺」 두워 두워 데오라 가디 말라 우리 그저 ᄎᆞ니 먹을이라 <上 57a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네 더이지 말라 오늘 하놀이 덥고 우리 다 목ᄆᆞᄅᆞ니 ᄎᆞᆫ 것 먹으면 죠흐리라 <4:17a>
「蒙老」 더이지 말라 ᄎᆞᆫ 거슬 먹쟈 <4:11a>
「重老」 두어 두어 내 그저 ᄎᆞᆫ이 먹으리라 <上 58a>

위의 장면은 『飜老』의 경우 '나그네네 더우니 머글ᄯᅡ? ᄎᆞ니 머글ᄯᅡ?'에서 볼 수 있듯이 선택의문문에 대한 응답으로 '두워 두워'가 쓰였음을 잘 보인다. 그대로 둔다면 'ᄎᆞᆫ 외(찬 오이)'를 먹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두워 두워'가 쓰였다.

한편 '둘워'의 내적구조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본격적으로 '둘워'의 내적구조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둘워'가 쓰인 문맥을 좀 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飜老」 두워 두워 둘워 두져 ᄡᅳ디 몯ᄒᆞ야도 ᄆᆞ던타 <上 65b>
「老諺」, 「平老諺」 두어 두어 두어라 ᄒᆞ여 두쟈 ᄡᅳ디 못ᄒᆞ여도 무던ᄒᆞ다 <上 59ab>, <上 59a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해당 문장 빠짐〕
「蒙老」 두어라 쁘지 못ᄒᆞ야도 관계치 아니타 <4:14b>
「重老」 두어 두어 두어라 ᄒᆞ여 두쟈 곳 쁘지 못ᄒᆞ여도 무던ᄒᆞ다 <上 60a>

나그네들이 지불하는 은이 질이 낮아 쓰지 못할 은임을 술 파는 이가 의심하자 이에 대해 나그네들은 가지고 있는 은이 쓸 수 있는 은이며 좋은 은이라고 주장한다. 술 파는 이는 이에 대해 '두어 두어 둘워 두져'로 응답하고 있다.

원문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飜老』의 원문은 '罷罷將就留下着'이다. 『飜老』의 경우 첫 부분의 '罷罷'에 대해 '두워'로 번역을 하였으나 굳이 뒤에서 '將就'에 대해 '둘워'라는 어사를 쓴 것을 보면 이 때의 '將就'는 '罷罷'의 뜻과는 구분되는 좀더 특정한 뜻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한다.

'罷罷'의 의미와 구분되는 특정한 '將就'의 의미란 어떠한 것일까? 『中韓辭典』의 '將就'에 대한 해설은 흥미를 끈다. '그럭저럭 참고 쓰다, 우선 아쉬운 대로 참고 견디다.'라는 의미 풀이가 주목된다. '將就'에 대한 의미를 이와 같은 것으로 간주할 때 일단 '둘워 두져'는 일단 '아쉬운 대로 참고 써 두자'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둘워'는 어디에서 연원한 어사일까?

한 가지 가능한 방안이 '두르-'와 관련된 어형으로 보는 것이다. 이 때의 '두르다'는 '旋, 斡' 정도의 의미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좀더 考究되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다음의 예는 이와 같은 심증을 굳혀주는 듯하다.

(5)「朴諺」 네 뎌 라후을 다가 부싀기를 乾淨히 ᄒᆞ야 거후로고 아직 술을 둘러 가져오라 <中 30b>
「朴新」 네 뎌 술병을 다가 부싀기를 乾淨히 ᄒᆞ여 거후로고 ᄯᅩ 져기 술 가져와 여러 잔 먹어 解寒홈이 엇더ᄒᆞ뇨 <2:36b>

위에서 '두르다'의 활용형인 '둘러'는 '없는 것을 이리저리 주선하여' 정도의 의미가 아닌가 한다. '悶邊 단두로다<譯語類解 下 6a>'의 '두로다'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둘워'의 어형에서 보이는 '둘우-'는 초간본인 『飜老』와 『飜朴』에서만 볼 수 있다. 『老諺』 이후에서는 보통 '두워라 ᄒᆞ-' 정도로 바뀌어 있다.[4] 다음의 예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ㄱ.「飜老」 우리 사ᄅᆞ미 서르 둘우며 서르 더브사라 ᄃᆞ니면 됴커니ᄯᆞ나 <下 43b-44b>
「老諺」,「平老諺」 우리 사ᄅᆞᆷ이 서르 두워라 ᄒᆞ여 서르 더브러 ᄃᆞᆫ기면 됴ᄒᆞ니라 <下 39b-40b>, <下 39b-40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세상에 사ᄅᆞᆷ이라 ᄒᆞ여 나와셔 서로 ᄉᆞ랑ᄒᆞ여 돕고 서로 보ᄉᆞᆲ혀 착ᄒᆞᆫ 행싱을 일ᄏᆞᆺ고 사오나온 일을 ᄀᆞᆷ촘이 맛당ᄒᆞ니라 <7:14b>
「蒙老」 이제 사ᄅᆞᆷ이 서ᄅᆞ ᄉᆞ랑ᄒᆞ여 도으면 유익ᄒᆞ리라 우리 벋이 서ᄅᆞ

4) 다음의 예는 '둘우-'에 대해 '두워라 ᄒᆞ-'가 아닌 '두워라'가 대응되는 유일한 예외라 할 수 있다. 이 외의 모든 '둘우-'는 '두워라 ᄒᆞ-'에 대응된다.

둘워 먹져 므슴 됴ᄒᆞᆫ ᄂᆞᄆᆞ새 잇거든 져기 가져오라 <飜老 上 63a>
두워라 먹쟈 므슴 됴ᄒᆞᆫ ᄂᆞᄆᆞ새 잇거든 져기 가져오라 <老諺 上 57a>
두워라 먹쟈 므슴 됴ᄒᆞᆫ ᄂᆞᄆᆞ새 잇거든 젹이 가져오라 <平老諺 上 57a>
〔해당 문장 빠짐〕 <老新>
두어라 먹쟈 죠흔 나믈 잇거든 젹이 가져오라 <淸老 4:16b>
두어라 먹쟈 힝혀 됴흔 ᄂᆞ물 잇거든 가져오라 <蒙老 4:11a>
두어라 먹쟈 아므란 죠흔 안쥬 잇거든 져기 가져오라 <重老 上 57b-58a>

도아 어진 행상을 들고 사오나온 일을 ᄀᆞᆷ초쟈 <7:13a>
「重老」 우리 사ᄅᆞᆷ이 다 <u>두어라 ᄒᆞ여</u> 彼此에 잡들미 죠ᄒᆞ니라 <下 41b-43a>

ㄴ.「飜老」 내 아릐 드로니 高麗ㅅ ᄯᅡ해 ᄑᆞᄂᆞᆫ 황회 ᄀᆞ장 됴ᄒᆞᆫ 거슨 도ᄅᆞ혀 ᄑᆞ디 몯ᄒᆞ고 다ᄆᆞᆫ <u>둘워</u> ᄡᅳᆯ 황회ᅀᅡ 맛당ᄒᆞ야 도ᄅᆞ혀 님자 어도미 ᄲᆞᄅᆞ다 ᄒᆞᄂᆞ다 <下 66ab>
「老諺」 내 일즙 드ᄅᆞ니 高麗ㅅ ᄯᅡ히 ᄑᆞᄂᆞᆫ 황회 ᄀᆞ장 됴흔 거슨 도로혀 ᄑᆞ디 못ᄒᆞ고 다만 <u>두어라 ᄒᆞᆯ</u> 황회아 맛당ᄒᆞ여 도로혀 님자 어듬이 ᄲᆞᄅᆞ다 ᄒᆞᄃᆞ라 <下 60a>
「平老諺」 내 일즙 드ᄅᆞ니 高麗ㅅ ᄯᅡ히 ᄑᆞᄂᆞᆫ 황회 ᄀᆞ장 됴흔 거슨 도로혀 ᄑᆞ디 못ᄒᆞ고 다만 <u>두어라 ᄒᆞᆯ</u> 황회야 맛당ᄒᆞ여 도로혀 님자 어듬이 ᄲᆞ르다 ᄒᆞᄃᆞ라 <下 59b-60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네 일즙 드르니 조선 ᄯᅡ히 ᄑᆞᄂᆞᆫ 화물이 ᄀᆞ장 죠흔 거시면 더욱 ᄑᆞᆯ기 어렵고 죠치 아닌 거슨 오히려 ᄑᆞᆯ기예 쉽다 ᄒᆞ더라 <8:16a>
「蒙老」 내 블셔 드르니 조선 ᄯᅡ히 ᄑᆞᄂᆞᆫ 물화 ᄀᆞ장 됴흔 거시면 도로혀 ᄑᆞ기 쉽지 아니ᄒᆞ고 다만 사오나온 물화ㅣ 맛당타 ᄒᆞ더라 <8:15b>
「重老」 내 일즉 듯보니 朝鮮ㅅ ᄯᅡ히 ᄑᆞᄂᆞᆫ 貨物이 ᄀᆞ장 죠흔 거슨 도로혀 ᄑᆞ지 못ᄒᆞ고 그저 <u>두어라 ᄒᆞᆯ</u> 貨物이야 도로혀 님재 이셔 ᄑᆞᆯ기 쉽다 ᄒᆞ더라 <下 62a>

ㄷ.「飜朴」 <u>둘워</u> 사다가 안직 간대로 ᄐᆞ돌 ᄆᆞ스거시 저프리오 <上 64a>
「朴諺」 <u>두어라 ᄒᆞ여</u> 가져다가 아직 간대로 ᄐᆞ면 므서시 저프리오 <上 56b>
「朴新」 〔해당문장 빠짐〕

모든 예들에서 초간본의 '둘우-'는 『老諺』과 『朴諺』 이후에는 예외 없이 '두어라 ᄒᆞ-' 혹은 '두워라 ᄒᆞ-'로 바뀌어 있다. '두어라 ᄒᆞ-'

는 피인용문이 명령문인 인용문 구조를 보인다. 결국 이 구절의 궁극적 의미는 '두게 ᄒᆞ-' 정도가 아닌가 한다. 여기서 '둘우-'의 형태론적 구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두게 ᄒᆞ-'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두어라 ᄒᆞ-'와 대응되는 '둘우-'에서, 우리는 '둘우-'의 '-우-'를 사동접미사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둘우-'는 다름 아닌 '두르-(旋, 斡)+ -우-'의 구조를 가지는 '두르다'의 사동사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둘우-'가 쓰일 영역에 '두어라 ᄒᆞ-'가 쓰인 것은 '둘우-'와 '두어라 ᄒᆞ-'가 문맥에 따라 의미적으로 서로 가까운 양상을 띠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기본적으로 '두-'라는 동사에서 연원했으며 기왕의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고 용인하게 하라는 의미로 쓰이는 '두어라 ᄒᆞ-'의 의미영역과, 없으면 없는 대로 이리저리 주선하여 상황을 타개하게 하라는 뜻의 '둘우-'의 의미 영역이 서로 교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罷罷'의 번역인 '두워'와 '將就'의 번역인 '둘워'라는 형식의 형태론적 구조와 의미가 얼마간 해명된 셈이다. 다만 '둘우-'라는 어사는 『老諺』과 『朴諺』 이후에는 쓰이지 않았다. 특히 전대본의 번역이 당대의 언어감각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 경우 가능한 한 전대본의 번역을 묵수하는 태도를 취했던 『老諺』에서도 '둘우-'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 '해자ᄒᆞ다', '널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

ㄱ. 「飜老」 쥬ᅀᅵᆫ 형님 허믈 마ᄅᆞ쇼셔 小人ᄃᆞᆯ히 예 와 <u>해자ᄒᆞ고 널이과이다</u> <上 43ab>

「老諺」, 「平老諺」 쥬인 형아 허믈 말라 小人들히 예 와 슈폐ᄒᆞ여이다 <上 39a>, <上 39a>

「老新」 主人아 허믈 말라 우리 여긔 폐ᄒᆞ여다 <上 55a>

「清老」 주인을 므게 슈고케 ᄒᆞ여다 <3:11a>

「蒙老」 주인형아 허물 말라 소인이 여긔 와셔 수고ᄒᆞ여다 <3:7b>

「重老」 主人아 허믈 말라 우리 여긔셔 폐ᄒᆞ여다 <上 39b>

ㄴ. 「飜老」 므슴 <u>해자널인</u> 고디 이실고 <上 43b>

「老諺」, 「平老諺」 므슴 슈폐ᄒᆞᆫ 곳이 이시리오 <上 39a>, <上 39a>

「老新」 므슴 폐ᄒᆞᆫ 곳이 이시리오 <上 55a>

「清老」 다만 ᄒᆞᆫ ᄣᅢ ᄆᆡᆫ 밥 먹이ᄂᆞᆫ ᄃᆡ 므슴 슈고롭게 ᄒᆞᆫ 곳 이시리오 <3:11a>

「蒙老」 므ᄉᆞᆷ 수고ᄒᆞᆫ 곳 이시리오 <3:8a>

「重老」 므슴 폐ᄒᆞᆫ 곳이 이시리오 <上 39b-40a>

ㄷ. 「飜老」 쥬ᅀᅵᆫ 형님 小人이 예 와 <u>널이ᅀᆞ오ᄃᆡ</u> 셩도 묻ᄌᆞᆸ디 아니ᄒᆞ얏다니 <上 44ab>

「老諺」 쥬인 형아 小人이 예 와 <u>널이오ᄃᆡ</u> 셩도 일즉 뭇디 아니ᄒᆞ엿더니 <上 40a>

「平老諺」 主人 兄아 小人이 예 와 <u>널이오ᄃᆡ</u> 셩도 일즙 뭇디 아니ᄒᆞ엿더니 <上 40a>

「老新」 主人아 우리 이 半日을 너리오되 놉흔 姓조차 일즉 뭇지 못ᄒᆞ엿더니 <上 56a>

「清老」 주인형아 小人들이 여긔 와 크게 슈고케 ᄒᆞᆯ ᄉᆞ롬이오 姓도 뭇지 못ᄒᆞ엿다 <3:12b>

「蒙老」 주인형아 小人이 여긔 와셔 네 크게 의곡히 구되 姓도 뭇지 못ᄒᆞ얏ᄃᆞ니 <3:9b>

「重老」 主人아 우리 이 半日을 들레되 姓도 일즉 뭇지 못ᄒᆞ엿더니 <上 40b>

(1ㄱ)의 '해자ᄒᆞ고 널이과이다<飜老 上 43b>'의 구절에 대해 『老朴集覽』의 '定害 너리과라 又 해자ᄒᆞ이과라'가 참조된다. '해자'는 '害資'가 아닐까 싶다. '널이다'는 '널우다' 등의 '너르게 하다, 확장 펴지게 하다.' 등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결국 '어지럽히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널이ᅀᆞ오더<飜老 上 44ㄱ, ㄴ>'에 대당하는 '너리오되'와 '들레되'(攪擾)<重老 上 40b>을 비교해 보아도 '널이다'의 의미를 추적할 수 있다. '해자널인 곳'에서 '해자널인'의 구성이 특이하다.

♣ 커진ᄒᆞ-, 젹어진ᄒᆞ-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
ㄱ. 「朴諺」 칙녁 가져오라 내 보쟈 이 ᄃᆞᆯ이 커진ᄒᆞᄂᆞ냐 젹어진ᄒᆞᄂᆞ냐 <中 53b>
「朴新」 칙녁 가져오라 내 보쟈 이 ᄃᆞᆯ이 이 커그므ᄂᆞ냐 져거그므ᄂᆞ냐 <2:58b>

ㄴ. 「朴諺」 이 커진ᄒᆞᄂᆞ니라 ᄯᅩ 닷쇄 이시니 <中 54a>
「朴新」 이 커그므니 당시롱 닷싀 잇ᄂᆞ니라 <2:59a>

'커진ᄒᆞ-'와 '젹어진ᄒᆞ-'는 '大盡, 小盡'의 번역인데 어휘가 매우 독특하다. '커진ᄒᆞ-'에서 커(←크-어)는 '大'의 뜻을 가져 온 것인데 반해 '진ᄒᆞ-'의 '진'은 '盡'의 음을 빌어온 것이다. 『朴諺』의 '커진ᄒᆞ-'가

『朴新』에서는 '커그믈-'과 같이 달리 나타남이 주목된다. '커진ᄒᆞ-, 적어진ᄒᆞ-'는 『朴諺』에서만 나타나는 어휘로 그 내적 구조가 특이함을 지적할 수 있겠다.[5]

4.2. 명사류

♣ 겯

다음의 예에서 '겯'이라는 어휘의 쓰임을 살펴보자.

(1) 「飜老」 내 ᄒᆡᆫ ᄀᆞ장 ᄀᆞᄂᆞᆫ 湖州셔 난 실와 굵고 겯 다ᄅᆞᆫ 실과를 ᄒᆞ고져 ᄒᆞ노라 <下 26b>
「老諺」, 「平老諺」 내 ᄒᆡᆫ 湖州셔 난 실과 굵고 겻 다ᄅᆞᆫ 실을 ᄒᆞ고져 ᄒᆞ노라 <下 23b-24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내 湖州셔 난 ᄒᆡᆫ 白絲ᄅᆞᆯ 사고져 ᄒᆞ노라 <6:13a>
「蒙老」 내 湖州셔 난 ᄒᆡᆫ 계사ᄅᆞᆯ 사리라 <6:8b>
「重老」 내 湖州ㅅ ᄒᆡᆫ 실과 굵고 겻 져른 실을 ᄒᆞ려 ᄒᆞ고 <下 25a>

『飜老』의 '겯'에 대해 국어사자료연구회(1995:180)은 '花'가 포함된 원문에 근거해 '곳'의 오자로 보고 '곳'이라 교감했으나 이는 잘못인 것으로 보인다. '겯'이 '곳'의 오자라면 『重老』에까지 줄곧 오자인 '겻'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어의 '花'에 '무늬'라는 의미가

---

5) '커진ᄒᆞ-'와 '적어진ᄒᆞ-'가 합성어가 아니라 '커 진ᄒᆞ-'와 '적어 진ᄒᆞ-'로 표기되어야 하는 통사론적 구성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달이 끝까지 차고 끝까지 기욺을 의미하는 '大盡', '小盡'의 의미를 고려할 때 합성어로 봄이 나을 듯하다.

있음을 고려하고, '결'에 대당하는 원문에 이 '花'가 포함되었음을 고려할 때 '결'은 '무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여기에다 이 구절에 함께 포함된 '拘'를 '제한되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원문 '花拘絲'와 이에 대한 언해인 '결 댜룬 실'은 '(무늬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는) 얼룩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댜룬' 혹은 '져른'은 '短'의 뜻인데 '무늬가 짧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6]

그런데 '무늬'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이 '결'은 어디에서 연원한 어사일까? '紺ㅇ ᄀ장 프른 거긔 블근 겨치 잇ᄂ 비치라<月釋 10:52>'와 같은 예에서 '때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는 '곶'에서 연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한 가지 가능한 방안이다. '·결'과 '·곶'이 모두 거성의 성조를 가짐도 이와 같은 추정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지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가로놓이게 된다. 『飜老』의 표기가 '겻'이 아닌 '결'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다.

16세기에 7종성법은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었다. 16세기 일부 문헌들을 중심으로 'ㄷ'이 'ㅅ'으로 표기되는 예와 더불어 'ㅅ'이 'ㄷ'으로 표기되는 예가 함께 나타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자의 현상이 하나의 지배적인 질서로 정착되어 17세기를 풍미하기 이전 후자의 현상이 일부 16세기 초반기 문헌들을 중심으로 나타났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6세기 초반기 문헌에서도 'ㅅ'이 'ㄷ'으로 혼기되는 후자의 예로 실제 나타나는 예는 한둘에 지나지 않는다. 거론

6) 『老朴集覽』의 '花拘絲'에 대한 주석은 『老乞大』의 언해자들의 번역 의도와, 이를 간파해 내려고 고심했던 우리의 노력을 한 순간 헛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 '花拘絲 質問云花拘地名 『老朴集覽 2』'의 주석은 『質問』에 기대어 "'花拘絲'가 "'花拘'라는 지명을 가지는 곳에서 나는 실'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老乞大』의 언해, 특히 『飜譯老乞大』나 『老乞大諺解』의 언해문의 내용이 『老朴集覽』의 주석 내용과 괴리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된다. 앞으로 『老朴集覽』과 『飜譯老乞大』등과의 내용상의 괴리와 그 배경에 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된 예들도 '넫재'와 같이 'ㅈ' 앞에서 'ㅅ'이 'ㄷ'으로 바뀌어 표기되거나 '갇나히'와 같이 'ㄴ' 앞에서 'ㅅ'이 'ㄷ'으로 바뀌어 표기되는 등 특정한 주위 환경의 영향으로 혼기된 예들이다(이익섭 1992:320-324). 따라서 주위 환경의 영향이 배제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겯'의 'ㄷ'이, 'ㅊ'에서 연원한 'ㅅ'이 혼기된 결과라면 이는 표기사적으로 상당히 예외적인 존재가 된다.[7] 이러한 어려움이 '겯'을 '겿'에서 온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힘들게 한다.

다른 한 가지 가능한 방안은 '겯'을 '무늬'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독적인 어사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결 잇ᄂᆞᆫ 고기 五花肉<漢淸文鑑 12:32>'의 '결'이 소중한 예로 다가온다. '결 잇ᄂᆞᆫ 고기'에 대당하는 한어 원문에는 '花'가 포함되어 있다. '겯'에 대당하는 한어 원문이 '花'를 포함했음을 상기할 수 있다. '겯'과 '결'이 관련된 어사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겯'과 '결'을 음절말 자음의 교체에 의해 분화된 어사로 볼 가능성은 없을까?

이러한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의 성조를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고어사전들은 '결'에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波'의 뜻을 가지면서 거성의 성조를 가지는 '·결'[8]과, 성조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理'의 뜻으로 '나뭇결' 같은 것의 '결(무늬)'의 의미를 가지는 '결'주로 [9]이 그것이다. 그런데 전자의 '결'과 후자의 '결'이 별개의 어사라고 단정을 내리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별개의 어사라고 해도 후자의 '결'의 성조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후자의 '결'과 우리의 논의 대상인 '·겯'이 상이한 성조를 가진다고도 말할 수 없고 동일한 성조를 가진다고도 말할 수

7) 이 시기 '곶(花)'이 '곳'으로는 나타나지만 '곧'으로까지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8) '므를 텨 겨를 니르왇ᄂᆞ니라<釋譜詳節 13:9>'와 같은 예가 대표적이다.
9) '理 결<物名攷 4:木>', 'ᄲᅳᆯ 밋동의 두룬 결<物名攷 1:毛>' 등의 예가 대표적이다.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결'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도 기존의 고어사전들의 처리 방식일 뿐이지 실제로 '결'에 두 가지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오히려 '波'의 의미로 쓰이면서 거성의 성조를 가지는 '·결'과, 성조를 확인할 수 없는 '결'의 의미상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전자의 '결'과 후자의 '결'은 동일한 어사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와 같은 추정이 옳다면 '·결'과 '·겯'의 성조는 일치하게 된다. 아울러 한어 원문의 '花'가 '겯'과 '결'로 번역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겯'은 '결'과 관련시켜 기술해야 할 어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된 첫 번 째 방안과 두 번 째 방안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속단하기는 힘들다. 표기사적으로 예외적인 사례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결'의 고유한 어휘적 의미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시될 것이다. 다만 번역문에 대응하는 한어 원문을 중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波'와 '理'의 의미상의 유사성을 인정한다면 '겯'은 '곶'보다는 '결'과 관련시켜 논의해야 할 어사인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설명이 정당한 것이든 『老乞大』의 언해문의 '겯'은 '곳(←곶)(flower)'과는 상관이 없는 '무늬'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어사임이 분명해졌다. 받침이 'ㄷ'으로 표기된 '겯'은 현대국어의 '겯다((실같은 것의) 여러 오리로 씨와 날이 서로 어긋나게 짜다 혹은 물기름 같은 것이 배다)'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10]

10) 참고로 '花狗'는 중국어로 '얼룩개'이다 '花絲布'는 '솜, 실, 면직물의 총칭이다.

♣ 진짓, 진적; ᄌᆞ디, ᄌᆞ뎍

(1) 「飜老」 구의 屍身을 검시ᄒᆞ고 진짓 도ᄌᆞ그란 잡디 몯ᄒᆞ고 <上 27b-28b>
「老諺」 구의 주검을 검시ᄒᆞ고 진짓 도적은 잡디 못ᄒᆞ고 <上 24b-26a>
「平老諺」 구의 죽엄을 검시ᄒᆞ고 진짓 도적은 잡지 못ᄒᆞ고 <上 24b-26a>
「老新」 구의가 죽엄을 검시ᄒᆞ여 뭇고 正 도적은 잡지 못ᄒᆞ고 <上 34b-35b>
「淸老」 사ᄅᆞᆷ을 쳐 죽인 일홈 업슨 죄인을 잡지 못ᄒᆞᆫ 연고로 <2:16b>
「蒙老」 구의예셔 죽은 신체ᄅᆞᆯ 보고 웃듬 도적을 능히 잡지 못ᄒᆞ고 <2:14b>
「重老」 구의 죽엄을 검시ᄒᆞ여 뭇고 졍 도적은 잡지 못ᄒᆞ고 <上 24b-26a>

'진짓'과 대응되는 글자는 원문에서 '正'이다. '正賊捉不住'이라 되어 있다. 『老新』에서는 아예 언해문에 한자 '正'이 '진짓'이 나타날 자리에 나타나고 있다. 또 『重老』에서도 한글로 '졍'이 '진짓'의 자리에 나타나 있으며 『蒙老』에는 그 대당하는 부분에 '웃듬'이라 되어 있다. 따라서 원문에 기대되는 '眞的'은 어느 경우의 원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飜老』, 『老諺』, 『平老諺』 등의 언해문에도 '진짓'과 같이 고유어로 표기되어 있다

'正' 이외에 '實'에 대응되는 어사로도 '진짓'이 나온다. 이는 이미 '진짓'이 매우 널리 유포된 차용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 원문에도 나타나지 않는 어휘를 언해에 사용할 정도라면 그것이 국어에 꽤 뿌리깊게 자리잡았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문에 '진짓'이 등장하는 경우가 총 5차례 정도인데 이중 원문에 '진짓'의 원모습을 알게 하는 '眞的'이 나타나는 경우는 단 한 경우가 있다. 한어 원문에 '眞的'이 나타나는 그 단 한 경우의 예를 보자.

(2) 「飜老」 이 윤 듕에셔 진짓 거신동 거즛 거신동 우리 高麗ㅅ 사ᄅᆞᆷ이 아
디 몯 ᄒᆞ노니 <下 64ab>

「老諺」, 「平老諺」 이 銀ㅅ 듕에 진짓 ᄡᅥ신동 거즛 ᄡᅥ신동 우리 高麗ㅅ 사
ᄅᆞᆷ이 아디 못ᄒᆞ니 <下 58a>, <下 58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이 銀 眞假ᄅᆞᆯ 내 아지 못ᄒᆞ니 <8:13b>

「蒙老」 이 銀의 眞僞ᄅᆞᆯ 내 아지 못ᄒᆞ니 <8:13a>

「重老」 이 은ㅅ 즁에 진짓 것신동 거즛 것신동 우리 朝鮮ㅅ 사ᄅᆞᆷ이 ᄀᆞ
장 아지 못ᄒᆞ니 <下 60ab>

『飜老』의 경우 '진짓 거신 동 거즛 거신 동'에 해당하는 원문에 '眞的假的'이라 되어 있어 '진짓'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잘 보인다. '진짓'은 '眞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眞的'의 '的'의 좌측음과 우측음이 '딩' '디'임이 참조된다. '진딧'이 '진짓'이 된 연유는 무엇일까? 일단 구개음화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飜老』 시기에도 '진딧'이 아닌 '진짓'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기문(1965; 1991)에서는 이를 '거즛'에의 유추에 의한 것으로 본 바 있는데 이 외의 확실한 연유는 알기 어렵다.

한편 '的'의 한국 한자음은 東國正韻식 한자음 이래로 계속 '뎍'이었다. 따라서 '眞的'이 '진짓'으로 차용된 것은 아주 오래 전 중국어음에 충실한 차용이 이루어졌음을 보인다. '진짓'의 제2음절이 '지'가 아니라 '짓'인 것도 이를 방증한다. 좌측음으로 부기된 음이 '딩'이었음이 참조된다.

앞에서 '진짓'이 '진딧'의 구개음화된 어형이 아니라고 했는데 '진짓'과 유사한 내적구성을 보이는 'ᄌᆞ디(紫的)'의 경우에는 대응되는 『重老』의 어형으로 구개음화된 'ᄌᆞ지'라는 어형을 보여 대조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3)「飜老」 바독 열 부 솽륙 열 부 감차할 련ᄃᆡ 일ᄇᆡᆨ 됴 <u>ᄌᆞ디</u> 셰됴 일ᄇᆡᆨ 됴 <下 67a-69b>

「老諺」 바독 열 부 솽륙 열 부 감찰 아롱ᄃᆡᄌᆞ 일ᄇᆡᆨ 오리 <u>ᄌᆞ디</u> 됴ᄋᆞ 일ᄇᆡᆨ 오리 <下 60b-62b>

「平老諺」 바독 열 부 상륙 열 부 감찰 알롱ᄃᆡᄌᆞ 一百 오리 <u>ᄌᆞ디</u> 됴ᄋᆞ 一百 오리 <下 60b-62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해당 문장 빠짐〕

「蒙老」 〔해당 문장 빠짐〕

「重老」 바독 열 부 雙陸 열 부 감찰 아롱ᄃᆡᄌᆞ 一百 오리 <u>ᄌᆞ지</u> 됴ᄋᆞ 一百 오리 <下 62b-64b>

그런데 'ᄌᆞ디'의 경우 항상 'ᄌᆞ디'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의 『朴通事』 언해본의 예를 살펴보자.

(4)「飜朴」 <u>ᄌᆞ디</u> 비쳇 구의 나깃 ᄆᆡᆫ 비단 ᄒᆞᆫ 자콰 <上 48a>

「朴諺」 <u>ᄌᆞ덕</u> 구읫나기 ᄆᆡᆫ 비단 ᄒᆞᆫ 자과 <上 43b>

「朴新」 〔해당문장 빠짐〕

초간본인 『飜朴』을 참조하지 않은 『朴諺』에서는 '紫的'에 대해 초간본의 'ᄌᆞ디'를 묵수하지 않고 그 당시 한국한자음을 반영한 'ᄌᆞ덕'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중국음에 근접하여 차용된 어형인 'ᄌᆞ디'와 당대의 한국한자음에 의해 재해석된 어형 'ᄌᆞ덕'간의 혼란을 볼 수 있다. 위의 예는 'ᄌᆞ덕'을 보이는 유일한 예가 아닌가 한다. 'ᄌᆞ디'의 제 2음절 자음이 구개음화를 겪어 'ᄌᆞ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ᄌᆞ지<廣物譜 2 衣服 5b>; 블근 ᄌᆞ지<華語類抄 織造 20b>' 등의 예도 참조된다.

한편 'ᄌᆞ덕'은 존재하는데 반해 '진덕'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사한

내적 구성을 가진 어사들에 대해서도 그 어사들에 대해 작용하는 언중들의 의식이 상이할 수 있었던 것이 흥미롭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진덕'의 공백이 우연한 공백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는 'ᄌᆞ디'보다 '진짓'의 경우가 훨씬 일찍 토착화가 이루어진 차용어였음을 알 수 있다.

♣ 목, 운, 분

(1) 「飜老」 이 삼을 다ᄉᆞᆺ 모긔 ᄂᆞᆫ호와 <下 58b-59a>
「老諺」 이 삼을 다ᄉᆞᆺ 운에 ᄂᆞᆫ화 <下 52b-53a>
「平老諺」 이 蔘을 다ᄉᆞᆺ 운에 ᄂᆞᆫ화 <下 52b-53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이 人蔘을 다ᄉᆞᆺ ᄆᆞ이 ᄆᆡᆫ들고 <8:6a>
「蒙老」 五分의 ᄂᆞᆫ화 <8:5b>
「重老」 이 蔘을 다ᄉᆞᆺ 운에 ᄂᆞᆫ호라 <下 54b-55a>

'分兒'에 대한 번역이 『飜老』에서는 '목'으로 『老諺』 이후로는 '운'으로 나타난다. 이 때 '운'은 '分'의 한자음 '분'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蒙老』의 '五分의'의 '分'이 이를 방증한다.

♣ ᄉᆞ염, 이엄

원문의 '披肩'에 대해 'ᄉᆞ염', '이엄' 등의 어휘가 등장함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1) 「飜老」 머리에 ᄉᆞᆫ 거ᄉᆞᆫ 됴ᄒᆞᆫ 돈피 ᄉᆞ염이오 <下 52ab>
「老諺」 머리에 ᄡᅳᆫ 거ᄉᆞᆫ 됴흔 돈피 이엄이오 <下 46b-47b>
「平老諺」 마리에 ᄡᅳᆫ 거ᄉᆞᆫ 됴흔 돈피 이엄이오 <下 46b-47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아ᄎᆞᆷ에 일 닐어 마리 빗고 <7:24b>
「蒙老」 마리에 ᄡᅳᄂᆞᆫ 거ᄉᆞᆫ 됴흔 돈피 관과 됴흔 실로 ᄆᆡᆫ든 가시오 <7:20b>
「重老」 마리에 ᄡᅳᄂᆞᆫ 거ᄉᆞᆫ 죠흔 돈피 갓시오 <下 48b-49a>

『국어사전』에 의하면 '관복을 입을 때 사모 밑에 쓰는 모피로 만든 방한구'를 '이엄(耳掩)'이라 한다. 『老諺』, 『平老諺』에 나오는 형식에 해당한다. 『蒙老』와 『重老』에는 '갓'이라 언해되어 있다. 이에 대당하는 한어 원문에는 '披肩'이라 되어 있고 더욱이 『飜朴』에는 'ᅀᆞ염' 이라는 어휘가 언해 부분에 나온다. 도대체 'ᅀᆞ염'은 어디서 연원한 어사일까? 해결의 실마리는 『老乞大』의 언해본이 아닌 『朴通事』의 언해본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朴諺』의 다음의 예가 주목된다.

(2) 「朴諺」 머리예 耳掩을 쓰며 혹 손에 들고 ᄧᅡ히 셔셔 <下 46b>

'이엄'이 '耳掩'과 같이 한자로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해당하는 원문에도 '耳掩'이라 되어 있다. 그런데 원문에 드러나 있는 '耳掩'에 대한 한자음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준다. 그대로 가져와 보면 '耳(ᅀᅳᆼ/ᅀᅳᆯ); 掩(현/연)'과 같은 한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ᅀᆞ염'의 'ᅀᆞ'는 '耳'에 대한 좌측음과 우측음을 절충한 것이라 할 수 있을 터이고 '염'은 위의 '연' 등의 한자음과 그 당시 '掩'에 대한 한국한자음 '엄'을 절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ᅀᆞ염'은 차용어이긴 하지만 그 차용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것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ᅀᆞ염'은 일부 18세기 필사소설 자료에서는 '사ᄅᆞᆷ이 져롤 ᄌᆞ염의

낫치 검은 거술 보고<선진일사 3:65>'에서와 같이 'ᄌᆞ엽' 혹은 'ᄌᆞ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바ᄌᆞ문

(1) 「飜老」 뎌 西南 모해 바ᄌᆞ문 남녁 죠고맷 널문이 ᄀᆡ라 <下 1b>
「老諺」, 「平老諺」 뎌 西南 모해 바ᄌᆞ문 남녁 죠고만 널문이 ᄀᆡ라 <下 1b>,
<下 1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져 서남 모롱이 지새문 남편 젹은 널문이 곶이라 <5:5a>
「蒙老」 져 서남 모롱이 사립 ᄋᆞᆲ 젹은 널문이 ᄀᆡ라 <5:2a>
「重老」 져 西南 모롱이 바ᄌᆞ門 남녁 젹은 널門이 곶 ᄀᆡ라 <下 1b>

'바ᄌᆞ'는 '芭子'에서 온 차용어로 보인다. 대응되는 『淸老』와 『蒙老』의 어형이 '지새문', '사립'으로 되어있음이 주목된다. 『重老』는 '바ᄌᆞ門'과 같이 구성요소의 일부가 한자로 노출되어 있음이 특이하다. '바ᄌᆞ'쪽이 아니라 '문'이 '門'으로 한자가 노출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바ᄌᆞ'[11]가 국어에 깊숙이 침투해 있던 차용어임을 방증하는 증거가 아닌가 한다.

♣ 고, 휘

(1) 「飜朴」 견납ᄒᆞᄂᆞᆫ 관원손ᄃᆡ 닐어 고로 되에 ᄒᆞ라 <上 12a>
「朴諺」 견납ᄒᆞᄂᆞᆫ 관인들의게 닐러 휘로 되게 ᄒᆞ라 <上 12b>
「朴新」 뎌 말되는 ᄉᆞᄅᆞᆷ을 일ᄇᆡᆨ 돈을 주고 뎌ᄃᆞ려 니ᄅᆞ기ᄅᆞᆯ ᄇᆞᆰ히 ᄒᆞ여 말과 휘ᄅᆞᆯ 다 됴히 되게 ᄒᆞ라 <1:13b-14a>

---

11) '바ᄌᆞ'는 문헌에 따라 '바조'로도 나타난다. 치음 뒤에서의 'ㆍ>ㅗ'의 결과이다.

'斛'〔휘(10말) 곡〕에 대한 언해가 달리 되어 있다. 『訓蒙字會』의 '斛 고 곡'에 보이는 새김을 고려할 때에 고유어 '고'가 '휘'로 대체된 것 같다. 그렇다면 '휘'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런데 斛의 한자음을 살펴보면 '嚛/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자음을 고려해 볼 때 '휘'는 차용어로 보인다.

♣ 야즈(牙家), 즈름

'야즈'는 '牙家'를 번역한 말이다. 그런데 '牙子'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의 의미는 '(옛날) 중개할 때의 증인 혹은 중개인'이다. 그런데 '牙'의 한자음이 '야'이므로 '야즈'가 된 것이다. 차용어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1) 「飜老」 이러커든 야즈의 마를 조차 ᄒᆞ져 <下 58a>
「老諺」, 「平老諺」 이러면 즈름의 말대로 ᄒᆞ쟈 <下 52ab>, <下 52a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이러ᄒᆞ면 證人의 말을 좃쟈 <8:4b>
「蒙老」 이러면 즈름의 말을 좃쟈 <8:4b>
「重老」 이믜 이러면 곳 즈름의 말대로 ᄒᆞ쟈 <下 54b>

차용어인 '야즈'가 오히려 『老諺』 이후에 고유어인 '즈름'으로 대체되고 있음이 특이하다. 『淸老』에서는 '證人'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야즈'나 '즈름'의 의미가 '證人'의 의미와 관련 있음을 잘 보인다.

♣ 노연, 관인, 관장, 관원

(1) 「飜老」 우리 죵 도의여 잇ᄂᆞᆫ 사ᄅᆞ문 노연네 조차 ᄃᆞᆫ닐 제 여긔뎌긔 물 브린ᄃᆡ 노여늬 ᄆᆞᄅᆞᆯ 잇거다가 …(중략)… 노연둘히 자거든 ᄒᆞᆫ 동모 ᄒᆞ야 보숣펴 ᄃᆡ후ᄒᆞ게 ᄒᆞ라 만이레 이리 조심ᄒᆞ야 ᄃᆞ니면 곧 이 아랫사ᄅᆞ믜 노연 셤기ᄂᆞᆫ 이리어니ᄯᆞ나 <下 44b-46a>

「老諺」 우리 죵 되여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官人을 조차 ᄃᆞᆫ닐 제 여긔뎌긔 ᄆᆞᆯ 누리ᄂᆞᆫᄃᆡ 官人의 ᄆᆞᆯ을 잇그러다가 …(중략)… 官人들히 자거든 ᄒᆞᆫ 벗으로 ᄒᆞ여 伺候ᄒᆞ게 ᄒᆞ라 만일 이리 조심ᄒᆞ여 ᄃᆞᆫ니면 곳 이 아랫사ᄅᆞᆷ의 官長 모시ᄂᆞᆫ 道理어니ᄯᆞᆫ녀 <下 40b-41b>

「平老諺」 우리 죵 되여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官人들 조차 ᄃᆞᆫ닐 제 여긔뎌긔 ᄆᆞᆯ 누리ᄂᆞᆫᄃᆡ 官人의 ᄆᆞᆯ을 잇그러다가 …(중략)… 官人들히 자거든 ᄒᆞᆫ 벗으로 ᄒᆞ여 伺候ᄒᆞ게 ᄒᆞ라 만일 이리 조심ᄒᆞ여 ᄃᆞᆫ니면 곳 이 아랫사ᄅᆞᆷ의 官長 모시ᄂᆞᆫ 道理어니ᄯᆞᆫ녀 <下 40b-41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우리 웃 官員을 조차 ᄃᆞᆫ닐제 官員이 ᄆᆞᆯ게 ᄂᆞ리며 ᄆᆞᆯ을 잇그러 갓다가 …(중략)… 官員이 드러 안거든 기르만 구레를 자ᄂᆞᆫ 곳에 노코 안통으로 덥고 니어 즉시 먹을 거슬 쟝만ᄒᆞ여 보와 닉은 거슬 드리고 먹기 ᄆᆞᆺ거든 그릇슬 서릇고 잘 제ᄒᆞᆫ 사ᄅᆞᆷ으로 모시라 이ᄀᆞᆺ치 공경ᄒᆞ고 조심ᄒᆞ면 이 진실로 아릐 類 들이 大人들을 셤기ᄂᆞᆫ 도리라 ᄒᆞ리라 <7:16b>

「蒙老」 우리 죵 되여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官員을 조차 ᄃᆞᆫ닐 제 관원이 ᄆᆞᆯ께 ᄂᆞ리거든 ᄆᆞᆯ을 잇그러다가 …(중략)… 官員이 자거든 ᄒᆞᆫ 번을 보내여 머믈게 ᄒᆞ라 이러틋 조심ᄒᆞ야 ᄃᆞ니면 진실로 아릿 類의 官員 셤기ᄂᆞᆫ 도리라 <7:14b>

「重老」 너희 죵 된 사ᄅᆞᆷ이 官人을 ᄯᆞ라 여긔 가고 져긔 가 官人이 ᄆᆞᆯ께 ᄂᆞ리거든 곳 ᄆᆞᆯ을다가 잇그러 가 …(중략)… 官人이 자기ᄅᆞᆯ 기ᄃᆞ려 ᄒᆞᆫ 벗으로 ᄒᆞ여 伺候ᄒᆞ라 이러틋 小心謹愼ᄒᆞ여 ᄃᆞᆫ니면 맛치 아릿사ᄅᆞᆷ의 官長을 모시ᄂᆞᆫ 道理니라 <下 43a-44a>

官人의 번역인 '노연'이 몽고어 'noyan'에서 차용된 어사라는 것은 이젠 거의 상식에 속하는 사실이 되었다. 김완진(1976:174-175)에서는 가축에 관한 어사들과는 달리 '노연'이 『老諺』에서 거부되었다는 사실이 현종조의 언어에서 이 어사가 통용성을 가지지 못했던 데 연유한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노연'은 『老諺』 이후로는 '官人, 官員, 官長' 등 다양한 어사로 바뀌어 나타난다. 심지어는 『蒙老』에서도 '노연'이 아닌 '官員'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위의 견해, 즉, 이미 17세기 무렵에 '노연'이라는 어사가 통용성을 잃은 死語였다는 견해가 더욱 타당성을 얻는 것 같다.

♣ 人情, 人事, 도산, 鄕産

(1)

ㄱ. 「飜朴」 나도 너실 양ᄑᆞᄂᆞᆫ 져제가 닷돈은에 ᄒᆞᆫ 양의 얼굴 사다가 <u>신졍</u> ᅀᅡ마 가 저주워 싱실 단ᄉᆞ리 ᄒᆞ돌 므슴 느즌 고시 이시료 <上 67a>

「朴諺」 나도 너일 양 져제가 닷돈은에 ᄒᆞᆫ 양의 얼골을 사 <u>人情</u>을 삼아 가 뎌롤 주어 생일을 다느림 ᄒᆞ면 므슴 더된 곳이 이시리오 <上 59a>

「朴新」 너일 양 져제에 가 다엿 돈은을 허비하여 ᄒᆞᆫ 양의 몸ᄯᅩᆼ을 사 보내여 뎌롤 주어 生日을 다느림호미 무던ᄒᆞ다 <2:4b>

ㄴ. 「朴諺」 趙大 ㅣ 의 집의 므슴 <u>人情</u>고 <下 41a>

「朴新」 네 老曺의 집의 가 <u>人情</u>을 보내고 오니가 므슴 <u>人情</u>고 <3:42b>

ㄷ. 「朴諺」 네 만히 뎌롤 <u>인졍</u>을 주고 됴히 됴히 닐ᄋᆞ라 <中 60a>

「朴新」 네 만일 뎌를 만히 財物을 두면 곳 이 리 업슨 일이라도 곳 이리 업슨 일이라도 ᄯᅩ 뒤집어 일 이시미 될 거시니 내 혜아리건대 네 뎌 官舍 ㅣ 여러 돈을 ᄲᅢ셔 도지 아니면 이 일을 일오지

못ᄒᆞ리라 <3:6a>

(1ㄱ)의 '신졍'은 한자음에 이끌린 형식이다. '인정'이 '선물' 정도의 의미임을 알 수 있는데 '단ᄉᆞ리ᄒᆞ-'와 같이 쓰이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는 '(부조하는) 선물' 정도로 해석된다. (1ㄴ)에서도 '선물'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1ㄷ)에서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人情'[12]이 '뇌물'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한편 '인정'과 비슷한 의미의 어휘로 '도산', '人事' 등이 있다.

(2)

ㄱ. 「飜朴」 만히 깃게이다 누의님하 내 도라오면 만히 너를 도산 주마 <上 48b>

「朴諺」 다사ᄒᆞ노라 저저ㅣ아 내 도라오면 만히 네게 人事ᄒᆞ마 <上 44a>

「朴新」 〔해당문장 빠짐〕

ㄴ. 「朴諺」 小子 ㅣ 아므란 鄕産을 선생끠 줄 써시 업ᄉᆞ니 이 고려 ㅅ 筆墨과 스므 댱 큰 죠히롤 가져가 人事로 서ᄅᆞ 아ᄂᆞᆫ 제형을 주라 <下 62b>

「朴新」 小子 ㅣ 별로 土産을 가져온 거시 업고 오직 져기 고려 ㅅ 붓과 먹과 됴희 ㅅ 쟝이 이셔 애아로시 써 밧드러 보내니 힝혀 웃지 말라 <3:59a>

(2ㄱ)에서는 '人事'에 대한 번역이 『飜朴』에서 '도산'으로 되어 있다. '土産'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원문이 '人事'임에도 한자가 노출되지 않은 채 '도산'으로 번역되고 있음이 흥미롭다. 그런데 『飜

---

12) 18~19세기 필사번역소설들에서는 '人情'이 보다 다양한 뜻으로 쓰였음을 볼 수 있다. '내 인졍(大費)을 허비ᄒᆞ야 겨유 벼술을 곧고 집의 가게 되었더니<성풍류 7:18>'와 '모안이 급히 서울 와 인졍(使費)을 만히 허비ᄒᆞ고 옥듕의 드러가<성풍류 7:15>' 등의 예에서 '人情'이 '뇌물' 등의 의미 외에 '大費', '使費' 등의 의미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朴』에서는 '土'라는 한자에 대해 좌측음과 우측음이 '투'로 동일하게 나타남이 보통이다. 따라서 '도산'의 '도'는 '도산'이 『飜朴』의 시기보다 훨씬 이전에 차용된 어사이었을 가능성을 보인다. '土'의 東國正韻식 한자음이 '동, 통, 똥'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동'이라는 음이 '도산'의 '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2ㄴ)의 『朴諺』에서는 원문의 '鄕產'에 대해 번역문에 '鄕產'이, 『朴新』에서는 원문의 '土'에 대해 번역문에 '土產'이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人事'도 『朴諺』에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이수광의 『芝峰類說』(1614)에도 '人事'라는 단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雲谷雜記』의 '雲谷雜記曰 今人以物相遺謂之人事(『雲谷雜記』에서 이르기를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보내는 것을 인사라고 한다.)' 등의 기술을 인용하고 당나라 때에도 이미 '人事'[13]의 뜻이 위와 같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토착화가 굳건히 되어 있었던 어사였음을 알 수 있다.

♣ 미화, 슈지엣 말, 슈지

(1) 「飜朴」 내 여러 미화를 닐오리니 네 바르 니르라 <上 39ab>
「朴諺」 내 여러 슈지엣 말 니롤 거시니 네 알라 <上 36a>
「朴新」 내 여러 슈지롤 니롤 거시니 네 알라 <1:38b>

'미화'는 '謎'에 대한 번역이다. '미화'는 '謎話'일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중국어 단어에 '謎語'가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

13) 18~19세기의 필사번역소설들에서는 '人事'가 '남녀간의 일'을 가리키는 뜻으로 자주 쓰였음을 볼 수 있다. '습인은 본디 총명훈 녀지라 나히 또 보옥보다 두 살이 더ᄒ고 근릐의 또 점점 인ᄉ(人事)롤 아는지라<紅樓夢 6:3>'과 같은 예가 이를 잘 보인다.

『朴諺』 이후에 '슈지'가 나타난다. 현대국어의 '수수께끼'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슈지겻기[14]<物譜>'가 참조된다. '슈지'가 무엇인가가 문제시될 수 있다. '슈슈잡기<西廂記 104>, 슈지젓기<紅樓夢 22:88>' 등 다양한 형식을 18, 19세기 필사번역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츄사ᄋᆞ

(1) 「朴諺」 姐姐 ㅣ아 오라 우리 츄사ᄋᆞ ᄒᆞ쟈 <中 49a>
「朴新」 각시아 오라 우리 ᄒᆞᆫ 판 츄사ᄋᆞ ᄒᆞ쟈 <2:54a>

'츄사ᄋᆞ'의 내적 구성이 문제이다. 원문에는 '㪊碁'라 되어 있다. '츄'는 '楸'(가래나무 추)일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紋楸棋局 바둑판<新字典 3:43>'이 참조된다. '사ᄋᆞ' 쪽은 좀더 단서를 잡기 쉬운데 그것은 '骰子 사ᄋᆞ<漢淸文鑑 9:16>'의 존재 때문이다. 이 '사ᄋᆞ'에서 '사ᄋᆞ>사ᄋᆡ>사외>사위' 정도의 변화를 거쳐 현대국어 '주사위'의 '사위'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骰'에 대해서는 '骰 쇄ᄉᆞ 투<訓蒙字會 中 9>'가 참조되는데 이로써 '사ᄋᆞ'가 '쇄ᄉᆞ'에서 온 말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15]

♣ ᄒᆞᆫ 벌, ᄒᆞᆫ 부; 후시, 슬갑

(1) 「飜朴」 내 요ᄉᆞ시예 구윗 브리신 일로 나가노니 ᄆᆞᄉᆞᆷ 됴ᄒᆞ신 누의님하 네 나를 후시 ᄒᆞᆫ 볼 ᄆᆡᇰᄀᆞ라 다고려 <上 47a>
「朴諺」 내 요ᄉᆞ이 差使로 나가니 ᄆᆞ옴 됴흔 각시아 네 날을 ᄒᆞᆫ 부 슬갑을 ᄆᆡᆫᄃᆞ라 주고려 <上 43a>

---

14) '겻기'는 '꾀어 부르다'라는 뜻의 '겻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5) '쇄ᄉᆞ'는 瑣子인 듯하다. 그런데 '瑣'의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솽'이다. 한편 '주사위'를 '骰子'라고도 한다.

「朴新」 내 요ᄉᆞ이 差使ㅣ 이셔 나가니 ᄆᆞᄋᆞᆷ 됴흔 각시아 네 나ᄅᆞᆯ ᄀᆞᄅᆞ차 ᄒᆞᆫ불 슬갑을 ᄆᆡᆼ그라 주고려 <1:45b>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에는 많은 단위어들이 쓰이는데 '불, 부'도 그 중의 하나이다. 위의 예에서는 단위어 '一副'를 『飜朴』에서 'ᄒᆞᆫ 불'로 번역하다가 다시 『朴諺』에서는 ᄒᆞᆫ 부로 다시 『朴新』에서는 'ᄒᆞᆫ 불'로 번역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護膝'에 대해 『飜朴』에서는 '후시' 『朴諺』과 『朴新』에서는 '슬갑'이라 번역하고 있다. '슬갑'은 '겨울에 추위를 막기 위해 무릎까지 오게 입는 옷'이다. '후시'는 '護膝'에 대한 좌·우측 한자음 '후/후; 싱/시'에 근접한 형식을 보인다. '슬갑'은 '膝甲'으로 여기서 '후시'라는 차용어가 다른 한자어 '슬갑'에 의해 대체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양자 모두 한자가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 공부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에 나타나는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보통 원문의 '工課'에 대응하여 '학습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공부'와 원문의 '功夫'에 대응되어 '겨를, 여가'의 뜻을 가지는 '공부'가 그것이다.

첫 번째 '공부'에 대해 살펴보자.

(1)

ㄱ. 「飜老」 네 ᄆᆡ일 므슴 이력 ᄒᆞᄂᆞ다 <上 2b>

「老諺」, 「平老諺」 네 每日 므슴 공부 ᄒᆞᄂᆞ다 <上 2b>, <上 2b>

「老新」 네 每日 ᄒᆞᄂᆞᆫ 거시 므슴 공부고 <上 3a>

「淸老」 네 날마다 므어슬 工夫ᄒᆞᄂᆞ다 <1:3a>

「蒙老」 네 날마다 무어술 공부ᄒᆞᄂᆞᆫ다 <1:3a>
「重老」 네 每日 므슴 공부 ᄒᆞᄂᆞ뇨 <上 2b>

ㄴ. 「飜老」 글 사김ᄒᆞ기 ᄆᆞᆺ고 ᄯᅩ 므슴 공부 ᄒᆞᄂᆞ뇨 <上 3b>
「老諺」, 「平老諺」 글 니ᄅᆞ기를 ᄆᆞᆺ고 ᄯᅩ 므슴 공부 ᄒᆞᄂᆞ뇨 <上 3a>,
<上 3a>
「老新」 글을 講ᄒᆞᆫ 후에 ᄯᅩ 므슴 공부 ᄒᆞᄂᆞ뇨 <上 4a>
「淸老」 글 강ᄒᆞ여 ᄆᆞᆺ고 다시 므어슬 공부ᄒᆞᄂᆞᆫ다 <1:4a>
「蒙老」 글닑기 ᄆᆞᆺᄎᆞᆫ 후에 ᄯᅩ 무서슬 공부ᄒᆞᄂᆞᆫ다 <1:4a>
「重老」 글을 講ᄒᆞᆫ 후에 ᄯᅩ 므슴 공부 ᄒᆞᄂᆞ뇨 <上 3a>

ㄷ. 「飜朴」 네 날마다 므슴 이력ᄒᆞᄂᆞᆫ다 <上 49b>
「朴諺」 네 매일에 므슴 공부ᄒᆞᄂᆞᆫ다 <上 44b>
「朴新」 네 매일에 므슴 공부ᄒᆞᄂᆞᆫ다 <1:48a>

『飜老』와 『飜朴』에는 '이력'[16]이 등장하지만 이에 대응되는 『老諺』, 『朴諺』 이후의 어휘로는 '공부'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원문의 '工果'에 대응된다.

한편 '틈, 여가'의 뜻을 가지는 '공부'는 보통 원문의 '功夫'에 대응된다[(2)].

(2)
ㄱ. 「飜老」 내 밧바 겨를 어더 가디 몯ᄒᆞ리로다 네 보라 가라 네 언멋 공부를 머믈우료 <上 67b>
「老諺」 내 밧바 결을 어더 가디 못ᄒᆞ리로다 네 보라 가라 네 언머 공부ᄅᆞᆯ 머므로료 <上 61a>
「平老諺」 내 밧바 결을 어더 가지 못ᄒᆞ리로다 네 보라 가라 네 언마 功夫ᄅᆞᆯ 머므로료 <上 61a>

16) '이력'은 원래 불교용어로 일련의 경전 과목을 배운다는 뜻의 어휘이다.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내 밧바 네게 벗지어 갈 겨를 업스니 네 혼자 보라 가라 내 져긔 가셔 집을 보는 거슨 오히려 젹은 일이라 <4:24a>

「蒙老」 내 밧바 겨를 업서 가지 못ᄒᆞ니 네 보라 가라 네 밧부나 언마 더듸리 <4:16b>

「重老」 나는 밧바 갈 겨를이 업스니 네 손조 보라 가라 네 언머 겨를을 그릇치리오 <上 61b-62a>

ㄴ. 「朴諺」 내 네 농장에 가고져 호ᄃᆡ 工夫를 엇디 못ᄒᆞ여 가디 못ᄒᆞ노라 <中 43a>

「朴新」 내 네 농장집의 가고져 호ᄃᆡ 工夫를 엇디 못ᄒᆞ여 가지 못ᄒᆞ노라 <2:48b>

ㄷ. 「朴諺」 小子 ㅣ 요ᄉᆞ이 드르니 고려로셔 온 秀才 잇다 ᄒᆞ여늘 ᄃᆡ롤 ᄎᆞ자 글을 論ᄒᆞ노라 이런 젼ᄎᆞ로 工夫롤 엇디 못ᄒᆞ여 拜望을 궐ᄒᆞ니 득죄득죄ᄒᆞ여라 <下 56b>

「朴新」 소제 요ᄉᆞ이 드르니 ᄒᆞᆫ 고려로셔 온 秀才 잇다 ᄒᆞ매 내 가 ᄃᆡ를 ᄎᆞ자 글을 講論ᄒᆞ니 이런 젼ᄎᆞ로 결을을 엇지 못ᄒᆞ여 拜望홈을 결ᄒᆞ니 죄롤 엇괘라 <3:54b>

(2ㄱ)처럼 『重老』에서 '겨를'로 대체되기도 하고 (2ㄱ)의 『平老諺』의 '功夫'와 같이 한자가 노출된 어휘가 쓰이기도 한다. 특이한 것은 (2ㄴ)에서는 『朴諺』과 『朴新』의 원문과 언해문에서 '功夫'가 기대될 곳에 '工夫'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응되는 『飜朴』의 예가 없기 때문에 『飜朴』에서부터 바뀐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원문이나 언해에서나 모두 '功夫'가 고수되는 『老乞大』의 언해본과 차이를 보인다.

4.3. 부사류

♣ 즉재, ㄱ장곰, 시방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
ㄱ. 「朴諺」 내 날호여 ㄱ장곰 긔걸ᄒᆞ마 <下 13a>
「朴新」 내 날호여 다시 너를 긔걸ᄒᆞ마 <3:13a>

ㄴ. 「飜老」 이런 젼ᄎᆞ로 우리도 즉재 밧고와다가 즉재 먹ᄂᆞ니 어듸 밧괴일 ᄊᆞ리 이시리오 <上 53a>
「老諺」, 「平老諺」 이런 젼ᄎᆞ로 우리도 ㄱ장곰 밧고아 ㄱ장곰 먹으니 어ᄃᆡ 밧괴일 ᄡᆞᆯ이 이시리오 <上 47b-48a>, <上 47b-48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우리도 밧고와 먹어 이 녁 목숨을 지내기도 부족ᄒᆞ거든 ᄯᅩ 어ᄃᆡ 사ᄅᆞᆷ의게 밧고와 줄 ᄊᆞᆫ ᄡᆞᆯ이 이시리오 <4:2b>
「蒙老」 그러모로 우리 오히려 밧고와 먹으니 엇지 밧골 ᄡᆞᆯ이 이시리오 <3:20b>
「重老」 그러므로 우리 다 시방 밧고와 시방 먹으니 어ᄃᆡ 밧괴일 ᄊᆞᄉᆞ 이시리오 <上 48b-49a>

『老朴集覽』의 '旋'에 대한 주석에는 '즉시'라는 뜻풀이가 나타나 있지 않다. '平聲回也斡也又疾也又셩녕마초다做'가 참조된다. 그런데 통상 '旋' 자체에는 '도로, 돌아 혹은 오래지 않아, 즉시'의 뜻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1ㄱ)의 『朴通事』의 언해본들을 참조하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朴諺』에서 'ㄱ장곰'은 '旋'에 대한 번역인데 기원적으로 'ㄱ장곰'은 'ㄱ장(부사) + 곰(보조사)'의 내적 구성을 가졌던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朴諺』에서는 이 ‘ᄌᆞ곰’이 ‘날회여’와 공기하는 것으로 보아 ‘즉시’의 의미일 수는 없다. ‘다시’ 내지 ‘도로’의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에 대응되는 『朴新』의 원문에는 ‘旋’ 대신 ‘再’가 쓰였고 또 번역도 ‘다시’로 되어 있어 『朴諺』의 ‘ᄌᆞ곰’이 ‘다시’ 정도의 의미일 것임을 뒷받침한다. 『老朴集覽』의 ‘旋’에 대한 주석 내용과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1ㄴ)의 『老乞大』 언해본들의 번역 양상은 이와 대비된다. ‘旋’에 대한 ‘즉재’라는 『飜老』의 번역은 『老諺』에서 ‘ᄌᆞ곰’으로 바뀌는데 여기서는 ‘즉재’와 ‘ᄌᆞ곰’ 모두 ‘즉시’ 정도의 의미로 쓰인 듯하다. 이는 ‘ᄌᆞ곰’이 ‘즉시, 도로(다시)’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경우이든 현대국어의 ‘가끔’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는 의미가 아닐 수 없다. 『老乞大』의 언해본들에서는 『老朴集覽』의, ‘旋’에 대한 주석으로 명시되지 않은 용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이믜셔, ᄒᆞᆷᄭᅴ

‘이믜셔’와 ‘ᄒᆞᆷᄭᅴ’의 용법에 주의해 가며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1)

ㄱ. 「飜老」 사ᄅᆞᆷ 머글 거슨 안직 져그나 잇거니와 이 ᄆᆞᆯ돌ᄒᆞᆫ ᄯᅩ 엇디ᄒᆞ려뇨 이믜셔 져기 딥과 콩을 논힐훠 주디 엇더ᄒᆞ고 <上 55b>

「老諺」, 「平老諺」 사ᄅᆞᆷ 머글 써슨 아직 져기 잇거니와 이 ᄆᆞᆯ돌ᄒᆞᆯ ᄯᅩ 엇디ᄒᆞ려뇨 ᄒᆞᆷᄭᅴ 져기 딥과 콩을 논일워 줌이 엇더ᄒᆞ뇨 <上 50a>, <上 50a>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사ᄅᆞᆷ 먹을 거슨 젹이 이시나 이 ᄆᆞᆯ을 엇지ᄒᆞ리오 집과 콩을 줌이 엇더ᄒᆞ뇨 <4:6b>

「蒙老」 사ᄅᆞᆷ 먹을 ᄡᅥ슨 아직 져기 이시나 ᄯᅩ 이 ᄆᆞᆯ을 엇지ᄒᆞ리 져기 집과 콩을 주미 엇더ᄒᆞ뇨 <4:1a>

「重老」 사ᄅᆞᆷ 먹을 ᄡᅥ슨 비록 이시나 이 ᄆᆞᆯ을 ᄯᅩ 엇지ᄒᆞ리오 ᄒᆞᆫ번에 져기 집과 콩을 ᄑᆞ라 져ᄅᆞᆯ 먹이미 엇더ᄒᆞ뇨 <上 51a>

ㄴ. 「飜老」 이러면 ᄅᆡ실 店에 너 ᄎᆞ자 가셔 이믜셔 아ᄉᆞᆷ돌 조쳐 ᄒᆞᆫᄃᆡ셔 ᄒᆞᆫ두 잔 수을 머고리라 <下 7a>

「老諺」, 「平老諺」 이러면 ᄂᆡ일 이믜셔 店에 너ᄅᆞᆯ ᄎᆞ자 가셔 ᄒᆞᆷᄢᅴ 뎌 권당들과 ᄒᆞᆫᄃᆡ셔 ᄒᆞᆫ두 잔 먹쟈 <下 6ab>, <下 6a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清老」 이러ᄒᆞ면 ᄂᆡ일 너ᄅᆞᆯ ᄎᆞ자 점에 가셔 져 친쳑과 ᄒᆞᆫ 두잔 술을 먹쟈 <5:11a>

「蒙老」 이러면 ᄂᆡ일 너ᄅᆞᆯ ᄎᆞ자 점에 가셔 져 권당과 ᄒᆞᆫ가지로 ᄒᆞᆫ 두 잔 술을 먹쟈 <5:9a>

「重老」 이믜 이러면 ᄂᆡ일 곳 店에 너ᄅᆞᆯ ᄎᆞᄌᆞ라 가 ᄒᆞᆷᄢᅴ 네 권당들과 ᄒᆞᆫ가지로 ᄒᆞᆫ두 잔 술을 먹쟈 <下 7a>

ㄷ. 「飜老」 나도 이 여러 ᄆᆞᆯ ᄑᆞᆯ라 가며 이 ᄆᆞᆯ 우희 시ᄅᆞᆫ 아니한 모시뵈도 이믜셔 ᄑᆞᆯ오져 ᄒᆞ야 가노라 <上 8ab>

「老諺」, 「平老諺」 나도 이 여러 ᄆᆞᆯ ᄑᆞᆯ라 가며 이 ᄆᆞᆯ께 실은 져근 모시뵈도 이믜셔 ᄑᆞᆯ고져 ᄒᆞ여 가노라 <上 7b>, <上 7b>

「老新」 나도 가 이 여러 ᄆᆞᆯ을 ᄑᆞᆯ려 ᄒᆞ고 이 ᄆᆞᆯ께 시ᄅᆞᆫ 져기 여러 모시뵈도 ᄒᆞᆷᄢᅴ ᄑᆞᆯ려 ᄒᆞ니 <上 10ab>

「清老」 우리 이 모라 가져 가ᄂᆞᆫ ᄆᆞᆯ과 ᄆᆞᆯ께 시ᄅᆞᆫ 모시 뵈도 ᄑᆞᆯ거시라 <1:10b-11a>

「蒙老」 내 ᄯᅩᄒᆞᆫ 이 여러 ᄆᆞᆯ ᄑᆞᆯ라 가며 이 ᄆᆞᆯ께 시ᄅᆞᆫ 모시 뵈도 ᄒᆞᆷᄢᅴ ᄑᆞᆯ고져 ᄒᆞ노라 <1:11b>

「重老」 나도 가 이 여러 ᄆᆞᆯ을 ᄑᆞᆯ려 ᄒᆞ고 이 ᄆᆞᆯ께 시ᄅᆞᆫ 약간 모시뵈도 ᄒᆞᆷᄢᅴ ᄑᆞᆯ려 ᄒᆞᄂᆞᆫ 거시니 <上 7b-8a>

ㄹ. 「飜老」 이믜셔 쟝 조쳐 가져오라 <上 40b-41a>

「老諺」　이믜셔 져기 쟝 가져오라 <上 36b-37a>
「平老諺」 이믜셔 젹이 쟝 가져오라 <上 36b-37a>
「老新」　醬 가져오라 직어 먹쟈 <上 51ab>
「重老」　醬 가져오라 직어 먹쟈 <上 36b-37b>

ㅁ. 「飜老」　내 이믜셔 음양ᄒᆞ야 가고져 ᄒᆞ노라 <下 70b>
「老諺」　내 임의셔 음양ᄒᆞ여 가고져 ᄒᆞ노라 <下 63b>
「平老諺」 내 임의셔 음양ᄒᆞ여 가고져 ᄒᆞ노라 <下 63b>
「老新」　〔해당 문장 빠짐〕
「淸老」　우리 죠흔 날을 ᄀᆞᆯ히여 도라 가쟈 <8:19b>
「蒙老」　우리 됴흔 날을 ᄀᆞᆯ회여 도라 가쟈 <8:19a>
「重老」　우리 죠흔 날을 ᄀᆞᆯ히여 도라가려 ᄒᆞ니 곳 가 ᄒᆞᆫ 卦ᄅᆞᆯ 무르미 엇더ᄒᆞ뇨 <下 65b>

(1ㄱ)의 '이믜셔<飜老 上 55b>'는 '一發'에 대한 번역으로 쓰였지만 『老諺』과 『平老諺』에서는 'ᄒᆞᆷᄭᅴ'로 바뀌어 번역된다. 그런데 『老朴集覽』의 '一發'에 대한 주석에는 '이믜셔'와 'ᄒᆞᆷᄭᅴ'가 함께 등재되어 있다. 여기서 한가지 사실을 알게 된다. '一發'에는 '이믜셔'와 'ᄒᆞᆷᄭᅴ'라는 뜻이 함께 있지만 위의 문맥에서는 '이믜셔'보다는 'ᄒᆞᆷᄭᅴ'라는 뜻이 문맥상 더 잘 어울리는바 『飜老』의 번역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老諺』의 번역자는 이를 수정하여 더 정확한 문맥을 위해 'ᄒᆞᆷᄭᅴ'라는 번역을 한다. 『重老』의 언해자가 'ᄒᆞᆫ번에'라는 번역을 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1ㄷ)에서는 (1ㄱ, ㄴ)과 같이 '이믜셔'가 'ᄒᆞᆷᄭᅴ'로 수정되긴 하였으나 『老新』에 가서야 수정됨을 볼 수 있다. 다른 용례들에서 보이는 '이믜셔'는 '곧', '장차'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이 책의 집필은 시대별로 『老乞大』, 『朴通事』 언해본 각각의 문헌들이 보이는 국어학적 특징과 언해 양상의 특징을 수평적으로 혹은 수직적으로 비교 · 대조하여 언해본 『老乞大』, 『朴通事』의 異本들이 반영하고 있는 국어의 통시적 변화와 번역 양상의 추이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기술하여 근대국어라는 국어사의 한 단계를 체계적으로 조망해 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애초에 『老乞大』, 『朴通事』의 언해본이라는 자료에 주목한 것은 이들 문헌의 이본에 대해서는 비교적 동질적인 텍스트 원문을 근거로 세기마다 언해가 새로이 이루어져 이들을 연구함으로써 기존의 근대국어 연구의 대상 자료가 가졌던 자료의 이질성이라는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 논의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1. 자료적 성격

2장에서는 형태서지적 사항을 포함하여 『老乞大』, 『朴通事』 언해본의 자료적 성격에 대해 논의하였다. 2.1.에서는 『老乞大』의 언해본들에 관해 논의하였다. 2.1.1.에서는 '老北京' 등의 예를 고려할 때 '老乞大'의 書名을 '진정한 중국인' 혹은 '중국토박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飜譯老乞大』의 한어 원문 중 원대 한어의 흔적을 보이는 부분이 『老乞大新釋諺解』 이후에는 그 모습을 바꾸었음을 살펴보았다.

2.1.2.에서는 『老乞大』 언해본 각 이본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飜譯老乞大』에는 오자, 혹은 잘못 언해되거나 어색하게 언해된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고 이와 함께 이들 오자나 잘못 언해된 부분들이 『老乞大諺解』에서는 올바로 수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老乞大諺解』의 언해자들이 『飜譯老乞大』를 참조한 채 언해를 행하긴 하였으나 『飜譯老乞大』의 언해 양상을 그대로 묵수하지만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 『老乞大諺解』의 우측 한자음의 일부가 수정되었음을 살펴보았다. 『平壤版 老乞大諺解』에 대해서는 이 책의 간행에 임금이 관여했다는 점, 그리고 平壤에서 간행된 이유로 平壤이 역관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었음을 밝혔다. 전대본에 비해 'ㄴ' 첨가 어형이 많으며 한자음 注音 중 좌측음이 수정된 『平壤版 老乞大諺解』는 『老乞大諺解』와 언해 양상이 아주 유사하지만 언해자들이 그들의 판단으로 전대본인 『老乞大諺解』의 언해를 수정해야 할 곳이라고 판단한 곳에서는 과감한 수정을 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老乞大新釋諺解』는 최근 새로이 소개된 책으로 전대본에서 수정되지 못했던 우측음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 실용적 편이가 도모되었

고 원고의 작성에 중국 현지의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또 存羊之義로서 전대본인 『平壤版 老乞大諺解』의 우측 한자음과 원문을 재수록하기도 하였다. 정조대의 문헌인 『重刊老乞大諺解』는 전대본인 『老乞大新釋諺解』의 다소 과격한 원문의 개수와 언해 양상의 수정을 지나친 것으로 판단하여 『平壤版 老乞大諺解』의 원문과 언해 양상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한편 전대본의 원문과 언해 양상 어느 쪽도 따르지 않은 채 『重刊老乞大諺解』 독자적인 원문의 개수와 언해 양상의 수정을 행하기도 하여 新·舊의 조화를 꾀한 책임을 알 수 있었다. 중국 땅에 淸나라가 이미 발흥하였음에도 漢語는 공식적인 외교 언어로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2.1.3.에서는 『老乞大』 원문 및 언해 양상의 비교를 행하였는데 (ㄱ) 『飜老』·『老諺』·『平老諺』(A)의 원문이 『老新』(B)에서 바뀌었다가 다시 『飜老』·『老諺』·『平老諺』(A)의 원문으로 『重老』(C)에서 회귀한 경우, (ㄴ) 『飜老』·『老諺』·『平老諺』(A)의 원문과 『老新』(B)의 원문은 동일하지만 『重老』(C)의 원문이 다른 경우, (ㄷ) 『飜老』·『老諺』·『平老諺』(A)의 원문이 『老新』(B)의 원문에서 바뀌고 이것이 『重老』(C)의 원문에서도 유지된 경우, (ㄹ) 삼자(A, B, C)의 원문이 모두 상이한 경우, (ㅁ) 삼자(A, B, C)의 원문이 동일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중 (ㄱ)과 같은 경우에는 그에 영향 받은 언해도 원문의 양상과 동궤의 회귀를 보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ㄴ)과 같은 유형은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듯하지만 실제 찾아보면 잘 찾아지지 않았다. 이는 『老乞大新釋諺解』에서 『平壤版 老乞大諺解』의 원문과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인 곳에 대해서는 이후 『重刊老乞大諺解』에서도 아무런 수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 언어 상황을 중시한

『老乞大新釋諺解』의 언어 감각으로도 수용 가능하였던 『平壤版 老乞大諺解』의 원문과 언해 양상이라면 『老乞大新釋諺解』의 時俗에 따른 번역 양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한 축의 간행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重刊老乞大諺解』로서도 이를 수용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이었음을 알 수 있다. (ㄷ)의 빈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러한 유형은 『老乞大新釋諺解』의 전대본 원문에 대한 새로운 개수를 『重刊老乞大諺解』가 수용한 예이다. 이밖에 (ㄹ)과 (ㅁ) 유형의 경우도 있는데 (ㅁ)은 상당한 빈도가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老乞大新釋諺解』의 원문과 번역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급격히 달라져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원문의 개수가 언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등을 원문 어말 조사의 개수 용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번역자들의 번역 태도 차이 때문에 언해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특히 잘못 언해된 부분에 대해 수정을 행한 곳을 포함해 번역자들의 태도 차에 의해서 언해 양상이 달라지는 경우 등이 흥미로웠다. 종래 『平壤版 老乞大諺解』의 언해 양상은 『老乞大諺解』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平壤版 老乞大諺解』 역시 언해자들이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이에 수정을 행하는 등 상당히 공을 들여 번역한 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老乞大』 언해본의 이본에서는 희망 표현과 의지 표현, 약속 표현과 청유 표현 등 표면적으로 인접하는 의미 범주를 형성하는 표현들이 서로 넘나드는 관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시기가 내려올수록 우리말에 의해 번역하는 경향은 줄어들고 한자어의 빈도가 높아지며 한자 노출의 경향이 심해짐도 주지의 사실이다. 또 【보조자료】로 채택한 『淸語老乞大』와 『蒙語老乞大』의 경우 한어 직역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인지 한어를 번역한 언해본들과 어순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이 종종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平壤版 老乞大諺解』와 언해 양상에 있어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되겠지만 일련의 사실들로부터 이들 책이 『老乞大新釋諺解』 이전의 개수되지 않은 한어 원문을 淸語와 蒙語로 번역한 책을 언해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2.2.에서는 『朴通事』의 언해본에 대해 논의하였다. 2.2.1.에서는 '朴通事'란 '우리나라 성씨인 '朴氏'성을 가진 通譯官'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음을 밝히고 『飜譯朴通事』의 원문에 나타난 원대 한어적 요소가 후대본들에는 제거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2.2.2.에서는 『朴通事』의 언해본 이본 각각에 대해 살펴보았다. 『飜譯朴通事』의 언해문에는 잘못 언해된 부분이 심심찮게 있으며 이것이 『朴通事諺解』에서는 올바로 수정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우측의 한자음 일부에 대해서도 수정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老乞大』 언해본의 경우와는 달리 언해자들의 의도적 수정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주지하다시피 『朴通事諺解』를 간행할 때 『飜譯朴通事』를 참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朴通事新釋諺解』에 대해서는 현재 전해지는 책이 애초에 金昌祚가 간행에 관여했던 원간의 책이 아니고 『重刊老乞大諺解』가 간행되었던 시기에 다시 간행된 책임을 밝혔다. 원문 내용과 번역이 전대본에 비해 매우 새로워진 책으로 전대본에 비해 한자음 좌측음이 일신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2.2.3.에서는 『朴通事』의 언해본의 원문 및 언해 양상의 비교를 행하였다. 언해본 『朴通事』의 異本들을 비교할 때에는 앞에서 『老乞大』의 언해본들을 비교해서 얻은 결과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老乞大』의 언해본들에 비해 『朴通事』의 언해본들 간에는 유사성과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특히 『朴通事諺解』의 언해자들이 『飜譯朴通事』를 참조하지 않은 까닭에 두 책

의 언해 내용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朴通事新釋諺解』의 원문 개수의 폭과 내용도 『老乞大新釋諺解』의 그것에 비해 매우 큰 편이다. 그래서 원문의 개수시 언해가 영향을 받은 경우와 안 받은 경우 등을 굳이 구분해야 할 의의가 줄어든다.

『飜譯朴通事』와 『朴通事諺解』만을 비교해 보아도 동일한 원문에 대해 구절 끊음을 달리 한 부분, 완전히 문장의 종류를 달리 하여 언해한 부분 등을 꽤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그 빈도는 『飜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를 비교한 결과 얻을 수 있는 빈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왜냐하면 『朴通事諺解』의 언해자는 『飜譯朴通事』를 보지 않은 채 언해를 행했기에 번역시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老乞大諺解』의 언해자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朴通事新釋諺解』의 경우에는 전대본들과 비교시 원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한자 노출 경향 역시 『老乞大』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대본으로 갈수록 그 정도와 빈도가 높아졌다.

『朴通事新釋諺解』에 있어서는 개수된 원문이 새로운 면모를 많이 보이는데 어말 조사가 개수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老乞大』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해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老乞大』 언해본과 마찬가지로 『朴通事』의 언해본 이본에서도 희망 표현과 의지 표현, 약속 표현과 청유 표현 등 표면적으로 인접하는 의미 범주를 형성하는 표현들이 서로 넘나드는 관계를 보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朴通事諺解』는 동시대의 『老乞大諺解』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老朴集覽』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老朴集覽』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老乞大諺解』가 간행된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老朴集覽』의 발견으로 『朴通事諺解』는 그 간행이 가능하였을

만큼 『老朴集覽』과의 관계가 밀접하였다. '朴通事集覽'의 내용이 본문 중에 통합되는 텍스트 구성을 보임이 주목된다.

5.2. 형태 · 통사적 특징의 비교

3장에서는 형태 · 통사적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3.1.에서는 형태적 특징에 대해 비교하였다. 3.1.1.에서는 종결형 '-거다/-어다'의 비교를 행했는데 종결형 어미구조체 '-거다/-어다'가 『重刊老乞大諺解』와 같은 18세기 후반 문헌에도 출현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출현 양상이 문헌의 의고적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구체적인 예를 근거로 밝히는 동시에 『淸語老乞大』 등의 일부 18세기 이본의 예에서 '-거다/-어다'가 '-엇다'로 대체됨을 살펴보았다. 부정법이 개재된 ':오라'와 같은 어형은 '-엇ᄂᆞ-'가 개재된 '왓노라'로 대체됨을 고려할 때 애초에 '-거다/-어다'가 개재된 어형과 부정법이 개재된 어형의 시제적 의의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또 '-거다/-어다' 등이 개재된 형식의 한어 원문을 살펴보면 문말에 어김없이 '了'가 통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백화문의 문장 말미에서 '了'는 일종의 첨사로서 이것이 통합됨으로써 문장 전체가 '완료'적인 성격을 띠게 됨을 고려할 수 있다. 완료의 본질적 성격은 사태를 기준시점에 관여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거다/-어다' 혹은 그 대체형인 '-엇다'가 개재된 문장으로부터 현대국어에서 '었'이 포함된 문장들 중 다분히 완료적 해석을 허용하는 예들의 기원을 알 수 있게 된다. '-거다/-어다'가 현현하는 기준시점 관여성이라는 의미로부터 '-거다/-어다'가 감동법의 범주와 연관성을 가지는 이유도 알 수 있다. 화자의 의식 지평에 두드러진 사태, 혹은 그로 인해 초래되는 변화된 상황을 언표화한다는

점에서 '-거다/-어다'와 감동법이 실현시키는 대상은 공통점을 가짐을 알 수 있다.

3.1.2.에서는 연결형 어미구조체 '-거니', '-거든', '-면'의 비교를 다루었는데 이들의 세력 분포가 후대 이본들로 갈수록 일정한 경향을 띠어 감을 알 수 있었다. 일단 '-거니'가 쓰인 문맥을 살펴보면 수사의문문의 문맥이나 비수사의문문의 문맥이나 모두 일관되게 이미 일어난 사태이거나 그것의 결과가 발화시에 유효한 경우로 화자가 판단한 경우에 '-거니'가 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일어난 사태, 혹은 그 사태의 결과가 지속되어 사태의 발화시 당시의 관여성이 추출될 때 '-거든'도 함께 쓰일 수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후대 이본들로 갈수록 이러한 문맥에서 '-거든'이 '-거니'를 대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맥에서 '-거든'만이 '-거니'를 대체한 것은 아니었다. '-면'도 '-거니'를 대체하는데 오히려 '-면'이 '-거니'를 대체한 경우의 빈도가 '-거든'이 '-거니'를 대체한 경우의 빈도보다 훨씬 빈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면'은 '-거든'을 대체하는 양상도 보이는데 특히 발화시 이후의 사태에 대해 '-거든'이 통합되는 경우, 현실적 습관적 사태에 '-거든'이 통합되는 경우 등의 문맥에서 '-면'이 '-거든'을 대체해 나갔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면'은 전 문맥에 걸쳐 통시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여기에는 '-면'이 이미 15세기부터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상적 상황에 대한 조건의 문맥 및 현실적·습관적 사태의 문맥 등 전 문맥에 걸쳐 두루 쓰일 수 있었던 무표적인 성격을 가진 조건의 연결어미였던 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3.2.에서는 통사적 특징의 비교를 행하였다. 3.2.1.에서는 인용문에 대한 비교를 행하였다. 『老乞大』, 『朴通事』 언해본의 인용문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어 온 현상 중의 하나는 『老乞大諺解』와 『朴通事

諺解』에서는 초간본들에 비해 피인용문에 'ᄒᆞ-'가 후치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17세기 이후의 이본들에서도 일관된 경향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으며 역의 용례가 나타나는 경우도 거의 없음을 관찰할 수 있다. 또 일련의 내적화법 구문에서 보이는 교체 현상은 흥미로운 양상을 보인다. 직접화법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어미구조체 '-오리라'는 '-오마'로 교체를 보이기도 하는데 특히 간접화법으로 전환될 때에는 늘 '-오려'로 교체를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오리라', '-오마'와 교체를 보이는 '-오려'가 '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려'에서 유지되는 '오'는 명백히 직접화법적인 발화, 즉 피인용문 화자의 관점이 현현된 것이지 피인용문과 상위문 전체를 발화하는 화자의 관점이 현현된 것이 아니다. '-오려'가 포함된 문장은 간접화법적인 문장이다. 그러나 '-오려'의 '-오-'는 직접화법적인 발화의 표지 즉, 피인용문 화자의 관점이 반영된 표지인 것이다. 이는 '-오려-' 포함 문장이 간접화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화법적인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음을 보인다.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중세국어 인용문의 성격이 근대국어 시기에도 유효함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으로 '구실표현'이라 일컬어지는 'ᄒᆞ노라 ᄒᆞ야'와 같은 형식이 있다. 'ᄒᆞ노라 ᄒᆞ야'의 '노라'에 포함되어 있는 '오' 역시 본질적으로는 1인칭화자 주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구실표현 전체를 발화하는 화자가 'ᄒᆞ노라'가 지시하는 행동 주체의 관점을 고려한 상태에서 그 행동 주체와 관련된 사태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구체적인 예를 중심으로 인용문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 그 유형을 정리하였다.

3.2.2.에서는 'ᄒᆞ야'가 개재된 장형사동문에 대해 살펴보았다. 『老

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들의 비교에 있어 가장 주목되어 온 사실들 중 하나는 장형사동문에서,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ᄒᆞ여'가 개재된 장형사동구문에서 '올~로'와 같이 교체를 보이면서 피사동주에 통합되던 격조사가 『老乞大諺解』와 『朴通事諺解』 이후 '-로'로 굳어지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점이었다. 역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용례가 없을 뿐 아니라 애초에 『飜譯老乞大』·『飜譯朴通事』에서부터 격조사가 생략되어 나타났던 용례는 『老乞大諺解』·『朴通事諺解』에서 격조사가 보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예외 없이 '-로'가 보충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임을 주목할 수 있다. 이들과 대응되는 한어 원문의 특징 중 하나는 원문에 '使'가 나타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확연히 구분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ᄒᆞ여'가 개재된 대부분의 장형사동문의 경우 한어 원문에 '敎'와 '着'이 압도적으로 쓰였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使'는 '브리-'와 같이 그 자체가 사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어간에 연결어미 '-어'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브려-' 등의 형식에 대응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밖에 'ᄒᆞ여' 개재 장형사동문은 기원적으로 연결어미 '-어'에 의해 선행문장과 후행문장이 통합된 구조로부터 출발한 구문이었음을 구체적인 용례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이러한 구조에서 피사동주에 통합되는 격조사가 '-로'로 굳어짐은 'ᄒᆞ여'에 의한 격지배 현상이 조격을 지배하는 쪽으로 굳어져 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2.3.에서는 명령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老乞大』와 『朴通事』의 초간본에서 유독 매우 특이한 유형의 명령형 어미가 등장함을 볼 수 있었다. '-오더여'의 형식이 새로이 등장하는 것이다. '-과더여(과뎌)'에서 '-거-'가 빠진 형식이 '-오더여'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거'가 빠진 형식만이 나타나는지 알 수 없다. 특히 17세기 간행의 왜학서 『捷解新語』의 몇몇 예들은 '-거-'가 그대로 통합된 채 나타남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捷解新語』의 예들은 '-오더여'가 아닌 '-과댜'(과더여)가 명령문의 문맥에 쓰임을 보이는데 이후 간행된 『改修 捷解新語』에는 '과댜'가 대부분 'ᄒᆞ쇼셔'체에 대응하는 명령형으로 개수되어 있다.

그런데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로는 '-과뎌'류 외에 '-오려, -고져' 등이 있었다. 의도법의 범주로 묶이기도 했던 이러한 일련의 어미 중 '-과뎌'만이 종결어미화의 변화를 입게 된 것은 이미 15세기부터 '-오려, -고져' 등의 어미가 '-과뎌'와는 본질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어미였다는 사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상위문과 하위문 주어의 동일지시성 여부에 대해 차이를 보이는데 모문의 주어와 비동일지시적인 주어를 포함하는 '-과뎌' 통합 절은 원초적으로 모문에 대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기에 명령형 종결어미로의 쓰임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일부 문맥에서 내포문의 소망형 어미가 명령형 어미와 같은 종결어미로 기능하기 시작했던 현상은 내포문의 간접의문문 어미로 쓰였던 '-ㄴ가'가 근대 이후 직접의문문의 어미로 기능하기 시작했던 현상을 상기시킨다. 두 현상을 어느 정도 평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많은데 두 현상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 중 하나는 논의 대상인 두 어미가 원래 내포문의 어미였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3.2.4.에서는 의문문의 비교를 행하였는데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 초간본에 나타나는 의문문들은 그 15세기 이후의 변화 양상을 잘 보인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ㄴ고', '-ㄴ가' 의문문의 약진이다. 그런데 '-ㄴ고', '-ㄴ가'는 15세기와 16세기 교체기에 그 영역을 확장하기는 하였으나 제한된 문맥에서만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15세기라면 '-냐, -뇨'가 등장할 3인칭의문문의 문맥에서만 주로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

인칭 의문문에 쓰였던 '-ㄴ다'의 세력이 다소 쇠퇴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ㄴ다'의 영역은 '-ㄴ가'에 의해서는 침범되지 않았다. 대신 '-ㄴ다'의 영역은 주로 '-ㄴ가' 때문에 일정한 문맥에서 그 세력을 빼앗긴 '-냐, -뇨'에 의해 메워진다. 여기서 15세기에서 16세기 교체기에 이루어진 의문형어미의 세력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연쇄적인 성격을 띠었음을 알 수 있다. '-ㄴ가'가 3인칭 의문문의 문맥에서 '-냐 -뇨'의 영역을 침범했고 이렇게 3인칭 의문의 영역을 침범당한 '-냐 -뇨'는 2인칭 의문형어미 '-ㄴ다'의 영역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전자의 변화가 15세기에 이미 3인칭 의문문을 중심으로 보이고 16세기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본 초간본에서는 압도적인 양상을 보임과, 후자의 변화가 『老乞大』, 『朴通事』의 언해본 초간본에서는 몇몇 예에서만 보이다가 『老乞大諺解』과 『朴通事諺解』 이후 특히 18세기 이본들을 중심으로 확대 양상을 보임을 참조할 수 있다.

자료를 관찰하다보면 '-ㄴ다'와 같은 의문어미의 경우 등을 중심으로 『老乞大』의 언해본과 『朴通事』의 언해본에 나타나는 의문문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老乞大』의 이본들에서는 중간본의 번역이 다 전대본들을 참조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ㄴ다'와 같은 경우 상당히 후대본들에서까지 그 모습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朴通事』의 이본들에서는 『朴通事諺解』의 번역이 초간본을 참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간본의 '-ㄴ다'가 『朴通事諺解』에서 유지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덜한 경우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ㄴ다'는 18세기 이본들을 중심으로 꽤 많이 출현한다. 보수성의 현현으로만 볼 수 없게 하는 많은 자료들이 이 어미의 끈질긴 생산성을 뒷받침한다.

『老乞大』와 『朴通事』 언해본의 이본들에는 기존의 의문문과는 그

형식과 성격을 달리하는 '-이여'에 의한 의문문들도 많이 등장한다. 『重刊老乞大諺解』에까지 '-이여'에 의한 의문문이 나타남은 '-이여'의 생산성이 꽤 오래 지속되었음을 보인다. 대체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과 '-이여'에 의한 의문문이 대응되는 것은 '-이여'에 의한 의문문의 성격이 판정의문문의 성격보다는 설명의문문의 성격을 띤다는 것을 보여 준다. 대체로 설명의문문에 나타나는 어미와 첨사의 계열이 '고'나 '오'계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형태적으로 '어/아'계열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 '이여'에 의한 의문문이 설명의문문의 성격을 띤다는 점은 다소 의외라 할 수 있다. '-이여'에 의한 의문문에 대응하는 한어 원문에는 의문사적 요소가 없음이 참조된다.

이 밖에 후대본들로 갈수록 수사의문문의 어미가 '-리오'로 고정되는 경향 등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의미 : 형식=1 : 1'의 대응 방식을 고수하려는 화자의 심리적 경향을 반영하는 현상이라 설명하기도 하였다.

3.2.5.에서는 의사타진구문에 대해 다루었다. 이 구문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15~16세기 주로 'VP-오디 엇더ᄒᆞ뇨'로 나타났던 구문이 17세기 이래 'VP-오미 엇더ᄒᆞ뇨'로 출현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老乞大諺解』나 『朴通事諺解』 이후 'VP-오미 엇더ᄒᆞ뇨'로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역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단 한 예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老乞大』의 異本 중 『平壤版 老乞大諺解』는 통상 『老乞大諺解』와 언해 양상이 거의 일치하는 상황을 보이는데 유독 의사타진구문에 있어 『飜譯老乞大』의 'VP-오디 엇더ᄒᆞ뇨'가 『老乞大諺解』에서 그대로 묵수되는 일부 예에 있어서는 『平壤版 老乞大諺解』가 『老乞大諺解』의 언해를 굳이 'VP-오미 엇더ᄒᆞ뇨'로 고쳐놓았음을 볼 수 있다. 『平壤版 老乞大諺解』의 언해자들이 『老乞大諺解』의 언해 'VP-오디

엇더ᄒᆞ뇨'를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고 수정을 행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17세기 이후 'VP-오ᄃᆡ 엇더ᄒᆞ뇨'는 더 이상 생산적으로 출현하던 구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자리가 'VP-오미 엇더ᄒᆞ뇨'에 의해 메워졌다고 볼 수 있어서 언급한 구문의 유형 변화를 번역자들의 상이한 번역 취향에 의한 변이 현상이라 볼 근거가 전혀 없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16세기 『飜譯老乞大』와 『飜譯朴通事』에서도 이미 'VP-오미 엇더ᄒᆞ뇨'가 등장함을 볼 수 있다. 구문의 유형 변화가 갑작스러운 것만은 아님을 보인다. 애초에 이러한 교체를 보였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사타진구문 'VP-오ᄃᆡ 엇더ᄒᆞ뇨'의 '엇더ᄒᆞ뇨'는 의문형용사이고 'VP-오ᄃᆡ'는 이러한 의문형용사의 직접적인 언급대상이 된다. 'VP-오ᄃᆡ'가 서술어인 형용사의 언급대상이 된다는 것은 전체 문장 내에서 'VP-오ᄃᆡ'가 주제어적인 성격을 가짐을 뜻한다. 처격 표현, 가정 표현 등의 부사절이 주제어로 기능하는 언어가 다수 발견된다는 언어유형론적인 증거도 참조될 수 있다. 'VP-오ᄃᆡ'가 일부 가정·조건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어미가 이끄는 절과 교체를 보인다는 점도 주목된다.

'모든 조건은 주제다.'라는 Haiman(1978)의 명제를 고려할 때 조건절과 교체되는 'VP-오ᄃᆡ'가 전체 문장에서 주제어적 성격을 띰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런데 형용사문에서는 다른 어느 구문에서보다도 주제어와 주어가 비슷해지는 형국이 이루어진다. 동사문에서는 주어가 동작의 주체가 됨으로써 주제어와 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형용사문에서는 주제어와 주어가 화자의 심리적 대상이 되어 서술어인 형용사의 언급대상이 되므로 주제어와 주어가 비슷해지는 형국을 이루는 것이다. 'VP-오ᄃᆡ 엇더ᄒᆞ뇨'와 'VP-오미 엇더ᄒᆞ뇨'가 애초에 교체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렇게 의사타진구문 자체가 형용사문이기

에 주제어와 주어가 비슷해질 수 있었던 구조적 상황이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교체를 보이던 이 두 가지 구문 유형은 17세기 이래 'VP-오미 엇더ᄒᆞ뇨' 쪽으로 굳어진다. 이러한 구문 유형의 변화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VP-오디 엇더ᄒᆞ뇨'라는 구문 유형의 소멸로 초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화자의 선택에 의한 문체적 변화로 해석할 수도 있다. 'VP-오미 엇더ᄒᆞ뇨'는 이후 '오'의 소멸 등을 거쳐 『淸語老乞大』등에서 '-ㄴ 거시 엇더ᄒᆞ뇨'와 같은 유형으로 현대적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다.

3.2.6.에서는 시간경과구문의 비교를 행하였다. 텍스트가 부여하는 일정한 기준시점 이전부터 그 기준시점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상황의 전개를 '-거/어-'가 통합된 '-ㄴ#디'의 구성으로 표현하되 후행 요소로 구체적인 양화표현을 수반하여 어떠한 사태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지속되는 상황을 구체적인 시간표현으로 나타낸 구문이 바로 시간경과구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거/어-'가 '-ㄴ#디' 구성에 개재되는 것은 전체 구문이 획득하는 '시간경과'라는 의미 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8세기 이본들에서도 이 시간경과구문에 '-거/어-'가 개재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보이는 '-거/어-'의 기능은 종결형의 어미구조체 '-거다/-어다'에서 보이는 '-거/어-'의 기능과 관련지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3. 어휘의 비교

4장에서는 어휘의 비교를 행하였다. 지금까지 집중적인 조명을 받지 못했던 어휘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되 어휘 하나 하나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본들마다 보이는 어휘간의 차이에 주목하고 그들간의 비

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로 개별 어휘가 쓰인 문맥을 중심으로 어휘의 의미를 추적하는 방법을 택하되 번역문과 그와 비교되는 원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작업 중에 기존의 논의에서 잘못 해석된 것으로 보이는 몇몇 어휘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가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老朴集覽』에 등재된 어휘와 그 해설을 참조하였다. 또 차용어 등의 어휘에 대해서는 그 어휘의 원문 한자에 달린 한자음 등에 주목하여 차용의 하한을 살펴볼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老乞大』 언해본의 어휘에 대해 풀리지 않는 미궁의 문제를 『朴通事』 언해본의 어휘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해결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로써 어휘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도 『老乞大』의 언해본과 『朴通事』의 언해본을 상호보완하여 연구할 때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헌을 다루는 연구가 출발부터 가지는 한계는 대상 자료가 가지는 모든 국면의 특징을 다 다룰 수는 없다는 데 있다. 본고의 논의도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 다룰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저자 자신의 잣대가 다른 어느 경우보다 주관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다루어질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능한 한 기존의 논의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어졌거나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사안에 관해서는 가급적 논의를 배제하였다. 이에 이미 논의된 사안이라도 아직 기술이 미진하거나 지금까지의 해석과는 다소 상이한 해석을 가할 수 있는 현상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려고 노력하였다. 또 가능한 한 현상에 대한 기술과 기술된 현상에 대한 설명을 동일한 비중으로 행하려고 노력하였다. 자료를 해석할 때에는 경험적으로 입증된 범언어적 현상에 관한 논의들을 많이 참조하였다.

이 책에서 다룬 『老乞大』, 『朴通事』 언해본의 이본은 비교적 동일한 한어 원문을 세기별로 언해한 자료들로서 자료 자체의 성격이 매우 균질적이다. 이렇게 한정적이되 균질적인 자료를 다룸으로써 얻는 이득은, 한정적이되 균질적인 자료를 다룸으로써 가지는 한계나, 방대하되 균질적이지 못한 자료들을 다룸으로써 저지를 수 있는 오류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근대국어의 연구대상이 되는 자료의 대부분이 그 성격이 들쭉날쭉하여 자료에 반영된 국어사적 사실을 관찰하고 이를 올바로 해석해 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본고의 시도는 어느 정도 의의 있는 작업이 되었으리라 감히 생각해 본다. 앞으로 이 책이 『老乞大』, 『朴通事』 언해본의 이본 자체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더 나아가 문헌 연구에 기반을 둔 국어사 연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참고 문헌

강신항(1973), 『四聲通解 研究』, 신아사.

———(1982), 『國語學史』, 보성문화사.

———(1985), 『李朝時代 譯學政策과 譯學者』, 탑출판사.

———(2000), 『韓國의 譯學』, 서울대 출판부.

강인선(1977), "15세기 국어의 인용구조 연구", 서울대 언어학과 석사학위논문.

고대민족문화연구소(1989), 中韓辭典, 고대민족문화연구소.

고영근(1965), "現代國語의 敍法體系에 對한-先語末語尾의 것을 中心으로", 국어연구 15.

———(1978), "형태소의 분석 한계", 언어학 3.

———(1980), "중세어의 어미 활용에 나타나는 '거/어'의 교체에 대하여", 국어학 9.

———(1981), 『中世國語의 時相과 敍法』, 탑출판사.

———(1982), "敍述性語尾와 冠形詞形語尾의 關聯性에 관한 研究", 관악어문연구 7.

———(1985), "형태자질과 통사구조의 상관성에 대하여", 역사언어학, 전예원.

———(1986), "서법과 양태의 상관관계",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198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개정판, 1997, 집문당)

———(1989), 『국어형태론 연구』, 서울대 출판부.(개정판, 1999, 서울대 출판부)

———(1991), "불연속형태에 대한 논의",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1995ㄱ), 『단어 · 문장 · 텍스트』, 한국문화사.

———(1995ㄴ), "중세어의 동사형태부에 나타나는 모음동화",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고영근 · 남기심(1985),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고영진(1997),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 국학자료원.

고창운(1995), 『서술씨끝의 문법과 의미』, 박이정.

국립국어연구원편(1996),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1(중세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997),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근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998),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국어사연구회편(1997), 『國語史硏究』, 태학사.
국어사자료연구회편(1995), 『譯註 飜譯老乞大』, 태학사.
國語硏究會 編(1990), 『國語硏究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1993), 『國語史 자료와 國語學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권재일(1982), "어미체계와 통사 기술", 언어학 5.
——(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1994), 『한국어 문법의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1996), "문법 형태소의 소멸과 생성", 한국어 토씨와 씨끝의 연구사(김승곤 엮음), 박이정.
——(1998), 『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기주연(1986), "老乞大의 諺解上 比較考察", 숭실어문(숭실대) 3.
김광해(1989),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현상』, 탑출판사.
김동소(1998),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김문웅(1980), "불완전명사의 어미화", 국어교육논지 7(대구교대).
——(1984), 『重刊老乞大諺解 解題』, 重刊老乞大諺解(영인본), 홍문각.
——(1986), 『十五世紀 諺解書의 口訣 硏究』, 형설출판사.
——(1987), "근대국어 문법형태의 변천-노걸대언해와 중간노걸대언해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어학과 알타이어학.
김민수(1954), "국어문법의 유형", 국어국문학 10.
——(1971), 『국어문법론』, 일조각(중판, 1992).
김방한(1986), "역사언어학에 있어서의 '설명'", 한글 192.
김사엽(1959), "朴通事上 解題", 경북대 대학원 국어국문학연구실.
김상대(1985), 『中世國語 口訣文의 國語學的 硏究』, 한신문화사.
김석득(1967), "국어 형태론", 연세논총 4.
김승곤 편(1996), 『한국어 토씨와 씨끝의 연구사』, 박이정.
김영욱(1989), "중세국어 원칙법 '-니-'와 둘째 설명법 어미 '-니라'의 설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관악어문연구 14.
——(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 박이정.
김영진(1996), "국어사 연구 방법", 용운언어 4, 대전대학교.
김영희(1981), "간접 명사 보문법과 '하'의 의미기능", 한글 173-174.
——(1984), "'하다': 그 대동사설의 허실", 배달말 9.
——(1998), 『한국어 통사론을 위한 논의』, 한국문화사.

김완진(1957), "-n, -l 動名詞의 形態論的 機能과 發達에 대하여", 국어연구 2.
———(1975), "飜譯朴通事와 朴通事諺解의 비교연구", 동양학 5.
———(1976), 『老乞大의 언해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연구원.
———(1992), 『重刊老乞大諺解의 硏究』, 한국문화 13,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김원석(1990), "朴通事諺解와 朴通事新釋諺解의 비교연구", 경북대 석사학위 논문.
김일근(1986), 『언간의 연구』, 건국대 출판부.
김일웅(1987), "월의 분류와 특징", 한글 198.
김정수(1984), 『17세기 한국말의 높임법과 그 15세기로부터의 변천』, 정음사.
———(1986), "16세기 전반기 한국말의 느낌법과 그 15세기로부터의 변천", 한글 194.
김정아(1985), "15세기 국어의 '-ㄴ가' 의문문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4.
김종규(1989), 『중세국어 모음의 연결제약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90.
김형철(1997), 『개화기 국어 연구』, 경남대 출판부.
김훈태(1999), "근대국어의 '-게-'구문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홍수(1990), "내면 인용 구문의 해석", 주시경학보 6.
나진석(1958), "의문형 어미고", 한글 123.
남광우(1972), "飜譯老乞大 解題", 중앙대학교 대학원.
남기심 편(1994), "국어 연결어미의 쓰임", 서광학술자료사.
남기심(1973),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계명대 출판부.
———(1986), "'이형태'의 상보적 분포와 통사적 구성", 한글 193.
남풍현(1977), "국어 부정법의 발달", 문법연구 3, 탑출판사.
리득춘(1992), "'로박 언해'의 중국어 차용어와 그 연혁", 한글 215.
리의도(1990), 『우리말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어문각.
리의도(1996), "마침법 씨끝 분류의 연구사", 한국어 토씨와 씨끝의 연구사, 박이정.
민영규(1964), "老乞大辯疑", 인문과학(연세대) 12.
민현식(1991), 『국어의 시상과 시간부사』, 개문사.
박금자(1994), "15세기 불경언해의 협주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박병채(1989), 『국어발달사』, 세영사.
박영준(1994), 『명령문의 국어사적 연구』, 국학자료원.
박태권(1974), "노걸대언해 연구", 부산대논문집 18.

———(1980), "번역노걸대의 물음씨끝 연구", 언어연구(부산대) 3.
———(1984), "번역노걸대의 가리킴말에 대한 연구", 어문교육논집(부산대) 8.
박희룡(1988), "老乞大의 諺解의 飜譯에 대한 比較硏究", 국어연구 82.
방종현(1946a), "老乞大諺解", 한글 11-2.
———(1946b), "老乞大諺解의 影印原本과 校訂本과의 比較", 한글 11-3.
서상규(1991), "16세기 국어의 정도어찌씨에 관한 연구-번역노걸대를 중심으로", 국어의 이해와 인식(갈음 김석득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1992), 『노걸대언해와 중간노걸대언해의 부사 대조 색인』, Area and Culture Studies, 동경외국어대학교.
서정목(1987), 『국어 의문문 연구』, 탑출판사
———(1993), "국어 경어법의 변천", 한국어문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정수(1990), "국어의 서법 체계에 관하여-문말서법을 중심으로-", 강신항교수 회갑기념국어학논문집, 태학사.
———(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 나무.
서태룡(1979), "내포와 접속", 국어학 8.
———(1982), "국어의 조건과 주제", 성심여대 논문집 13.
———(1984), "동명사와 부동사의 의미론적 대립", 성심여대논문집 16.
———(1985ㄱ), "정동사어미의 형태론", 진단학보 60(이병근 외편(1993), 「형태」에 재수록)
———(1985ㄴ), "국어의 명령형에 대하여", 국어학 14.
———(1986ㄱ), "부동사의 연결과 정동사의 종결", 성심여대논문집 18.
———(1986ㄴ), "정동사 어미의 의미 특성", 성심어문논집 9(성심여대 국문과).
———(1988),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탑출판사.
———(1989), "국어 활용어미의 체계화 방법", 애산학보 8.
———(1990), "활용어미",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1991), "국어의 어미와 통사규칙",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1997), "어말어미의 변화", 國語史硏究, 태학사.
석주연(1996), "중세국어 원순성동화 현상에 대한 일고찰", 관악어문연구 21.
———(1998), "노걸대류 박통사류 이본들의 '-거/어-'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3.
———(1999), "百聯抄解의 이본에 관한 비교 연구", 규장각 22.

———(2000), "重刊老乞大諺解", 정조대의 한글문헌, 문헌과 해석사.
———(2001), "언어사용자의 관점에서 본 중세국어 관형사형의 '오' 소멸", 형태론 3-1.
———(2001), "국어형용사의 어휘사", 한국어 의미학 9.
———(2001), "대영도서관 소장 국어사 자료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29.
———(2002), "중세국어 인용문과 선어말어미 '오'", 형태론 4-1.
———(2003), "伍倫全備諺解의 국어학적 연구", 진단학보 96.
성백인(1999), 『만주어와 알타이어학 연구』, 태학사.
송기중(1990), "한학서에 등장하는 중국어의 가치", 국어학논문집(강신항교수회갑기념논총집), 문학과지성사.
송 민(1997), "국어사의 시대 구분", 國語史硏究, 태학사.
송철의(1993), "언어 변화와 언어의 화석",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안병희(1967), "문법사-한국어 발달사 中", 한국문화사대계 V,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73), "중세국어 연구자료의 성격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9.1.
———(1977), 『중세국어 구결의 연구』, 일지사.
———(1979), "중세국어의 한글자료에 대한 종합적 고찰", 규장각 3.
———(1982), "국어사자료의 서명과 권책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7.
———(1987), 『어학편, 韓國學 기초 자료 선집: 고대편』,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92ㄱ), 『國語史 硏究』, 문학과 지성사.
———(1992ㄴ), 『國語史 資料 硏究』, 문학과 지성사.
———(1996), "老乞大와 그 諺解本의 異本", 인문논총 35, 서울대 인문학 연구소.
안병희 · 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양오진(1998), "노걸대 박통사 연구-한어문에 보이는 어휘와 문법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주동(1965/1990), 『증정고가연구』, 일조각.
여찬영(1987), "경서류 언해의 번역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금자(1978),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의 비교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왕문용(1989), "'飜朴'과 '朴諺'의 사이시옷", 이용주교수회갑기념논문집, 한샘.
유동석(1993), "국어의 매개변인문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창돈(1961), 『국어변천사』, 통문관

———(1964), 『이조 국어사 연구』, 선명문화사.
이기갑(1981), "씨끝 '-아'와 '-고'의 역사적 교체", 어학연구 17-2.
이기문(1959/1978), 『16세기 국어의 연구』, 탑출판사.
———(1964), "'몽어노걸대' 연구", 진단학보 25 · 26 · 27.
———(1967), "蒙學書硏究의 기본문제", 진단학보 31.
———(1972/1998), 『新訂版 國語史 槪說』, 태학사.
———(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1994), "國語史 硏究의 反省", 國語學 24.
이기문 · 장소원(1994), 『國語史』,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기백(1981), "국어 어미의 사적 연구 (I)", 어문논총 15.
이병근 외편(1993), 『형태』, 태학사.
이상복(1983), "한국어의 인용문 연구", 국어의 통사·의미론(고영근 · 남기심 편), 탑출판사.
이숭녕(1961/1981), 『중세국어문법(개정)』, 을유문화사.
이승욱(1963), "의문첨사고-특히 그 대립 의식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6.
———(1971), "18世紀 國語의 形態論的 考察-老乞大類의 國語 關係 資料를 中心으로 하여", 동양학 1.
———(1973), 『국어 문법 체계의 사적 연구』, 일조각.
———(1977), "문법사의 몇 문제", 국어학 5.
———(1997), 『국어 형태사 연구』, 태학사.
이승희(1996ㄱ), "중세국어 감동법 연구", 국어연구 139.
———(1996ㄴ), "중세국어 '-ㄴ다'계 어미의 소멸 원인, 관악어문연구 21.
이은경(1996),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이익섭(1991),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 출판부.
이주행(1988), 『한국어 의존명사의 통시적 연구』, 한샘
———(1989), "국어 어미의 의미 (I)", 제효이용주박사회갑기념논문집, 한샘.
이지양(1993), "국어의 융합현상과 융합형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태영(1988),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한신문화사.
이필영(1986), "호격 및 감탄조사에 대한 연구",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1992), "현대국어의 인용구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이현규(1995), 『국어 형태 변화의 원리』, 영남대 출판부.
이현희 · 강석중 · 이종묵 · 이호권(1997ㄱ), 『杜詩와 杜詩諺解 6』, 신구문화사.

이현희 · 강석중 · 이종묵 · 이호권(1997ㄴ), 『杜詩와 杜詩諺解 7』, 신구문화사.
이현희(1982ㄱ), "국어의 의문법에 대한 통시적 연구", 국어연구 52.
———(1982ㄴ), "국어 종결어미의 발달에 대한 관견", 국어학 11
———(1986ㄱ), "중세국어의 용언어간말 '-ᄒᆞ-'의 성격에 대하여",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1986ㄴ), "중세국어 내적화법의 성격", 한신논문집 3.
———(1987), "중세국어 '둗겁-'의 형태론", 진단학보 63.
———(1988ㄱ), "소학의 언해에 대한 비교연구", 한신논문집 5.
———(1988ㄴ), "중세국어의 청원구문과 관련된 몇 문제", 어학연구 24-3.
———(1989), "국어의 문법사 연구 30년(1959~1989)", 국어학 19.
———(1990ㄱ), "중세국어 명사구 확장의 한 유형", 강신항선생회갑기념국어학논문집, 태학사.
———(1990ㄴ), "보문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1991), "중세국어 명사문의 성격",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1994ㄱ), 『中世國語 構文硏究』, 신구문화사.
———(1994ㄴ), "『樂學軌範』의 국어학적 고찰", 진단학보 77.
———(1994ㄷ), "국어 문법사 기술의 몇 문제", 한국어문 2.
———(1994ㄹ),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 15.
———(1994ㅁ), "계사 '(-)이-'에 대한 통시적 고찰", 주시경학보 13.
———(1994ㅂ), "노걸대언해류대비 및 현대어역", 고전작품 역주 · 연구 및 한국근대화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5ㄱ), "국어 문법사 기술의 연속성과 관련된 한두 문제", 서강대국문과 창과 30주년기념 국어학학술대회 발표요지.
———(1995ㄴ), "'-ᅀᅡ'와 '-沙'", 韓日語學論叢, 국학자료원.
———(1999), "'둏다' 구문에 대한 통시적 연구", 震檀學報 제87호.
이호권(1987), "법화경의 언해에 대한 비교연구", 국어연구 78.
———(1998), "석보상절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홍식(1996), "국어문장의 주성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홍빈(1973), "국어의 재귀사 연구", 신구문화사.
———(1983), "동명사 구성의 해석 방법에 대하여", 국어학연구(백영정병욱선생환갑기념논총I), 신구문화사.
———(1985), "국어의 '통사적인' 공범주에 대하여", 어학연구 21-3.

———(1987), "국어의 명사구 확장 규칙에 대하여", 국어학 16.
———(1995), "필사본 한글 간찰의 해독과 문장 분절", 정신문화연구 19-3, 정문연.
임홍빈 · 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장경희(1977), "17세기 국어의 종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사대논총 16.
———(1987), "국어의 완형보절의 해석", 국어학 16.
———(1993), "老乞大 · 朴通事의 諺解本", 국어사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장석진(1989), 『화용론연구』, 탑출판사.
장윤희(1991), "중세국어의 조건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04.
———(1998), "중세국어 종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광현(1971), "18세기 후기 국어의 일고찰", 논문집(전북대) 13.
전철웅(1995), "'청주 북일면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의 판독문", 호서문화연구 13.
정 광(1977), "최세진연구1-노걸대박통사의 번역을 중심으로". 덕성여대논문집 5 · 6.
———(1990), 『朝鮮祖 譯科 試券 硏究』,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0), "'老朴集覽'과 老乞大, 朴通事의 舊本", 진단학보 89.
정광 · 남권희 · 양오진(1999), "元代 漢語 老乞大", 국어학 33.
정승혜(1998ㄱ), "朴通事諺解 서문", 문헌과해석.
———(1998ㄴ), "老乞大新釋 서문" 문헌과해석.
정재영(1992), "통합형 어미 '-ㄴ돈'과 '-ㄴ뎌'에 대한 고찰", 국어학 22.
———(1996), 『依存名詞 '-ᄃᆞ-'의 文法化』, 국어학총서 23, 태학사.
———(1997), "名詞의 文法化", 奎章閣 20, 서울대학교 규장각.
조건상(1981), "해제 및 판독문", 충북대학교박물관, 청주북일면순천김씨묘출토간찰.
주경미(1987), '朴通事' · '老乞大 諺解에 나타난 疑問法의 通時的 硏究, 국어학 27.
최동주(1988), "15세기 국어의 안맺음씨끝 '-더-'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최동주(1989), "국어 '능격성' 논의의 문제점", 주시경학보 3.
———(199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최성호(1987), "현대국어의 안맺음씨끝의 의미 연구-특히 '었'과 '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석사학위 논문.
최전승(1995), 『한국어 방언사 연구』, 태학사.

최현배(1937/1989), 『우리말본(깁고 고침)』, 정음문화사.

韓國精神文化硏究院편(1996), 光復 50周年 國學의 成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동완(1991), "국어의 시제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한재영(1996), 『16세기 국어구문의 연구』, 신구문화사.

허성도(1987), "重刊老乞大에 보이는 中國語 語法에 대한 연구, 東亞文化(서울대) 25.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허원욱(1995), "현대 국어의 인용마디 연구", 건국어문학 19·20 합집, 건국대학교국어국문학연구회.

홍윤표(1985), "朴通事新釋諺解 解題", 홍문각.

———(1993), 『국어사 문헌자료 연구(근대편I)』, 태학사.

———(1994), 『근대국어연구(I)』, 태학사.

———(1976), 『한문문법』, 신아사.

황선엽(1995), "15세기 국어 '-으니'의 용법과 그 기원", 국어연구 135.

楊聯陞(1957), "老乞大朴通事裏的語法語彙", 慶祝趙元任先生六十五歲論文集.

王力(1945), 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

丁邦新(1978), 『老乞大諺解·朴通事諺解影印本刊行序文』,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Bybee, J.(1985), *Morphology*,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Bybee, J., W. Pagliuca and R. Perkins(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ao, Yuen Ren(1968), *A Grammar of Spoken Chines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omrie, Bernard(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Blackwell.

Croft, William(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hl, O.(1985), *Tense and Aspect 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Fleischman, S.(1990), *Tense and Narrativity*, London:Routledge.

Givón, T.(1984), *Syntax I: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0), *Syntax II: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5), *Functionalism and Grammar*,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Haiman, J.(1978), "Conditionals are Topics", *Language* 54.

————(1983), "Iconic and Economic Motivation", *Language* 59.

Harris, Alice C & Lyle Campbell(1995), *Historical Syntax in Cross-linguistic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oper, Paul & Sandra A. Thompson(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

Jaxontov, S. J.(1983), "Resultative in Chinese", *Typology of Resultative Construction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Kuno, S. and E. Kaburaki(1977), "Empathy and Syntax", *Linguistic Inquiry* 8.4.

Levinson, S. C.(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 Charles N. & Sandra A. Thompson(1976), *Subject and Topics*, New York Academic Press.

————(1981), *Mandarin Chinese: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chahter, J.(1971), "Presupposition and Counterfactual Sentences", Ph.D. dissertation, UCLA.

Song, Ki-Joong(1978), "Mong O Yuhae－Categorial Explanation of Mongolian Languag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Inner Asian and Altaic Studies, Harvard University.

Thompson, S. A. & R. E. Longacre(1985), "Adverbial clauses",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Ⅱ, Cambridge University Press.

Van Valin Robert D. & Randy J. LaPolla(1997),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석주연

- 서울 출생.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1993).
-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1995).
-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2001).
- 서울대학교, 명지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런던대학교(SOAS) 등 강사 역임.
- 현재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부 강사.

저서 및 논문

『重刊老乞大諺解』(2000).
『언어사용자의 관점에서 본 중세국어 관형사형의 '오' 소멸』(2001).
『국어형용사의 어휘사』(2001).
『대영도서관 소장 국어사 자료에 대하여』(2001).
『중세국어 인용문과 선어말어미 '오'』(2002).
『伍倫全備諺解의 국어학적 연구』(2003).

노걸대와 박통사의 언어

초판 1쇄 인쇄 ---------- 2003년 12월 29일
초판 1쇄 발행 ---------- 2003년 12월 31일

지은이 ---------- 석주연
펴낸이 ---------- 지현구
펴낸곳 ---------- 태학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57-42
전화 : (02) 584-1740
전송 : (02) 584-1730
등록 제22-1455호
전자우편 : thaehak4@chollian.net

ISBN 89-7626-888-1 94710
ISBN 89-7626-147-X (세트)

값 17,000원

※ 이 책은 지은이와의 협의하에 인지를 생략합니다.
※ 잘못된 책은 구입한 곳이나 본사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國語學 叢書 目錄

① 李崇寧	(근간)
② 姜信抗	한국의 운서
③ 李基文	國語音韻史硏究
④ 金完鎭	中世國語聲調의 硏究
⑤ 鄭然粲	慶尙道方言聲調硏究
⑥ 安秉禧	(근간)
⑦ 남기심	국어완형보문법 연구
⑧ 宋 敏	前期近代國語 音韻論硏究
⑨ Ramsey, S. R.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⑩ 蔡 琬	國語 語順의 硏究
⑪ 이기갑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⑫ 李珖鎬	國語 格助詞 '을/를'의 硏究
⑬ 徐泰龍	國語活用語尾의 形態와 意味
⑭ 李南淳	國語의 不定格과 格標識 省略
⑮ 金興洙	현대국어 심리동사 구문 연구
⑯ 金光海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현상
⑰ 李丞宰	高麗時代의 吏讀
⑱ 宋喆儀	國語의 派生語形成 硏究
⑲ 白斗鉉	嶺南 文獻語의 音韻史 硏究
⑳ 郭忠求	咸北 六鎭方言의 音韻論
㉑ 김창섭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㉒ 이지양	국어의 융합현상
㉓ 鄭在永	依存名詞 'ᄃᆞ'의 文法化
㉔ 韓東完	國語의 時制 硏究
㉕ 鄭承喆	濟州道方言의 通時音韻論
㉖ 김주필	구개음화의 통시성과 역동성 (근간)
㉗ 최동주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 (근간)
㉘ 신지연	국어 지시용언 연구
㉙ 權仁瀚	조선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㉚ 구본관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國語學 叢書 目錄

㉛ 이은경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㉜ 배주채	고흥방언 음운론
㉝ 양명희	현대국어 대용어에 대한 연구
㉞ 문금현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㉟ 황문환	16, 17세기 언간의 상대경어법
㊱ 남윤진	현대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㊲ 임동훈	한국어 어미 '-시'의 문법
㊳ 김경아	국어의 음운표시와 음운과정
㊴ 李浩權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
㊵ 이정복	국어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특성
㊶ 장윤희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㊷ 신선경	'있다'의 어휘 의미와 통사
㊸ 신승용	음운 변화의 원인과 과정
㊹ 양정호	동명사 구성의 '-오-' 연구
㊺ 최형용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㊻ 채현식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㊼ 석주연	노걸대와 박통사의 언어